

東 面 誌

조 치 원 문 화 원

發 刊 辭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집대성한 동면지(東面誌)를 발간하여 우리 생활의 참모습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됨을 面民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고장 東面은 금강과 미호천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와 낮은 구릉이 발달되어 선사시대 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살던 유서깊은 지역으로 고을마다 先人들이 남긴 아름다운 전설이 있고 기슭마다 忠孝를 기리는 유적이 많은 의향(義鄉)입니다.

존경하는 面民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과 터전과 뿌리에 대한 성찰 보다는 외래 문물을 숭상하는 생각과 행동을 알게 모르게 해왔습니다.

문화의 뿌리는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 고유의 삶의 가치와 정신의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東面誌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고유 정신문화 창달의 계기가 되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문헌이나 각종자료가 불충분함에도 면재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빠짐없이 답사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面民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 12

조치원 문화원장 장 영

祝 刊 辭



우리고장 東面은 참으로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景德王 때부터 燕山(燕山文義)郡의 領縣에 속했었다.

八峯山을 사이에 하고 지금은 忠北과 境界를 이루고 錦江을 경계로한 이지역은 李朝前만 하더라도 部落形成이 늦어졌던 곳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많은 재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忠臣, 孝子, 孝婦가 많이 나왔으며 독립투사가 묻혀있는 조상들의 빛난 얼을 되새기고 찬란한 향토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고장으로 금번 동면지를 發刊하여 훌륭한 향토유산을 전승 보전케 되었음은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또한 지방문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본 東面誌의 發刊으로 연기 실상을 이해 할 수 있는 향토사 연구자료로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빈약한 자료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면지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조치원문화원을 비롯하여 추진위원 및 편찬위원과 동면지역 조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1996. 12

연기군수 홍 순 규

激 勵 辭



『人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라는 옛 名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祖上들이 悠久하게 創造하고 가꾸어온 所重한 歷史的 文化遺産을 모으고, 東面의 文化를 한 데 모아 本誌를 發刊하게 된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매우 多幸스럽고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地方自治時代에 地域住民 스스로 熱과 魂, 精神을 담고 값지게 地方文化를 일구어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보람된 일이라 할 것이며 우리의 後孫들에게 새로운 文化暢達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일일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東面도 우리 祖上들의 所重한 歷史的 價値를 가꾸고 保存하는데 다소 疏忽했던 것도 사실이며 이에 反省을 해봅니다.

本誌의 發刊을 契機로 묻혀있는 祖上의 숨은 열과 슬기를 再照明하여 祖上님들께 感謝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앞으로 後孫들이 鄉土愛를 가지고 내 故場 發展을 위해 獻身, 奉仕하는 契機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本誌를 發刊하는데 애써주신 張英 조치원문화원장님을 비롯 金在鵬 推進委員長 및 推進委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1996. 12

燕岐郡議會 副議長 張 來 悅

激 勵 辭



해 떠오르는 동편, 우리 東面은 큰 물줄기인 미호천과 금강이 合流하여 合江을 이루고 넓은 平野가 만들어져 穀倉地帶가 이루어진 人心 좋고 豊饒로운 고장입니다.

이제 祖上대대로 發展시켜온 우리 地方 文化遺産을 集大成하여 東面郷土誌를 發刊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 고을마다 所重하게 간직하여온 郷土文化를 發掘하여 우리 祖上の 값진 努力을 再照明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本誌 發刊이 더욱 意味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地域特性的 옛 情趣와 祖上들의 빛난 열을 高揚하고 우리 後孫들이 郷土愛와 새로운 文化暢達을 위해 끊임없이 研究 努力하여 찬란한 郷土文化 遺産을 傳承, 保存하는 일이 現時代에 사는 우리들의 責務가 아닌가 다짐해 봅니다.

또한, 地域文化가 發展해야 國家文化가 發展되는 것이라 생각되오며 本誌 發刊을 契機로 하여 다가오는 21세기 文化競爭時代에 우리 地域文化暢達에 전 住民이 새로운 覺悟로 奮發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갖게 됩니다.

끝으로 貧弱한 資料와 짧은 準備期間 등 어려운 與件하에서도 우리 東面 郷土誌를 發刊하는데 勞心焦思 애써주신 張英 조치원문화원장님을 비롯 金在鵬 推進委員長님과 推進委員, 編纂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眞心으로 感謝 드립니다.

1996. 12

東面面長 金 學 賢

화 보



〈동면사무소〉



〈동면지서〉

화 보-기관



〈동면농협〉



〈우체국〉

화 보-학교



<연동중학교>



<연동초등학교>



<연흥초등학교>

화 보-기업체



〈국정교과서〉



〈삼성전기〉



〈농공단지〉

화 보-내판리



<全景>



<양세고부정려>



<효자 김백렴 정려>

화 보 - 문주리



〈全景〉

화 보-용호리



〈全景〉



〈효자 임양문 정려〉



〈동진나루〉

화 보-합강리



<全景>



<합호서원>



<채만형 효자비>

화 보-명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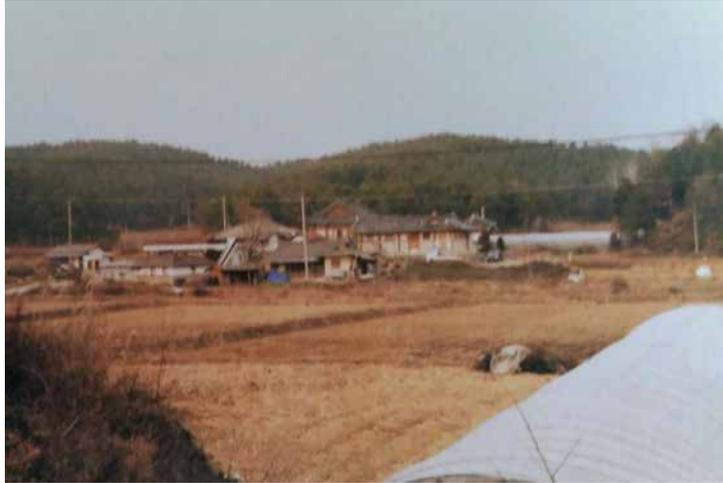


〈全景〉



〈홍보신도비〉

화 보-응암리



〈全景〉



〈김경여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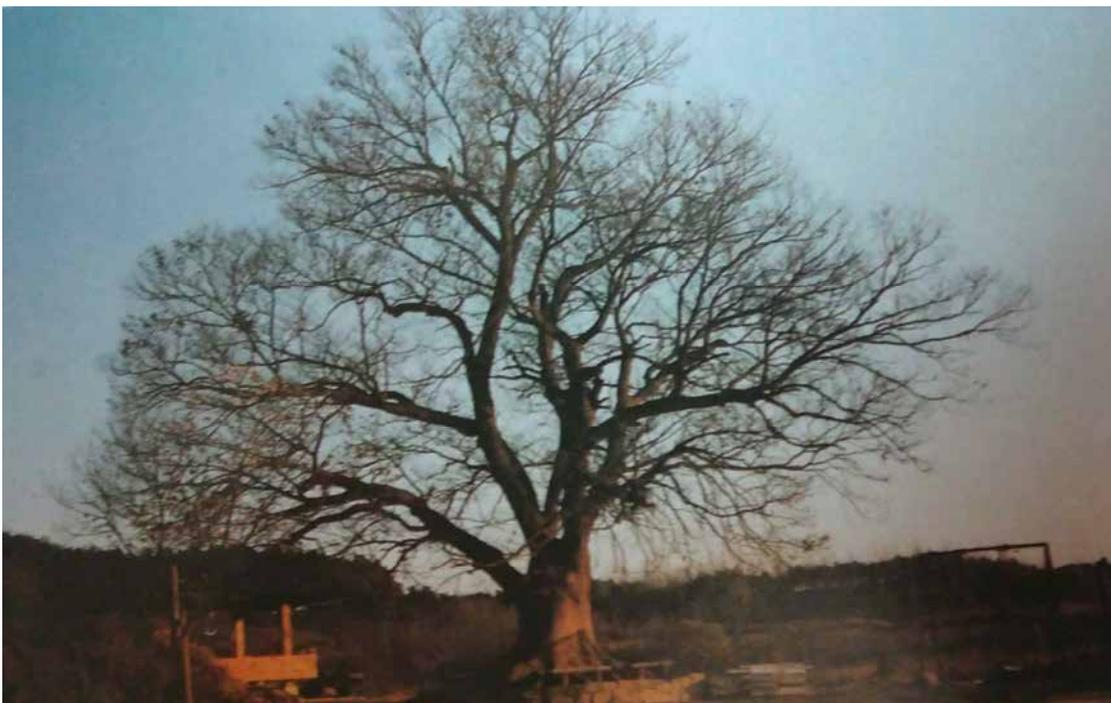


〈광산김씨열녀문〉

화 보-노송리



〈全景〉



〈노티나무〉

화 보-노송리



〈남근석〉



〈漢陽趙氏孝烈門〉

화 보-예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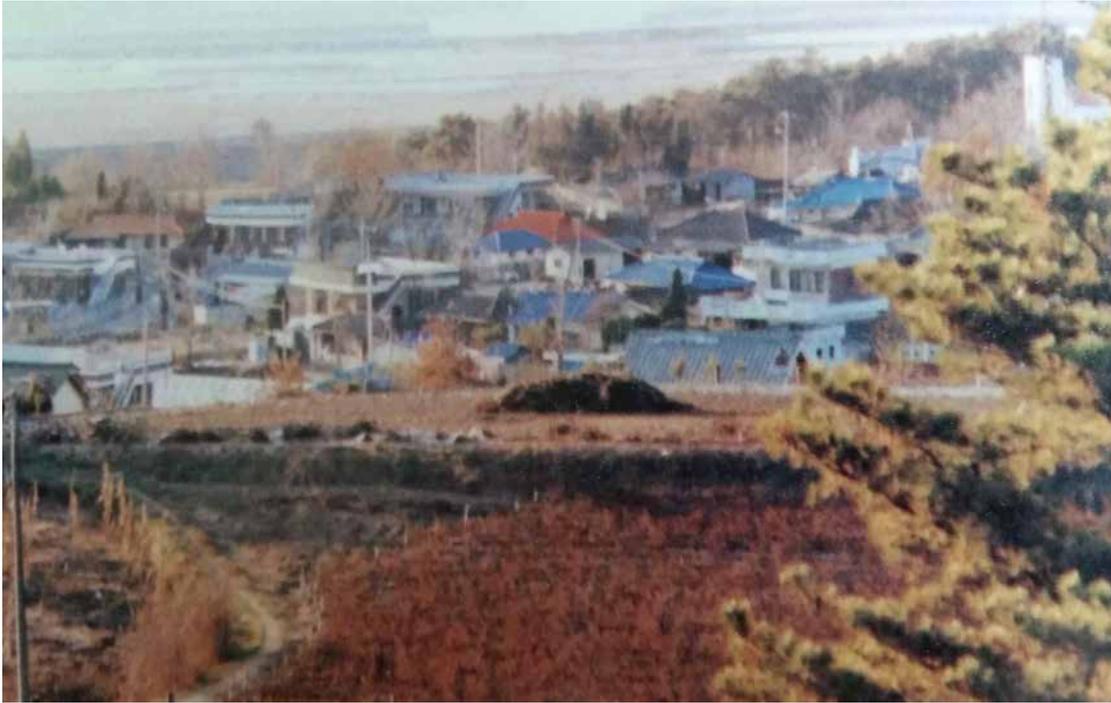


<全景>



<오충신정려>

화 보-송용리



<全景>



<육영재>

화 보-송용리



<지석묘>



<언양김씨열녀문>

제1편 역사편 (歷史篇)

1. 연기군의 건치연혁 (建置沿革)	33
2. 연기군 동면의 연혁 (沿革)	45
3. 조선시대(朝鮮時代)와 그 이전의 동면	50
진도(津渡)/52 산천(山川)/54 봉수(烽燧)/57 역(驛)과 원(院)/58 제언(堤堰)/61 창고(倉庫)/63 조적/64 시장(市場)/65 풍속(風俗)/66 진공(進貢)/67 고적(古蹟)/68 정(亭)/69 관청과 공서(公署)/70 선생안(先生案), 관원안(官員案)/71 문묘(文廟)/72 단(壇), 려단(厲壇)/75 서원(書院)/76 재(齋)/78 성지/79	
4. 일제하의 연기군과 동면	85
관공서(官公署)/90 회사및 단체/116 금융업(金融業)/110 소방조/112 농잡업과 부업의 장려/113 하천공사/115 사방공사, 임업/118 의료기관, 대서소, 언론계/119 일본신사, 사찰, 신도교/120 기독교, 천주교/121	
5. 해방이후의 동면(東面).....	122
(1)위치와 관내도/129 (2)행정구역/130 (3)상주인구/131 (4)기관별 공무원수/133 (5)종교 및 문화/135	
◇.연기농지개량조합.....	151
◇.내관우체국.....	154

목 차

◇.동면농업협동조합.....	162
◇.연동새마을금고.....	172
◇.삼성전기(주) 사업장 소개.....	174
◇.기업체현황.....	176
◇.보유(補遺).....	178

제2편 문화편 (文化篇)

1. 합호서원과 동면 유학의 지향.....	191
2. 연기군의 불교문화와 동면의 마애불.....	202
3. 천주교와 동면.....	212
4. 개신교와 동면.....	221
5. 향교, 서원, 서당교육과 동면의 육영재.....	233
6. 동면의 예문과 그 산하.....	242
7. 한반도의 선사문화와 송용리의 지식묘.....	269
8. 한민족의 기본윤리와 동면의 정려.....	272
9. 근대교육과 동면의 교육발전.....	281
10. 마을의 소지명(素地名)과 세거성씨.....	293

제3편 인물편 (人物篇)

1. 독립운동 애국지사(獨立運動 愛國志士).....	355
2. 정 려(旌閭).....	361
3. 신 도 비.....	365
4. 분 묘(文廟).....	368
5. 효 자(孝子).....	373
6. 충 신(忠臣).....	378
7. 유 행(儒行).....	383
8. 문 학(文學).....	386
9. 선 행(善行).....	393
10. 문 과(文科).....	395
11. 사 마(司馬).....	396
12. 음 사(蔭仕).....	398
13. 무 과(武科).....	402

제4편 비(碑)

연기현 현감 이태진 선정비, 동이면 면장 최용식 송덕비.....	404
장기황송덕비, 면장 배도환 송덕비.....	405
장공 기황선생 공덕비, 翠石 申相大先生 師恩碑.....	406
연동중학교 창립기념비.....	407
龍隱林公 憲文 教育功勞碑.....	408

제5편 전설(傳說)

영 고 개.....	410
약 사 골.....	413
재백이 바위.....	416
내관의 수양버들.....	418
성황당의 아기무덤.....	420

제6편 사찰(寺刹)

황 룡 사.....	424
도 슬 사.....	426
화 봉 사.....	428
칭 봉 사.....	429
용 운 사.....	430
월 성 사.....	431
跋文.....	433

역사편 (歷史篇)

1. 연기군의 건치연혁(建置沿革)
2. 연기군 동면의 연혁(沿革)
3.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동면
4. 일제하의 연기군과 동면
5. 해방이후의 동면

1. 연기군의 건치연혁(建置沿革)

연기군의 건치연혁(建置沿革)

『연기읍지』에 』 「건치연혁」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의 두인지현(豆仍只縣)으로 신라 때 연기현(燕岐縣)으로 개명하고 연산군의(문의)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 때에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후에 본주(공주)에 속하게 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서 태종(太宗) 6년에 감무(監務)를 두 곳에 두었다가 14년에는 전의(全義)에 합쳐서 전기(全岐)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16년에는 다시 전의(全義)와 연기(燕岐)를 떼어서 각각 현감과 관원을 두었다. 그리고 현감과 훈도를 폐하고 공주진관에 속하게 하였다. 숙종(肅宗) 6년에 고을 사람 만설(晩說)의 역모로 그가 주살당함으로 문의에 소속시켰다가 16년에 연기현(燕岐縣)으로 복구시켰다.

『연기지』에는 「건치연혁」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시대(百濟時代)의 두잉지현(豆仍只縣)이다.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연산군(燕山君;문의)에 속한 현으로 연기현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의 현종(縣宗) 때에 청주에 속하였다가 명종(明宗) 때에 감무(監務)를 두어 본주(공주)에 소속케 하였다. 조선조의 태종(太宗) 6년에 나누어 감무를 두어 연기로 개칭하였고 14년에 전의와 합병하여 전기(全歧)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16년에는 다시 나누어 연기군으로 하여 현감과 훈도를 두었다. 숙종(肅宗)6년에 만설이라는 읍민이 역모하여 주살됨으로 문의에 속하게 하였다가 11년에 복구하여 그후 연기현이라 하였다.

고종 32년(을미)에 군으로 하여 군수를 두었다. 1911년에 군청을 구읍(지금의 연기리)으로부터 조치원으로 옮기었다. 1914년에 전의군 중원외(中元外) 삼천리(三川里) 내천리(內川里) 가덕리(加德里) 역리(驛里) 일부를 천안군(天安郡)에 이속시키고 남은 전부와 천안군(天安郡) 광덕면(廣德面) 대사동(大寺洞) 궁리(宮里) 소정리(蘇井里) 소자리(所紫里)의 일부, 그리고 청주군(淸州郡) 강의일하면(江外一下面) 장대리(場垞里)와 평리(平里) 공주군(公州郡) 장기면(長岐面) 노은리(老隱里)외 19동과 반포면(反浦面) 용담리(龍潭里) 어득운리(魚得雲里) 신대리(新垞里) 평촌리(坪村里) , 명탄면(鳴灘面) 전부와 양야리면(陽也里面) 전부 , 대전군(大田郡) 구즉면(九則面) 신동리(新東里) 일부를 편입할 때에 남면(南面)의 체천리(濟川里) 월현리(月峴里) 소야리(所也里) 일부는 공주군(公州郡) 장기면(長岐面)에 이속되었다.

행정구역은 동(東)·서(西)·남(南)·북(北)·금남(錦南)·전의(全義)·전동(全東)의 7면으로 하였다가 1917년의 면제가 실시될 때에 북면 중에서 조치원(鳥致院)과 죽내(竹內) 2개리를 조치원면이라 칭하고 그 외는 서면에

편입하였다가 1931년에 읍면제가 실시될 때 조치원읍이라 칭하였다.

이 「건치연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 백제시대의 두잉지현(豆仍只縣)이며 신라시대에 연산군영현으로 개칭하고 …」까지의 부분인데 이 부분의 근거가 된 자료는 『삼국사기』 지리지 용주편의 다음의 기사일 것이다.

연산군(燕山郡) 본백제(本百濟)의 일모산군(一牟山郡)이며 경덕왕(景德王)이 연산군으로 개명하였다. 영현(縣)은 둘이며 연기현(燕岐縣)은 본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이며, 매곡현(昧谷縣)은 본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지금의 회인현(懷仁縣)이다

이와같은 문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연기현은 본래 두잉지현(豆仍只縣)인데 지금의 연기군 남면의 연기리를 중심으로 서면 일부와 동면이 이에 속하였던 것이다. 백제시대의 1개 현의 넓이는 대개 지금의 2~3개 면의 넓이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나)매곡현(昧谷縣)은 백제의 미곡현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회인현(懷仁縣)이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충북 보은군 회북면과 회남면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백제시대의 두잉지현(豆仍只縣)이 분명히 후일의 연기현(燕岐縣)이며 백제시대의 미곡현이 후일의 매곡현으로 고려시대의 회인현이 분명한 이상 두잉지현(豆仍只縣)과 미곡현을 영현(縣)으로 거느리고 있던 일모산

군(一牟山郡)은 후일의 연산군(燕山郡)으로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충북 청원군 문의면(文義面)을 중심으로 현도면·가덕면·남일면·남이면을 포함한 군이었을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일모산군(一牟山郡)은 문의현이라 기록하고 북쪽으로 청주까지 10리, 서쪽으로 연기까지 28리, 동쪽으로 회인까지 9리, 남쪽으로 회덕까지 10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백제시대의 일모산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모산군(一牟山郡)의 치소는 지금의 문의면 이천리와 문산리지역이며 여기에 양성산(養性山)이 있고 양성산에는 둘레 1,030m의 석성으로 양성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일모산성(一牟山城)으로 475년에 신라군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475년에 고구려군의 남하 공격으로 백제의 한산왕도는 함락되고 개로왕은 고구려군에게 잡혀서 살해되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에 쫓기어 차령산맥까지 밀리고 문주왕은 금강을 건너 웅진에 새로 왕도를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에 신라에서는 고구려군이 남침할 때 요로가 되는 몇 군데에 새로 산성을 쌓았는데 그 산성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慈悲王 17년)

이 때의 「築一牟」가 「築一牟山城」의 생략일 것이며, 「廣石」은 「廣石城」의 생략으로 부강의 「넉바위산성」으로 넉바위 약수터 위의 토성이 그것일 것이다. 그리고 「沓達」은 「沓達城」으로 순흥(順興)에서 영춘(永春)으로 가는 도중

소백산 끝으로 영주 담곡(榮州 沓谷)에 있는 산성일 것이다. 「九禮」 「坐羅」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신라에서 보은에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쌓은 것은 470년 이었다. 문의의 양성산성은 납작한 판석(板石)으로 축조되고 수구는 지상 1.2m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으니 이와같은 양식의 산성이 보은의 삼년산성이다. 결국 일모산성, 즉 양성산성은 475년 백제의 패배와 고구려의 대공세가 있었던 때에 신라에서 축조한 것이며 그후 웅진시대에 백제중흥을 도모한 동성왕대 또는 무녕왕대에 신라로부터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부강의 광석성(廣石城) 또한 이에 준하여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은군 회북면의 중앙리·부수리에는 매곡산성(昧谷山城)이 있는데 이 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시대의 미곡현 치소가 있었을 것이다. 성은 표고 187m의 언덕위에 역시 얇은 판상석(板狀石)을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둘레는 695m의 석축산성인데 백제 토기편과 신라 토기편이 같이 출토되고 있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세력이 교차되던 지점으로 보인다.

결국 백제의 일모산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기-문의-회인을 이어 보은에서 신라의 삼년산성과 대치하고 있는 형세였다. 그리고 신라의 삼년산성은 충청도 영역에 깊숙이 보은에 축조된 신라 불패(不敗)의 전초기지였다. 요컨대 이와같은 삼년산성과 대치하고 있었던 연기-문의-회인을 잇는 일모산군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연기의 백제시대의 고지명인 두잉지현의 두잉지(豆仍只)는 어떠한 뜻이었을까? 첫째로 이 때의 지(只)는 백제시대 지명에서 <재> 즉 산성의 뜻이었다. 따라서 <두잉지>는 <두잉재> 즉 <두잉이재>이다.

그러면 <두잉이재>의 <두잉이>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었을까?

연기현의 진산(鎭山)은 연기의 당산(唐山)이며, 당산에는 백제성으로 당산성이 있다. 그리고 당산성은 둘레 540m의 남성(南城)과 둘레 600m의 북성(北城)의 2개성으로 복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먼저 축조된 남성이 특별히 여자가 입고 서있는 <두령이치마> 같이 깎아지른듯 90도로 곧선 표고 160m의 단애(斷崖)위에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령이재>라고 한 것이며 이 <두령이재>를 한자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 <豆仍只縣>의 두잉지(豆仍只)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산성이 멀리에서 보기보다는 달리 여자가 입고 서 있는 <두령이치마> 같이 깎아지른듯 90도로 곧선 단애 위에 축조된 산성이라는 것은 당산성의 남성에 직접 올라가 보면 알 일이며 또한 성밑에 있는 연기향교에서 바라보아도 알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시대의 <두령이재>에서 지난 1000여년 동안에 와전된 것이 연기현청이 있었던 <누령이고을> 즉 놀왕리(訥旺里)일 것이다. 연기현청은 놀왕리쪽인 <아사(衙舍)터>에 있었다.

두령이고을(백제시대) / 누령이고을(현재)

이와같이 현재의 <누령이고을>을 <두령이고을>로 바로잡아서 복원하고 <豆仍只縣>을 <두령이고을>의 표기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산성의 실제의 모습이 여인이 입고 서있는 두령이치마같이 깎아지른 듯 90도로 곧선 단애 위에 축조된 점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필자가 「燕岐周留城의 研究」에서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연기의 <두령이재>에 대하여 일찍이 백제에서 <豆仍只>로 표기하고 백제말에 신라에서는 <豆良伊城> 또는 <豆陵伊城>으로 표기하고 중국인(당인)들은 <周留城>으로 표

기하고 왜인들은 〈州柔城〉 표기하였다.

즉 백제말에 있었던 백제유민에 의한 구국항쟁의 기지로서 한국사서와 중국사서와 일본사서에서 유명한 소위 〈周留城〉이 구체적으로 연기의 당산이었던 것이다. 물론 〈周留城〉이라고 하면 연기의 당산성만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지명으로 연기현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연기·전의 지구에 있었던 많은 산성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일모산군(一牟山郡)의 일모산(一牟山)이라는 표기에 대한 원래의 지명은 〈한모로〉로서 〈큰 산〉의 뜻이며 〈一牟山郡〉은 결국 〈한모로고을〉에 대한 한자표기일 것이다.

또한 회인의 고지면 미곡(未谷) 또는 매곡(昧谷)의 뜻은 〈매고을〉로서 〈매〉는 〈鳶〉의 뜻일 것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지명인 연산군의 연(燕), 연기현의 연(燕)의 기원은 매곡현의 〈매〉에 있고, 이 〈매〉를 〈鳶〉(연) 대신 〈燕〉(연)으로 표기하여 지명으로 정한 사람들은 경덕왕시대의 서라벌의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그 학자들은 책상 위에서 이 지명을 정한 것일 것이다.

미(未) -- 매(昧) 鳶(연) 燕(연)

한편 연산군의 연, 연기현의 연을 백제시대의 백제의 유력했던 호족으로 8대성의 하나였던 연씨(燕氏)와 관계가 있었던 지명이 아닐까? 또는 미호천이 금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형국이 제비꼬리 같은 점에서 연유한 지명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지명이 백제가 망한 후 신라의 경덕왕 때에 비롯된 점, 기원이 〈燕岐〉지에 있지 않고 〈燕山〉 즉, 문의에 있

었다는 점으로 보아서 매곡현의 매를 〈鳶〉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鳶〉보다는 〈燕〉이 지명으로 타당성있는 호자(好字)라고 하여 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 고려조부터 조선조말기 까지의 연기현의 귀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高麗顯宗時 淸州에 屬하였다가 明宗時에 監務를 置하여 本州로 來兼하였고 朝鮮太宗六年에 析置監務하고 燕岐로 改稱하여 十四年에 全義와 併合하여 全岐로 改稱하였다가 十六年에 復析爲燕岐縣하여 縣監과 訓導를 置하였더니

고려조에 들어와 외관(外官) 즉 지방관을 두기 시작한 것은 명종 2년(683)

各道州縣表

10道	12州節度使	所管州縣數
關內道(京畿·黃海)	楊州 · 廣州 廣州 · 海州	29州 82縣
中原道(忠淸北道)	忠州 · 淸州	12州 42縣
河南道(忠淸南道)	公 州	11州 34縣
江南道(全羅南道)	全 州	9州 49縣
嶺南道(慶尙北道一部)	尙 州	12州 48縣
嶺東道(慶尙南道一部)		9州 48縣
山南道(慶尙南道一部)	普 州	10州 37縣
海陽道(全羅南道)	羅州 · 昇州	14州 62縣
朔方道(江原道 및 咸鏡南道 一部)		7州 62縣
溟西道(平安道)		14州 4縣 7鎮

에 12목(牧)을 두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우리 연기현은 백제와 통일시대를 통하여 이 때 또한 공주목(公州牧)에 속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12목의 지방제도는 성종 14년(995)에 크게 변하여 개주(開州)가 개성부(開城府)로 바뀌고 10도(道)의 제도가 신설되고 12목은 12군(郡)으로 개편되는 한편 12주(州)에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5道 兩界 · 4 都 護 · 8牧 · 3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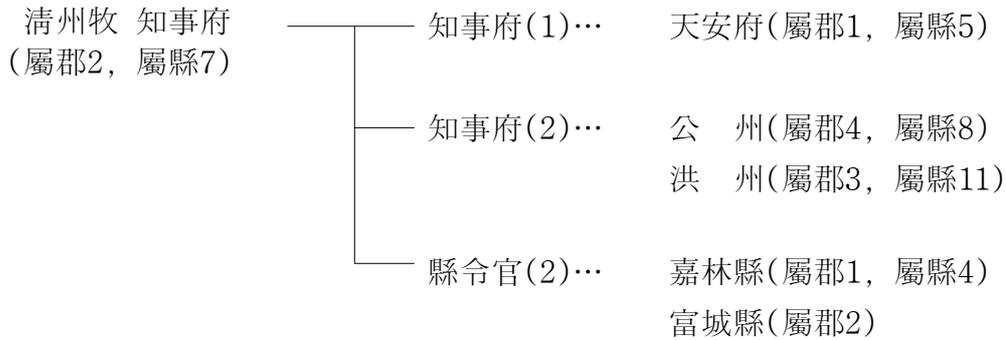
5道 兩界	4都護	8牧	3京
揚廣都(京畿·忠淸)	安南(全州, 뒤에 樹州)	廣州·忠州·淸州	南京(서울)
慶尙道(현재와 같음)		普州·尙州	東京(慶州)
全羅道(현재와 같음)		全州·羅州	
交州都(江原道)			
西海道(黃海道)	安西(海州)	黃酒	
東界(江原도와 咸南一部)	安邊(安邊)		
北界(平安道)	安北(安州)		西京

이때의 각 도, 주, 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10도(道)는 성종 13년에 신설된 것이며, 12주 절도사는 12목에서 이 때에 바뀐 것이다.

이와같은 10도 12주 절도사의 제도는 현종 9년(1018)에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두었다가 마침내는 5도양계(道兩界) 4도호(都護) 8목(牧) · 15부(府) · 129군(郡) · 335현(縣) · 29진(鎭) 제도로 바꾸었다.

이때 우리 연기는 양광도(楊廣道)의 청주목(淸州牧)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앞서의 연혁중 「고려 현종시에 청주에 속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때의 청주에 속한 군과 현은 다음과 같다.



清州의 屬郡 屬縣關係를 表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清州의 屬郡 屬縣

時期 地名	本	新羅 景德王	高麗初麗	後	成宗14年	成宗14年
燕山郡	一牟山君	燕山君	(來屬)			
本州	大木岳郡	大麓郡	木州(來屬)			
鎮州	今勿奴郡	黑壤郡	降州	鎮州	置刺史 穆宗8年罷之	(來屬)
全義縣	仇知縣	金池縣(大麓郡 領縣)	全義縣(來屬)			
清州縣	薩買縣		清州縣(來屬)			
道安縣	道西縣	都西縣(黑壤郡 領縣)	道安縣		(來屬)	
青塘縣	青淵縣		青塘縣(來屬)	(置監務 兼任道安)		
燕岐縣	豆仍只縣	燕岐縣(燕山君 領縣)			(來屬)	
懷仁縣	未谷縣	昧谷縣(燕山君 領縣)	懷仁縣		(來屬)	

고려조에서 속현(屬縣)에 외관(外官)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예종(睿宗) 원년부터이며 조선조 초기까지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연기현에 감무가 설치된 것은 명종 2년(1172)이었지만 이 때 연기현에 독립적으로 감무를 두

지 않고 목주(木州)의 감무가 겸해오다가 조선조가 되어 태종 6년(1406)에 비로소 목주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연기 감무를 두었다. 그리고 태종 13년(1413)에 8도(道)의 도제(道制)를 정하고 군현제(郡縣制)의 정비를 단행하고 다음해 14년 8월에는 군량(軍糧) 확보와 녹미(祿米)의 절약을 위하여 그리고 남아도는 관리를 정리하는 한편 군소현(群小縣)의 합병을 단행하였다. 이 14년 8월의 군현의 병합 때에 연기현과 전의현도 전기현으로 병합되었다가 16년에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분리 되었다. 그리하여 연기현감과 훈도(訓導)를 두었다.

이것으로 <연혁> 중의 본문으로 애매모호한 부분 「明宗時에 監務를 置하여 本州로 來兼하였다」의 뜻을 알 수 있고 「來兼」이라는 말은 목주의 감무가 연기의 감무를 겸하였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朝鮮 太宗 六년에 析置監務하고 燕岐로 改稱하였다」는 것은 태종 6년에 목주의 감무가 겸하고 있었던 연기감무를 떼어서 독립시켰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후 숙종 6년(1680)에 연기현 사람으로 만설(晩說)이 역모하여 죽음을 당함으로 연기현을 폐하여 문의현에 이속시켰다가 11년에 연기현으로 다시 복구하였다.

그러다가 고종 32년 을미에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었다가 하였지만 이것은 고종21년 을미(1895)의 오식이다. 고종 32년이 을미가 아니라 고종 21년이 을미이며 이해가 제도의 개혁이었던 갑오년의 다음해로 지방제도 뿐 아니라 군대의 제도를 바꾸고 근대적인 재판소를 설치하고 학교의 설립 등개혁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합방이 있었던 고종 43년(1910)의 다음해 1911년에 구읍 즉 지금의 연기리로부터 군청이 조치원으로 이전하고 1914년에는 전의군에서

중원 외 삼천리·내천리·가덕리·역리 일부를 천안군에 이속시키고 남은 전부와 천안군 광덕면의 대사동·궁리·소정리·소시리의 일부와 청주군 강의 일하면의 장태리·평리와 공주군 장기면 노은리 외 19동과 반포면 용담리·어득운리·신대리·편촌리와 명탄면 전부와 양야리면 전부 거기에 대전군 구척면 신동리 일부를 편입하고 남면의 제천리·월현리·소야리 일부는 공주군 장기면에 이속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연기군의 강역 범위로 정하고 행정구역을 동, 서, 남, 북, 금남, 전의, 전동 7면을 정하고 다음 1917년 면제 실시 때에 북면중 조치원과 죽내의 2개리만을 떼어서 조치원면이라 하다가 1931년 읍면제 실시 때에 조치원읍으로 승격하였다.

그후 1940년에는 서면의 일부였던 변암, 신안〈옛 신동(薪洞)〉, 서창〈옛 내창(內倉)〉, 봉산〈옛 동리(東里)〉의 4개리가 조치원읍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주군 장기면의 송원리와 나성리가 남면에 편입되고, 공주군 반포면의 도암리, 덕리, 영곡리가 금남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1986년 11월 1일에는 전의면 소정출장소가 개설되고, 전동면 신방 1구와 2구, 영당 1구와 2구, 양곡, 금사, 다방 1구와 2구, 달전 1구와 2구가 전의면으로 편입되었다.

1995년에 연기군 동면의 백천(白川) 건너 동쪽의 갈산1구와 2구를 충북 청원군의 부용면에 이속시키고 대신 강외면 심중리의 1구와 2구가 전동면으로 이속되었다. 그리고 이해에 소정출장소가 소정면으로 승격하여 연기군은 1읍 6면에서 1읍 7면이 되었다.

2. 연기군 동면의 연혁(沿革)

연기군 동면의 연혁(沿革)

1824년 순조 24년에 편찬된 『연기읍지』에는 동일면(東一面)과 동이면(東二面)의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동일면(東一面)

- 용산리(龍山里)는 관문에서 11리, 편호는 56호, 남자 143명, 여자 133명
- 부암리(搏巖里)는 12리, 편호는 28호, 남자 66명, 여자 65명
- 합강리(合江里)는 15리, 편호는 35호, 남자 75명, 여자 74명
- 용당리는 15리, 편호는 17호, 남자 39명, 여자 38명
- 외대산리(外台山里)는 20리, 편호는 10호, 남자 20명, 여자 19명
- 내대산리(內台山里)는 20리, 편호는 20호, 남자 40명, 여자 39명
- 신대리(新岱里)는 15리, 편호는 11호, 남자 21명, 여자 20명
- 명학리(鳴鶴里)는 15리, 편호는 24호, 남자 56명, 여자 55명

- 부동리(釜洞里)는 16리, 남자는 115명, 여자는 114명
- 갈산리(葛山里)는 25리, 편호는 51호, 남자 68명, 여자는 67명
- 백정촌(白丁村)은 26리, 편호는 5호 남자 5명, 여자는 4호
- 신원리(新院里)는 19명, 편호는 11호, 남자 11명, 여자는 67명
- 생지리(生芝里)는 15리 편호는 6호 남자는 14명, 여자는 13명
- 신동리(薪洞里)는 20리, 편호는 12호 남자 25명, 여자24명

동이면(東二面)

- 문주리(問舟里)는 관문에서 8리, 편호는 59호, 남자 150명, 여자 149명
- 문산직촌(問山直村)는 8리, 편호는 7호, 남자는 18명, 여자는 17명
- 상판리(上板里)는 10리, 편호는 27호, 남자는 55명 여자는 54명
- 판산직리(板山直里)는 10리, 편호는 3호, 남자 5명, 여자 4명
- 내판교리(內板橋里)는 11리, 편호는 30호, 남자 60명, 여자는 59명
- 외판교리(外板橋里)는 12리, 편호는 48호, 남자 92명, 여자는 90명
- 노곡리(老谷里)는 15리, 편호는 17호, 남자는 27명, 여자 26명
- 상송리(上松里)는 15리, 편호는 32호, 남자는 80명, 여자는 79명
- 내송리(內松里)는 15리, 편호는 21호 남자는 60명, 여자는 59명
- 송산소리(松山所里)는 15리, 편호는 14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30명
- 외송리(外松里)는 15리 편호는 44호, 남자는 104명, 여자는 103명
- 노산리(老山里)는 20, 편호는 18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30명
- 노산소리(老山所里)는 20리, 편호는 30호, 남자는 25명, 여자는 24명

○양인동리는 15리 편호(編戶)는 51호, 남자는 85명, 여자는 83명

여기에 보이는 남자의 명수와 여자의 명수가 그 차에 있어서 정확히 1명씩 이니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 가령 동일면 부암리의 남자의 수는 66명이며 여자의 수는 65명으로 차는 1명이다. 그리고 명학리의 남자의 수는 56명이며 여자의 수는 55명으로 차는 1명이다. 이와같이 거의가 마을마다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1명씩 차이가 나니 이것은 실지로 있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닐 것이다. 여기서 그것보다도 5~60년 전에 작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주목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여 일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지도서」에서는 마을마다 남자와 여자의 숫자의 차가 1명씩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남면의 면적은 3방리(方里)이며, 서면의 면적은 4방리 094이다. 그리고 동면의 면적은 2방리 096이다.

이와같이 동면은 면적에 있어서 남면이나 서면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작다. 그런데 남면이나 서면은 그런 적이 없지만 동면만은 오랫동안 동일면과 동이면의 2개면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산안과 산너머라고 하듯이 동면은 그 중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는 산맥으로 인하여 대체로 같은 면적으로 2분되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동면이면서도 내판리에서 용호리로 가려면 도중의 덕고개에 성황터가 있었고, 내판리에서 명학리를 가려면 도중의 산고개에 성황터가 있었다. 그리고 내판리에서 응암리를 가려면 역시 도중의 산고개에 성황터가 있었다.

이와같이 동면은 산맥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동일면과 동이면이 갈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산안(동이면)과 산너머(동일면)를 구별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면(面)·방(坊)·리(里)로 나누어 면에는 존위(尊位), 리에는 동장(洞長)을 두어서 공무를 집행케 하다가 고종 32년(1895)에 존위는 면장(面長)으로 고치고, 동장은 리장(里長)으로 고쳐서 역시 자택에서 집무하게 하다가 융희 3년(1909)부터 면사무소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1914년 4월에 동일면(東一面)과 동이면(東二面)을 합병하여 동면(東面)이라 하고 다음해 1915년 4월에 52개 동리를 10개리로 폐합하였다.

당시의 호수는 1,283호이며 인구는 7,326명인데 이것을 민족별로 나누면 조선인이 1,277호에 7,308명(남 3,657명, 여 3,651명)이며 일본인이 6호에 18명(남 9명, 여 9명)이었다. 그리고 1915년 4월에 52개 동리를 폐합한 10개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내판리(內板里) 구동명:상판(上板)·내판(內板)·외판(外板)·신대(新垓)·다복동(多福洞)·연지동(蓮池洞)

(2)문주리(文舟里) 면에서 20정이며 구동명:문주(文舟)·산직촌(山直村)·동진(東津)·변촌(邊村)·곡촌(谷村)

(3)용호리(龍湖里) 면에서 35정이며 구동명:상룡(上龍)·중룡(中龍)·하룡(下龍)·불암리(佛岩里)·구대(舊垓)·니현(泥峴)·신암리(新岩里)·독정리(獨亭里)

- (4)합강리(合江里) 면에서 1리이며 구동명: 합강(合江)·포석동(抱石洞)·
소지동(沼??洞)·생지동(生芝洞)·룡당(龍唐)일부
- (5)명학리(鳴鶴里) 면에서 34정이며 구동명: 명학(鳴鶴)·내대(內台)·외대
(外台)·신촌(新村)·원당곡(元唐谷)·전(田)
- (6)갈산리(葛山里) 면에서 1리이며 구동명: 봉무동(鳳舞洞)·갈산(葛山)·
신동(薪洞)
- (7)응암리(鷹岩里) 면에서 34정이며 구동명: 부동(釜洞)·고정(高亭)·승동
(性洞)·노곡(老谷)·신원(新院)
- (8)노송리(老松里) 면에서 1리이며 구동명: 강당동(講堂洞)·노산(老山)·
상송(上送)·내송(內松)·웅동(雄洞)·산정동(山亭洞)·신대(新垆)
- (9)예양리(禮養里) 면에서 1리이며 구동명: 산수동(山水洞)·당산(唐山)·
인동(仁洞)·미호리(湑湖里)·예양동(禮養洞)
- (10)송룡리(松龍里) 면에서 15정이며 구동명: 양지평(陽地平)·송산(松山)·
회룡동(回龍洞)·룡곡(龍谷)·서당리(書堂里)·라동(羅洞)·화전(花田)·
외송(外松)

3. 朝鮮時代와 그 이전의 東面

朝鮮時代와 그 이전의 東面

강역(疆域)

연기군은 동서가 3리요 남북이 9리로 면적이 22방리 193인데 동으로 청주군 부용면 금호리(5리 20정), 부강리(1리 25정)과 남이면 산수리(2리), 강내면 당곡리(1리 10정), 사곡리(30정), 강외면 서평리(5정), 봉산리(5정), 정중리(18정), 상봉리(1리 18정), 심충리(1리 30정)를 접하고 서쪽으로 공주군 정안면 어물리(4리 15정), 의당면 도신리(3리 20정), 용암리(3리), 용현리(3리 15정), 장기면 제천리(3리 30정)을 접하고 남으로 장기면 나성리(3리 32정)과 반포면 영곡리(4리 7정), 도암이(5리 2정), 대전군 탄동면 안산리(6리 18정), 수남리(7리), 추목리(6리 15정)과 구직면 구룡리(5리 20정), 신동리(5리 32정)를 접하고 북으로 천안군 성남면 백자리(2리 32정), 신덕리(5리 2정), 목천면 소사리(6리 4정), 풍세면 가송리(5리 33정), 광덕면 행정리(5리 2정)과 원덕리(4리 18정)를 접합니다.

연기군은 동서가 3리요 남북이 9리라고 하듯이 남북이 동서의 3배나 길다.

그러나 이 기사중 청주군 부용면 금호리가 (5리 20정)이라고 한 것은 (3리 20정)의 오기일 것이다. 부강리가 (2리 25정)이지만 금호리는 부강보다 1리가 멀리 있으니 금호리까지는 (5리 20정)이 아니라 (3리 25정)이 맞는 것이다.

동면은 남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부용면 금호리와 접하고 한내(白川)을 사이에 두고 부강리 그리고 산수리와 접하고 북으로 미호천을 사이에 두고 강외면 서평리와 미경리에 접하고, 서쪽으로 미호천의 하류를 사이에 두고 서면의 봉암리와 남면의 연기리와 월산리에 접하고 있으니 동면은 남·북·서의 3면이 강과 내로 둘러싸이고 동쪽만 육지로 강내면 당곡리와 사곡리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것은 연기군이 충청남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동면은 그 연기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그리고 남·북·서의 3면이 강과 내로 둘러싸여 있으니 동면은 충청남도의 동쪽끝에 위치한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면은 옛부터 다음과 같은 나룻배(進度)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동면에 관계되는 나루터에 대하여 「燕岐誌」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진도(津渡)

羨湖津 在禮養里前

이것이 미꾸지나루로서 예양리의 미꾸지앞에서 미호천을 건너 조치원으로 가던 나루이다. <미꾸지>는 <밑곶이> 즉 <下串>의 뜻일 것이다. <곶이>는 뚝 쪽이 돌출한 땅이다.

礮岩津 在礮岩里前

이것이 서면의 변암리 나루로서 미호천을 건너 동면으로 건너오던 나루이다. 이것이 <새밭나루>였다.

東津 在湫通里前

이것은 연기현의 아문에서 미호천을 건너 동면의 용호리 - 부강을 거쳐 문의로 가고 또는 문주리 - 내관을 거쳐 청주로 가던 큰 나루이다. 여기에 보이는 <湫通里>는 <보텡이>로서 연기의 당산 뒷쪽에 있는 들을 낀 마을이다. 그리고 <보텡이>는 당산의 <모텡이>에서 온 명칭일 것이다. 모(mo)가 쉽게 보(bo)로 소리가 바뀐 것이다.

花硯津 在月山里前

이것이 <꽃벼루나루>로서 남면 월산리에서 미호천의 하류를 건너 동면으로 오는 나루이며 동면에서 미호천의 하루를 건너 남면의 월산리(황골)-시거리

-종촌으로 가던 나루이다. 꽃벼루나루의 <꽃벼루>는 <곧은 벼루> 즉 <곧은 벼랑>의 뜻일 것이다. 실지로 이 나루터에 가까이 <곧은 돌벼루> 즉 <곧은 돌 벼랑>이 있다.

合江津 在合江里前

합강나루이다. 동면 합강리 앞에서 금강을 건너 금남면 봉기리 또는 반곡리를 거쳐 대평리로 나갈 수 있고 달전리를 거쳐 유성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나루이다. 물론 합강(合江)이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미호천이 금강에 합치기 때문에 얻은 명칭일 것이다.

이와같이 동면은 남·북·서의 3면을 강으로 둘러 쌓였기 때문에 남(꽃벼루나루·합강나루)·북(밀구지나루·범암나루)·서(동진나루)의 3면에 나루터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룻배는 미호천에 미호교가 가설되고 대청댐으로 말미아마 금강물이 줄면서 폐지되었다. 물론 나룻배를 가진 이들도 때때로 받는 선개와 보리 때 보리 한말 나락 때 나락 한 말의 <지방>으로는 산업화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를 팔고 떠나간 것이다. 지금 동진나루터와 합강나루터에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동면 용호리(부람미)에서 남면 원산리로 건너가는 꽃벼루나루터에는 4~5년전에 근대적인 교량을 가설할 계획으로 교각만 세워논 채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 조만간 공사가 재개되어 준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산천(山川)

같은 연기군의 산수라고 하지만 동면의 산수만은 다른 면의 산계(山系)와 수계(水系)와 다음과 같이 완전이 닮은 것이다. 즉 「燕岐誌」에는 연기군의 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관불산(冠佛山)의 내맥

- (1) 관불산(冠佛山): 서면 청라리 남쪽에 있으며 월조산(月照山)의 내맥(內脈)이다.
- (2) 당 산(唐 山): 남면 연기리의 동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3) 원수산(元帥山): 남면 가학리 북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4) 용수산(龍帥山): 남면 갈운리의 원곡 뒤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5) 전월산(轉月山): 남면 시거리의 북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6) 봉황산(鳳凰山): 서면 봉암리의 동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7) 대박산(大朴山): 서면 대박리의 동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8) 비룡산(飛龍山): 서면 고복리의 서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9) 도맥산(道脈山): 서면 성재리의 북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10) 놀왕산(訥旺山): 남면 놀왕리의 남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11) 국사봉(國土峰): 남면 고정리의 북쪽에 있으며 관불산의 내맥이다

○ 월조산(月照山)의 내맥

- (1)월조산(月照山): 전의 고등리의 북에 있으며 연기군의 여러 산의 조(祖)이다
- (2)증 산(甌 山): 전의리의 북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3)고려산(高麗山): 전의면 고등리의 북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4)운주산(雲住山): 전동면 미곡리의 동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5)이성산(李城山): 전동면 송성리의 북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6)운점산(雲靄山): 전동면 송성리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7)금성산(金城山): 전동면 달전리의 동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8)비암산(碑岩山): 전의면 다방리의 동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9)용자산(龍子山): 전동면 노장리의 동쪽에 있으며 월조산의 내맥이다

○ 계룡산(鷄龍山)의 내맥

- (1)괘등산(卦燈山): 금남면 호탄리의 동쪽에 있으며 계룡산의 내맥이다
- (2)서대산(西臺山): 금남면 황리의 동쪽에 있으며 계룡산의 내맥이다
- (3)발 산(鉢 山): 금남면 발산리의 동쪽에 있으며 계룡산의 내맥이다
- (4)괴화산(槐花山): 금남면 반곡리의 동쪽에 있으며 계룡산의 내맥이다
- (5)부용산(芙蓉山): 금남면 부용리의 동쪽에 있으며 계룡산의 내맥이다

이와같이 서면, 남면의 산들은 관불산 내맥이라 하고 전의, 전동의 산들은

월조산의 내맥이라고 하지만 관불산이 차령산맥의 월조산의 내맥이니 결국 전의·전동·서면·남면의 산들은 차령산맥의 내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금남면의 산들은 계룡산의 내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동면의 산들은 팔봉산의 내맥이다.

○ 팔봉산(八峰山)의 내맥

- (1)출동산(出東山): 동면 부암리(용호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팔봉산의 내맥이다
- (2)황우산(黃牛山): 동면 명학리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 팔봉산의 내맥이다
- (3)아미산(蛾帽山): 동면 송룡리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팔봉산의 내맥이다

차령산맥은 미호천의 북쪽을 동에서 서로 달리고 계룡산은 남에서 북으로 달리고 팔봉산은 미호천의 남쪽을 동에서 서로 달린다. 이와같이 같은 연기군의 산이지만 산계는 전부 닮은 것이다.

그리고 미호천은 진천의 두타산에서 발원하여 조천(鳥川)과 구수원 앞에서 합류하여 동진을 거쳐 합강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한내(白川)은 팔봉산에서 발원하여 청원군 부용면의 행산리와 갈산리를 거쳐서 동면 명학리의 용당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봉수(烽燧)

옛날에 지방에 변이 있을 때는 밤을 기다려 봉화를 올려서 변이 있음을 서울에 알리는 동시에 역마(驛馬)로서 사실을 상달케 한 기관이다.

용수산봉수(龍帥山峰燧) : 남면 갈운리의 원곡(元谷)뒤에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다.

아미산봉수(蛾媚山峰燧) : 동면 노송리(노리미) 뒷산인 아미산의 정상에 대규모 봉수대의 유적이 남아 있다. 이 봉수대는 아미산의 정상에 인작으로 돌과 흙을 쌓아 올려서 높은 대(台)를 만들고 그 대(台) 뒤에 봉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불을 땀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봉수대는 과거의 모든 기록에서 누락되어 전하는 것이 없다.

역(驛)과 원(院)

옛날의 역과 지금의 역은 다르다. 옛날에는 역에 역리(驛吏)와 노비와 기마(騎馬)를 두고 정치적으로 유사시에 통신을 맡은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기차의 정거장을 말하게 되었다.

원은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여관이 없으므로 군마다 군비로 원을 설치하여 관리가 여행할 때 유숙케하는 한편 수령(守令)이 교대하던 교대소였다. 우편은 옛날에 국사에 관한 통신과 관속안의 통신을 역을 이용하였지만 지금은 전신국과 우체국 등을 이용하게 되었다.

금사역(金沙驛): 남면 갈운리에 있었다. 옛날에는 역리(驛吏) 20명과 노(奴) 3명 비(婢) 5명을 두었다. 대마(大馬) 2필과 기마(騎馬) 5필, 그리고 복마(卜馬) 2필을 두었다. 지금 폐지되었다.

송현역(松峴驛): 서면 송현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 되었다.

금계역(金鷄驛): 전의면 대곡리에 있었지만 폐지되었다.

그러나 동면에 이와같은 역(驛)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대신 원(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원(新院)과 동진원(東津院)에 대하여

예부터 연기현의 범위내에 원(院)이 세 곳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신 원(新院): 현의 동쪽 14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동진원(東津院): 현의 동쪽 5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조천원(鳥川院) : 현의 북쪽 20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이중에서 신원(新院)은 현의 동쪽 14리 지점인 동면 응암리의 고정(高亭)에 있었다. 응암리의 구동명으로 부동(釜洞), 고정(高亭), 승동(聖洞), 노곡(老谷)과 함께 끝으로 신원(新院)이 보이는데 이 신원이 연기현의 동쪽 14리에 위치한 신원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또한 동진원(東津院)에 대하여서는 이 원은 물론 동진나루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루를 건너 동면쪽으로는 원이 있을 만한 터가 있지만 나루를 건지않고 부동리(釜洞里) 쪽으로는 해마다 한 두 번은 꼭 물난리를 겪어야하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원이 앓을만한 터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옛날 동진나루의 뱃사공의 집은 나루를 건너 동쪽인 문주리 쪽에 있었다.

문주리(文舟里) 범위의 구동명 중에 문주 · 산직촌(山直村) · 동진(東津) · 변촌(邊村) · 곡촌(谷村)이라 하여 동진을 전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진원은 남면의 보통리 쪽이 아니라 동면의 문주리 · 용호리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천원(鳥川院)은 지금의 조치원읍의 서창동으로 조천의 내 가까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동·전의를 거쳐 북쪽으로 가는 관속들이 유하였을 것이다. 조치원(鳥致院)이라는 지명은 조천원이라는 원의 이름에서 비롯된 지명일 것이다. 그리고 서창동 2구 동편 마을을 예부터 <원마루> 라고 하니 조천원이 이 <원마루> 에 있었던 것이다.

제언(堤堰)

제언(堤堰)은 농업용수의 저수지로서 <방죽>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燕岐誌」에는 「舊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 (1)대야곡제언(大也谷堤堰): 현의 북쪽 5리에 있으며 둘레는 560척, 깊이는 2척반이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 (2)금사제언(金沙堤堰): 현의 남쪽 5리에 있으며 둘레는 884척이며 깊이는 3척(尺), 지금은 수 10편이 남았을 뿐이다.
- (3)판교제언(板橋堤堰): 현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둘레는 1,254척이며 깊이는 3척이지만 지금은 없음.
- (4)지관지제언(池串池堤堰): 현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는 854척이지만 지금은 밭이 되었다.
- (5)침산제언(砧山堤堰): 현의 북쪽 15리에 있으며 둘레는 1,331척이며 깊이는 3척으로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다.
- (6)대박산제언(大朴山堤堰): 현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는 610척이며 깊이는 2척이지만 지금은 없음.
- (7)흑암제언(黑岩堤堰): 현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는 797척이며 깊이는 2척반으로 지금 수 10편이 남아 있다.
- (8)기지동제언(機池洞堤堰): 현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는 1,408척이며 깊이는 3척이지만 지금은 없음.

(9)저치제언(苧峙堤堰): 현의 북쪽 15리에 있으며 둘레는 737척이며 깊이는 3척이지만 지금은 없음.

(이상은 「舊誌」에 전하는 것이지만 아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1)화옥동제언(禾玉洞堤堰): 남면 종촌리의 상현동평(桑峴洞坪)에 있지만 지금은 10평미만이 남았을 뿐이다.

(2)창동제언(倉東堤堰): 금남면 장재리의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밭이 되었다.

(3)갈운제언(葛雲堤堰): 남면 갈운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밭이 되었다.

(4)송담제언(松潭堤堰): 남면 송당리 앞에 있으며 둘레는 3제여

(5)신대제언(新垞堤堰): 조치원에 있다.

이와같은 제언(堤堰) 즉 방죽중에서 동면에 있었던 것은 (3)판교제언 즉 <너더리방죽> 으로 내판리에 있었던 방죽이다. 이 방죽의 흔적은 지금은 논이 된 내판리의 소위 <명당뱀이>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창고(倉庫)

사창(司倉): 현의 아사 우측에 있으며 좌기청(坐起廳)즉 수청(守廳)은 3간 전퇴이며 동고가 5간, 서고가 5간, 문간이 3간이다.

동사창(東社倉): 현의 동쪽 10리인 내판(內板)에 있으며 사수청(社首廳)은 3간전퇴이며 창사(倉舍)는 8간, 문간은 1간이다.

서사창(西社倉): 현의 서쪽 10리인 신대에 있으며 사수청은 3간전퇴, 고사(庫舍)는 8간, 문간은 3간이다.

남사창(南社倉): 현의 남쪽 7리의 관대(官堡)에 있으며 사수청은 4간전퇴, 고사는 5간, 문간은 1간이다.

북사창(北社倉): 현의 북쪽 15리인 죽내(竹內)에 있으며 사수청은 3간전퇴, 고사는 4간, 문간은 1간이지만 지금은 없다.

(이상은 「舊誌」에 전한 것이라고 하지만 「舊誌」에는 「倉庫司倉三十六間 東倉在東十里內板」이라고 있을 뿐이다.

군자창(軍資倉): 아문의 경비가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이와같은 곳이 있는

데가 흔치 않으며 상진청(常賑廳)으로부터 항상 적당한 양을 옮겨온다.

상진창(常賑倉): 옛날에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이 있었는데 그 후에 두 청을 병합하여 상진청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성지에 난 것이다. 지금은 없음.

동사창(東社倉): 자리는 내관3구 상리의 중앙 네거리인 현재 사회대씨의 집 자리일 것이다.

조 적

옛날에 상진창(常平廳), 군자창(軍資倉), 비변사(備邊司), 균역청(均役廳) 등에서 해마다 쌀, 벼, 밀, 콩을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거두는데 이것을 환곡(還穀)이라고 하였지만 차차 이 제도가 없어졌다.

시장(市場)

「燕岐誌」에 조치원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속전을 전하고 있다.

조치원시장: 조치원리에 있다. 속전에 의하면 신라의 최치원선생이 시장을 개시하고 상업을 장려하여 보를 쌓아 권농하였으므로 그 시장을 최치원시장이라 하고 그 보를 고운보(조천의 동쪽 기슭)라 하여오다가 시장은 조치원시장으로 오전되고 보는 옛날같이 고운보라 한다. 장서는 날은 음력 4일과 9일인데(지금은 양력 4일과 9일) 일년의 매매고는 17만원 ~ 26만원에 달한다.

조치원시장이 최치원선생이 개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조치원이라는 지명은 차라리 사리원이나 장호원같이 조치원(鳥川院)이라는 원명(院名)에 유래된 지명일 것이다. 그리고 「고운보」라는 보이름도 「곧은 보」라는 보이름에 유래된 보의 명칭이지 최치원선생의 호라는 고운(孤雲)에 유래한 고운보라는 보의 명칭은 아닐 것이다.

전의시장: 전의면 읍내리에 있으며 음력 2일과 7일에 장이 선다(지금은 양력 2일과 7일). 일년 매매고는 7만여만원에 달한다.

대평리시장: 금남면 대평리(지금은 용포리)에 있으며 음력 2일과 7일에 장이 선다.(지금은 양력). 일년 매매고는 6만원~7만5천원에 달한다.

기타 소정리시장, 연기시장, 강성시장, 덕평시장에 대하여 전하고 있지만 동면과 가장 인연이 깊었던 시장은 연기군에 있었던 이와같은 시장이 아니라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부강시장(美江市長)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동면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둘째로 나룻배를 타고 미호천을 건널 필요가 없고, 셋째로 부강시장이 내륙수운(內陸水運)의 요진(要津)으로 일찍부터 현저히 발달한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동면 사람들이 조치원시장을 보게 된 것은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조치원이 교통운수의 요충으로 변하고 집산물자가 폭주하며 상세(商勢)가 확대되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군청이 연기리로부터 조치원으로 이전한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와같은 설명은 조선조시대 이전의 시장경제에 대한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대략은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동면이 동일면과 동이면으로 갈려 있었다는 점과 함께 동일면이 소위 <산너머>로서 부강에 가깝다는 사실과 함께 일찍부터 부강시장이 이름난 큰 시장이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풍속(風俗)

옛 읍책에 연기에는 남을 무고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일하며 저축하는 풍속이 있고, 전의에는 옛부터 순박하여 농사일에 부지런하다고 전하였지만 여전히 농사일에 부지런하고 옛날의 좋은 풍속을 지켜나가며 한편으로 옛글을 숭상했다.

진공(進貢)

진공은 진상(進上)이라고 하듯이 지방에 토산물을 일컬어 진공품이라 하고 진상품이라고도 한다. 연기현의 진상품과 전의현의 진상품에 대하여 「연기지」와 「전성지」에 전하였으니 옮겨 신는다

진상품 오리 대신 말린 꿩(乾雉)한 마리,
2월령(二月令) 약재, 창출 6근, 건치황 2량, 초석(草席, 왕굴자리)한 입,
5월령 향인 8량, 금은하 2량, 정력자 2량,
6월령 도인(桃仁)8량, 버들고리 1부,
9월령 창출 4근, 금은하 1량, 백급 2량(이상은 「구연기지」에 의함)

진상 산꿩(活雉) 5마리,
3월령(三月令) 백급 1량, 람칠 1량5전, 담죽엽(淡竹葉) 7량3전
5월령 향인 5량, 정력자 1량, 금은화 3량
6월령 옥리인(郁李仁)6전, 별복태수(別卜胎水) 1합, 백급 3량
10월령 위령선 6량(이상 「전성지」에 의함)

제도적으로는 품목에 수량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첨가하여 유력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강요하는 막대한 수량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적(古蹟)

용당(龍塘): 현의 동쪽 15리 명학리 황우재에 있으며 비가 오게 빌던 곳이다.

동진(東津): 현의 동쪽 5리에 있으며 관선(官船)이 1척 있다. 강의 기원은 셋이며 하나는 진천(鎭川)의 두타산(頭陀山)이요, 하나는 청주의 적곡(赤谷)이요, 또 하나는 전의 갈기(葛岐)이다. 셋이 합류하여 동진에 들었다가 남쪽으로 흘러 공주의 금강으로 들어간다. 동진이 관선이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배이기 때문에 큰 신발을 <동진 배만하다>는 세속적인 표현이 있다.

동진평(東津坪): 동진나루의 동쪽에 있으며 들은 넓고 습하다. 임진왜란에 승장(僧將) 영규대사가 승병 500명을 이끌고와 연기의 관군과 합세하여 마침 왜적을 만나 싸우게 되었는데 연기 현감이 뒤로 도망치려 하였다. 영규대사가 지팡이를 들고 그 머리를 치면서 말하기를 태평시대에는 앉아서 국록을 먹으면서 난시를 당하여 어찌 먼저 도망쳐 달아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그리하여 힘을 합쳐서 싸워 이겼다. (「대동야승」에 남)

정(亭)

합강정(合江亭): 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5강 8정의 오강(吳江)은 동진하류), 초강(楚江)은 부강하류이다. 그리고 금강과 백강(백마강) 청강(백마강하류)을 합하여 5강이며, 오 · 초 2강이 여기서 합치기 때문에 합강이라고 한다. 8정은 합강정, 독락정(獨樂亭), 한림정(翰林亭), 탁금정(濯錦亭), 금벽정(錦壁亭), 사송정(四松亭), 청풍정(淸風亭), 수북정(水北亭)이다. 옛날의 예로는 논산과 강경의 상선들이 이들 8정을 지날 때 나루세를 물어야만 했다고 옛읍지에 전하고 있다.

관청과 공서(公署)

아사(衙舍) 42칸, 객사(客舍) 56칸, 향사당(鄉射堂) 관청(官廳) 15칸, 작청(作廳) · 연병관(練兵館) 8칸, 군기청(軍機廳) 7칸, 영도(冷圈) 둘레 12칸이다.

아사(衙舍)는 옛날에 수령이 정무를 보고 사람을 만나던 곳이니 지금의 군청사이며 남면 연기리의 길을 건너 놀왕리쪽에 있는 「아사터」가 그 자리이다. 객사는 전패(殿牌)를 모시고 군사가 매달 초하루 보름의 삭망에 망하례(望賀禮)를 올리고 나라에 애경사가 있으면 보름에 곡하거나 하례를 올렸다. 관리가 객으로 올 때에는 여기에서 접대하였다.

향사당은 옛날에 활쏘던 곳이며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일보던 곳이다. 관청은 군수의 일용 물품을 공급한 곳이다. 작청은 공형(公兄)이 일을 보던 곳이며 영오는 옥으로 지금의 형무소이다.

선생안(先生案)

연기현의 선생안(역대현감의 임명과 전임 사임에 관한 기록)이 구읍지에 없다. 그리고 옛날 연기읍에서 보존하고 있었던 안(기록)은 갑오년 동학의 난을 당하여 옛 관아의 뒷산에 묻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묻은 땅을 알 수 없고, 흩어진 것을 주워모은 것 또한 수집에 불과하니 세대의 차례와 임체의 기간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 차라리 신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니 신지 아니한다고 하듯이 결국 연기현의 〈선생안〉은 인멸되어 전하지 못한 것이다.

관원안(官員案)

조선시대에는 현감(縣監)이라 하고 부하에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의 6방을 두어서 사무를 분담케 하다가 고종 33년(1896)의 관제개혁으로 현감을 군수로 개칭하고 6방은 그대로 두었다. 그러다가 고종의 정미년(1907)에 6방을 폐지하고 군주사와 서기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케 하고 지방위원을 두어서 도정자문기관에 참여하다가 지방위원을 군참사로 개칭하였다. 순종 말년에 군주사는 군서기로 서기는 고원이라 하고 그후 서기는 속(屬)이라 하였다. 그리고 군참사는

도평의원이라 하다가 1933년 도회의원으로 개칭, 도정 결의기관에서 군을 대표하게 되었다.

「舊誌」에는 관직현감(官職縣監) 이라하고 음육품(蔭六品)이며 그 밑에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8인, 아전(衙前) 20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13인, 관노(官奴) 24인, 관비(官婢) 22인이 딸렸다고 하였다.

문 묘(文廟)

연기향교(燕岐鄉校): 옛 향교는 읍의 서쪽 3리에 있었다. 48간이며 동재에 도유사 1명 장의 2명, 서재에 장의 1명 유사 2명 교생(敎生) 60명 수호(守護) 30명이다. 「舊誌」에서 인용함.

숭정(崇禎)후 5정해(1827)에 현의 동쪽 2리에 옮겨 세웠다.

대성전 15간, 신문(神門) 3간, 동협문(東挾門) 1간, 지금은 없음.

명륜당(明倫堂) 9간, 동재 3간, 서재 3간, 지금은 없음.

반화루(攀化樓) 10간, 지금은 없음.

외동협문(外東挾門) 1간, 지금은 없음.

전사청(典祀廳) 7간, 별재(別齋) 2간, 지금은 없음.

중실(中室) 5간, 지금은 없음

전사청정문 3간 신좌(神座) (정위) 대성지승 문성왕(중앙에 있으며 남면함)

배 형	중국 복승공 안씨(서향)	기국 술승공 공씨(서향)
	연국 종승공 로씨(동향)	추국 아승 맹씨(동향)
동 무	도국공 주돈이 염계	낙국공 정이 이천
	홍유후 설총 빙월당	문성공 양유 회현
	문경공 김굉필 한헌당	문정공 조광조 정암
	문순공 이 황 퇴계	문성공 이이 율곡
	문원공 김장생 사계	문경공 김집 독신재
	문정공 송준길 동춘	
서 무	예국공 정이 명도	희국공 주희 회암
	문창공 최치원 고운	문충공 정몽주 보은
	문헌공 정여창 일두	문원공 이언유 회재
	문정공 김인후 하서	문간공 성혼 우계
	문렬공 조헌 중봉	문정공 송시렬 우암
	문순공 박세채 현석	

제기(현존) 유기구개 34좌 , 유작 37좌. 즉 구개 85좌. 목두구개 85개, 축대 26쌍. 조상 32좌. 폐백상 5좌. 향합 5좌. 향로 5좌. 존(尊)2좌. 용작 2좌. 유기(柳器) 2좌. 대사비 1좌. 축판 1좌.

제복(구건) 백삼 5. 흑삼 5. 전수 5, 후수 5. 상 5. 남관 5. 휘향 5. 버선 5. 신5. 혁대 5. 패옥5쌍. 침 5. 재복 3령. 모두 지금은 없음.

제복(신건) 백삼 1. 흑삼 1. 전수 1. 후수 5. 상 5. 남관 5. 사모 1. 유건 6. 후수 5. 상 5. 남관 5. 사모 1. 각대 2. 패옥 1쌍. 홀(새 것 1, 헌 것 5.), 단령1. 유건 6. 신 2. 철육(헌 것 1)

서책(구건) 주역대전 3권, 춘추 5권, 시전대전 2권, 언해 1권, 동래박의 1권, 하서집 8권, 서전언해 3권, 맹자대전 3권, 논어언해 1권, 이륜행실 1권, 5예의 1권.

도서(현존비품) 공무자석적도 3권, 회헌집 1권, 향약장정 1권, 양현전심록 4권, 타서집 8권, 속수삼강록 3권, 운음 1권, 재님안 4권, 향안 3권, 향사집성 1권, 향사홀기 3권, 청아록(靑莪錄) 14권, 향약안 2권, 원장안 1권, 향약안 2권, 원장안 1권, 원생안 1권, 서원별청안 1권, 교궁입법 1권, 향중좌목 1권, 향약설립안 1권, 경유사별안 1권, 청금록 1권, 향약좌목 2권, 향약강조 1권, 향교사례 1권, 경학원잡지 1권, 연고림환부수속서(緣故林還付手續書) 1권, 대제분방기 1권, 춘추향시도기 1권, 궤(櫃) 5, 학교규범 1권, 향교둔전량안 1권, 구폐절목 1권, 일향입법 1권, 구향안 1권, 심원록 1권, 연기향교흥학절목 3권, 예검도유사안 1권, 양재청아록 1권, 향교둔전도조기 1권, 조선문묘승무 유현록 1권, 한사궤변 2권, 유도(儒道) 36권, 대학 1책, 중용 1책, 맹자 1책, 시전 1책, 서전 1책, 신민잡지 12권, 제주용과표 1권, 직원장의청금록 2권, 모성계좌목 1권, 출납부 2권, 구건수잡부 1권, 기부대장 1권, 벼루만이 1좌, 교인(校印) 1, 대축벼루 1, 유리등 1.

단(壇)

사직단(社稷壇): 고대에 중국에서 사(社)는 서민들이 파종과 수확 등의 농제(農祭)나 촌락의 집회 장소였다. 직(稷)은 곡신으로서 그 제례의 대상이었다. 주왕조(周王朝)에서는 사(社)의 제는 지배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직(稷)은 조상신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봉건제국에서는 주를 종주로 하여 사직의 사(社)를 지내는 관습이 생겨났다. 그후 중국의 천자나 제후로서 새로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모두 사직단을 설치하여 백성을 위해 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사직단은 방형의 단상에 원추형의 돌을 세워 만들었는데 국도와 각지방의 치소부근에 설치하였다. 연기현의 사직사는 현의 동쪽 3리에 있었다. 신실(神室) 2칸과 재실 3칸이 있었다.

려 단

려신은 질병신(疾病神)이다. 려단은 질병신을 제사지내던 단이며 무주지고혼(無主之孤魂)을 위령하였던 단이다. 전쟁 등으로 죽은 병사들을 무주지고혼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전후 유행성 질병을 전사자의 영혼이 무주지고혼이 되어 일어난 것이라하여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한다. 현감이 제사를 지내오다가 1910년 합방과 함께 폐지되었다. 연기현의 북쪽 1리에 있었다. 신실 2

간과 재실 3칸이 있었다.

성황사(城隍祠): 성황사는 성황단(天主壇, 仙王壇, 서낭당)과 유사한 용어로 성황단을 보호하는 건축물이다. 흔히 향리에서는 고개길의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돌을 던져 쌓아놓은 것을 성황단이라고 한다. 서낭(城隍)이란 그 고장의 부락(富樂)을 수호하는 신을 의미하였다. 연기현의 성황사는 사직단의 남쪽 3리에 있었으며 3칸이었다.

서원(書院)

합호서원(合湖書院)

「연기지」에는 영당(影堂)과 부조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安裕 順興人 諡文成 影堂(안유 순흥인 시문성 영당)이 동면 합강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 기사만으로는 합호서원에 관하여 가장한 것은 알 수 없으니 「합호서원기」(合湖書院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숙종시대에 문성공의 후손으로 경신(景信) · 경인(景仁) · 경정(景精) 등이

영당(影堂)을 창건하고 문성공의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봄에 3월 3일과 가을에 9월 9일에 향사하였다. 그러다가 순조시대에 후손 사랑(師良)과 유림 임동승(林東昇) 등이 서원을 창립 춘추로 배형하다가 기사년에 대원군에 의하여 철폐당하였다. 그 후에는 후손들이 합호사(合湖祠)를 건립하여 문성공의 영정만을 모시고 춘추에 향사하다가 1931년 신미의 봄에 후손 배호(培鎬) 등이 유림의 동의를 얻어 서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하며 후손 연호(連鎬), 봉호(鳳鎬), 승헌(承憲) 등이 계속하여 증축하다가 1949년 기축(己丑)의 봄에 유림 유치각(兪致珪), 임헌상(林憲相) 장인환(張寅煥), 홍중협(洪鍾協), 홍재오(洪在五), 임헌빈(林憲斌), 유치도(兪致道) 등과 사전 회의를 거쳐 전국의 218향교의 동의를 얻은 후 성균관에 산신하였던 바 서원 복원에 관한 지명서가 내림으로 계액(揭額)하고 매년 9월 12일 문성공의 기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서원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댓배지붕 건물이며 앞에는 솟은 3문이 있다. 문공부 고시건물 제27호로 지정되었다가 1984년 5월 17일 문화재자료 제 41호로 재지정되었다.

봉암서원(鳳巖書院)

조치원에서 대전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약 5km정도 가면 봉암리부락에 이르게 되는데 봉암서원은 봉암리부락 동쪽 끝 해발 75m의 야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으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양지바른 곳이다.

현재 서원은 없어졌고 단지 야산 중턱에 봉암서원 사직비만 외롭게 서 있을 뿐이다.

이 서원은 송재(松齋) 한충(韓忠)선생,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선생, 우암(尤巖) 송시열(宋時烈)선생,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선생을 배향하던 서원으로 1651년(효종 신묘)에 시건하고 1665년(현종 을사)에 사약(賜額)하였다. 시건하였던 번암(礮岩)에서 석담(石潭)으로 다시 봉암으로 이 건한 것이다. 1864년에 대원군에 의하여 해철되어서 지금 「봉암서원 사적비」 이외에 건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재(齋)

육영재(毓英齋)

결성장씨의 강장으로 장훈(張訓) 3형제가 약 300년전에 건립한 것이라 하며 처음의 건립지는 서당말의 서당자리(송릉리 254번지의 1)였다고 한다.

1876년에 지금의 장소로 이 건하여 그 동안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는데 장씨 일문에서만도 6진사를 배출하였다. 1921년에 기성학교(期成學校)를 개설하여 초중교의 과정을 교육하다 1926년에 연동 공립보통학교가 창립되면서 학생을 인도하고 폐교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결성장씨 문중에서 서당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약간의 전답과 건물이 남아있다. 소장서적은 시전, 서전, 주역, 강목, 한서, 춘추, 좌전, 홍사, 세설, 휘어, 통감, 경원다실 등이 있다.

성지(城址)

「燕岐誌」에는 연기군내의 산성에 대하여 남면의 원수산성(元帥山城), 개소문산성(蓋蘇文山城), 운주산성(雲住山城), 고려산성(高麗山城), 이성(李城), 금성(金城)등 6성을 열거하고 약간의 설명을 붙이고 있지만 이중에서 개소문산성은 금남면의 부용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덕군 구직면 신동리 금강의 벼랑에 있는 산성이다.

이와같이 「燕岐誌」의 성지(城地)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부실한 것이지만 일찌기 「대동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의현>

- 증산(甌山): 현의 서북 5리에 있으며 전의현의 진산이다. 증산산성은 석축으로 둘레는 932척이다.
- 고산(高山): 현의 동쪽 8리에 있으며 고산산성은 석축으로 5,132척이다.
- 운주산(雲住山): 현의 남쪽 7리에 있으며 증산·고산과 더불어 정치(鼎峙)하고 있다. 금이성(金伊城)은 운주산에 있으며 석축으로 둘레는 1,528척이다.
- 이성(李城): 운주산의 북봉(北峯)에 있으며 석축으로 전하기를 이도(李棹)가 있던 곳이라 하며 그 안이 넓고 높다. 둘레는 1,184척이다.

〈연기현〉

○성산(城山): 현의 동쪽 1리에 있으며 현의 진산(鎭山)이다. 성산성(城山城)은 석축으로 둘레는 2,671척이다.

(이 산성이 연기의 당산성이다. 그리고 산성의 둘레에 있어서 전동의 금이성이나 이성보다 훨씬 길다)

○원수산(元帥山):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고려 충령왕 17년에 합단적(哈丹賊)이 침입함으로 원나라 장수 설도간과 고려의 장군 한희류(韓希愈), 김흔, 인후(印候) 등이 서면의 정좌산(正左山)부터 합단적을 쫓아 이곳에 진을 치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 그리하여 금강까지 적의 시체가 30여리를 메웠다. 그래서 이 산성을 원수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백제의 웅진왕도시대에 고구려와 신라로부터 웅진왕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의현과 연기현—지금의 연기군 일대에 많은 산성을 축조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지금의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남이면 · 문의면 일대에 많은 산성을 축조하여야만 하였다. 연기의 당산성부터 30리 이내에 있는 산성들을 북에서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연기군)

1. 고려산성
2. 증산성
3. 전의 읍내리산성
4. 고산산성

- | | |
|-----------|-----------|
| 5. 이성산성 | 6. 금이산성 |
| 7. 황우산성 | 8. 당산성 |
| 9. 진의리산성 | 10. 라성리산성 |
| 11. 와촌리산성 | 12. 출동산성 |

(청원군)

- | | |
|--------------------|-------------------|
| 1. 부모산성(청주시 강서동) | 2. 은적산성(강내면 전산리) |
| 3. 태성리산성(강내면 태성리) | 3. 병마산성(강외면 정중리) |
| 5. 동림산성(옥산면 동림리) | 6. 구들기산성(부용면 부용리) |
| 7. 독안산성(남이면 산악리) | 8. 복두산성(부용면 문곡리) |
| 9. 성재성(부용면 부강리) | 10. 노고산성(부용면 등곡리) |
| 11. 아기바위성(부용면 등곡리) | |

연기의 당산성(唐山城)과 함께 당산성 동쪽 동면에 있는 출동산성(出東山城)과 황우산성(黃牛山城)의 2개 산성에 대하여 아래에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당산성(唐山城)

대전에서 조치원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종촌을 지나 연기리에 이르면 국도와 인접한 동쪽에 표고 160m의 당산이 위치하고 있다.

연기리와 보통리에 걸친 당산의 정산에는 돌기(突起)한 2개의 봉우리가 250m의 간격을 두고 남북에 대치하고 있어서 그 자연 지세가 표주박과 같은

형태이다.

이 산성은 남쪽 주봉에 토석혼축으로 테피식산성을 축조한 다음 이와 연결하여 북쪽의 산성을 토축하여 2개의 산성으로 축조한 복합식 산성이다.

이 산성은 축조상태로 보아 두 번에 걸쳐서 축조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먼저 구축된 남쪽의 주성은 돌기된 주봉에 토석혼축의 테피식 산성을 구축하여 그 형태는 대략 원형을 이루고 있다. 성의 둘레는 540m 성벽의 높이는 2m 내외이다.

후기에 확장시킨 것으로 보이는 북쪽의 토성은 이미 축조된 남쪽의 성벽을 연결하여 구릉의 능선을 따라 토축으로 북쪽 봉우리까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길이 600m, 성벽 높이 2m 내외이다.

2개의 봉우리 사이의 중간 낮고 잘룩한 부분의 성벽일부가 잘려서 연기리와 보통리를 잇는 지름길로 이용되는데 이 자리가 성으로 출입하는 문지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산성내에는 건물지로 보이는 2~3개소의 평탄한 지대가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삼국시대를 상한으로 하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는데 그중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과 고려시대의 어골문의 기와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호천의 하류 가까이에 축조된 이 산성은 동쪽으로 미호천 건너 동면에 출동산성과 황우산성을 건너가보고, 서쪽으로는 서면의 와촌리산성과 기룡리봉수(起龍里烽燧)를 건너다 보고, 남쪽으로는 남면의 진의리산성과 갈운리산성을 건너다 보고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전동면과 전의면의 많은 산성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궁편들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일부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요충지이다.

출동산성(出東山城)

출동산성은 연기리에서 동진나루를 건너 용호리를 지나 출동산의 정상에 축조된 전형적인 토성이다. 즉 뾰족한 정상의 흙을 긁어내려서 편지를 만들고 그 흙을 다져서 사면을 곧세워 깎아지른 듯한 낭어덕을 만드는 방법이다.

출동산성은 아와같이 만든 산성치고는 규모가 큰 것일 뿐 아니라 흙이 잘 다져져서 오늘날까지 대부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황우산성(黃牛山城)

이 산성은 동면의 합강리와 명학리에 걸쳐있다. 이 산성은 출동산성 아래의 고개를 넘어 부강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백천교 못미처에서 약 1km 남쪽에 위치한 황우산의 정상에 축조되었다.

황우산은 해발 180m이며 산성으로 통하는 길은 그다지 험하지 않고, 높게 생각되는 산이 아니지만 산정에서 서쪽으로 휘여서 흐르는 금강과 북쪽으로 멀리 미호천변의 넓은 들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성벽은 산의 정상부로서 그다지 넓지 않은 지형을 에워싸고 있는 퇴퇴형이 토석혼축성이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의 성벽의 상태는 동북벽의 일부와 서벽의 일부에서만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남벽과 북벽의 일부는 성벽의 통과지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장 잘 남아 있는 동북벽에서의 성벽 내고(內高)는 1m이고 외고(外高)는 약 3m로 토석혼축이며 산성의 전체적인 평면은 말밭급형에 가깝다. 성벽의 통과지점에서 문지라고 생각되는곳은 1개소에 불과하며, 문지

의 폭은 약 2~3m 정도이다.

성내에서 평탄한 대지는 성의 중앙 북쪽에 한 군데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평탄한 대지가 건물지로 추정되며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로는 백제시대의 토기편들이다.

둘레는 약 250m에 달하며 성의 축조에 관한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 또는 읍지 등에도 이 성에 관한 기록은 없고 최근에 간행된 연기향토사연구소에서 간행한 「향토사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산성에서 남쪽으로 한내(白川) 건너 부장에서 매포로 넘어가는 존들고개 위에 축조된 구들기산성이 지호지간(指呼之間)으로 가깝게 보일 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한내의 상류에 은적산성이 역시 지호지간으로 가깝게 보인다.

그리고 존들고개는 부장에서 매포로 넘어가 대전방면으로 갈 수도 있고 문의방면으로 갈 수 있는 고개일 뿐 아니라 은적산성 아래에 청주로 가는 큰 길이 통한 점으로 보아서 이 산성의 군사적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4. 日帝下의 燕岐郡과 東面

日帝下의 燕岐郡과 東面

1894년과 1895년의 2년간에 걸친 청나라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10년후인 1905년과 1906년의 2년간에 걸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일방적으로 한국을 병합하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연기에도 다음과 같은 근대적인 식민지 통치의 기구와 식민지 착취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경부선 철도의 부설

조선시대의 연기는 전형적인 한국 농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연기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고나서 부터였다.

지난 천여년동안 연기의 중심지로서 현청이 있었던 남면 연기리에서 현청이 조치원으로 옮겨지며 조치원은 그때까지의 일개 한 촌의 모습을 벗고 교

통의 중심지로 그리고 상교역(商交易)의 중심지로 급속히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자본주의는 1880년대에 들어서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며 거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제국주의로 이행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이권 쟁탈의 침략행위는 한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던 일본에 의하여 철저히 자행되었다. 구미 열강이 한국에서 각종 이권을 다투던 과정에서 일본이 청국을 이기고 이어서 러시아를 물리침으로서 일본은 그들에 우선하여 한국에서 철도부설권, 해관(海關)관리권, 전기(電氣)사업권, 포경(捕鯨)어획권 등을 탈취하였다.

고종 건양원년(1896)에 경인철도부설권이 미국인 「모오스」에게 넘어가고 경의철도 부설권이 프랑스인 「그릴르」에게 넘어가자 일본은 총력을 기울여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한국정부와 백방으로 교섭하여 그해 9월 9일에 한·일 양국의 공동경영을 전제한 경부철도 합동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드디어 일본의 숙원은 달성되었다. 그리하여 1901년 6월에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그해 8월 21일, 북쪽끝의 영등포와 남쪽 끝의 초량에서 각각 기공식을 올리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경부선의 부설공사는 초량, 대구, 조치원, 영등포에 건설사무소를 두고 속성공사를 추진하였지만 성현(省峴) - 부강간의 120리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1903년 7월부터 12월사이에 이 구간을 측량하였지만 속성공사를 하려면 개측(改測)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1904년 1월말 영동·전의간의 공사를 위한 개측에 착수하여 곧 공사에 착공 그해 10월에 성현·영동간의 공사를 준공하고 다시 북진하여 1904년 11월 10일에 서울 기점 126.42마일(심천정거자 남단)지점에서 남북궤도의 연결 접합을 보게 되어 경

부철도의 속성공사가 준공되었다.

속성공사에 이어 터널, 교량등 부대공사를 매듭짓고 1904년 12월 27일 초량·영등포간의 여객 취급에 이어 1905년 1월 1일에는 전선 개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05년 5월 25일에 남대문 정거장의 구내 광장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경부선의 각구간 기공 및 준공 일정은 다음 표와 같지만 이 경부선은 동면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되어 이로 말할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미호천과 백천에 철교가 가설되고 동일면과 동일면을 가르는 경계에 터널을 뚫어서 하나로 한 것이다.

경부선의 기공과 준공상황

착공순	구 간	기공일	준 공 일
1	부산방면: 초량~구포	1901.10.	1902.10.
	서울방면: 영등포~명학동	1901.8.21	1902.10.10
2	부산방면: 구포~밀양	1902.8.	1903.12.
	서울방면: 명학동~진위	1902.9.	1903.10.
3	부산방면: 밀양~성현(省峴)	1903.4.	1904.4.
	서울방면: 진위~부강	1903.5	1904.7.
4 속성	부산방면: 성현~영동	1904.3.	1904.10.
	서울방면: 부강~영동	1904.4.	1904.11
5	부산방면: 부산~초량	1905.12.	(남대문과 1~2개소의 교량은 1903.7월에 기공 1906.1월에 준공)
	서울방면: 영등포~남대문	1905.3.	

경부선의 개업역(開業驛)

(1905.1.1. 현재)

초량	X부산진	구포	X물금	X원동
삼랑진	밀양	X유천	청도	경산
대구	X신동	왜관	X약목	금오산
김천	추풍령	X황간	X미륵	영동
X심천	X이원	옥천	증약	대전
X평촌	X신탄진	X馬尾浦	부강	X내판
조치원	X葛巨里	전의	소정리	천안
X직산	성환	평택	X서정리	진위
오산	X병점	수원	X부곡	군포장
X안양	X시흥	(영등포)		

(X표는 역원을 배치하지 않은 역)

〈馬尾浦는 말미개로 지금의 梅浦이며 葛巨리는 갈거리로 지금의 전동이다〉

조치원역:

조치원에 있다. 광무 8년(1904) 봄에 경부선 개통하면서 설치되었다. 1년간 승객은 89,200여명이며 나린 사람은 92,200여명이며 소화물의 발송은 110,670여톤이며 도착은 266,590여톤이다. 대화물의 발송은 19,130여톤이며 도착은 209,670여톤이며 이에 대한 수입은 여객이 114,980여원이며 화물은 91,710여원이다. 직원은 역장 1명 조역은 2명이다

조치원역창고(鳥致院驛倉庫):

조치원역전에 있으며 조치원역에서 사용하는 부속 창고이다.

내판역:

동면 내판리 75번지에 있으며 1926년 봄에 역원을 배치하였다. 1년간의 승객은 9,800여명이며 내린사람(降客)은 11,100여명, 소화물의 발송과 도착은 각각 1톤이며 대화물의 발송은 510여톤, 도착은 170여톤인데 수입은 여객이 1,980여원, 화물이 470여원이며 직원은 역원 1명을 두고 전반사무를 취급케 한다. 이것을 다른 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동역:

전동면 노장리에 있다. 1927년 봄에 건설한 간이역으로 직원을 두지 않고 여객이 자유승객케 하며 승차권발행과 누함은 차장이 대행한다.

전의역:

전의역 읍내리에 있으며 조치원역과 동시에 건설되었다. 1년간 승객은 30,300여명이며 내린 사람은 27,900여명이다. 소화물의 발송은 4,810여톤이며 도착은 12,208여톤 대화물의 발송은 3,960여톤이며 도착은 1,750여톤이며 이에 대한 수입은 여객이 12,860여원이며 화물은 9,980여원이며 직원은 역장과 조역 각각 1명씩이다.

관공서(官公署)

군청(郡廳):

군의 행정을 맡은 곳이며 직원은 군수로 주임관(奏任官) 1명, 군속(郡屬) 8명, 삼림주사(森林主事) 1명, 고원(雇員) 9명, 측량수 1명, 도비지변직원(道費支辨職員) 기수(技手) 5명, 지방삼림주사(地方森林主事) 1명과 주사보 5명 지방교화주사(地方教化主事) 1명, 지방서기 1명 고원 및 학교비서기 1명, 급사 3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각면에 면사무소가 있었고 동면에 동면사무소가 있었다.

동면사무소:

내판리에 있으며 직원으로는 면장 1명, 서기 5명, 기수 1명, 구장 11명이 있고 면협의회원 10명 그리고 급사 1명이 있었다.

동면사무소가 내판리에 있다고 하였지만 그 터에는 지금 내판 2구의 노인정이 들어서 있다. 처음에 면사무소가 내판리에 있다가 내판역 가까이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조치원경찰서(鳥致院警察署):

조치원리에 있다. 1902년부터 천안 현병부대 분견소로서 설치하였다가 1919년부터 경찰서로 변경되었다. 직원은 서장 <경부(警部)> 1명, 경부보 2

명, 부장 6명, 순사 11명이며 서면 신대리, 남면 연기리, 금남면 대평리, 동면 내판리, 전동면 노장리, 전의면 읍내리, 소정리에 경찰관 주재소를 두고 주재소 주임으로 부장 또는 순사 1명 또는 1~3명을 두었다.

동면의 경찰관 주재소:

내판 2구 지금 임기성씨택의 자리에 있었다. 면사무소는 근대적으로 신축한 건물이었고 주재소는 민가를 개조한 건물이었다. 면사무소가 지금의 내판역 가까운 위치로 이전하면서 주재소 또한 얼마안가 내판역 가까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공주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

조치원리에 있다. 1916년 가을에 설치되어 토지등기를 전문을 취급했다. 직원은 서기 1명(판임관), 고원 1명, 급사 1명으로 후일의 조치원등기소이다.

곡물검사소 인천지소 조치원출장소(穀物檢査所 仁川支所 鳥致院出張所):

조치원에 있다. 1923년 4월 1일에 연기군 면작조합(棉作組合) 잠업조합(蠶業組合) 지극회(地主會) 새끼와 가마니 개량조합 등을 합병하여 연기군농회를 조직 군내에서 생산하는 미곡 및 새끼 가마니를 검사한 바 1927년 충청남도 지방비로 이관 다시 1923년 7월 1일부터 국명으로 이관하였다. 직원으로

는 검사관 4명이 있다.

연기군사방사무소(燕岐郡砂防事務所):

조치원에 있으며 1918년에 군내의 사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립하였다. 사방공사장 7개소가 있다.

전주전매지국 조치원판매소(全州專賣支局 烏致院販賣所):

조치원에 있으며 1931년 7월 1일 직명. 직원은 소장 1명, 고원 1명, 용인 4명이 있다.

연기군농회(燕岐郡農會):

연기군청내에 있다 농촌의 제반시설과 지도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법인 단체로 11년간 세입은 3만원정도 세출은 회원(농촌의 농민에 한한)의 회비와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잡수입과 도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회장은 군수, 지회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서기와 기수를 두고 처리 하였다.

농업창고(農業倉庫):

조치원에 있으며 농촌의 어려운 경제를 완하하기 위하여 도농회에서 경영 하는 창고이다.

전결(田結) 부과세지가(附價稅地價)

〈결(結)-부(負)-속(束)〉

논 1,124결 89부 1속

밭 1,736결 79부 6속

(주) 옛날에는 10속을 1부, 100부를 1결이라고 하여 쌀과 콩 등으로 납세 하는데 1결에 대한 납입액은 군마다 달랐지만 최근에는 1결에 8원부터 12원 까지 징수하다가 1916년부터 지가에 의하여 1000지 17을 국세로, 국세 1환에 대하여 54전 5리는 지방세로, 60전을 면비로 징수하게 되었다.

과세지가(課稅地價)

논 886,184원 45전

밭 2,606,918원 95전

터 321,084원 08전

부담세액(負擔稅額)

조세총액 105,841원 38전

지세 62,999원 61전

소득세 7,831원 27전

광세 1,312원 07전

영업세 3,905원 83전

주세 28,859원 23전

자본이자세 420원

지방세총액 66,274원 26전

지세부가세 37,272원 21전

호세 12,082원 71전

가옥세 3,412원 03전

차량세 2,544원 05전

소득세부가세 410원 59전

도축세 3,789원

부동산취득세 5,091원 30전

세외수입 1,217원 37전

직접세 부담액

1호당 평균 17원 74전 8리이며 한 사람당 평균 3원 29전 8리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 76,468원 78전에 일호당 평균 6원 47전 4리이며 일인당 평균은 1원 20전 3리이다.

지방세 61,267원 89전에 일호당 평균 5원 18전 3리이며 일인당 평균이 96전 3리이다.

읍면세 53,703원 60전에 일호당 평균 4원 53전 6리이며 일인당 평균이 84전 4리이다.

학교비부과금 7,163원 60전에 일호당 평균이 60전 6리이며 일인당 평균이 11전 3리이다.

학교조합비 11,163원 일호당 평균이 94전 4리이며 일인당 평균이 17전 5리이다.

잡종지 400,000.33전

지 소(池沼) 46.79전

총 계 3,810,278.60전

토지면적(土地面積)

총계 31,541정 1무 21보

민유과세지(民有課稅地)

10,480정 5단 5무 17보

밭 4,027정5단 8보
논 5,923정 5단 5무 4보
터 528정 7단 6무 14보
잡종지 6단 2무 22보
지소(池沼)10단 29보

민유비과세지(民有非課稅地)

17,908정 6단 3무 11보

임야 17,727정 8단 1무 28보
사사지(社寺地) 2정 2무 5보
분묘지 47정 7단 4무 11보
철도용지 2정 9단 2무 5보
철도선로 1정 3단 6무 21보
도로 21정 8단 9무 5보
하천 60정 7단 3무 25보
구거(溝渠) 15정 9단 21보
류지(溜池) 8정 2무 21보
제방 10정 1단 9무 13보

토 지 면 적

소유별 종별	민 유 과 세 지			민 유 비 과 세 지			국 유 지		
	논	4,000	0.27 ^정	5.008				51 ^정	4.508
밭	5		5.504				5	4906	
터			7.614				2	3.305	
임야				17	727	8.128	2	920	5.924
잡종지			6222						
사사지 (社寺地)					2	205			
분묘지					47	7.411			
철도용지					2	9.211	33	9.219	
철도선로					1	3.621	20	7.712	
도로					21	8.905	20	4.119	
하천					60	7.325	88	3.108	
거거					15	9.021		1.203	
류지			1.029		8	221	28	4.023	
제방					10	1.913		321	
총계	10	480	5.517	17	908	5.311	3	151	8.623

국유지(國有地)

3,151정 8반 6무 23보

밭 51정 4단 5무 8보

논 5정 4단 9무 6보

터 2정 3단 3무 5보

지소 4단 23보

임야 2,921정 5단 9무 24보

철도용지 33정 9단 2무 19보

철도선로 7단 7무 12보

도로 20정 4단 1무 19보

하천 88정 3단 1무 3보

읍면기본재산(邑面基本財産)

<1933. 3 현재>

동면재산 총가액 14,293,76 원정

논 4,044평 시가 2,486원 40전

밭 5,039평 시가 755원 85전

터 486평 시가 145원 80전

산림 및 잡종지 112,706평 시가 5,635원 30전

건물 20평 시가 1,100원
 씨숫소 3마리 시가 444원
 현금 3,726원

이에 대하여 다른 읍, 면의 재산 총가격은 다음과 같다.

조치원읍 59,403원14전
 서 면 23,488원24전
 남 면 30,214원 83전
 금 남 면 30,428원 82전
 전 의 면 11,829원 18전
 전 동 면 8,111원 25전

〈 1933년 3월말 현재〉

논 4,144평	시가 2,486,40 ^전	밭 5,039평	시가 755,85 ^전
밭 486평	시가 145,85	산림 및 잡종지 112,706 평	시가 5,635,30
건물 20평	시가 1,100,00		
현 금	3,726,41	씨숫소 3마리	시가 444,00

(총가격 : 14,293원76전)

호구(戶口)

〈1932년말 현재〉

호수 11,819호

인구 63,589명

조선인 호수 11,379호

일본인 호수 405호

조선인 남자 31,529명

여자 30,314명

일본인 남자 823명

여자 835명

중국인 37호 남 80명 , 여자 8명

토지소유자 수

5단 이하 소유자

조선인 5,212명

일본인 194명

외국인 3명

5단 이상 소유자

조선인 1,916명

일본인 111명

1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1,702명

일본인 123명

외국인 1명

3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339명

일본인 40명

외국인 1명

5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179명

일본인 24명

외국인 1명

10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61명

일본인 14명

20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18명

일본인 6명

토지소유자 민족별 수

〈1932년말 현재〉

면적별 \ 민족별	조선인소유	일본인소유	외국인소유
5반 이하	5,212 (62%)	194 (38%)	3
5반 이상	916 (11%)	111 (21%)	
1정 이상	1,702 (20%)	123 (24%)	1
3정 이상	339 (4%)	40 (8%)	1
5정 이상	179 (2%)	24 (5%)	1
10정 이상	61(0.7%)	14 (3%)	
20정 이상	18(0.2%)	6 (1%)	
30정 이상	9	1	
40정 이상	5	1	
50정 이상	2	2	
100정 이상		2	
계	8,443	518	6

30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9명

일본인 1명

40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5명

일본인 1명

50정 이상 소유자

조선인 2명

일본인 2명

100정 이상 소유자

일본인 2명 뿐이다

이상 총계 9,967명

조선인 9,443명

일본인 518명

외국인 6명

조선인과 일본인의 소유토지의 비교

조치원읍

조선인 소유토지

574평 116정 8단 7무 지가 38,292원

일본인 소유토지

949평 120정 6단 4무 지가 134,141원

조선인, 일본인 소유 토지면적 및 지가

민족별 읍면별	조선인 소유 토지				일본인 소유 토지			
	필 수	면 적		지 가	필 수	면 적		지 가
조치원읍	574	116	87	38,292 ^원	949	120	64	139,141 ^원
동 면	5,995	14,035	03	360,664	979	300	08	39,551
서 면	8,663	1,730	42	470,983	1,336	343	04	144,795
남 면	6,893	1,763	64	644,753	1,570	276	28	12,148
금 남 면	1,022	1,711	47	11,825	1,471	325	84	(미상)
전 의 면	632	1,355	31	560,131	162	32	99	14,545
전 동 면	(미상)	1,501	26	571,254	(미상)	99	74	22,293

동면

조선인 소유토지

5,995필 14.035정 3무 지가 3310,664원

일본인 소유토지

795필 300정 8무 지가 39,551원

회사 및 단체

조선물산주식회사(朝鮮物産株式會社):

조치원리에 있으며 1928년 4월에 창립되었다. 새끼·가마니·비료·건물의 매매업. 공칭자본금(公稱資本金)은 20만원이다.

조영토지주식회사(朝永土地株式會社):

조치원리에 있으며 1922년 6월에 창립되었다. 토지·건물영업, 금융업. 공칭자본금 50만원이다.

중정장유합자회사(中井裝油合資會社):

조치원리에 있으며 1926년 3월에 창립되었다. 간장제조와 판매업. 공칭자본금 3만원

조치원창고주식회사(鳥致院倉庫株式會社):

조치원에 있으며 1910년 5월 창립 창고업 공칭자본금 1만원이다.

공립창고물산주식회사(共立倉庫物産株式會社):

조치원리에 있으며 1920년 10월에 창립, 운송 및 창고업. 공칭자본금 100만원이다.

대전전기주식회사 조치원출장소(大田電氣株式會社 鳥致遠出張所):

1920년 12월에 대전에서 조치원리에 지점을 두었다.

남북면업주식회사 조치원조면공장(南北綿業株式會社 烏致院繰綿工場):

미쓰이(三井) 계통의 동양면화주식회사의 방계회사로 자본금 백만원의 본사를 목포에 두고 1924년 1월에 공장을 조치원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면화의 매매와 조면가공을 주업으로 하며 직공이 200여명에 달하고 조면능력이 실면 3만근 이상으로 창업 이래로 충남에서 생산하는 육지면 매수인으로 지정되었다.

합자회사 산일제사공장(合資會社 山一製絲工場):

조치원리에 있으며 1927년 6월에 창립, 공칭자본금은 5천원, 직공은 50여명이다.

백정제사공장(白井製絲工場):

서면 내창리에 있으며 1922년 9월에 설립되었다. 공칭자본은 20만원이며 직공은 160여명이다.

천년농장(千年農場):

금남면 대평리에 있으며 1931년 4월에 창립, 공칭자본금 20만원이다.

금남농장(錦南農場):

금남면 대평리에 있으며 1931년 4월에 창립, 공칭자본금 10만원이다.

반전농장(飯田農場):

금남면 진의리에 있다.

양조장(釀造場)10개소. 조치원읍 3개소, 동면 2개소, 남면 1개소, 금남면 1개소, 전의면 1개소,전동면 2개소

동면에는 양조장이 내판리와 명학리의 대추밭 모퉁이에 있었다.

권농공제조합(勸農共濟組合):

각면의 극빈농가를 구제하기 위하여 창립한 조합으로 금융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무산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조합원에게 평균 20원씩의 융통자금을 대부한 바 조합수 및 조합원수 등은 다음과 같다.

동 면:

1928년 9월에 창립 조합수 4개소, 조합원수 120명, 대부총액 5,111원이다.

서 면:

1929년 10월 창립, 조합수 4개소, 조합원수 119명, 대부총액은 4,626원이다.

남 면:

1929년 9월 창립, 조합수 3개소, 조합원수 77명, 대부총액 3,150원이다

금남면:

1928년 9월 창립, 조합수 3개소, 조합원수 114명, 대부총액 2,163원이다.

전의면:

1929년 10월 창립, 조합수 3개소, 조합원수 95명, 대부총액 1,592원이다.

전동면:

1929년 10월 창립, 조합수 4개소, 조합원수 123명, 대부총액 2,325원이다.

진흥회(振興會):

도의 지휘하에 각 군에서 장려한 단체로서 각 리에 1개소 또는 구(區)에 의하여 2개소를 창립하고 각 리의 진흥회를 연합하며 군연합회라고 하였다. 군내의 진흥회 수 및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기군진흥회연합회:

1개소, 읍진흥회연합회 1개소, 면진흥회연합회 6개소, 리진흥회 100개소인데 각 진흥회의 전체 회원수는 10,377명이다.

조치원상업연구회(鳥致院商業研究會):

조치원에 있으며 1926년 8월에 모든 상권에 대하여 일본인들과 경쟁할 수 없음을 개탄하여 박기수(朴基守), 김병섭(金炳燮)외 몇 사람의 발의에 의하여 조작된 후 상업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금융업(金融業)

조선식산은행 조치원지점(朝鮮殖産銀行 烏致院支占):

조치원리에 있다. 1918년 10월에 창립. 금융업. 영업구역은 연기군, 천안군, 아산군을 토대로 하여 대부금이 320만원 이상이며 1개년의 순이익은 49,000원 이상이다. 영업구내의 금융조합은 그 은행 지점의 대리 사무를 취급한다.

연기금융조합(燕岐金融組合):

금융조합은 광무 11년(1907) 5월 20일에 칙령 33호로 탁지부대신의 감독하에 농민의 금융을 환화하는 동시에 농사의 발달을 기도하기 위하여 13개조의 규약을 정하여 창립된 재단법인이다.

조합설립구역도 탁지부대신이 정하였다. 그 후 1910년 8월 29일 합방할 때 규약중 탁지부대신을 조선총독으로 변경 시행하였다.

본 조합은 1910년 6월 5일에 254명의 출자구좌수 290구좌(1구좌 10원)로 연기군만을 영업구역으로 정하며 창립하였다가 그후 조치원, 전의, 금양의 3개 조합이 창립됨에 따라 영업구역을 지양하여 현재의 영업구역은 동, 남, 서의 3개면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조합원수는 전보다 증가하여 1933년 9월 말 현재 1,302명(그 중 일본인 4명)이며 출자구좌수가 1,577구좌, 예금이 161,977원, 대부금이 175,061원, 차입금이 50,500원이다.

직원 조합장 1명, 이사 1명, 서기 5명, 평의원 6명, 감사 3명, 급사 1명, 사무소는 조치원리에 있다.

조치원금융조합(鳥致院金融組合)

조치원리에 있다. 1921년 3월 24일에 조치원면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설립되었는데 설립초에는 조합원 271명, 출자구좌 1,102구좌였으나 금년(1933) 9월말 현재 조합원수는 338명, 출자구좌수 1,050구좌이며 예금은 210,000원, 대출금 194,000원, 차입금 55,000원이다. 직원은 조합장 1명, 이사 1명, 서기 5명, 평의원 8명, 감사 3명, 급사 1명이다.

전의금융조합(全義金融組合):

전의면 읍내리에 있다. 1922년 5월 19일에 전의 전동 2개면과 천안군 광덕면과 풍세면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설립되었다. 설립초에는 150명의 조합원으로 출자구좌가 898구좌였으나 금년(1933) 9월말 현재로는 조합원 1,037명, 출자구좌수 1,451구좌로 늘고 예금이 62,185원, 대출금이 13,0465원, 차입금이 73,000원이다. 직원은 조합장 1명, 이사 1명, 서기 3명, 평의원 5명, 감사 3명, 급사 1명이다.

금양금융조합 (錦陽金融組合):

금남면 대평리에 있다. 1928년 6월에 연기금융조합의 지소로 설립되었다가 1923년 1월 15일에 40명의 조합원과 113구좌의 출자금으로 금양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금년 9월말 현재 조합원수가 841명, 출자구좌수는 1,160구좌, 예금이 45,368원, 대출금 121,550원, 차입금 89,000원이다. 직원은 조합장 1명, 이사 1명, 서기 3명, 평의원 6명, 감사 3명, 급사 1명이다.

소방조(消防組)

조치원소방조(鳥致院消防組):

조치원리에 있으며 30년전에 창립. 1년 경비는 1,200원 이상이며 직원과 소방수는 다음과 같다.

조두(組頭)와 부조두(副組頭) 각 1명, 소두(小頭) 10명, 소방수 49명, 펌프는 <가소린> 3대, 수압기 1대이다.

전의소방조(全義消防組):

전의면 읍내리에 있다. 10여년 전에 창립. 1년 경비는 400원 내외이며 직원 및 소방수는 42명이다.

대평리소방조(大平里消防組):

금남면 대평리에 있다. 금년 4월에 창립. 1년 경비는 600원 내외이며 직원 및 소방수는 44명이다.

이와같은 모든 것이 일본인을 본위로하고 일본제국주의를 본위로 한 것이 지 조선인을 본위로하고 조선인의 민족자본의 신장을 본위로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농잠업과 부업의 장려

군내 전 호수의 7할 6부 이상인 9천여 호가 농잠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군, 읍, 면에서 농잠업을 장려하고 부업으로 양잠, 가마니치기, 축산, 목화, 재배 등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마을에 진흥회 권농공제조합 기타 여러 가지의 모임 또는 조합을 조직하여 자치를 목표삼아 진행중이므로 제반 시설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마을이 있으면 군당국에서 모범 부락으로 지정하여 원조하고 지도하여 다른 마을로 하여금 모범이 되게하는 중이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량한 것을 열거하면 조치원읍의 신대리의 문맹퇴치, 서면 봉암리의 상원시설(桑園施設), 동면 명학리의 목화재배, 남면 양화리의 가마니치기, 금남면 신촌리의 근검저축, 전동면 노장리의 삼림보호, 전의면 고등리의 농비절약 등이 타지방의 모범이 될만한 실적이다.

연기와 전의의 옛 유지에 전하기를 기후 풍토가 적당함으로 구한국 농상공부의 임시 면화재배소에서 3정 4단의 채종원(採鍾園)을 설치한 것이 시작이 되어 그 후 충남도의 위탁원종포(委託原種圃) 20여 정보와 연기군의 채종포 70여 정보를 동면 명학리 기타에 설치함으로 1926년에 생산고 30만 4천근 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1932)에는 125만근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박하(薄荷): 박하유 제조 호수가 6호 년 생산액이 만여원에 달한다.

완초(왕굴): 현재 년 생산고가 천여관에 달한다.

기류(杞柳): 년 생산고가 2천여관에 달한다.

가마니(叭): 년 산고가 62만장으로 1930년도에 비하여 28만여장이 줄었다.

생사(生絲): 제사 호수가 2호로 년 산고가 1만 73kg이며 대금은 16만 7백 90원이다.

놋그릇(眞鍮器): 제조하는 호수가 2호이며 년 생산고는 1만 7천여원이다.

인조구슬(硝子眞珠): 일년 수출액이 수 10만원 달한다.

맥간제(麥稈製)·백목면(白木棉)

하천공사(河川工事)

조천개수공사(鳥川改修工事):

조치원읍의 시가지를 안고 흐르는 조천이 좁아서 수해가 크므로 1924년 가을에 36만원의 거액으로 개수공사를 시작하여 1926년 가을에 준공하는 동시에 46만원의 공사비로 조천교를 가설하였다.

미호천개수공사(美湖川改修工事):

이 내는 수원이 길고 멀어서 연안의 피해가 매년 적지 않기 때문에 미호천 상류인 청주지역에서는 10여년전부터 개수에 착수하여 3년전에 준공하였다. 이에 이어서 하류인 연기군지역의 개수에 착수하여 최초 계획대로 60만원의 경비로 3년간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부속공사가 많아서 경비도 초과하고 기일도 연장하였다.

대평리금강보안공사(大平里錦江保安工事):

대평리를 안고 흐르는 금강연안의 보안공사인데 기공은 1931년 준공은 1932년이였다.

월하천개수공사(月河川改修工事):

미호천 개수공사의 부속공사로 1916년 봄에 기공, 다음해 가을에 완료하였다.

노장리개수공사(盧長里改修工事):

전동면 노장리에 있었다. 8년전 병인년(1926)의 수해 후에 면장 권오영씨와 권오형씨 그리고 남성희씨의 노력과 도의 보조 14,000원과 지방민의 협력으로 2개년만에 준공되었다.

수리공사(水利工事)

장남수리조합(長南水利組合):

남면 진의리에 있다. 1927년 11월 31일 남면 양화리, 진의리, 송담리의 3개리와 공주군 장기면 나성리를 조합구역으로 하여 양화리의 금강우측 강쪽에 80마력의 원동기 2대를 장치하였다. 몽리면적은 438정 3반이며 사업비 총액은 226,000원 경상유지비는 37,003원이다.

발산수리계(鉢山水利契):

계룡천을 이용하여 금남면 발산, 용포, 신촌, 호탄, 석삼의 5개리를 몽리구역으로 하는 수리계이다.

대평수리계(大平水利契):

계룡천을 이용한 금남면과 대평리에 있는 수리계이다.

연동수리조합(燕東水利組合)

1931년부터 1934년의 3년간의 걸친 미호천 개수공사가 끝나고 이어서 예양리 앞의 예양천과 문주리 앞의 문주천의 개수공사가 끝난 후 1940년 12월 28일에 연동수리조합의 설치 인가가 났다. 몽리면적은 299.9정보로 1941년 1월 12일에 연동수리조합 설치 공사가 착공되었다. 총공사비는 351,218원으로 그해 5월 31일에 준공하였다. 때가 전시(戰時)로서 식량증산이 초미(焦尾)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둔 것이다.

제2 연동수리조합은 해방후 1952년 3월 25일에 설치 인가가 있었고 몽리면적은 200정보였다. 그해 3월 30일에 제2 연동수리조합의 공사 착공이 있었고 이어 6월 30일에 준공과 함께 가동이 시작되었다. 총공사비는 41,294,280원이었다. 그리고 1961년 12월 4일에 제1 연동수리조합과 제2 연동수리조합이 합병하여 연동수리조합이 되고 1962년 1월 21일에는 토지개량사법에 의거하여 연동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몽리면적은 총 499.9정보로 늘었지만 수리조합관계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사방공사(砂防工事)

191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사태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선내에서 처음으로 서면 동리에서 사방공사를 시행하여 성적이 좋으므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동면 2정 5반, 전의면 17정 5반, 전동면 1,013정 9반 4무, 서면 499정 2반 3무, 남면 576정 5반 4무, 금남면 105정 5반 5무이다.

임업(林業)

사방공사의 진행에 따라 그 구역내에 각종 묘목을 심었다. 1918년부터 1932년까지 심은 묘목은 838,000본 이었다. 현재의 임야면적 20,647정내에서 국유림 및 민유림의 조림성적은 다음과 같다.

국유 2,920정, 성림지(成林地) 1,235정, 치수지(稚樹理)724정, 미입목지(未立木地)571정, 산재지(散在地) 390정

민유 17,721정, 성림지(成林地) 409정, 치수지(稚樹地) 4,157정, 미립목지(未立木地) 1,946정, 산재지(散在地) 2,215정

의료기관(醫療機關)

의원 10개소. 조치원에 8개소, 남면 대평리와 전의면에 각각 1개소가 있었다. 의사 8명, 치과의 2명, 의생 13명, 약종상 33인(양약상 4명, 한약상 29명), 산과 4명, 침술 3명, 안마 1명, 피병사 2개소, 조치원 1개소, 금남면 대평리 1개소

대서소(代書所)

사법대서소(司法代書所) 7개소. 조치원에 5개소, 전의면에 1개소, 금남면 대평리에 1개소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대서소(行政代書所)가 각 면에 1개소가 있었다.

언론계(言論界)

신문사의 조치원지국(鳥致院支局)

조 선 문 -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각 1개소

일 본 문 - 조선중앙신문, 경성일보, 조선신문 각 1개소

전 의 분 국 - 동아일보, 조선일보 각 1개소

조치원판매소 - 내판조일신문, 내판매일신문 각 1개소

일본신사

연기신사(燕岐神社): 조치원 침산공원에 있었다.

대평신사(大平神社): 금남면 대평리에 있었다.

진의신사(眞儀神社): 남면 진의리에 있었다.

일본 사찰(寺刹)

진종동본원사(眞宗東本願寺): 조치원리에 있었다.

진언종고야산(眞言宗高野山): 조치원리에 있었다.

진종대충사(眞宗大忠寺): 조치원리에 있었다.

일본 신도교(神道教)

천리교조치원포교소(天理教鳥致院布教所): 조치원에 있었다.

기독교

장로교회:

조치원에 있었으며 지금으로부터 87년전 부터 전도하였다.

동양선교회(東洋宣教會):

조치원리에서는 70년전 부터 전도하고 전의면 읍내리에서는 64년전 부터 전도하였다.

조선감리교회(朝鮮監理教會):

조치원리와 서면 봉암리에서 각각 75년전부터 전도하였다.

천주교(天主敎)

천주교 공소:

동면 노송리 136의 1에 있으며 208명(남 87명, 여 121명)이다. 연혁은 1887년에 노송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되고 초대회장은 배영호이다. 노송리의 천주교 공소에 대하여는 뒤에서 소상히 언급될 것이다.

5. 8.15해방 이후의 동면

8.15해방 이후의 동면

일제에 대한 즐기찬 민족의 항쟁과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모진 질곡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은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38도선을 경계로하여 남·북에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고 모스크바에서 영·미·소의 삼국 외상들이 모여 신탁통치(信託統治)를 의결하였다. 이어서 미·소의 공동위원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지만 결렬되고 민족적인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정권에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에 제헌의원(制憲議員)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8월 15일 기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선포되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취임하였다. 그해 12월의 제 3차 총회에서 한반도가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은 동서의 냉전과 북한

정부의 적화 침투, 중공의 등장 등으로 위협을 받다가 결국 1950년에 6.25동란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희생이 있었고 국토는 철저히 파괴 초토화 되었다.

휴전후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황폐한 국토와 파괴된 산업시설의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무렵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적인 행적으로 5.26, 2.4파동 등 정치파동을 일으켜 정치적 분안을 격화시키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국민에게 3.15부정선거의 굴복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4.19의 학생들의 의거로 말미아마 그의 자유당 정권은 타도 되고 그는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4.19의거는 학생들이 주동역할을 담당하고 그 배후에는 전 국민의 호응이 있었다. 따라서 4.19의거는 대중혁명인 동시에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혁명이기도 하였다.

4.19의거 뒤에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허정(許政)이 수반이 되었다. 이 과도 정부는 합법적인 제 2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으로 하고 정부는 내각책임제로 한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1960년 7월 29일에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양원이 개원되었다.

윤보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장면이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취임하므로 소위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당면과제로는 안으로는 독재정권이 유산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밖으로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민주당정권은 신과와 구과의 치열한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과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습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군사정권은 계엄령을 선포 국회를 해산하고 학교를 폐쇄하였다. 그리고 최고통치기관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혁명 정부가 내세운 중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반공체계의 재정비와 강화, 둘째는 폭력의 일소와 밀수의 근절, 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의 처단, 농어촌고리채 정리 등 사회 모순의 과감한 청산, 통일에 대하여 민족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의 배양에 힘쓰며 자립경제의 기반을 닦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년계획을 세웠다.

민정이양(民政移讓)을 위하여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單院制)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0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군정은 끝나고 마침내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설립되었고, 박정희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의 슬로건을 내걸고 군정 때의 시책을 계승 과감히 혁신정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경제자립을 목표로 추진한 제1차, 제2차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고 1972년부터 제 3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한국농촌을 근대화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자조, 근면, 협동을 통한 정신적 각성이며 분발일 뿐 아니라 올바른 국민윤리의 정립과 경제개발 촉진운동으로서 농공병진(農工併進)의 희망에 찬 번영을 약속해

주었다. 농촌의 자조정신이 확립되면 이 정신의 기반위에서 정통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민족 역량의 근대적 발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운동을 역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계속하였다.

19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國民教育憲章)을 제정하여 국민정신의 지표로 하여 민족 자주의식을 높이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전개하여 농촌근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과 국토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력의 고도 성장을 도모하는 듯 했고 1972년 7월에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대화를 개시함으로써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다.

1972년 7월 4일에 평화통일, 긴장완화, 제반 교류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7.4남북공동성명은 오랫동안 분단의 명에로 찌들려온 민족전체에 구원의 복음이 되는 듯하였고 그 후에도 분단조국이 나아가야 할 민족사적 대로를 비추는 하나의 등불로 남게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박정권에게 평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었고 유신독재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하오 7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를 설치하였다. 비상국무회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의 국민투표에서 이를 확정된 다음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12월 23일에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유신체제의 막이 올랐고, 말썽

많았던 이 독재체제는 7년후인 1979년 10월 29일 저녁에 궁정동 만찬에서 그의 오른팔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쓰러지기 까지 계속되었고 그후에 그의 아류(亞流)인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지다가 결국 문민정부인 김영삼정권이 들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동안에 동면의 지역사회가 겪어야 했던 변화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었고 발전 또한 눈부신 바가 있었으니 대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에 있었던 도로망의 정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종래 조치원에서부터 동면을 거쳐 부강까지 가는 데 경우 소바리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소로 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미호천과 백천에 교량이 가설되어 2차선의 포장도로가 놓인 점이다. 그리하여 전국을 남북으로 잇는 간선도로에 편입된 것이다. 또한 이 간선도로에서 분기된 작은 도로에 의하여 차를 타고 동면내의 모든 마을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면의 북쪽 끝인 예양리부터 남쪽 끝인 합강리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양리에서 서쪽 끝인 문주리까지 그리고 동쪽 끝인 갈산리까지 또는 응암리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만 해도 한 대의 자동차가 없었던 동면의 1995년도의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761대, 버스 79대, 화물차291대, 특수차 2대이니 괄목한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둘째 목조 단층의 건축물이었던 동면사무소 청사가 철근 콘크리트 2층의 현대식 건물로 바뀌고 경찰관지서의 건물도 목조건물에서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연동초등학교의 목조 단층 건물에서 역시 철근 콘크리트 2층의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1년에 철근 콘크리트 2층의 연

동중학교 현대식 교사가 내판리에 들어섰다. 또한 붉은 벽돌 3층 건물로서 내판우체국의 호화관 건물이 내판역전에 들어섰다. 물론 응암초등학교가 응암리에 들어서고, 용호초등학교가 용호리에 들어섰던 것도 8.15 해방이 후의 일이었다.

셋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관지서에 경비전화 밖에는 없었던 동면에 현재 거의 100%의 보급율로 전화가 보급되었다. 그리하여 동면의 모든 가정에서 전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면에 앉아서 세계 도처에 전화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은 고사하고 침체할 대로 침체하여 보잘 것 없게 된 것이 경부선 내판역이다. 비록 간이역이지만 지난날 하루에 상하 4~5편 씩 열차가 정차하고 매년 수만 가마니의 벼와 보리, 그리고 콩 등을 취급 수송하였지만 이제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상하 한편 씩 통근 열차가 정차할 뿐 그토록 많은 급행열차와 화물열차가 무심히 통과할 뿐이다. 아침, 저녁으로 근 백명씩의 통학생으로 북적거리던 때를 생각하면 많이도 달라진 내판역이다.

넷째 70년대부터 농공병진(農工並進)의 정책으로 동면에도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업이 크게 앞서고 농업이 급속히 낙후 몰락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리하여 급속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마을마다 빈집이 늘어가고 휴경지가 늘어가고 있다.

동면의 공동묘지는 내판리에 있었다. 그리고 공동묘지는 전체가 15만평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국정교과서주식회사(國定教科書株式會社)가 들어서 8만여평의 공동묘지의 터를 부지로 차지하고, 또한 굴넘어로는 응암공업단지(鷹岩工業團地)가 들어서 7만평의 공동묘지의 터를 부지로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굴넘어 명학리쪽으로는 양지바른 언덕에 삼성전기공업주식회사(三星電氣工業株式會社)가 8만여평의 산지와 경작지를 부지로 들어섰다.

대한국정교과서주식회사는 대표적인 국영기업체의 하나이며, 삼성전기공업주식회사는 삼성재벌이라는 대재벌의 대표적인 기업체이다. 이와같이 대표적인 국영기업체와 대표적인 대재벌의 기업체가 동면의 중심부에 들어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기업체의 중간지대에 다음과 같은 응암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공업단지의 면적은 105,789m² 이며 입주업체 수는 8개업체이며 고용인원은 396명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체로서 한국특수금속회사와 파란들 가구 공업주식회사가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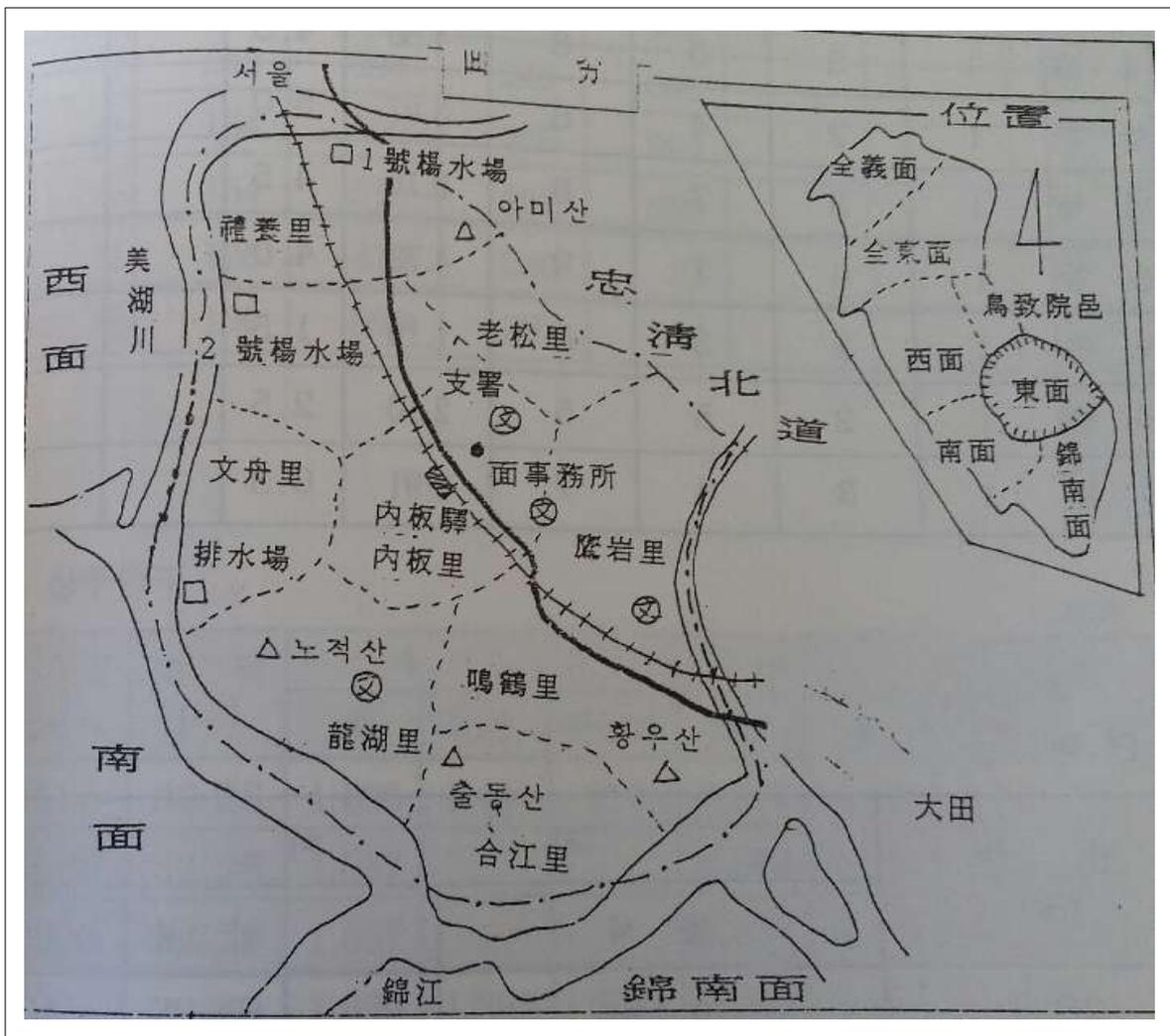
또한 내판리 2구 진동고개에 일찍부터 식품공업체로 다향식품회사가 들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식품을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공급하여 명성이 높다.

(1) 위치와 관내도(管內圖)

가. 위치

동 경			북 위		
방 위	지 명	경 도	방 위	지 명	위 도
극 동	응 암	127.268	극 남	응 암	36.533
극 서	무 주	127.470	극 북	무 주	36.326

나. 관내도



(2) 행정구역

면소재지:연기군 동면 내판리 12번지

구분 리별	행 정 구 역				면 적 (km ²)	면까지의 거리		
	법정리동	행정리동	자연부락수	반 수		육로	철로	해로
계	9	25	40	65	28.10	km		
내 판	1	5	6	12	2.68	0.3		
문 주	1	1	1	2	2.51	2.1		
용 호	1	3	3	8	4.56	4.3		
합 강	1	2	4	6	3.47	5.0		
명 학	1	3	7	8	3.18	4.5		
응 암	1	4	7	9	4.78	4.0		
노 송	1	2	3	8	1.19	1.5		
예 양	1	2	5	5	2.10	2.5		
송 용	1	3	4	7	2.91	0.3		

◇ 면 적

면 적 (km ²)	길 이	
	동 서	남 북
28.10	9.1km	7.5km

(3) 상주인구

구분 리별	가구수	합 계			한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94							
95년말	1,639	5,016	2,458	2,558			
96.9.	1,614	4,855	2,389	2,466			
내 판	359	1,117	557	565			
문 주	53	147	74	73			
합 강	104	334	167	167			
명 학	248	594	248	346			
응 암	184	550	286	264			
노 송	164	515	252	263			
예 양	136	479	239	24			
송 용	199	590	297	293			

◇ 상주인구

단위: 명

구분 년도별	면 적 (km ²)	가 구			인 구			성 비 남 녀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1980	32.28	1,696	1,444	252	8,354	4,236	4,118	
1985	32.28	1,687			6,983	3,524	3,459	
1990	32.28	1,657			6,310	3,146	3,170	
1995	29.49	1,639	1,383	256	5,016	2,458	2,558	

◆ 연령별인구<年令別人口>

구분 년도별	성 별	총 수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1980																
1985																
1990																
1995																
96년 10월	남	2,389	119	98	149	224	272	213	144	153	144	143	114	131	485	
	여	2,466	86	101	161	221	290	129	103	119	145	109	132	175	689	
	계	4,855	205	199	310	445	562	342	247	272	289	252	252	306	1,174	

◇ 인구동태〈人口動態〉

구분 년도별	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1980					
1985	388	119	116	143	10
1990	366	97	95	168	6
1995	296	80	82	122	12

(4) 기관별 공무원 정수

	기 관 수	공 무 원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계	8	93	73	20
면 사무 소	1	20		20
지 서	1	6	6	
중 학 교	1	20	20	
초 등 학 교	2	32	32	
역	1	1	1	
보 선 구	1	6	6	
우 체 국	1	8	8	

가. 면사무소

계	면장	부면장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일용직
23	1	1	4	5	4	2	3	3

나. 지서

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노무자
7		1	1	4	1

(5) 종교 및 문화

① 종교단체현황

종교별	사찰 또는 교회명	사찰 또는 교회수	합 계			교직자수			신도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불교	계	6	1,494	555	393	8	4	4	1,486	551	935
	황 룡 사	1	512	206	306	2	1	1	510	205	305
	청 봉 사	1	382	111	271	2	1	1	380	110	270
	합 강 용 운 사	1								16	40
	용 운 사	1	57	17	40	1	1		56	20	60
	월 성 사	1									
	용 호 용 운 사	1	81	20	61	1		1	80	180	220
	도 슬 사	1	401	181	220	1	1		400	20	40
화 봉 사	1	61	20	41	1		1				
기독교	계	7	392	143	249	7	6	1	385	137	248
	노 송 천 주	1	51	24	27	1	1		50	23	27
	내 관 성 결 교 회	1	181	59	122	1	1		180	58	122
	내 관 장 로 교 회	1	32	14	18	1	1		31	13	18
	노 송 성 결 교 회	1	41	11	30	1	1		40	10	30
	내 관 침례 교 회	1	51	21	30	1	1		50	20	30
	명 학 반 석 교 회	1	21	7	14	1	1		20	7	13
	응 암 침례 교 회	1	15	7	8	1	1	1	14	6	8

주택현황(住宅現況)

1996. 10

구분 면별	인구수	가구수	주택형별(호)				지붕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콘크리트슬라브	기와
동면	4,887	1,616	1,458	1,458			168	683

구분 면별	구조별			불량주택수 (호)	정상주택수 (호)	부족주택수 (호)	부과율
	스레트및합석	초가	기타				
동면	493	2	112	118	1,340	185	

교량현황(住宅現況)

구분 면별	총 수	총 연 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		목 조		석 조	
			수	연장	수	연장	수	연장
동 면	7	526M	7	526M				

주택현황(住宅現況)

구분 면별	주 택 수					세 대 수		
	계	와가	스레트및합석	초가	기타	계	유주택	무주택
동 면	1,458	683	493	2	280	1,616	1,431	185

건 설(建設)

① 도로현황

구 분 면 별	합 계			지 방 도			군 도			농 로		
	총연장	포장	사리	총연장	포장	사리	총연장	포장	사리	총연장	포장	사리
동 면	32.6 ^(km)	27.5	5.1	9.4	9.4		2.0	2.0		21.2	16.1	5.1

② 하천상황

구 분 면 별	하천수	하천연장	기개수연장	요개수연장	요수총연장
동 면	5	35.0km	13.9	12.1	9.0

◇ 미곡수확고(米穀收穫高)

단위: 면적(ha), 수량(kg), 수확(M/T)

구 분 면 별	합 계			수 도			육 도		
	면적	10a당수량	수확	면적	10a당수량	수확	면적	10a당수량	수확
1980									
1985									
1990									
1995	812	465	3,776	812	465	3,776			

미곡 작부별 수확고

단위: M/T

구분 리별	합 계			수 도			육 도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계	812	465	3,776	812	465	3,776			
내 판									
문 주									
용 호									
합 강									
면 학									
갈 산									
응 암									
노 송									
예 양									
송 용									

과일 수확고

구 분 년도별	합 계			사 과			배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1980	25.9	595	154.2	8.3	280	23.2	1.0	150	1.0
1985									
1990									
1995				0.3			12.5		

구 분 년도별	감			복 승 아			포 도			기 타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1980	3.0	435	13.1	6.5	1,200	78.0	3.1	770	23.9	4.0	362	14.5
1985												
1990												
1995				15.9			10.0			6.2		

담배경작 상황

구 분 년도별	경 작 인		경 작 면 적		납 부 수 량		수 납 대 금	
	계	황색종	계	황색종	계	황색종	계	황색종
1980	95	95	51.9	81.9	86,239	86,239	132,350	132,350
1985								
1990								
1995								
1996	120	120	137.5	137.5	262.0 M/T	262.0		

1995 주요 농업기계 보유상황

리 별	기 종 별	예 취 기			동력탈곡기		콤 바 인	건 조 기			농 업 용 운 송 장 비	과 일 선 별 기	비 료 선 별 기	동 력 연 무 기	육 묘 파 종 기	축 산 용				
		계	미맥예취기		휴대형 예취기 (초예기)	자 동		주 행 형	계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계	축 유 기	우 유 냉 각 기	
			바 인 다	예도형 예취기						평 면 식										순 환 식
		92	7		85	9		77	128		65	63	13	4	5	17	2	16	8	8
내 판 리		15			15	1		15	17		8	9			1	2		4	2	2
문 주 리		6	1		5	1		4	7		3	4			1	3				
용 호 리		15	2		13	2		10	26		15	11		2	1	1	1			
합 강 리		10	2		8	2		5	12		6	6						4	2	2
명 학 리		7			7	1		7	18		10	8	6			1				
용 압 리		16			16	2		10	17		8	9				1	1	8	4	4
노 송 리		9	2		7			8	8		4	4	2	1	1	3				
예 양 리		6			6			7	8		4	4	5			3				
송 용 리		8			8			11			7	8		1	1	3				

1995 주요 농업기계 보유상황

읍면별	기종별	총 계	농업원동기			경운정지기			농용양수기			병충해방제기				동 력 이 앙 기	동 력 과 중 기	관 리 기	동 력 절 단 기	
			계	엔 진	전 동 기	계	동 력 경 운 기	농 용 트 랙 터	계	관 수 용	민 수 용	계	주행식분무기		동 력 분 무 기					동 력 살 분 무 기
													관 수 전 용	수 도 일 반 용						
계		2,331	432	15	417	480	417	63	548	2	546	372		2	257	113	151	15	108	225
내 판 리		441	82	2	80	71	64	7	127	2	125	71			42	29	30	2	20	38
문 주 리		119	16	1	15	26	23	3	27		27	21			11	10	11	1	7	10
용 호 리		303	60	2	58	64	54	10	73		73	45			33	12	18	2	12	29
합 강 리		183	31	1	30	38	33	5	49		49	57			21	6	9	2	10	17
명 학 리		263	50	2	48	64	59	5	53		53	45			31	14	15		11	25
용 암 리		279	51	1	50	66	56	10	43		43	56		2	41	13	21	1	11	30
노 송 리		241	50	3	47	49	42	7	51		51	40			31	9	12	2	12	25
예 양 리		213	38	2	36	47	41	6	50		50	30			22	8	15	2	10	21
송 용 리		289	54	1	53	55	45	10	75		75	37			25	12	20	3	15	30

농업용 기계 기구 보유현황

구분 년도별	경 운 기				제초기	채종기			
	계	쟁 기	동력경운기	트랙터			계	인력살분기	인력분무기
1980	119		116	3			752	7	745
1985									
1990									
1995	417	417	417	63	85				

구분 년도별	기 구				탈 곡				
	동 력 방 제 기 구				합 계	그 네	회 전		
	동력살분기	분무기	살분무기				계	인 력	동 력
1980	186	9					362	246	116
1985									
1990									
1995	113	257			9		9		

농가구, 인구수, 경지면적

구분	농가호수	농가인구	호당 농가인수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계	논	밭	계	논	밭
동 면	1,137	3,411	3	1,285	812	473	1.13	0.71	0.42

업태별(業態別)농가수

구분 년도별	총수	경 종						축 산		임금 농업 노동	기타	
		답작	전작	과수	소재	특수작물	고등원예	축산	양잠			
1980												
1985												
1990												
1995												

삼 림(森 林)

■ 임상별 임야면적

임 상 별		총 계 (ha)	국 유 림				공 유 림				사 유 림			
			계	요 존 요	불 요 존 림	귀 속 림	계	지 도 유 림	민 유 림	학 교 림	계	사 찰 유 림	사 유 림	비 속 림
성 림 지	계	1163	130			5		5			1038		1038	
	침엽수	181									181		181	
	활엽수	536				5		5			531		531	
	침활수	446	120								326		326	
미 성 림 지	계													
	요사방조림													
	요인공조림													
	천연조림지													

가축사육현황

구분 리별	한 우				돼 지				산 양			
	계	호수	♂	♀	계	호수	♂	♀	계	호수	♂	♀
계	808	219	132	676	2460	15	771	1689	1019	49	425	594
내 판	46	19	6	40	138	1	48	90	35	7	8	27
문 주	118	17	29	89								
용 호	209	45	9	200	1053	6	375	678	58	6	28	30
합 강	105	26	37	68	470	2	200	270	404	19	159	245
명 학	22	16	2	20	181	3	38	143	377	11	165	212
갈 산												
응 암	114	38	10	104	618	4	110	508	85	3	37	48
노 송	26	13	6	20								
예 양	86	19	22	64					10	1	3	7
송 용	82	26	11	71					50	2	25	25

(속)

리별	구분	개		닭			양			봉
		호수	마리수	계	♂	♀	계	호수	개량종	잡종
계		610	1320	6596	2185	4411				
내 관		149	302	143	38	105				
문 주		25	38							
용 호		81	271	1950	492	1458				
합 강		35	174	20	4	16				
명 학		73	127	4420	1639	2781				
갈 산										
응 암		69	102							
노 송		53	80	20	4	16				
예 양		36	60	14	3	11				
송 용		89	166	29	5	24				

소채(疎菜)수확고

구분 년도별	총 수			무 우			배 추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1980				69.5	3973	2716.0	43.7	5545	2423
1985									
1990									
1995									

구분 년도별	마 늘			참 외			오 이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1980	11.0	445	49.0	36.0	1583	570.0	7.0	3814	267.0
1985									
1990									
1995									

구분 년도별	고 추			수 박			파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1980	42.0	143	60.0	3.0	1767	53.0	3.0	3000	90.0
1985									
1990									
1995									

저류(諸類)수확고

구분 년도별	총 수			고 구 마			감 자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면 적	반 수	수 확
1980	33.5	465	147.2	13.1	562	73.6	20.0	368	73.6
1985									
1990									
1995	44	1872	824	7	1814	127	37	1883	697

연기농지 개량조합 영동출장소

■ 연 혁

- 1940.12.28 연동수리조합설치인가
(몽리면적 299.9정보)
- 1941.1.12 연동수리조합설치공사
(총공사비 351,218원)
- 1941.5.31 실시
- 1952.3.25 제2연동수리조합 설치인가
(몽리면적 200정보)
- 1952.3.30 제2연동수리조합 공사
(총공사비 41,294,280원)
- 1955.6.30 실시
- 1961.12.4 합병조치에 의하여 연동수리조합이 됨
- 1962.1.21 토지개량 사업에 의하여 연동토지개량 조합으로
명의변경
몽리면적 499.9정보
- 1968.8.21 장기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서면지구 80정을 제외함
- 1971.1.22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연동토지 개량조합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름
- 1973.5.16 연기·연동 조합의 합병으로 출장소가 되었음.

■ 현황

지구별	구분	경 작 면 적	조 합 원 수	1인평균 경작면적
	계			
	연 동 지 구	49.9ha	750인	0.5ha

■ 시설

수원공	수 원 공		용 수 로				배 수 로				계	몽 리 적
	개보수	규 모	간 선		지 선		간 선		지 선			
			조수	연장	조수	연장	조수	연장	조수	연장		
계	5		2 (조)	8,628 (m)	13 (조)	7,596 (m)	2 (조)	3,735 (m)	5 (조)	1,940 (m)	21,899(m)	417,9(ha)
제1양수장	1	100m	1	5,108	8	4,346	1	2,510	3	890	12,854	260.0
제2양수장	1	75m	1	3,520	5	3,250	1	1,225	2	1,050	9,045	159.9
문주배수장	1	400m										
집수암거	2	270m										

합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인 가 면 적	557ha 구역 연기군 동면 합강리 외 11개리
총 사 업 비	8,597,558천원
효 과	정곡 1,491 M/T
공 사 기 간	
수 원 공	원동기: 475HP X 2대 550Ø 원동기: 200HP X 2대 550Ø

내판우체국

□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19-11번지

□ 우 339-860 ☎(0415)864-7005

청사환경	대	1,285 m ²	건	155.15 m ²	건축년도	관사
	지	389 평	물	47 평	90. 11. 14	유·무

국 장 변 동 사 항			
대 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임 명 구 분
제 1 대	張 大 鎭	63.5.31—65.12.3	최 초 지 정
제 2 대	愼 重 煥	65.12.4—69.4.26	추 천
제 3 대	金 在 檣	69.4.27—71.5.3	추 천
제 4 대	梁 承 禮	71.5.15—96.3. 현재	재 지 정

※임명구분: 최초지정, 승계지정, 추천 등 해당사항 기재

■ 지황

면 적	세 대 수	인 구 수	행정리동수	자연부락수	우 체 통	우표류판매소	주요산업
32.27km ²	1,638	5,019	30	32	10	7	농업

■ 정원현황

법 정 우 체 직 원										배 치 공 무 원				총 계
국 장	사 무 원				집 배 원					일 반 직	계 리 원	일 반 직	소 계	
	사무장	사무 주임	사무 보조	소 계	집 배 1중	집 배 2중	집 배 3중	소 계	합 계					
1	1	1	2	4			3	3	7					8

■ 국장 및 직원인적사항

순 번	직 명	성	명	임명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호 봉	학 력	비 고
		한 글	한 자					
1	국 장	양 승 례	梁 承 禮	1971. 5.15	*****-*****	25		
2	사 무 장	양 문 교	梁 文 敎	1977. 4.	*****-*****	23		
3	사무주임	오 영 진	吳 寧 鎭	1986. 2.24	*****-*****	10		
4	사무보조	전 형 권	全 溼 權	1992.12.31	*****-*****	4		
5	사무보조	윤 은 실	尹 銀 實	1995. 7.15	*****-*****	4		
6	집배3종	김 재 중	金 在 重	1981. 4. 1	*****-*****	16		
7	집배3종	주 해 수	朱 海 洙	1983. 6.24	*****-*****	13		
8	집배3종	변 영 덕	邊 映 德	1996. 7.19	*****-*****	3		

I. 일반현황

■ 연혁

년 월 일	개 요
1963. 5. 2.	내판우체국 개국(우편, 환급, 예금, 보험취급)
1971. 5. 3.	전화교환업무 취급개시
1977. 7. 1.	저금, 보험업무 농협이관
1982. 6. 1.	체신예금업무 취급 부활
1983. 6. 1.	체신보험업무 취급 부활
1984. 7. 17	전화교환업무 폐지(자동식변경으로 조치원전화국)
1989. 12. 11.	전국온라인 내판우체국 업무취급 개시
1990. 11. 14.	현 청사로 개축(3층 건물)

■ 청사

건 물 구 조	대 지 (m ²)	건 물(m ²)					
		총 계	현 업 실	공 중 실	숙 직 실	집 배 실	기 타
철근콘크리트지붕	1,285	155.15	40	48	9	23.1	31.05

■ 시설 및 장비

집 배 구	우 체 국			우 표 류 판 매 소	주 요 장 비			
	계	갑	을		이 룬 차	온 라 인 단 말 기	위 조 증 서 감 별 기	자 전 거 (전 배 용)
시외 3구	10	2	8	7	3	1	1	1

Ⅱ. '95년도 주요 영업실적

■ 우정세입

'95.12.31현재.(단위:천원)

구 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년 간	누 계		년 간	누 계
'95년도	29,630	29.630	35,635	130.04	130.04

■ 체신예금

'95.12.31현재.(단위:천원)

구 분	년 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95년도	818.000	764.728	93.49

■ 체신보험

'95.12.31현재.(단위:천원)

구 분	년 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95년도	11,500	17,461	151.83

■ 제세공과금

'95.12.31현재.
(단위:천원)

구 분	년 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년 도			
'95년도	1,183,000	1,824,712	154.19

■ 우편주문판매

'95.12.31현재.
(단위:건)

구 분	년 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년 도			
'95년도	180	373	207.22

■ 우편물접수

'95.12.31현재.
(단위:통)

년 도	구 분	합 계	보통통상		소 포
			보통통상	특수통상	
'95년도		144,867	127,858	14,811	2,198

■ 우편물접수

'95.12.31현재.
(단위:통)

년 도	구 분	배달물수	지 환 우편 물			
			합계	지배달	반환	반환불능
'95년도		477,757	3,218	854	2,346	18

동면농업협동조합

▣ 주요사업추진내용

(단위:백만원)

부 문 별		'96 계 획	96.6.30 실 적	달성율 (%)	'95 동기실적	성장률 (%)	비고
고 정 자 산		4,417	3,589	81.3	3,090	116.2	
예 수 금 잔 액		19,310	15,903	82.4	13,138	121.1	
금년추진공제공제계약고		8,070	9,365	116.1	8,084	115.9	
금 년 추 진 공 제 료		550	608	110.6	586	103.8	
관 매 사 업	참외,버섯,채소류 관 매 금 액	8,283	3,835	46.3	5,404	70.9	
	연동미판매대금	6,000	2,714	45.2	2,066	131.4	
비료, 사료, 농약 등 자 재 판 매		1,672	831	49.7	741	112.2	
연 쇠 점 물 품 판 매		634	234	36.9	200	117.0	
장 제 용 품 판 매		78	42	53.9	16	262.5	
창 고 · 운 송 료		135	56	41.5	66	84.9	

▣ 사무소별 주요사업목표대 실적

(단위:백만원)

판매사업				구 매 사 업									연쇄점물자			예수금잔액			신 규 공 제 액					
사무소	목표	%	순위	비 료			농 약			일반자재			목표	%	순위	목표	%	순위	신계약고			신공제료		
	실적			목표	%	순위	목표	%	순위	목표	%	순위	실적			목표			%	순위	목표	%	순위	목표
본 소	1,391	83.0	1	102	65.7	2	97	71.1	2	1,048	47.6	2	506	34.2	2	12,510	78.8	3	4,500	110.2	3	320	114.7	1
	1,391			102			97			1,048			506			12,510			4,500			320		
연 흥	436	26.4	3	44	77.3	1	13	76.9	1	269	43.1	3	128	47.7	1	4,800	92.3	1	1,970	110.7	23	116	107.8	2
	436			44			13			269			128			4,800			1,970			116		
예 양	6,456	39.7	2	50	26.0	3	18	33.3	3	32	137.5	1	0			2,010	80.5	2	1,600	139.1	1	115	100.9	3
	2,565			50			18			32			0			2,010			1,600			115		
합 계	8,283	46.3		196	58.2		128	66.4		1,349	48.9		634	36.9		19,310	82.4		8,070	116.1		551	110.3	
	3,835			196			128			1,349			634			19,310			8,070			551		

〈신 용 부〉

국고 업무 취급 개시

종 전	개 정	효 과
○ 은행법 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간 국고출납 및 국가 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	○ 은행법 3조에서 정한 농·수축협 포함	○ 농어촌 주민의 국세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 ○ 농어촌 소재 공공기관(초·중·고교·읍면사무소, 지파출소) ○ 기업체의 세금납부 편의 제공 및 현금수납에 따른 사고 예방

▶공과금 자동이체 약정확대 추진운동 전개

매월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번거러움 해소
지연 납부로 인한 과태료납부 부담 없음
여러 종류의 공과금을 자동처리함으로 가계부 역할

▶자립예탁금 대출 약정 확대추진

한번 약정으로 일정기간 전국농협 어디서나 수시 대출 가능
약정 한도 내에서 계속 대출되므로 비용 절감
예금 잔액이 없더라도 각종 공과금이 자동 납부로 시간 절약
신용대출 한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약정 체결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확대 추진

배경: 농협을 농가의 금융소득 늘려주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고수익, 비과세, 금융상품을 보급하고 있으며, 자립예탁금제도 등 각종 금융서비스제공을 통해 농가의 금융 편익 증대 기여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과 은행적금 비교]

○ 월 불입액: 100,000원 · 3년 만기 · 저소득 가입 농가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	-	은행적금	=	차이
축 4,516천원		4,171천원		345천원

※ 농가수혜액: 2,896억원(95년 기준)

◆ 3대 질병 공제 판매

○ 특징: 사망 위험이 가장높은 3대성인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및 3대 질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 입원시 입원 일당액 지급으로 치료비 경감혜택을 부여하여 3대 질병 진단시는 차회 공제료 납입 면제

○ 중점가입대상자: 건강에 관심이 높은 40~50대 농민, 직장인

○ 가입연령: 만 25~55세

○ 가입한도: 주계약 500~2,000만원

○ 공제기간: 5년, 10년, 15년

○ 공제료납입방법: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보장내용

진단공제금-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3개월)이후에 최초의 3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1회): 계약금액의 100%

사망공제금-사망 폐질시 계약금액의 50%에 사고시 까지의 기납입 공제료
(월납기준)

만기공제료-만기 생존시(기납입 공제료, 월납기준)

공제료납입면제-3대 질병 진단 확정시, 재해 2,3급 장애시

◆ 공제사고시 공제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

공제증권,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의료보험카드사본, 진단서
(사망시:사망진단서, 장애시;장애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담보대출시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1통(등기소)
2. 지적도 1통(연기군청 민원실)
3. 도시계획 이용원 1통(연기군청 민원실)
4. 토지대장등본 1통(연기군청 민원실)
5. 인감증명서 1통(면사무소)

〈자 재 부〉

◆ 농협 김장무우 배추 종자 보급

품 종	파종시기	300평당 소요량	공급시기	비 고
일 호 김 장 무 우 종 자 배 추	8월 20일	무우 6~7봉 또는 배추 3봉	96년 8월초	'95년도 시험결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함 (동면지역 실험재배)

◆ 97년도 사업을 위한 농용자재 신청

- 시설하우스 비닐 신청
- 하우스 파이프 신청
- 비료, 농약, 기타 자재 주문
- 신청기한: 96.7.25
- 신청방법: 영농회장 혹은 농협 자재부에 직접 신청
- 공급시기: 96.7.31일경

◆ 생활물자 공급안내

- 건축 신축·개축시 가정용품 공급(싱크대 규격에 맞추어 설계)
- 가구 및 가전제품 공급(장농, 냉장고, 세탁기 등 기류, 전기·전자제품)
- 혼수품일체 취급(구입시 목적지까지 수송)

◆ 비료공급

- 벼이삭 거름용 비료(18-0-18)영농회 단위 신청시 부락 수송
- 김장용 비료공급(21-17-17 요소, 붕사)

◆ 포장재 구매공급

포도·배·복숭아·수박 상자의 구입 신청(작목반장, 영농회장, 농협 직접)

<지 도 부>

◆ 농민법률 구조지원사업 실시

1. 상담대상: 농협인으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
2. 신청기관: 동면농협
3. 상담범위: 민사·형사사건(96.7.1취급)
4. 법률구조대상자

민 사 사 건	형 사 사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 월 평균 100만원 이하 근로자, 영세상인 ○ 6급이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 보호 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생활보호대상자·국가보호 대상자 ○ 기타 직업·소득·주거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영세상인

5.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사건: 민사분쟁 및 가사사건 일체(손해배상,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이혼사건)
- 형사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소치된 사건

6. 구비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1통, 비과세증명서, 피해입증증거서류

◆ 지도사업 이모저모

- 농민신문 구독신청, 행복의 샘
- 여행안내알선(국내, 해외)
- 농장부기 교육
- 조합원 평균출자 이하자는 평균출자 도달까지 추진
- 세계화 농업기술 교육 신청: 오이, 수박, 참외
- 농산물판매 연락상담: 012-431-7551

▣ 유기농업(2)

1/4분기에 우리농협 소식지에서 토곡(흙누룩)에 대하여 설명한바 있다. 토곡은 유기물, 미량요소 등을 분해시켜 작물에 잘 흡수토록 해주고 유기산가스의 발생 피해(가스 장애)를 막아준다. 또 흙을 부풀게하여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병원균을 억제하거나 산균작용으로 살균제 사용을 줄여주고 천적의 소생을 도와 살충제도 줄일 수 있다. 토양의 산도 교정, 지온상승, 토양염류의 분해 등 토양개량을 도와주며 소, 닭, 돼지 등 가축의 사료에 5% 혼합 급여하면 소화력 증진, 육질개선은 물론 가축 분노의 악취가 제거된다. (개에게는 먹이면 맹장걸려 안됨) 또한 토곡을 화장실에 뿌리거나 가축사를 뿌려주면 냄새가 안나고 파리, 구더기가 없어진다.

요즈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우리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 “유기농산물” “자연농산물” “안전농산물” “무공해농산물” “저공해농산물” “무농약·무비료 농산물” 등각자마다 각기의 표현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일축해서 좋은 농산물 (좋은 농산물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상 과학의 발달과 생활문화와 경제 발전, 이 모든 것이 급속히 발달하여 사람은 편하게 되었지만 편해진 댓가로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도 자연(유기) 농법에서 지금의 화학농법으로 바뀐지가 25~26년 된듯 싶다.

제조제, 살균제, 살충제, 화학비료에 의한 농업. 그렇게 하기를 2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체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느끼고 있는지 도시 소비자는 당연히 우수농산물, 건강식품을 생각하게 되고 가격이 높고 낮음 보다는 품질과 안전성면에 관심이 증대되고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농민들도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농민은 설 땅이 없다고 본다.

2/4분기 소식에서는 발효퇴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퇴비를 얘기할 때 퇴비는 잘 썩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퇴비는 절대로 썩혀내는 것이 아니고 잘 띄워야(발효시켜야)하는 것이다. 퇴비장에서는 시큼하고 악취가 나면

서 질퍽질퍽한 퇴비는 썩은 퇴비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

(1)썩은 퇴비의 결점

- ①양분의 손실: 짚이나 왕겨, 계분, 돈분 등 원래 재료에 함유되어 있던 각종 양분의 40%가 유실되어 없어진다.
- ②유기산 가스 피해: 퇴비가 부패하면서 반드시 메탄가스, 질산가스, 인돌, 스카돌 등 여러 종류의 유기산 가스가 배출되면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 이들이 작물뿌리의 호흡을 정지시켜 뿌리가 썩음과 동시에 지상부의 잎도 말라 죽게 된다.(일반적으로 가스장해라고 함)
계분이나 우분을 생것이나 건조상태에서 그대로 로타리쳐서 파종하거나 정식할 경우 가스장해를 입을 수 있고 과수의 경우에도 부란병 등 질병의 빈발로 폐원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 ③병원균의 배양: 대부분 썩은 퇴비는 수분 70% 이상으로써 공기유통이 불량함과 동시에 혐기성 유해미생물(해로운 균) 즉 병원균이나 부패균 등에 다량 증식되게 되어있다.
- ④토양의 산성화: 퇴비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 퇴비의 산도가 ph3 정도의 강산성이라는 증거이다. 이 퇴비를 넣어주면서 자꾸 더 산성화를 부추기게 되니 토양관리가 잘못되고 만다.

(2)뜨은 퇴비(발효 퇴비)의 장점

- ①양분의 증가: 각종 퇴비재료에 미생물제(효소)를 투입하여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효균(이로운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번식하여 세균류와 함께 곰팡이류의 증식으로 퇴비 전체가 하얀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이 변하게 된다. 그 미생물들은 대부분이 60%의 단백질로 질소질 형태로 변하여 식물에 흡수되는데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의 질소과다 현상이 생긴다.
- ②탄산가스의 발생: 퇴비가 잘 발효하는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어 모든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이 더욱 활발해져 성장이 빠르고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며, 작물이 무병 건강해 진다.

- ③유효균의 배양: 퇴비발효시 6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기 때문에 해충, 병원균은 물론 잡초의 씨앗까지 대부분 사멸한다. 또한 호기성이며 고온성균인 유효미생물(이로운 균)이 다량 번식되며 토양속의 유해미생물을 억제하고 식물뿌리의 건전한 생육을 도와 전체적인 작물의 증산을 촉진시킨다.
- ④토양의 증산화: 완전히 발효된 퇴비는 산도가 보통 ph7.3~7.8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띄우기 때문에 강산성 토양일 경우에도 발효퇴비를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인 산도의 교정이 이루어짐과 함께 유기물 함량이 증가한다.

※이하 재료 준비 및 제조 과정은 지면관계상 3/4분기에 기술기로 하며 재료, 제조과정이 궁금한 분은 상담 전화 바랍니다. <상무 김찬희 864-7551>

효 소 공 급 가 격 표

품 목	단 위	공급단가	사 용 방 법
게 루 마 효 소	10g	1,000원	토곡제조, 효소수용액, 발효퇴비 발효사료 제조
수 피 엔 자 임	500g	4,000원	토곡제조, 발효퇴비, 효소수용액
스 마 트 효 소	500g	5,000원	축사미생물 증식, 톱밥돈사, 톱밥축사
셋 별	500cc	30,000원	하루스관주용, 수확량증가 2~3배
생 력 효 소	500g	7,000원	발효퇴비, 액비조제, 토곡조제
뉴 아 모 니	2L	8,000원	진딧물 방제

연동새마을금고

◆연 혁

1981년 4월 1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영순

1981년 4월23일: 창립총회를 거쳐 내판리 13-3에 사무실 개소

박영순 초대이사장 취임

1989년 2월 6일: 제2대 이사장 김청환 취임, 내판리 19-3으로 사무실
이전

1993년 3월27일: 내판리 19-8로 사무실 이전

1995년 2월10일: 제3대 이사장 장래열 취임

1996년10월26일: 내판리 13-3에 지상 3층, 연면적 110평 자체회관 신축
이전

회관 사용 내역: 1층 사무실, 2층 회의실, 3층 독서실

◆역대 이사장

제1대 이사장: 박 영 순(1981-1988)

제2대 이사장: 김 청 환(1989-1994)

제3대 이사장: 장 래 열(1995-)

◆주요업무소개

연동새마을금고는 민족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 및 새마을운동을 이어받아 1981년 4월 23일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13번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박영순을 중심으로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시작 하였으며 1996년 11월 25일 현재 35억원의 자산을 형성하였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에 성행하던 고리채 근절에 이바지 하였으며 매년 우수한 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복지부분 예산을 확대하여 노인복지부분, 장학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봉사활동과 본 회관 3층 독서실은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겠으며 본 금고 임, 직원은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

삼성전기(주) 조치원 사업장 소개

“2000년대 세계 5위의 (Mult Layer Board: 다층 인쇄회로기판)생산과 고객 만족 경영의 목표로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삼성전기(주) 조치원 사업장은 충남 연기군 동면 송용리 105번지 가족과 자연을 소재로 한 동심의 천재화가 장욱진화백 생가를 대전에서 찾아가노라면 옛부터 약수터를 잘 알려진 부강을 지나 조치원을 향하다 보면 멀리 좌측 산기슭 명당자리에 공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공장건축이 아직 한창이고 지난 91년말 완공된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과 지역사회로 부터 사랑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구내 최고의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외에 잘 알려진 삼성전기(주) 조치원사업장(사업장총괄겸 삼성그룹 중부지역 본부장 전문이사 서재설)이 5만평의 부지에 펼쳐져 있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73년도 설립하여 각종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전자 부품회사로 수원 삼성전자 단지 내 본사 겸 제1사업장 조치원에 제2사업장이 그리고 부산에 자동차 부품 공장인 제3사업장이 건설중에 있으며, 해외에는 포르투갈 공장, 중국 천진과 동관공장, 그리고 태국공자, 멕시코공장 등 총 8개 사업장에서 12,000여명의 종업원이 금년도 매출 2조원을 그리고 2000년대에는 7조원의 매출을 실현하여 세계 3대 종합전자 부품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한 뜻 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합전자 부품 회사입니다.

삼성전기 조치원사업장은 전자 제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다층MLB(다층 인쇄회로기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유일의 전문 생산공장으로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에 1990년 11월 28일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00여명의 임직원이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고, 빠르게 생산하여 고객을 만족 시키겠다는 일념과 화합으로 생산 3년만에 정상화를 실현 하므로써 동종업계

의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내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치원 사업장은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반도체형 최첨단 부품을 계속 개발 생산 하므로써 2000년대에는 3,000여명의 종업원이 매출 1조를 목표로 고객에게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의 그린 사업장이 되도록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한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최첨단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및 부서 업무 소개

1. 연혁(회사 및 사업장)

- 1973.11.1. 수원 전자 단지에 삼성산요파츠(주) 설립
- 1987.2.26. 삼성전기(주) 상호변경
- 1990.9.28. 제2공장(조치원사업장)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기본 허가 필)3만평
- 1990.11.28. 제2공장 착공(조치원공장)
- 1991.11.11. 공장 준공
- 1991.11.21. 시생산 및 미국 SEGEATE(사) 200Ps 수출
- 1993.3. ISO 9002 인증
- 1995.12.30. TAB 사업부지 공장확인승인(13,612평) ≍ 45,000坪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2000년	비 고
매 출		148 (-178)	329 (-104)	563 (-46)	878 (-102)	1,427 (300)	2,000	3,000	
투 자	694	65	114	91	207	800	545	263	2,780
인 력	80			700	850	1,000	1,600	2,000	

기 업 체 현 황

96.11.

업체명	대표자	생산품명	연간매출액	종업원수	설립년도	위 치	전 화
국정교과서(주)	이 수 증	제 책	471 억	460명	1989	동면 내판리 152	861-3114
삼 성 전 기 (주)	서 재 설	인 쇄 회 로 판	900	1,100	1991	명학1리 581	861-1214
다 향 식 품 (주)	오 정 환	식 혜	100	40	1986	내판2리 122	864-4161
(주)한국에프엠	박 종 윤	메 탈 베 아 링	120	230	1989	응암1리 666-8	864-8120
유진통신산업(주)	정 태 봉	동 축 케 이 블	57	45	1993	응암1리 666-10	864-0858
파 란 들 (주)	신 흥 수	가 구	10	20	1990	내판리 167-3	864-1811
한 국 기 계 공 사	이 동 호	홈 우 드	35	30	1989	응암1리 666-6	864-7954
근 신 산 업 (주)	홍 성 덕	피 복	휴업중	2	1989	응암1리 666-1	864-9415
(주)미건의료기	박 미 자	물 리 치 료 기	12	10	1993	응암1리 666-5	864-1553
(주)뉴그린퍼니처	최 광 석	주 방 가 구	20	25	1996	응암1리 666-3	864-3244
세 종 산 업 (주)	김 현 우	합성수지원료	35	18	1996	응암1리 666-2	865-9521
정 원 금 속	이 정 원	알미늄피스톤	5	15	1989	명학2리 227-1	864-9020
대 호 타 일	황 호 연	타 이 루	휴업중	1	1992	명학3리 산 56-2	865-0564

기 업 체 현 황

96.11.

업체명	대표자	생산품명	연간매출액	종업원수	설립년도	위 치	전 화
현 대 주 강	유 제 용	비 철 금 속	10 억	9 명	1995	명학1리 623	865-8616
새 아 씨 식 품	최 무 일	단 무 지	10	15	1994	응암3리 315	865-9091
부 원 비 료	이 무 영	재 활용 비 료	13	12	1994	응암2리 144-1	864-7453
조치원베이커리	김 기 준	빵	80	156	1993	응암4리 100	866-8700
대 풍 산 업	채 흥 설	1회용PSP제품	8	9	1996	용호3리 206-2	864-1804
재 신 목 재	변 진 태	목 재 가 공	3	10	1994	응암1리 790-10	865-8435
프 라 임 어 패 럸	서 용 성	가 방	6	5	1989	내판리2리 93-1	864-5981
송 림 지 관	윤 영 덕	지 관	10	14	1993	송용1리	865-2725
국 일 산 업	윤 종 선	보 도 브 렉	10	6	1989	송용1리	864-2510
오 송 식 품	변 상 철	단 무 지	8	13	1988	송용3리	864-2382
태산 다이아몬드	채 경 석	다 이 아 몬 드	3	5	1990	예양1리	864-8200

〈補遺〉

〈歷代面議員〉

代數 里別	初代	2代	3代
內 板	金 在 鳳 金 炳 善	成 仁 永 金 在 燁	朴憲俊 金文九 金炳雨
文 舟	李 圭 成	李 在 萬	李 圭 說
龍 湖	姜 熙 道	張 星 淳	
合 江	洪 鐘 圭	安 承 杓	蔡 千 鍾
鳴 鶴		林 珏 喆	蔡 錫 雨 黃 穰
葛 山	金 昌 成	朴 丁 培	權 大 集 金 一 炳
應 岩	金 學 圭	林 憲 泳 金 在 溫	
老 松	張 基 一 張 基 台	金 永 德	金 明 洙
禮 養		尹 順 童	張 壽 鎮
松 龍		張 戊 鎮	張 道 淳

〈忠魂塔 奉安英靈〉

77柱

陸軍下士	李 明 雨		東面 內板里	父 鍾浩 母 황갑순
" 兵長	張 哲 基		" "	父 年煥 第2
" 下士	金 炳 敏	서울 36 병원	" "	父 成甲 制2
" 一兵	柳 永 潤		" "	母 趙漢陽
" 中士	洪 鐘 勳	楊 口 地 區	" "	母 金氏
" 二兵	金 錫 九		" "	父 小龍
" 上兵	金 在 億	金 化 地 區	" "	子 善會
" 中尉	金 鍾 會	金 化 地 區	" "	父 在鳳 第2
" 一兵	金 學 培	"	" "	父 甲出

陸軍二兵	金大會		東面 內板里	父 次童
" 一兵	史炳官		" "	女 熙淑 兄 炳允,
" 二兵	金興述		" "	母 朴順禮
" 一兵	金東玉		" "	子 淳藩
" 一兵	林憲億		" "	母 金順子
" 兵長	金周會	楊口地區	" "	父 澄鎮, 有兄弟
" 一兵	朴載顯		" 老松里	父 泰燮
" 下士	張弼淳	德川地區	" "	父 澤鎮
" 一兵	金炳俊		" "	父 千石, 母 蔡幸春
" 下士	金京植	金化地區	" "	子 龍雲, 父 祿宗
" 上兵	白相德	智異山地區	" 禮養里	母 이규화 姪 白雲鳳
" 上兵	裴升煥	智異山地區	" "	父 相哲 母 崔貞愛
" 上兵	張基春	鴛梁津地區	" "	妻 崔菊美, 子賢鎮
" 一兵	尹鴻錫		" "	父 致興
" 下士	金洪式		" "	女 仁基 弟 泰式
" 一兵	金喆九		" "	父 思默
" 中士	金雲式		" "	母 閔興妊 弟千式 女
" 兵長	林憲燦		" 龍湖里	母 朴一順 兄 憲周
" 一兵	張泰淳		" "	子 來完 父 龍鎮
" 一兵	林憲基		" "	子 鎮洙 父 壽喆
" 二兵	林榮喆	春川地區	" "	子 月子 父 魯億
水 兵	卞福天	長端地區	" "	父 大用
陸軍一兵	林裁基		" 松龍里	父 麟洙 母 유길수
" 兵長	張東淳	楊口地區	" "	母 成癸春 兄 貞淳
" 二兵	朴鍾圭		" "	父 有錫

陸軍下士	張福淳		東面	松龍里	女來喜	父九鎮
"	中士	吳永洙	楊口地區	"	合江里	母蔡守仁 兄永韶
"	下士	黃春	楊口地區	"	鳴鶴里	母吳三秀 兄亨
"	中士	金承奎	金化地區	"	"	母林玉振 兄俊奎
"	中士	金商來	金化地區	"	"	母李舟心 兄商億
"	下士	洪在成	楊口地區	"	"	母金雙禮
"	下士	朴俊培		"	曷山里	父憲成
"	中士	金泰貴		"	"	母許連分
"	下士	權榮集		"	"	父承堯
"	下士	金顯福		"	"	父道吉
"	兵長	李龍雨		"	內板里	父鍾純
"	二兵	韓德傳	永川地區	"	應岩里	母趙五男 兄和傳
"	下士	權承萬	金化地區	"	"	母吳氏 兄承煥
"	一兵	李相龍		"	"	母金古孟 兄相權
"	二兵	元丙錄	青江地區	"	文舟里	父定鳳 第甲錄
"	中士	張榮淳	汶山地區	"	"	母朴今梅 兄泌成
"	一兵	權漢兼		"	"	女俊禮 父錫
"	一兵	金靖默		"	內板里	死後兄駿默 子勳入養
		安基喆		"	合江里	母吳烈玉
"	兵長	白東基		"	禮養里	父德男 母송옥남 兄淳基
"	中士	林憲萬		"	文舟里	子昌洙 妻姜熙父
"	一兵	尹麟錫		"	禮養里	父致興
"	二兵	李慶雨		"	內板里	母金今順
"	中士	史寅東	楊口地區	"	"	妻金明分 兄準 有子女
"	一兵	崔德成		"	"	妻金明任 子大元

陸軍一兵	閔 在 植	華 川 地 區	東面 老松里	妻 裴玉仙 母 유인숙
"	上兵 白 相 壽		" "	妻 禹言年 子 雲鳳
"	一兵 張 大 淳		" "	妻 朴義圭 母 容鎭 子 來哲
	裴 基 福		" "	妻 이현분
"	二兵 安 洪 根		" 禮養里	妻 金在心 母 石均
"	一兵 姜 萬 基		" 龍湖里	妻 吳貞吉 弟 萬德外2
"	兵長 林 權 洙		" "	妻 吳義鎭 母 憲世
"	中士 權 承 哲	金 化 地 區	" 應岩里	妻 張二鎭 子 光泰 女1
"	一兵 朴 萬 奎	橫 城 地 區	" "	妻 尹粉任 父 容睦 子2
"	一兵 이 창 기	越 南	" "	父 이석구
"	上士 황 하 성		" 內板里	妻 이복진
文 官	송 원 하		" 보건소	妻 윤세중
陸軍一兵	김 종 주		" 禮養里	母 현천임
"	上兵 김 재 수		" 內板里	父 김내묵
"	一兵 배 기 복		" 老松里	妻 이정분
"	上兵 김 흥 식		" 禮養里	子 김인기
"	上士 김 중배		" 鳴鶴里	父 김금복
"	兵長 윤 영 복		" 應岩里	父 윤창수

현 대 인 물

〈교 육〉				
성 명	주 소	근 무 처	직 위	비 고
성 낙 현	내관1리	대 학	교 수	퇴직
김 성 해	내관2리	공 주 사 대	교 수	"
김 재 민	내관3리	고 등 학 교	교 장	"
김 재 동	내관3리	초 등 학 교	교 장	"
황 병 태	명학2리	초 등 학 교	교 장	"
황 의 동	명학2리	충 남 대 학	교 수	재직
황 병 덕	명학2리	청주교육대학	교 수	퇴직
김 근 목	명학3리	연 세 대 학	교 수	재직
장 각 진	응암1리	고 등 학 교	교 장	"
김 용 환	응암2리	우 석 대 학	교 수	퇴직
박 종 문	응암2리	충 북 대 학	교 수	재직
한 창 순	응암4리	고 등 학 교	교 장	"
배 기 동	노송1리	고 등 학 교	교 장	퇴직
배 도 진	노송1리	초 등 학 교	교 장	"
배 만 진	노송1리	초 등 학 교	교 장	"
장 완 순	노송2리	초 등 학 교	교 장	"
윤 정 구	예양1리	충 북 대 학 교	교 수	재직
장 래 현	송용1리	초 등 학 교	교 장	"

성명	주소	근무처	직위	비고
장래황	송용2리	초등학교	교장	퇴직
장기완	송용2리	중학교	교장	"
강종규	송용3리	충청전문대	교수	재직
장완진	예양1리	초등학교	교장	퇴직
임헌만	용호리	초등학교	교장	재직
최종대	내판리	중등학교	교장	퇴직
장득진	송용1리	초등학교	교장	재직
김충해	내판리	충남대학교	교수	재직
〈공무원〉				
성낙준	내판1리	대전시청	사무관	재직
김두희	내판2리	충남도청	서기관	퇴직
김재고	내판3리	연기군청	서기관	재직
김서희	내판3리	세무서	서장	퇴직
방상덕	내판4리	과학기술처	사무관	재직
김홍일	내판5리	보은경찰서	서장	퇴직
김재덕	내판5리	국세청	이사관	"
김영희	내판5리	조치원역	역장	재직
김춘식	내판5리	서울시청	서기관	"
이해현	문주리	연기군청	사무관	재직
김장목	문주리	청주전신전화국	국장	퇴직
이노현	문주리	중앙선관위	사무관	재직

성명	주소	근무처	직위	비고
임헌문	용호 2리	동면사무소	면장	퇴직
강일구	용호 2리	관세청광주지청	부지청장	퇴직
강기찬	용호 2리	통일원	사무관	재직
임헌식	용호 2리	노동부	사무관	퇴직
안순근	합강 1리	동면사무소	면장	"
황의창	명학 2리	대전현충원	이사관	재직
황외중	명학 2리	동면사무소	면장	퇴직
황병국	명학 2리	동면사무소	면장	"
황문현	명학 2리	동면사무소	면장	"
황석주	명학 2리	해무청	소장	"
김성식	응암 1리			재직
김공수	응암 1리			"
박주신	응암 2리	경기도청	사무관	퇴직
박중신	응암 2리	전의면사무소	면장	"
박광신	응암 2리	경기도	사무관	재직
김재우	응암 2리	서천군청	사무관	재직
전만기	응암 2리	유성구청	국장	재직
김직수	노송 1리	동면사무소	면장	퇴직
배호진	노송 1리	동면사무소	면장	"
김정호	노송 1리	동면사무소	면장	퇴직
배도환	노송 1리	동면사무소	서기관	퇴직

성명	주소	근무처	직위	비고
서규석	노송 1리	충청남도청	서기관	재직
김건호	노송 1리	충북도청	서기관	"
배기태	노송 1리	세무서	사무관	"
배기현	노송 1리	충남도청	사무관	재직
김봉수	노송 1리	충남도청	사무관	퇴직
배기길	노송 1리	경기도청	사무관	퇴직
배기오	노송 1리	대법원	서기관	"
장영진	노송 2리	동면사무소	면장	"
장근영	노송 2리	충남도청	사무관	"
장교순	노송 2리	병무청	사무관	"
김덕기	예양 1리	철도청	부이사관	"
이경화	예양 1리	철도청	사무관	재직
장갑순	송용 1리	공주경찰서	서장	퇴직
장형래	송용 1리	조치원읍	사무관	재직
장문순	송용 2리	충남도청	사무관	재직
장달진	송용 2리	건설부	부이사관	퇴직
장옥	송용 2리	동면사무소	면장	"
이광현	문주리	충남교육청	사무관	재직
<군인>				
장시순	내판 1리	육군	소령	퇴직
김홍운	내판 3리	육군	중령	퇴직

성명	주소	근무처	직위	비고
강준식	용호 3리	육군	중령	퇴직
임헌표	명학 1리	국방부	차관	"
임명수	명학 1리	육군	대령	"
임일수	명학 1리	육군대학	대령	"
임헌준	명학 1리	육군	대령	재직
황의장	명학 1리	육군	소령	"
황대현	명학 1리	공군	소령	"
김응규	응암 1리	육군	중령	"
박용석	응암 2리	육군	중령	퇴직
권두환	응암 3리	육군	대령	재직
양승주	응암 4리	육군	중령	퇴직
김지호	노송 1리	육군	중령	재직
배기두	노송 1리	육군	중령	퇴직
배명운	노송 1리	육군	중령	"
배행정	노송 1리	육군	소령	"
장결순	예양 1리	육군	중령	"
민강식	예양 2리	육군	중령	"
박용근	응암 2리	육군	소령	"
〈법조인〉				
안천일	합강 1리	대전지방법원	판사	재직

〈정 치 인〉				
성 명	주 소	근 무 처	직 위	비 고
김 태 룡	내판 2리	국 회	의원	퇴직
김 고 성	노송 1리	국 회	의원	재직
임 광 수	명학 1리	연 기 군	의원	퇴직
장 래 열	송용리	연 기 군	의원	재직
강 생 규	용호리	대 구 시 의 회	의원	재직
〈공공기관〉				
김 택 희	내판 5리	조치원전화국	국장	재직
김 재 성	문주리	전기안전공사	지부장	"
채 규 익	합강 2리	문 화 방 송	차장	"
채 규 식	합강 2리	동 면 농 협	조합장	"
김 권 회	내판 3리	동 면 농 협	조합장	퇴직
양 영 천	합강 1리	동 면 농 협	조합장	"
장 찬 진	송용 2리	서 울 신 문 사	국장	"
김 연 희	내판 3리	도로공사관리공단	지사장	재직
김 청 환	응암리	천안염연초생산조합	조합장	재직
김 창 호	노송 1리	보은농지개량조합	조합장	퇴직

문화편(文化篇)

1. 합호서원과 동면유학의 지향
2. 연기의 불교문화와 동면의 마애불
3. 천주교와 동면
4. 개신교와 동면
5. 향교, 서원, 서당교육과 동면의 육영재
6. 동면의 예문과 그 산하
7. 한반도의 선사문화와 송용리의 지식묘
8. 한민족의 기본윤리와 동면의 정려
9. 근대교육과 동면의 교육발전
10. 마을의 소지명(素地名)과 세거성씨

1. 合湖書院과 東面儒學의 志向

삼국시대의 유교에 대하여

유교가 한국에 전래한 년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삼국시대에 당나라 유학생이 보이고 나라마다 국자학(國子學)을 세운 점으로 보아 그 당시 이미 유교가 들어와 일반화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기록으로 보아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太學)을 설치하였고, 백제는 일찌기 왕인(王人)으로 하여금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論語)를 전하게 하고, 신라에서는 신문왕 2년(682)에 국학(國學)을 건립하였다.

요컨대 삼국시대의 학문적 수준의 높이는 오늘날까지 남아서 볼 수 있는 금석문으로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묘비 명문으로 알 수 있고, 백제에 대하여서는 일본에 보존된 칠지도(七支刀)의 명문 그리고 무녕왕과 무녕왕비의 묘지석(墓誌石)의 명문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신라에 대하여서는 진흥왕의 척경비(拓境碑)의 명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대표적 유학자로는 문묘에 배향된 설총(薛聰)과 최치원(崔致遠)이 있다.

고려시대의 유교에 대하여

고려시대초에는 태조가 불교를 숭상하여 유학이 쇠퇴하였지만 6대왕인 성종이 유교를 숭상하여 대묘(大廟)를 건립하고 이어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경학박사(經學博士)를 두어 유교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류(士類)들의 호응이 없어서 발전이 없다가 11대 문종대에 최충(崔沖)이 구제(九劑)를 설치 후진을 교육시킴으로 유교가 크게 융성하였다.

그러나 미구에 문인의 발호(跋扈)와 전란의 계속으로 유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35대 충렬왕 12년(1286)에 문성공 안향(安暲=安裕)이 고려유학제거(高麗儒學堤擧)가 되어 마침 충렬왕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수입해 들여왔다.

그리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유교를 세우고 문묘를 중수하게 하는 등 유학의 중흥에 큰 공적을 남겼다. 이와 같이 정주학(程朱學)의 도입은 안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향의 문하에서 백이정(白臣貞正)이 정주학을 연구하고 우탁(禹倬)은 정주학의 역전을 연구하여 처음으로 역리학(易理學)을 크게 이룩하였다.

안향의 학문은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권근(權近)이 계승, 정몽주는 성리학의 전통 뿐 아니라 경륜과 도덕에서도 일가를 이루어 고려조 최후를 장식한 충신으로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으로 존경을 받으며 이색은 성리학의 태두(泰斗)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여말에 정몽주의 제자인 길재(吉再)는 등제하였으나 왕조가 바뀌니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절개를 지키며 후진양성에 전념하여 그 문하에서 김종직이 나와

조선조에에서 성리학의 전통을 이루었다.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는 문성공 안향을 모신 합호서원(合湖書院)이 있어서 문성공의 초상과 진필을 모시고 있어서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의 유교에 대하여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개국 공신인 정도전(鄭道傳)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게 하여 국정의 기본으로 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아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서울에는 성균관을 창건하고 전국의 360 주군에는 향교와 문묘를 병설하게 하여 석전봉행(釋奠奉行)토록 하였으니 모성준도(慕聖遵道)의 유교신앙을 크게 진작시켰다.

조선조의 교육은 주자학으로 일관하여 성균관에서는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중에서 준수를 선발하여 동재와 서재에 수용하여 학문과 법도를 연마하여 대과 합격 국가의 동량을 길러냄으로서 조선조 중엽까지 유교가 융성하여 국가사회의 교화에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으니 실로 한당(漢唐)과 송명(宋明)의 중국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 성리학의 정통을 이은 김종직의 문하에서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 등을 배출하였지만 연산군 4년(1498)의 무오사화에 김종직과 함께 화를 당하였으며, 김굉필의 문하에서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이장곤(李長坤), 조광조(趙光祖)가 나와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간 것

이며 특히, 조광조는 성리학의 지치주의(知致主義)와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지정치에서 크게 주장하다가 남곤(南袞)과 심정(沈貞) 등의 간계에 몰려서 중종14년(1519)의 기묘사화에 또다시 몰락하고 말았다.

이에 뜻있는 사류(士類)들은 정계진출을 단념하고 산림(山林)에 들어가 학문에만 열중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여기서 사색과 이론에서 뛰어난 서경덕(徐敬德)과 이언적(李彦迪) 등이 배출되었다.

서경덕은 일생을 탐구와 사색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기일원론(氣一元論)은 성리학의 가장 창의적인 철학으로 뒤에 율곡(栗谷)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언적이 주장한 주리학설(主理學說)은 퇴계(退溪)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서경덕과 이언적의 뒤를 이은 이기심성(理氣心性)에 대한 학풍은 명종~선조 때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그중에서도 율곡과 퇴계가 가장 뛰어나 우리나라 유학사상 대표적인 유가(儒家)로서 높은 존경을 받았다. 그리하여 영남의 사류들은 퇴계를 존경하며 동방의 주자라 칭하고 기호(畿湖)의 사류들은 율곡을 받들어 동방의 성인이라 칭하게 되어 기호학과와 영남학과의 2대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퇴계는 우리나라 성리학자중에서 누구보다 깊은 뜻을 연찬하여 정주학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었으며, 성리(性理)의 본질을 구명한 학설로는 기대승(奇大升)과 논변한 사칠이기(四七理氣, 四端七情)의 논설이 있다. 퇴계는 사단(四端 =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은 이기 중에서 이(理)의 발한 바이며, 칠정(七情 = 善, 怒, 哀, 懼, 愛, 惡, 欲)은 이기 중에서 기(氣)의 발한 바라고 하였지만 기대승은 이와 같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찬동치 않고 칠정 중에 사단이 묘합(妙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사칠론(四七論)이라고도 하여 당시의 모든 사류가 이에 언급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성리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때에 등장한 사칠론자로는 퇴계를 비롯하여 조식(曹植)·김인후(金麟厚) 등이 있고 그의 제자로서 허목(許穆)·이덕홍(李德弘)·정구(鄭述)·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이 충실히 퇴계의 학설을 따랐다.

퇴계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성리학에 정통한 유학자가 율곡이었다. 그는 총명하고 활달하여 정치가로 그리고 도학자로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율곡은 퇴계와 같이 우주의 본체를 이기이원(理氣二元)의 개념적 구성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이(理)와 기(氣)는 공간적으로 서로 이합(離合)함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서로 선후가 없으므로 이(理)란 조리(條理) 즉, 당면의 법칙으로 우주의 체(體)가 되고, 기(氣)는 그 조리(條理)를 구체화하는 활동, 즉 형질(形質)로서 우주의 본체(本體)에 대한 용(用=作用)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기(理氣)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라 하고 그러므로 인심(人心)의 발(發)에도 이원(二元)이 없고, 따라서 이기(理氣)가 호발(互發) 할 수 없음을 설파하여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주장에 대하여 이통기국(理通氣局) 기발이승(氣發理乘)의 학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성혼(成渾)과의 논변이 있었지만 율곡문하에서 김장생(金長生)·정엽(鄭曄)·이귀(李貴)·조현(趙憲)·황신(黃愼)·안방준(安邦俊) 등의 저명한 성리학자를 배출하였다. 율곡과 성혼(成渾) 등과 교우가 있었던 송익필(宋翼弼)은 성리학과 특히 예학에 밝았다. 그리고 동방 예학의 태두인 김장생도 율곡의 학통을 이으면서 예학을 대성하였다.

퇴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여 양대 산맥을 이룬 영남학과와 기호학파는 선조 7년(1574)에 이르러 마침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양당으로 갈리어 대립하게 되어 이른바 당쟁(黨爭)이 장기화하게 되었다.

조식(曹植)의 계통은 동인으로 그리고 성혼(成渾)의 계통은 서인으로 가담하게 되어 사류로서 두 파 중에 어느 한 파에 들지 않은 자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설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대립하고 지방색에서 대립하여 수백년간의 고질이 되기도 하였다.

즉 김장생, 송시열, 권상하 등은 서인이었고, 정경세(鄭經世), 이현일(李玄逸), 이상정(李尙靖) 등은 남인으로 서로 대립하였으나 퇴계의 학파에서 장현광(張顯光), 율곡의 학파에서 송준길(宋浚吉), 김창엽(金昌協)은 극단을 피하고 양파를 절충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니 당파사상 특기할 사실로서 유가(儒家)의 면모를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퇴계와 율곡의 학설이 대립하여 경쟁적으로 연구한 결과 유교 철학은 고도로 발달하여 국내적으로도 유교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까지 크게 발전된 조선의 성리학을 떨치게 되었다.

율곡의 학통은 충청도 연산출신인 김장생(1548~631)에게 계승되고 그 후 회덕의 송시열(1607~1689), 김창협(1651~1708), 김원행(金元行, 號溪湖, 1702~1772), 박윤원(朴胤源, 號梅山, 1776~1852), 연기의 임헌회(任憲晦, 號鼓山, 1811~1876), 전우(田愚, 號良濟), 금남면 달전리 성기운(成璣運, 號惠泉, 1877~1936)으로 내려와 충청도 연산·회덕·연기 등지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 학통이 연기지방의 유학사상을 지배해 온 주류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면 합강리에는 동방 성리학의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성공 안향을 배양한 합호서원이 있고, 또한 명학리 검은들에는 주기론(主氣論)을 소위 유기론(唯氣論)으로 반전시킴으로서 주기파(主氣派)의 정절을 이루었다는 문경공(文敬公) 룩문(鹿門) 임성주(任聖周) 선생의 묘소가 있으니 특기할 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연기에서 우암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이는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로 그는 남면 방축리에 살았으며 고종 때 찬선(贊善)과 이조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고종 13년에 사망하자 고종은 정2품을 증직하고 문경(文敬)의 시호를 내렸다. 저서로는 예설(禮說) 4권과 문집 20권, 년보 6권이 있다.

그는 성리학에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배격하고 기(氣)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일원론적 주기파(一元論的 主氣派)의 입장을 취하고 예론에도 밝았다고 한다.

그는 매산 홍직필의 제자이며 홍직필은 박윤원에게 수탁하고 박윤원은 김창협에게 수탁하였다. 그리고 김창협은 송시열의 문인이니 결국 임헌회는 송시열의 학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임헌회의 문화에서 불계재(不櫃齋) 이재구(李載九)와 감재(良齋) 전주(田愚)를 비롯하여 김준영(金駿榮), 이유흥(李裕興), 조홍순(趙弘淳), 임헌찬(任憲讚) 등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간재는 전라도 전주 출생으로 고산 임헌회의 학행(學行)을 사모하여 찾아와 20년간 수학한 바로서 특히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서 간재로 동방 유학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고도 한다.

따라서 서면 봉암리에 봉암서원(鳳巖書院)이 있었고 이 서원에는 송재

(松齋) 한충(韓忠),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동춘 송준길을 배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서원은 고종 2년(186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철거된 후 「봉암서원사적비」만이 세워져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正中里)에서 출생한 송재 한충(1476~1521)과 정암 조광조(1482~1519)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으로 계승되는 학통을 잘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 우암 송시열의 학통을 이어 받은 고산 임헌회(1811~1876)를 위시하여 그의 제자 간재 전우(전우), 불계재 이재구(不櫃齋 李裁九), 병암 이유흥(炳庵 李裕興), 로암 조홍순(魯庵 趙弘淳), 경석 임헌찬(敬石 任憲讚)의 칠현(七賢)을 모신 송덕사(崇德祠), 즉 현재의 덕성서원(德星書院)이 남면 방축리에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합강리의 합호서원은 숙종 42년(1716)에 안향의 후손 안경신(安景信), 안경정(安景精) 등이 창건하여 문성공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친필을 보존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향은 고려말 불교가 성행하던 때에 처음으로 주자학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소개한 유학자였다. 그의 학덕을 추모하여 중종 37년(1524)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에 사묘(祠廟)를 세웠는데 이것이 서원의 기원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면 합강리에 일촌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는 그 후손들이 유학자 이면서 선조가 되는 문성공의 영정을 모시고 추앙하는 한편 유교 강학의 장소로 하여 교학의 터전으로 삼았던 바가 합호서원의 시발이었다. 즉 순조 때에 후손 사랑(師良)과 유림 임동승(林東昇) 등의 발의로 합호서원으로 승격시켰다가 고종 2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철거되었지만 후손들이

합호서원을 합호사(合湖祠)로 고치고 매년 제향을 올렸다. 1931년에 후손 배호(培鎬) 등이 유림의 동의를 거쳐 서원을 복원하기로 하고 건물을 증축해 오다가 1949년 유림 서면의 유치각(兪致珏)과 동면의 임헌상(林憲商)·장인환(張寅煥) 등 여러 유학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전국 218향교의 동의를 거쳐 성규관에 상신 서원복설허가를 얻어 마침내 1950년에 합호서원으로 현액(縣額)되었다. 그 해에 6·25사변이 일어나 전화를 입었으니 그 후 증수축을 하여 보존 유지되어 매년 9월12일 문성공의 기일에 유림에서 향사를 올리고 있다.

이 서원은 순수하게 유림들만 모여서 설립한 봉암서원이나 덕성서원과 달리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서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서원은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의 구별을 따질 것 없는 성격의 서원이라는 점이 봉암서원이나 덕성서원과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합호서원의 향사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남의 선비들이 참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으로 합호서원을 모시고 있는 동면의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율곡이래의 이른바 기호학과의 주장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퇴계이후의 이른바 영남학과의 주장에 대하여 여전히 소외 일변도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합호서원에 모신 문성공께서 절대로 바라던 바가 아닐 것이니 우리들은 여기서 극단을 피하고 영남과 기호의 양파를 절충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장현광·송준길·김창협(金昌協)의 정신을 따르는 한편 근세에 들어와 다산(茶山)의 여유당집(與猶堂集)에 전하는 다산의 서암강학기(西巖

講學企)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즉 퇴계·율곡의 변론이 그때까지 2백년을 따져도 하나로 귀일(歸一)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하여 다산은 퇴계·율곡이 말하는 이(理)와 기(氣)가 글자는 같지만 실지로는 개념을 달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즉 퇴계가 말하는 이기(理氣)는 순전이 인심상(人心上)의 이기(理氣)로서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원인 구체적인 인심상의 이기에 국한된 것이니 즉 이(理)는 본연의 성(本然之性)으로 도심(道心)이며 천리의 공(天理之公)에 대한 이명(異名)이며, 기(氣)는 기질의 성(氣質之性)으로 인심(人心)이며 인욕의 사(人欲之私)에 대한 이명(異名)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본연의 성(本然之性)으로서의 도심(道心) 즉 천리의 공(天理之公)을 긍정배양 확충하는 반면 기질의 성(氣質之性)으로서의 인심(人心), 즉 인욕의 사(人欲之私)를 부정 알절 극복하도록 용력(用力)하므로 치심양성의 공(治心養成之功)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퇴계에 있어서 이발기발(理發氣發)의 본뜻이었을 것이니 대체론으로서 용어상 이발기발(理發氣發), 이기호발(理氣互發)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학자의 수양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변도로 소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 율곡이 말하는 이기(理氣)는 우주론(宇宙論)에 있어서의 이기(理氣)로서 이(理)는 무형적(無形的)으로 현상(現象)에 내재하는 법칙(法則)이며 기(氣)는 유형적(有形的)으로 형질(形質)이다. 따라서 우주간의 현상은 절대절소(絶大絶小)를 불문하고 절대로 기(氣)를 떠나서 이(理)가 존재할 수 없다. - 즉 기(氣)가 발함으로 법칙으로서 이(理)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자의 우주론(宇宙論)에 있어서의 이기이원(理氣二元)의 관념에

에 대한 율곡의 비판으로서 무섭게 정곡을 찌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을 가지고 직접 도덕을 따지는 인심(人心)에 맞추어 선과 악의 근원으로 하고자 한 철학조직의 근본에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눈을 감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전인적(全人的)이어야 할 우리에게서 우주간의 제현상에 있어서의 작용(作用)과 원리(原理)에 관한 과학적 합리적인 율곡의 이론이 필요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설령 용어상(用語上)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치심양성(治心養成)의 원리로서 공심사심이원(公心私心二元), 즉 선악이원(善惡二元), 즉 이기이원(理氣二元)으로 설명한 퇴계의 진의(眞意) 또한 소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호의 학과 영남의 학은 수레의 두 바퀴의 관계이니 이것만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고 저것만을 취하고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문성공이 이 땅에 주자학을 들여다가 영남과 기호의 선비들 사이에 300년 갈등의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주자를 배워서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주자를 능가한 기호의 유학과 영남의 유학-즉 하나의 동방의 유학으로 받아들여서 양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발전시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근본으로 삼음이 합호서원에 모신 문성공의 참뜻을 받드는 도리라고 믿어 동면의 우리는 의심치 않는 것이다.

2. 연기의 불교문화와 동면의 마애불

삼국시대의 불교에 대하여

불교는 B.C 500년경 인도의 <가빌라> 국 황태자 <깃달타>가 생(生)·노(老)·병(病)·사(死)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오래동안의 고행 끝에 깨달은 자(覺者.佛)가 되어 시작된 종교이다

그는 인간의 고뇌가 물심(物心)에 대한 애착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서 생기므로 이와같은 번뇌를 끊고 깨달은 자가 되면 초월적 절대 자유의 경지인 <열반>에 든다고 설법하였다. 이러한 깨달음의 진리는 곧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팔정도(定見, 正思, 正語, 定業, 正命, 正精進, 情念, 正定)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불교는 처음 인도의 중부지방에서 전파되다가 후일 <아쇼카>의 귀의를 받고 기타 지역으로 전파되고 <스리랑카> 등 멀리 외국에 까지 전파되었다. 불타가 입멸(入滅)한 후 100년까지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 그대로의 근본불교 시대였지만 다음 100년 후에는 불교의 교단내에 이견이 생겨서 200년 후에는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大衆部)로 갈라지더니 400년 후에는 20개 분파로 갈라져서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매몰되고 말았다. 그리

하여 일부 특수층은 독선기신(獨善其身)하는 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둔세주의(遁世主義)로 흘러갔으니 이와같은 불교를 소승불교(小乘佛敎)의 시대라 한다.

그러나 불멸후 500년이 지난 서기 1세기경 부터는 이러한 소승불교를 청산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되찾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이것을 대승불교(大乘佛敎)라 한다. 그리고 입적후 700년경에는 마명(馬鳴)보살 같은 대승이 출현하여 남천축국에 대승불교의 깃발을 드높이 날렸으니 이후 대승불교의 시대가 전개된 것이다.

이와같이 불교가 시대를 따라 소승과 대승으로 갈리고 또한 지역을 따라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지금의 태국, 스리랑카, 인도 지나 지역은 남전소승불교(南傳小乘佛敎)이며 티벳, 중국, 한국, 일본 지역은 북전대승불교(北傳大乘佛敎)이다. 이와같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였으나 이것을 불교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서기 67년경의 중국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같이 들어와 천태종(天台宗)을 비롯하여 삼론종(三論宗), 화엄종(華嚴宗), 선종(禪宗), 정토종(淨土宗) 등의 종파불교가 백화난만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많은 종파로 갈려서 들어온 원인은 인도에서 전래된 5,000여권의 경(經) · 율(律) · 논(論) · 삼장(三藏)이 연구, 번역될 때 여러 학자들이 각기 무원칙하게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어 각자가 연구한 부분만이 제일이라고 고집하여 이것을 종지(宗旨)로 종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서기 5세기경에 서역 출신 구마라간(350~409)에 의하여 많은 경전과 논서(論書)가 번역되자 중국의 불교계에 일대 혁명을 가져와 이 때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인 불교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오래도록 불교의 경전이 인도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 성립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수입되는 경전의 순서대로 잡다하게 번역 소개하던 것을 비로소 교상판석(敎相判釋)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교상판석이란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설법한 바를 설법순서와 시기 장소 등에 따라 뜻의 높고 낮음을 따지고 가치를 따져서 분류하고 위치의 선후를 따져서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상판석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불교진리의 순일성을 밝힌 화엄경(華嚴經)과 불교진리의 총합통일성을 밝힌 법화경(法華經), 그리고 불교의진리의 영원성을 밝힌 열반경(涅槃經)의 순서 배열이었다.

처음 화엄경을 최고시하다가 천태지자 대사가 나와서 만성동귀(萬善同歸)의 총합통일교로서의 법화경을 최고 위치에 두는 교상판석이 확립되어 불교체계를 세우고 교판논쟁을 종식시켰다. 그리하여 중국불교의 경론(經論)이 총합 통일로 간 것이다. 이와같이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교상판석(敎相判釋)의 문제 그리고 화엄경과 법화경의 교판논쟁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 불교사에서는 어떠한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에는 비암사(碑岩寺)라는 옛 절이 있고, 비암사에서는 대괘불(大掛佛)을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괘불의 끝에는 대괘불의 소속으로서 「운주산 비암사 충청도 도총섭(雲住山 碑岩寺 忠淸道 都總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때의 「도총섭(都總攝)」이란 무엇일까? 요컨대 한국 불교사의 문제로 「도총섭(都總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불교는 교종(敎宗)이나 선종(禪宗)이나 이 땅에 전래할 때에는 처

음부터 개교한 종조를 달리하였고 종지(宗旨)와 종풍(宗風)이 백화란만(白花爛慢)의 형상이었으나 초기에는 각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상호간에 대립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차차 후기로 내려오면서 교리(敎理)의 해석과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또한 종세의 확장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모순이 생겨서 다같은 불자(佛子)이면서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알력이 점점 심하여졌으니 이것을 한국사에서 흔히 말하는 「오교 · 구산(五敎, 九山)」 등이 그것이며 그중에서도 교(敎)와 선(禪)의 대립이 더욱 심하였다.

이러한 종파불교의 현상은 뜻있는 불교 선각자들에게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광정(匡正)의 사명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 광정운동의 첫 횃불을 든 이는 신라의 원효대사(元曉大師)이다. 그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지어 백가(百家)의 이쟁을 화해하여 통불교(通佛敎)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위대한 통불교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 선문구산(禪門九山)등 새로운 종파가 더 생겼을 뿐 불교계가 통합되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이 땅에 불교가 전래하는 초기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겠다.

그 다음 고려조에 와서는 교(敎)와 선(禪)의 대립은 더욱 심해져서 서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처럼 되었다. 대각국사(大覺國師, 1055-1101)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법화요의(法華要義)로서 고려불교를 재편성하고자 「천태종(天太宗)」을 개종하여 지관쌍수(止觀雙修)로써 교와 선의 융화를 기도하였으며, 또한 보조국사(普照國師, 1158-1210)는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하여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종파불교는 조금도 지양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태고 보우국사(太古 普愚國師, 1301-1382)에 이르러 자신의 수행면에서도 교와 선을 겸수하였고 종정면(宗政面)에서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여 제종 포괄에 힘썼다.

그리고 조선왕조에 와서는 국가에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불교의 여러종파를 폐합하여 전국의 여러 종파를 없애고 오직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의 둘 만을 두었으며 청허대사(淸虛大師, 1520-1604)에 이르러 선·교 도총섭(禪·敎 都摠攝)이 됨으로써 한국불교는 역대로 지향해 오던 「통불교(通佛敎)」가 성립되었다. 이와같이 「통불교」는 한국만이 가지는 불교의 특징인 동시에 한국 불교의 귀중한 역사적 소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근자로 오면서 한국 불교는 다시 분화작용을 일으켜서 소위 18개 종단이라는 큰 분파를 이루었고 그중에서도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종과 아울러 종통도 달리하여 태고종에서는 종명 그대로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고 있으나, 조계종에서는 종조를 보조지눌국사(普照知訥國師)또는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내세우는 양론이 있다

이와같이 조계종조에 대하여 태고 보우국사를 주장하는 파와 또하나 소위 불교정화를 전후하여 대두한 보조지눌국사의 종조론을 펴는 파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며 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지관쌍수(止觀雙修)」 등 지극히 어려운 내용의 말들이 있지만 요컨대 원효대사 이래로 대각국사와 태고보우국사를 거쳐서 청허대사에 이르러 대사가 비로소 「선·교 도총섭(禪·敎 都摠攝)」이 되므로 한국 불교는 역대로 지향하고 있었던 선종과 교종이 하나 된 〈통불교〉가 성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전한 것이다. 따라서 청허대사가

선 · 교도총섭이 되었다는 것은 불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청허대사는 휴정(休靜)이며 서산대사(西山大師)이다. 서산대사는 1520년생으로 1604년에 입적했다. 따라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은 1592년에 있었으니 대사의 72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산대사가 선 · 교도총섭이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서산대사가 선 · 교도총섭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당시적 기록으로서 「운주산 비암사 충청도 도총섭」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서산대사가 전국적으로 선종 · 교종을 하나로 관할한 대도총섭이었다면 당시의 비암사의 주지는 충청도의 선종과 교종을 하나로 관할한 도총섭이었을 것이다.

공주지역은 백제시대 이래로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고장이다. 백제의 도성과 함께 창건된 대통사(大通寺), 궁성주변의 사방을 옹위하던 동 · 서 · 남 · 북의 혈사(穴寺)와 그 외각을 수호하던 구룡사(九龍寺), 마곡사(麻谷寺) 등이 고대로 성행하였던 불교문화를 오늘에 이어주고 있다. 그리고 관촉사(灌燭寺)를 중심으로한 논산지역의 불교, 수덕사를 중심한 예산지역의 불교, 광덕사를 중심한 천안지역의 불교, 그리고 흥덕사를 중심한 청주지역의 불교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지만 서산대사의 시대에 충청도 선 · 교도총섭으로 지정된 것은 분명히 연기의 비암사이지 공주의 마곡사도 아니고 예산의 수덕사도 아니었다. 그리고 청주의 흥덕사도 아니고 비암사였으니 대체로 임진왜란 이전에 있어서의 비암사의 사세(寺勢)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암사가 조선조 초기까지 오늘날의 충남북의 모든 사찰

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암사는 조선조 초기에만 충청도 즉 오늘날의 충남북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던 것이 아니라 백제가 망한 660년의 13년 후인 673년 4월 15일부터 백제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종묘사직을 대신하여 역대의 국왕과 충의 대신들과 국말에 죽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합령발원(合靈發願)하기 위하여 백제왕가였던 여(余)씨가 주동이 되고 거기에 백제의 대표적 호족이며 대신가(大臣家)였던 진(眞)씨와 목(木)씨가 참가하여 창건된 가람이기 때문에 백제의 멸망 후 지금까지도 백제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충청도 도총섭이 있어서 충청도 승군의 본거지가 된 비암사는 전소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며 그후 극락보전(極樂寶殿)만이 재건되어 그나마 완전 폐사의 운명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 30년전에 비암사에서 (1)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國寶 제106호) (2)기축명아미타불비상(己丑銘阿彌陀佛碑像, 보물 제367호) (3)미륵반가사유석상(彌勒半跏思惟石像, 보물 제358호)이 출현하고, 또한 비암사 가까이의 연기군 일대에서 (4)계유명삼존석비상(癸酉銘三尊石佛碑像) (5)무인명석불상 부대좌(戊寅銘石佛像 附台座, 보물 제649호) (6)칠존석불상(七尊石佛像) 등 역시 백제의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일품들이 출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다. 연기군에서는 거군적으로 비암사의 창건일인 4월 15일에 비암사에서 백제 역대왕과 충의대신들과 국말에 죽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백제대제(百濟大祭)라 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으니 비암사가 백제를 대표하는 사찰이 틀림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암사를 중심으로하여 연기군 일대에 현존하는 고찰과 유지(遺址)가 다음과 같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며 불교유물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비암사는 죽은 국왕과 대신과 칠세부모를 함령(含靈)발원하여 사찰을 경조(敬造)하고 불상을 시납한 것이니 신앙대상으로 주불은 첫째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석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石像)과 극락보전에 모신 아미타불이며 둘째는 「미륵반가사유석상(彌勒半跏思惟石像)」과 무인명석불상(戊寅銘石佛像)의 뒤쪽에 보이는 미륵불일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無量壽佛)·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하며 영원한 생명과 광명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 부처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주불이며 좌우보처(左右補處)를 거느리고 선행(善行)·공덕(功德)을 닦은 중생들을 인도하여 그 선행 공덕의 정도를 따라 구품(九品)연화대에 올려서 복락(福樂)을 누리게 한다. 이 때에 실제적인 중생제도, 인도교화는 물론 관음보살과 대세지(大勢至)보살이 하는 것이다. 요컨대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석상의 명기에도 「同心敬造阿彌陀佛觀音大勢之像」이라고 하여 아미타불상과 함께 관음보살과 대세지상을 동심경조한 사실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백제왕가인 여(余)씨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백제의 대호족이며 대대로 대신가(大臣家)였던 진(眞)씨와 목(木)씨가 참가하여 국왕과 대신과 칠세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찰〉의 경조(敬造)이며 석불상의 시납이었기 때문에 〈과거불〉로서 아미타불상과 관음보살상과 대세지상의 경조(敬造) 또한 필연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미륵신앙에서는 미륵보살 또는 미륵불을 믿고 기원한다. 33천(天) 중의 하나인 도솔천의 내원궁(內院宮)에 머물며 미륵정토(彌勒淨土)를 주관하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의 수기, 예언에 의하여 미래세를 제도해 나갈 미래불, 미륵불이 되도록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신앙에서는 미륵보살과 미륵불을 구별하기도 하고 동시에 혼효시켜 보기도 한다. 미륵보살이 바로 미륵불이요, 미래불이 바로 현재불로 권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륵신앙은 10선업(善業)을 닦고 사후에 미륵보살·미륵불의 제도를 받아서 미륵정토(彌勒淨土)에 왕생하는 것으로 최고 이상을 삼고 있거니와, 그 신앙은 틀림없이 백제시대부터 뿌리를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비암사에서 출현한 3구의 석불상중에서 1구가 미륵반가석상(彌勒半跏石像, 보물 제368호)인 점으로 보아서도 미륵신앙과 깊은 인연이 있음은 물론 서면의 연화사(蓮花寺)의 무인명석불상(戊寅銘石佛像) 후면의 석상 또한 미륵반가석상인 점으로 보아서 고대의 연기와 미륵신앙의 인연이 깊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찍이 황수영 박사가 그의 「한국 불상의 연구」에서 고대에 연기에서의 불교신앙은 과거불로서 〈아미타불 신앙〉과 미래불로서 〈미륵불 신앙〉이 중심이었다고 설명한 바로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암사와 연화사에서도 그와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방증(傍證)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전동면 미곡리의 「미륵당 신앙」, 남면 나성리의 「미륵불신앙」, 동면 송룡리의 「미륵불신앙」이며 이에 대하여 대략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동면 송룡리의 미륵불에 대하여

이것은 연기군 동면 송룡리에 있는 석불로서 1984년 5월 17일부로 문화재 자료 제43호로 지정된 것이다. 이 석불은 아미타불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원광대학교 김상룡총장이 「한국 미륵신아의 연구」에서 미륵불로 고증하였다. 조성년대에 대하여서는 고려시대로 보고 있지만 더욱 올라가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석불 역시 백제,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며 고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석불은 당초 내판지역에 방치되어 보살피는 사람없이 외롭게 서 있었던 것을 1940년경 이곳 송룡리 주민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 위치에 옮겨놓고 그해 부터 부락민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다. 좌측의 뒷부분이 약간 파손되었는데 지난 1880년경 큰 뱀이 올라 앉아 있는 것을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 뱀을 죽이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떨어져 나간 파편은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송룡리의 마애불로서의 미륵불 또한 연기군의 미륵불로서 연기군의 미륵신당의 오랜 전통을 잇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천주교와 동면 노송리의 公所의 기원

천주교와 동면 노송리 공소의 기원

천주교 〈카톨릭(Catholic)〉이라고 하는데 이 교명(敎名)은 〈보편적 세계적〉이라는 뜻의 희랍어에 유래하였다. 1세기경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베드로(Peter)〉와 〈바오로(Paul)〉 등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완성된 종교이다.

유일신으로서 천주(天主)를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10개명을 지킴으로써 사람으로 선종(善終) 할 수 있고 선종한 후 영생(永生)을 얻어 천국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신앙생활로 지켜야 할 7성사(七聖事, 聖洗, 聖振, 告解, 聖體, 終傳, 神品, 婚配)가 있으며, 교회조직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정점으로 전세계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1517년에 있었던 〈루터(Luther)〉의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를 이루어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간 후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改新敎)라 하고 카톨릭을 구교(舊敎)라고 한다.

카톨릭 즉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는 선조 때와 광해군 때에 우리

나라 연경사신(燕京使臣)을 통하여 천주교사상 즉 서학(西學)에 눈뜨기 시작 1603년에 세계지도와 천주실의(天主實義) 등 천주교에 관한 서적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1614년에는 남인 학자로서 이수광(李日卒光)이 그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이태리의 중국선교사 마테오릿지를 소개하는 한편 마테오릿지의 저서 천주실의의 내용을 간추려서 천주교에 대하여 해설하고 소개한 바 있다.

다음으로 허균(許筠)은 1603년에 연경을 왕래하면서 천주교를 연구 신봉하였고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昭顯世子)는 북경에서 선교사<아담 샬(Adam Shall)> 과 친교를 맺고 1641년에 귀국할 때 서양학문에 관한 서적과 함께 천주교의 서적과 천주상(天主像)들을 받아가지고 귀국하였지만 일찍 죽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처음에 학자들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천주교는 차차 신앙의 경지로 발전하여 당시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학자들 이벽(李蘖), 권일신(權日身), 이가환(李家煥), 정약중(丁若鍾)의 3형제 등 유력한 학자들이 천주교에 귀의하며 학문에서 신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식 천주교에 입교(入敎)한 사람은 이승훈(李承薰)이었다. 그는 1783년에 부친 이동욱(李東郁)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북경교구의 <그라몽(Grammon)> 신부로 부터 세례를 받고 다음해 1784년에 성서와 성상을 모시고 귀국하였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 천주교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신앙운동이 강화되어 1784년에는 서울남부 명동에 살던 역관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주일행사를 함으로 남인학자들이 교리 연구에 의하여 외국 성직자의 전도없이 최초의 교회를 창설한 것이니 이것은 카톨릭의 전세계 전도사상 유례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 당시 조정에는

서는 당쟁이 격화되어 남인들은 참정의 길이 막혀서 염세적 관념에 젖어 있었고 젊은 학자들은 고루하고 침체한 주자학에 실증을 느끼고 일대 개혁을 바라던 시대상이 천주교 부흥운동의 발판이 되어 중인계급까지도 이에 호응하여 그 세력이 커져 마침내 천주교 운동이 표면화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조정에서는 탄압정책으로 맞서 1785년에 김범우 등이 전배 당하고 많은 천주교 서적이 분서(焚書) 되었다. 정조 자신은 비교적 천주교의 탄압은 삼갔지만 조정 신하들이 충효와 충신의 도에 어긋나 사회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주장으로 정조 15년(1791)에 신해사옥(辛亥邪獄)을 일으키고, 이어서 순조 원년(1801)에는 신유사옥(辛酉邪獄)을 일으켜 소위 오가작통법(吾家作統法)을 시행하여 이승훈, 이가환, 권일신 등 지도자급 신자들 주문모(周文謨)신부, 정양종회장 등이 차례로 순교하여 순교자가 300명을 넘었다.

이와같은 박해로 천주교가 곤경에 빠지자 황사영(黃嗣永)이 북경 교주에게 구원을 청하는 백서(帛書)를 보내려다 발각되어 군문효수(軍門梟首)를 당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순조 15년(1815)에는 경상도에서 그리고 순조 27년(1827)에는 전라도에서 수백명의 신도들이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탄압 속에서도 순조 31년(1831)에는 종래 북경 교구에 속했던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정식으로 「조선교구」로 독립시키고 1863년에는 불란서 신부 <모방(P.maubant)> 이 입국하고 이어서 다음해에는 <임베르(Imbert)> 주교가 입국하여 선교하니 신도가 9천을 헤아렸다.

이에 맞서 조정에서는 다시 탄압을 가하여 현종 5년(1839)에는 기해사

옥(己亥邪獄)을 일으켜 3명의 선교사와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당하고 현종 11년(1845)에는 김대건이 주교와 <다브레(Daveluy)> 신부를 데리고 입국하여 전도하다가 9월에 처형당하였다.

이와같은 천주교도들에 대한 참혹한 박해의 소식이 북경교구에 알려지자 현종 12년(1846)에 불란서함대가 내항하여 선교사 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을 임금에게 전달하고 다음해에 회답을 받기로 하고 돌아갔다가 다음해에 군함 2척이 내항하였는데 그 중 1척이 좌초되어 영국군함의 도움을 받고 돌아갔다.

그후 철종 때까지는 연이은 민란으로 손을 쓸 수 없어 탄압이 멈추자 외국선교사들의 활동이 적극화하여 교세가 확장되어 신도수가 1만을 헤아렸지만 다음에 고종이 등극하자 대원군이 집정하게 되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고종 3년(1866)부터 탄압령을 내리고 박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김장운(金長雲), 남종삼(南鍾三), 정의배(丁義培) 등 주요 인물들이 처형되고 9명의 불란서 신부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9년(1873)까지 400여명이 희생 되었으며 각처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천주교 신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체포령을 내려 엄벌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이 몰락하고 고종 19년(1882)에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므로 척화비를 제거하고 천주교는 활동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일합방 때까지 전국에 1명의 주교, 46명의 외국신부, 15명의 한국신부, 59명의 수녀와 73,517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69개의 성당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1년 8월에는 조선교구를 경성교구와 대구교구로 분리하고, 1920년 8월에는 경성교구에서 원산교구가 독립하고 1927년 3월

에는 경성교구에서 평양교구가 독립하고 1928년 7월에는 원산교구에서 연길(延吉)교구가 독립하였다.

한국의 천주교는 일제 때에는 교회건물을 징발당하고 교회계통학교의 폐쇄 등 갖은 탄압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여 1945년 해방된 해에는 서울, 대구, 평양, 함흥, 연길, 전주, 광주, 춘천 등 8개 교구와 7명의 교주(敎主), 2명의 교구장을 비롯하여, 한국 신부 132명, 독일 신부 54명, 불란서 신부38명, 아일랜드 신부 10명이 있고, 신자는 18만여명으로 160개소의 성당이 있었다.

천주교는 1945년 조국의 광복으로 약 200년만에 비로소 참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 받아 교세를 확장한 결과 1962년에 노기남, 서정길, 주교가 한국 최초의 대주교로 승품 되었다.

1962년에 시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내적 쇄신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민족문화의 접근 그리고 토착화에도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니 한국어 미사 전례(典禮)와 성서의 개신교와의 공동번역이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5년에는 기해(己亥)와 병오(丙午)의 양대 교난의 순교자 79위를 위한 시복식(諡福式)이 로마의 베드로성당에서 거창되었고, 1968에는 병인(丙寅) 교난의 순교자 24위에 대한 시복식이 같은 로마의 베드로성당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선교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주교단은 정신운동, 기념사업, 사목(司牧)회의 기념행사 등 4대 행사 실행부서를 설치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공동체를 이루어 교황의 방한(1984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으로 순교자 103위에 대한 시성식(諡聖式)의 큰 행사를 치루었다. 백만의 신도가 운집한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주재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의 거행은 바티칸의 역사상 교황청 밖에서는 처음으로 시성식을 거행한 특례로서 천주교사에서 유례없는 영광된 일이라 하니 앞으로 한국천주교가 전세계 카톨릭 교회에서 그 지위를 높이 격상시킨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연기군에서의 천주교의 역사 현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 1988년 간행의 「연기군지」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연기군의 천주교

연기군의 천주교는 현재 1948년 5월 8일에 서울교구로부터 분활 독립된 대전교구에 속해 있으며 조치원과 전의 2군데에 본당이 있고 노송리에 공소가 있다. 신부가 2명, 수녀가 6명이며 교인은 2,901(남 1,160명, 여 1,741명)이다.

천주교 조치원교회

위치: 조치원읍 남동 62

연혁: 1955년 1월에 본당 설립. 1962년 2월에 충북 오송 천주교회 분리. 1967년 5월 본당을 현재 위치로 이전(정동 구성당 대지 매각), 봉암공소 강당 건축. 1970년 5월에 새 성당과 사제관 사무실

건축. 1973년 4월에 성체회 수녀원 조치원 본당 개원. 1979년 3월에 유치원 건물 건축 및 성모유치원 개원(2학급 80명). 1980년 4월에 전의 본당 설립(교우 240명 분리해 나감). 1981년 7월에 본당 교육관 건축(54명)

통 계: 신부 1명, 수녀 3명, 교인 2,036명(남 831명, 여 1,205명)

교역자: 신부(현재)

본 교회는 신도회, 성우회, 안나회, 청년 연합회 등의 신심단체와 액션 단체에서 전교활동을 비롯하여 미사와 성경학습, 상부상조 등의 활동을 하며 성모유치원에서 아동교육을 하고 있다.

천주교 조치원교회 노송공소

위치: 동면 노송리 136의1

연혁: 1887년에 노송리에 천주교 전래하여 초대회장은 배영호(裴榮浩), 1921년에 2대 회장 김덕순(金德順), 1930에는 3대 회장 배철환(裴喆煥), 1954년에 공소 발족. 1971년에 강당 건축, 현 위치로 이전함. 1978년 4월 10일에 4대 회장 김기옥(金基玉) 1983년 1월 1일에 5대 회장 배정환(裴貞煥) 취임.

천주교 전의교회

위치: 전의면 읍내리 188의 4

연혁: 1957년 공소로 시작. 1974년 4월에 공소 건축. 1980년 4월 17일
에 본당으로 승격. 1981년 10월 23일에 성당 건립 축성
통 계: 신부1명, 수녀 3명, 교인 657명(남 242명, 여415명).
교역자: 신부(현재)

동면의 천주교

위에 전한 바와 같이 연기군에서 가장 먼저 천주교가 전래된 곳은 동면
노송리의 노리미 마을이었다. 그러면 노송리의 노리미 마을에는 어떻게 전
래된 것일까.

첫째로 1866년(병인년)에 있었던 대교난(大敎難)에 난을 피하여 강의관
이라는 이가 노송리의 이웃마을인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절골)에 숨어 들
어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박해가 극심한 때라 신자의 내색을 못하다
가 1874년에 대원군이 은퇴하면서 암암리에 전교를 시작하였다.

그즈음 노송리의 노리미 마을에 살던 김동명과 배영호는 당시의 지식인
으로서 경학(經學)을 공부하다가 관심이 실학(實學)으로 옮겨갔다. 김동명
도 그렇고 배영호도 그렇고 충신 김언신(金彦信)의 후손으로 또는 충신 배
홍덕((裴弘德)의 후손으로 처음에는 경학(經學)에 능통한 선비들이었다는
점에서 소위 성호(星湖), 다산(茶山) 등 실학파의 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
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실학에서 다시 천주교로 옮겨갔다는 점에
서 다를 바가 없으니 자기 혁신을 거듭한 조선조 말기의 지식인들의 유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실제로 천주교의 교리를 익혀주고 천주교 서적을 빌려

준이는 사곡리(절골)에 살고 있었던 강의원이었다.

김동명은 공주로 신부를 찾아가 더욱 깊이 교리를 익히고 신부를 도우며 복사(服事)생활과 성당일을 맡아보고, 배영호는 고향 노송리에서公所(公所) 회장직을 맡아서 김동만, 배영복, 배상필 등을 입교(入敎)시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다.

한국의 천주교사가 말하듯이 이 경우에는 타의 전교(傳敎)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찾아가 영세를 받고 신자가 된 것이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1886년의 한불조약(韓佛條約)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해제되면서 1887년에 입교하여 영세(領洗)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하며 김동명의 영세명은 <레오> 배영호의 영세명은 <안드레아> 라고 하였다. 그 후 김동명은 두 딸을 배영호의 아들과 김우관의 아들에게 출가시켜 인척의 관계를 맺으니 우애가 더욱 깊어졌다. 그후로도 노송리의 노리미 마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꾸준히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개신교(改新敎)와 동면

개신교와 동면

한국의 기독교는 고종 22년(1885)에 <언더우드(H.G Underwood)> 목사에 의하여 정식으로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성경은 순조 16년(1816)에 영국 함장 <홀(Basil. Hall)> 의하여 백령도와 청도에 한문성경이 전하여졌다. 1832년에 화관이 선교부에서 만주로 파견한 독일인 선교사 <구츠라프(K.E Gutzlaff)> 가 보령의 고대도에 입국하여 전도하다가 쫓겨난 뒤 1865년 <토마스(R.J.Thomas)> 목사가 상선 <서먼호(General Sherman)> 로 평양에 밀입국 하였다가 순교하였다. 그래서 선교부에서는 결국 그들의 선교활동을 우회적으로 1873년에 스코트랜드의 선교사 <존.로스(John Ross)> 는 만주에 사는 한국인을 찾아가 전도하였다. 이 때에 선교사의 힘을 빌어서 백홍준(白鴻俊), 이응찬(李應贊), 이성하(李成夏), 김진기(金鎭基) 등이 신약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며 국내에 보급시킴으로서 개신교가 한국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개신교의 한국선교에 외국선교사들의 노고가 컸지만 한편 국내의 지도자급의 활동도 눈부신 바 있었으니 이수정(李樹廷)과 서상운(徐相

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수정은 1882년의 임오군란(壬午軍亂) 뒤에 수신사 박영효 일행을 따라 일본에 갔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 4년간이나 그 곳에 남아서 성서번역을 하면서 한국선교를 계획 1886년에 귀국하였다가 체포 처형당하였다. 그러나 서상윤은 선교사 <로스>와 <미킨다이어(John Macintyer)>가 만주에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할 때 참여한 사람으로 그는 목판에 조각하여 인쇄한 성서를 만주에 사는 여러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보급하고 선교하다가 황해도 장연의 송래(松來)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1884년에 <소래 교회당>을 세우니 한국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이룩한 것이다.

1885년 한국은 구미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조약을 맺음으로서 문호가 개방되어 정식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인천으로 상륙하여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개시하여 고종 24년(1887) 9월초에 장로교의 새문안교회가 창립되었고, 그해 10월에는 감리교의 정동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 대구, 평양, 의주로 확산되었다.

1889년에 호주 장로교회의 <데이비스(J.H.Davies)>와 영국 성공회의 <코오프(C.J.Corfe)>와 주교 <벤슨(Bonson)>이 입국하고 1896년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리드(Read)>와 <캠벨(J.H.Combell)>부인이 선교사로 내한하고 캐나다의 장로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904년에는 미국 안식교회가 그리고 1907년에는 미국의 동양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성결교회를 조직하였다.

이처럼 개화기의 물결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개신교 교파의 선교사들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의 교회양식을 본받게 된 것이며 이어 1907년 원산에서 있었던 대부흥회를 계기로 이른바 <네비어스 (J. L. Nevius. 自立, 自力, 自助)> 방식에 따른 포교정신으로 전국에 불길같이 번져 갔다.

개신교가 한국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서구식 근대교육의 개발, 서양 의학의 도입, 사회사업의 전개와 특히 봉건구습의 타파에 앞장서서 일부일처제도의 확립, 근로정신의 함양, 금주 금연운동의 전개, 한글성서의 보급운동으로 당시 한국사회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한국의 근대화에 주체가 되어 신문화운동을 촉진시켜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은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총칼로 식민정치를 강행하여 마침내 그들의 국교인 신도(神道, 天照大神)를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고 전국에 942개의 신사를 세워서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기독교의 수난이 닥쳐온 것이다.

이등박문이 살해된 후 사내총독(寺內正毅 總督)이 무단정치로 조선독립정신을 기르던 기독교회를 말살하고자 일제경찰이 소위 105인 사건이라는 흉악한 허구를 꾸며냈는가 하면 1911년에는 조선신교육령을 내려 800여 군데에 달하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일대 탄압을 가하였다.

1919년 기미년에 기독교와 천도교 그리고 기타 종교의 각계의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3.1 독립운동으로 일제를 궁지에 몰아넣자 그에 대한 보복은 날로 심하여 수원의 제암교회에 대한 방화살인사건이 하나의 실례

이다.

1937년에 소위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대륙침략을 감행하면서 황민화(皇民化) 정책을 내세워 한민족을 그들 조상의 후손이라 기만하면서, 한국 청년들은 그들의 총알받이로 전쟁터로 끌어내고, 장정들은 그들의 전쟁 노무자로 한국의 딸들은 정신대라고하여 전쟁터로 끌고가 노리개로 삼아 한민족 말살정책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그들의 조상신이라는 천조대신(天照大神)과 직계손으로 현신(顯神)하였다는 천황을 위한 것이라 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이없게도 이단시 하여 말살하려 한 것이다. 일제는 1930년에 황국신민의 도리라하며 기독교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35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도 이를 강요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200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주기철(朱基徹)목사와 50여명이 순교하였다. 이 때 200여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학교가 폐교당하였다.

1941년 12월 8일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일제는 1942년초에 외국 선교사 전원을 강제 추방하고 1943년 초에 외국선교사 전원을 강제 추방하고 1943년에는 한국기독교의 각파 교단을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통합하여 통리(統里)라는 직책을 두어 일제의 지배하에 묶어두려 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교당에서 추방하거나 투옥시켰다. 그리하여 70여만명을 헤아리던 교세는 거듭되는 폐쇄와 투옥과 순교의 이중 십자가 속에서 수난의 역정을 거듭한 것이다.

1945년의 광복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었으나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서 북한의 수십만 교인들이 월남하여 교회를 재건하여 남한의 기독교가 일대 부흥기를 맞았다가 1950년의 6.25 동란으로 또다시 큰 환란을 겪

었다. 1953년에 휴전과 함께 초토 위에 다시 교회를 일으키니 당시의 교회는 우리의 삶에 큰 희망이 되었고, 특히 수많은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교회의 중흥기로 약 25개의 교단과 100여개의 새 기관 및 단체가 생겨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1965년 전국적인 <전국 복음화운동>은 전국 2239개처의 집회에서 연인원 230여만이 동원된 대부흥운동을 이루었다. 그 밖에도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활동과 친구교의 성서공동 번역, 한국교회의 해외 진출 YMCA의 시민논란, 기독교 신풍운동, 연합신학대학원의 설립을 들 수 있고, 1970년대에는 사분오열된 장로교회의 재통합을 위한 신앙고백서의 작성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조의 천명, 북한교회의 재건위 구성 등 새로운 진로 모색을 시도하고, 1890년대에는 60여개 교파로 분열된 개신교파가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회개와 반성을 통한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하였으니 장로교 통합측을 위시하여 20개 주요 교파가 24개 교회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회분열에 대한 역사적 참회와 하나의 교회로 지향하는 행사를 마치고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한 사회봉사의 교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놀랄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에 따른 질적 성장은 물론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새로운 위상 정립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연기군의 개신교

연기군의 장로교회

연기군내 장로교회는 조치원교회를 비롯하여 14개 교회가 있으며 교역자는 목사 12명, 강도사 1명(남), 전도사 11명(남 11명)이며, 교인은 2,840명(남1,026명, 여 1,814명)이다.

- (1)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교회(합동)
- (2)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서부교회(통합)
- (3)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제일교회(통합)
- (4)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통합)
- (5)대한예수교장로회 평산교회(통합)
- (6)대한예수교장로회 와촌교회(통합)
- (7)대한예수교장로회 서면중앙교회(통합)
- (8)대한예수교장로회 내판교회(통합)
- (9)대한예수교장로회 종촌교회(통합)
- (10)대한예수교장로회 연서교회(통합)
- (11)대한예수교장로회 연남교회(통합)
- (12)대한예수교장로회 고정교회(통합)
- (13)대한예수교장로회 송원교회(통합)
- (14)대한예수교장로회 성덕교회(통합)

연기군의 감리교회

연기군의 감리교회는 조치원중앙교회를 비롯하여 13개 교회가 있으며 교역자는 목사 5명(남 4명, 여 1명)이며, 교인은 1,784명(남 626명, 여 1,158명)

- (1)기독교대한감리회 조치원중앙교회
- (2)기독교대한감리회 조치원제일교회
- (3)기독교대한감리회 전의교회
- (4)기독교대한감리회 소정교회
- (5)기독교대한감리회 고등교회
- (6)기독교대한감리회 송성교회
- (7)기독교대한감리회 봉암교회
- (8)기독교대한감리회 봉암중앙교회
- (9)기독교대한감리회 내판벤엘교회
- (11)기독교대한감리회 양화교회
- (12)기독교대한감리회 감성교회
- (13)기독교대한감리회 도암교회

연기군의 침례교회

연기군의 침례교회는 조치원교회를 비롯하여 18개 교회가 있으며 교역자

는 목사 15명, 전도사 10명(남 8명, 여 2명)이며, 교인은 2,425명(남839명, 여 1,586명)이다

- (1)기독교한국침례회 조치원교회
- (2)기독교한국침례회 봉산동교회
- (3)기독교한국침례회 전의교회
- (4)기독교한국침례회 대곡교회
- (5)기독교한국침례회 노곡교회
- (6)기독교한국침례회 달성교회
- (7)기독교한국침례회 송담교회
- (8)기독교한국침례회 연기교회
- (9)기독교한국침례회 갈운교회
- (10)기독교한국침례회 양화교회
- (11)기독교한국침례회 나성교회
- (12)기독교한국침례회 월산교회
- (13)기독교한국침례회 수산교회
- (14)기독교한국침례회 대평교회
- (15)기독교한국침례회 대박교회
- (16)기독교한국침례회 석삼교회
- (17)기독교한국침례회 용담교회
- (18)기독교한국침례회 반곡교회

연기군의 성결교회

연기군의 성결교회는 조치원교회를 비롯하여 11개 교회가 있으며 교역자는 목사 11명 교회가 있으며 교역자는 목사 11명, 전도사 3명(남 1명, 여 2명), 교인은 2,500명(남 886명, 여 1,614명)이다.

- (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조치원교회
- (2)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의교회
- (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정교회
- (4)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정제일교회
- (5)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영당교회
- (6)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금사교회
- (7)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동교회
- (8)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송덕교회
- (9)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내판교회
- (10)기독교대한성결교회 노송교회
- (1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연서교회

연기군의 순복음교회

- (1)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조치원교회

- (2)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갈산순복음교회
- (3)구세군교회
- (4)그리스도의 달전교회
- (5)대한예수교 소망교회
- (6)신안교회
- (7)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 (8)한국새사도교회
- (9)대한예수교 조치원전도관
- (10)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조치원교회

연기군 동면의 개신교

1)기독교대한감리회 내판벨엘교회

위 치: 동면 내판리 25

교역자: 김원화(전). (목)

통 계: 목사 1명, 전도사 1명 교인 54명(남18, 여 36)

연 혁: 1986년 12월 1일 성전건축

(2)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내판교회

위 치: 동면 송용 1구 204

교역자: 박요한(목사 73. 7. 31 ~74. 1)

사수기(전도사 74. 1~78. 6). 안병(사 78. 6~현재)

통 계: 목사 1명, 교인 118명(45명, 여 73명)

연 혁: 1973년 3월 5일에 채오순, 배이남, 배기남씨를 비롯한 10여명의 성도들이 말세복음을 전하는 비진리에 도전하다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박춘순씨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1973년 9월 22일에 조치원교회의 도움으로 정식 교회를 설립함. 1973년 11월 3일 교회 건축하고 입당함.

(3)예수교대한성결교회 노송교회

위 치: 동면 노송리 1구 21

교역자: 김찬석(전도사 47. 11~49. 6).

김선재(전도사 49. 7~52. 4).

김복섭(전도사 52. 6~52. 9).

이용신(전도사 52. 12~56. 5).

박태섭(전도사 56. 5~60. 4).

홍갑표(전도사 60. 5~60. 10).

김영재(전도사 60. 11~64. 3).

김두한(목사 64. 3~66.2).

손선영(목사 66. 2~70. 4).

배기중(목사 70. 4~80. 6).

전태윤(목사 80. 6~85. 2)

박형식(목사 85. 3~).

통 계: 목사 1명. 교인 215명(남81, 여134)

연 혁: 1947년 11월 1일에 김찬석 전도사와 김일석 집사가 동역하여 셋집을 얻어 예배드림으로 시작, 1985년 5월 13일에 혁신측에서 안양 예성측으로 합동예배 및 목사위임예배. 1987년 7월 20일에 박형식 목사의 장녀 박은혜양(영동국교 4학년, 11세)이 골재 채취장 옹덩이에 빠진 남자 어린이(3학년)를 구출하고 자신은 희생되었다. 이는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한 기독교정신의 실천이 아닐 수 없다

(4)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갈산순복음교회

위 치: 동면 갈산리 1구 94-5

교역자: 박상옥(목사)

통 계: 목사 1명, 교인 38명(남 12, 여 26)

연 혁: 1984. 9. 6 교회 창설

5. 향교, 서원, 서당교육과 육영재(毓英齋)

향교, 서원, 서당교육과 육영재(毓英齋)

연기군에는 연기향교와 전의향교의 두 향교가 있다.

향교는 조선조 태조가 건국하면서 서울에는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을 세우고 지방의 군과 현에는 향학(鄉學)으로서 향교를 세울 때에 일률적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즉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수도인 한성(漢城)에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설치하고 경내에 소위 사부학당(四部學堂)을 두어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지방에는 유독 개성에만 고려 이래의 성균관(실제로는 지방향교)을 설치하였을 뿐 다른 목(牧), 부(府), 군과 현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지방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이와같은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연기군내에도 몇 개의 향교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이전(吏典)에 의하면 충남에는 감영(監營)이 공주에 있었고, 공주와 홍주의 2개소에 목이 있었고, 군이 10개소(임천, 태안, 한산, 서천, 면천, 천안, 서산, 온양, 대흥, 덕산), 현이 22개소(홍산, 직산, 정산, 청양, 은진, 회덕, 진잠, 련산, 로성,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전의, 연기, 아산)가 있었다.

이와같은 향교는 본래 문묘(文廟)와 향학(鄉學)의 두가지의 소임을 하는 곳으로 문묘로서 대성전(大成殿)과 향학으로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앞에 고직방(庫直房)이 있어 관리(管理)의 역할을 맡았었다.

지금에 와서는 신학문의 유입으로 학궁(學宮) 즉 학교로서의 역할은 소멸되고 문묘로서의 구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문묘에는 전교(全校)와 장의(掌議)가 있어서 춘추에 제향을 올리고 건물을 보존하고 있다. 옛적에는 도유사(都有司)라고 하다가 일제 때는 문묘직원(文廟直員), 광복후에는 전교(典校)로 명칭을 고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것을 요약하면 조선조의 개국후 교육제도를 창설할 때 설치된 것이며 건물은 세월이 흐르고 수차 전란으로 소실되고 붕괴되어 중수와 개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대성전은 문묘로서 대성 공자 이하 우리나라와 중국의 명현들을 봉사(奉祀)하고 명륜당과 동서재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선조(宣祖)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훈도를 배치하여 후진을 지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도유사와 장의 등 임원들이 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燕岐誌」에 연기향교와 전의향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론 동면의 선비들은 연기향교에 소속하였다.

서 원(書院)

서원은 조선조중기 이후부터 각 지방에 보급된 민간사회기관으로 선현(先賢)을 존경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유학(儒學)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은 선현을 봉사하는 「사(祠)」와 후학들을 교육하는 (재(齋))가 합하여 성립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주자학의 보급에 따라 서재, 서랑, 정사(精舍) 등과 같은 사설강습소가 있어서 조선조시대의 서원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조 중종 38년(1534)에 설립된 백운동서원은 사묘(祠廟)와 강습소가 통합된 형태로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서원의 시작이 되었다. 백운동서원은 고려의 명유공신 이었던 안향(安珦)을 추모하여 유생들을 교육시켰다. 그후 명종 5년(1550)에 당시 풍기군수였던 이항(李??)의 건의로 국왕으로부터 소수서원(沼修書院)이라는 편액(扁額)을 하사받아 최초로 국가공인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서적, 전답, 노비를 받는 특전이 있었다.

이 무렵 향교가 미약해져서 교육적 기능을 잃어감에 따라 명종 이전에는 29개인 것이 선조 때는 124개, 숙종 때는 한 도에 80~90을 헤아리게 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왔다. 즉 서원의 특권화와 분당화하여 횡포가 심하여져서 세인의 지탄을 받게 되어 인조, 효종 때에는 서원설치를 규제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서 대원군이 고종 원년(1864)에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고종 8년(1871)에는 전국 679개의 서원중 특히 사표가 될만한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대원군의 서원정비이다.

아래에 연기군이 잃었던 서원과 이에 관계되는 사당에 대하여 「燕岐誌」에서 이기해 보겠다. 여기에 동면 합강리의 문성공의 명당에 대하여 전하며, 합강정(合江亭)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면 송용리에 있는 육영재(毓英齋)에 대하여 전하였다.

서당교육과 동면의 육영재

글방, 서재(書齋), 서방(書房), 책방(冊房)이라고 하던 서당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특히 발달한 초등교육기관으로 그 기원은 멀리 삼국시대로 소급된다.

고구려에서 민간의 사설교육기관으로 경당이 있어 일반 서민의 자제들을 교육시킨 기록이 있고, 고려 목종의 교서에 「태조 때부터 집집마다 일반 서민의 자제들이 책을 끼고 스승을 찾아 배웠다」고 전한 것이 이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인조 때 송나라의 서극(徐克)이 고려에 와서 견문하고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이는 경관(經館)이나 서사(書社)는 서당으로 볼 수 있고 향선생(鄉先生)은 서당의 선생이며 조선시대의 훈장(訓長)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중기 이후의 외세의 침입과 무인의 전권 및 불교계의 횡포 때문에 낙향한 유교의 지식인들이 고향의 서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이 인근의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였으니 소위 서재학당(書齋學堂)이 각처에 출현한 것이다. 이것은 시골의 유학자가 자기의 개인서재에서 유학을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틈틈이 이웃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였다. 이와같은 서재에 붙여진 이름을 무슨 현(軒), 무슨 재(齋), 무슨 당(堂)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모두 서당이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사회적으로 서당으로 보편화 하였다.

「서당」이라는 표현은 조선 성종 때부터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 때부터 서당이 조선시대를 통하여 크게 보급하여, 일제시대를 거쳐서 8.15광복 후에도 전국 각 지방에 남아서 서당교육은 계속되었다.

서당교육을 학교제도의 단계로 보면 초등교육에 해당될 것이다. 중등교육기관으로 중앙에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입학하려면 초보적인 교육은 서당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당의 교육수준이 반드시 낮은 단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서당에서 기초학문을 익힌 사람은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여 과거준비를 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서당을 초등교육기관이라고 한 것일 뿐이다.

시대에 따라 정부에서 서당을 크게 장려하여 실적이 많은 훈장에게 특별히 「동몽교관」이라는 직함을 내린 일도 있지만 그것은 특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서당은 모두 사설이었다. 따라서 서당은 아동의 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의 정신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서당의 훈장은 동리의 훈장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크게 나누어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가지로 강독은 천자문으로 시작하여 동몽선습(童蒙先習), 소학(小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통감(通鑑),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률(唐律)로 나갔다.

제술은 보통 오언절구(五言絕句), 칠언절구(七言絕句), 사율(四律), 고풍십팔시(古風十八詩) 등의 글짓기인데 규모가 작거나 훈장의 수준에 따라 제술은 가르치지 않는 서당도 있었다.

습자는 해서(楷書)에서 시작하여 어느 수준에 이르면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나갔지만 초서를 가르치지 않는 서당도 있었다.

서당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개별교수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강독의 순서는 처음에는 초학자를 놓고 한자씩 가르치고, 음독이 가능하면 구독(句讀), 문리(文理)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의를 가르쳐 나갔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진도가 서로 다르며 반복 암송하여 문장을 혼자서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 즉 문리가 통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는 것이 강독의 유일한 방법이다.

괘책례(卦冊禮)또는 책세식(冊洗式)이라고 하여 책 한 권을 떼고 나서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잔치를 벌여 훈장의 사은을 표하고 자축의 뜻도 포함하여 모든 학생과 더불어 회식을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진급식이 있었다.

서당의 설립과 운영은 기본재산이 필요하거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 뜻이 있으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립과 폐지가 자유로웠다. 그리고 운영형태도 다양하여 (1)지방의 유지 또는 유학자가 훈장이 되어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적으로 경영하거나 교학일치의 뜻에서 운영하는 식당. (2)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개인이 자기 자제를 교육

시키기 위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서당운영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친척의 자제 또는 이웃집 자제들도 무료로 공부시키는 서당. (3)유지들의 조합으로 운영하는 서당. (4)동리의 조합으로 운영하는 식당. (5)같은 동족의 문중에서 운영하는 서당이 있었다.

학생의 나이는 5~6세에서 20여세까지 재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16세가 되면 향교나 사학에 입학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서당에는 접장(接長)이라고 하여 훈장을 도와 학업지도와 생활지도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 규모가 작은 서당에서는 접장을 둘 필요가 없었지만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은 서당에서는 나이가 많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접장으로 선정하였다. 접장은 학생이기 때문에 훈장에게 배우는 한편 어리고 학력이 낮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서당의 면학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유학이념에 따른 교육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국 방방곡곡 설립되어 있어서 지방의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 대중의 문자교육과 민풍(民風)과 도덕규범을 확립하고 교차의 기능도 발휘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비판적인 면 또한 부인을 감안할 때, 비판적인 면 또한 부인할수 없지만 서당이 국민대중의 교화와 향풍의 정립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근대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에는 거의 지방에서 개설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한 분들이었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각 지방의 마을서당의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한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1920년대초에 출생한 필자는 그 이전의 동면의 서당에 대하여 알 까닭이 없지만 20년대의 동면의 서당에 대하여 내판리에 고선생의 서당이 있었고, 문주리에 조선생의 서당이 있었고, 용호리에 임선생의 서당이 있었고, 부램이에 강선생의 서당이 있었던 것을 안다. 그리고 거의 마을마다에 있었던 서당들이 30년대말까지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서당들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그 자취를 찾아보아도 자취로서 남은 것이라고는 송용리의 육영재(毓英齋) 말고는 거의 없다. 육영재에 대하여 「연기지(燕岐誌)」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기성학교(期成學校): 동면 송용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됨. 백여년전부터 결성장씨 문중에서 육영의숙(毓英義塾)을 설립하여 교육에 힘써오다가 1921년에 기성학교로 변경, 1925년에 정식으로 연동공립보통학교가 창립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와같이 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육영재는 연동고등국민학교를 창립하기 위한 전신으로 일시 기성학교(期成學校)로 변경되어 사용되다가 폐지되었지만 왕년의 건물만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도 결성장씨 문중에서 서당계(書堂契)를 조직하여 건물의 보수 유지와 전래해온 전적(典籍)의 보존 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이 서당에서 수학한 애국열사로서 장재학, 장재규의 형제를 비롯하여 3.1운동에 앞장서 싸우다가 순국한 장홍진, 장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뜻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장에 나가 사마방(司馬榜)에 붙은 리환(履煥), 이상(彝相), 기홍(基鴻), 철상(喆相), 기만(基萬)의 5진사와 더불어

어 과거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높은 학력을 겸비하여 문집 또는 시집을 간행함으로 향풍(鄉風)의 순화(醇化)와 문운(文運)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여러분들의 공적(功績)을 기리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역사속에 말로만 전하는 교육의장으로서 〈서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귀중한 문화재(文化財)로서의 뜻이 있을 것이다.

6. 東面의 藝文과 山河

藝文과 山河

『燕岐誌』에 「신증연기팔경(新增燕岐八景)」이라고 하여 연기팔경을 읊은 다 음과 같은 칠언시(七言詩)를 전하였다.

새로 증가시킨 연기 8경(新增燕岐八景)

연기군의 8경에 대한 옛선비들의 품전(品傳)이 없지 않고 아름다운 산과 고운 강물과 명승들이 있지만 문헌이 소략해서 시인 문객들이 개탄하는 바 이다. 고로 새로 8경시를 모집해서 여기 실는다.

오봉락조(五峰落照)

오봉산은 서면동리에 있으며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는 듯해서 엄연한 연기 군의 진산이다

落照紅翻第五峰 지는 해에 제5봉이 붉게 물들었다.
 林鴉投盡鷺飛?? 까마귀 날아간 곳에 백로가 한가하게 나른다
 蒼翠鮮明無限好 산의 푸르름이 선명해서 한없이 흐뭇하다
 景公何事淚龍鐘 그대는 어찌해서 눈물만 흘리는가?

松庵 張奎煥

燕邑西南秀五峰 연기고을의 서남쪽에 다섯 봉우리가 수려한데
 偏燐落日艷紅濃 가련히 지는 해는 붉은 빛이 곱게 짙구나.
 照入深林明似畫 깊은 숲속에 비치는 저 햇빛은 그림과 같이 밝아서
 遙看可數鬱蒼松 멀리서 보아도 울창한 소나무의 숲을 헤아릴 수 있구나.

二樂堂 俞致道

一抹斜陽掛五峰 한가닥 지는해가 오봉산에 걸리니
 青天隱隱削芙蓉 청천에 은은히 부용꽃을 새긴다.
 千年不盡牛山照 천년을 두고 우산봉을 비치며
 灑淚西風意萬重 서풍에 눈물뿌리니 착잡하기 그칠데 없네

松隱 李寅璿

당수청람(唐岫晴嵐)

당산은 남면 연기리에 있는 구름과 함께 어우려져서 금강에 비친 모습은 참
 으로 명승지라 할 수 있다.

天晴唐山暖生嵐 맑게 개인 당산에 따뜻하게 바람이 이는데

一片冰心萬古秋 한가닥 맑은 마음은 만고에 변함없다.
 來照蕙窓襟共潔 달은 꽃창문에 비치니 옷깃처럼 정결해서
 抱琴獨上驛男樓 거문고를 집어들고 홀로 역남루에 오른다.

李璿載

砧山如晝月光流 침산에 대낮같이 달빛이 비치우니
 月下砧聲動暮秋 달아래 다듬이소리 늦가을 재촉한다.
 月落山空砧又歇 서산에 달 떨어지고 다듬이소리 또한 멎으니
 簫簫萬木五更幽 쓸쓸한 초목에는 새벽녘이 질구나

松隱 張達植

砧山明月忽生秋 침산에 밝은 달 가을기운이 역연한데
 玉宇崢嶸河漢流 푸르른 저 하늘에는 은하수만 흐르는구나.
 搗練家人不寐 집집에 다듬이소리 사람마다 잠 못 이루는데
 思歸遠客獨休樓 먼길로 떠나갈 손님만이 홀로 잠을 이루네.

友松 張應喆

용당기암(龍塘奇巖)

용당은 동면 명학리에 있다. 바위인가 못인가 신령스럽고 기이한 용이다.

奇巖轟轟停龍塘 기암이 솟고솟아 용당에 머무르는데
 免得秦鞭老水傍

屹立不隨陵谷變 우뚝 서서 능곡의 변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天然古色鎮岐陽 자연 옛 모습으로 연기땅을 지키는구나

礪松 張弘鎮

兩壁青山百尺塘 양쪽 푸른산에 백척되는 용담에서
一龍風雨幻滄桑 용 한 마리 풍우를 몰아 상전이 벽해가 되네.
巖將太古精神位 바위는 흡사 태고적 정신으로 서 있는데
幾個男兒此石腸 몇 명의 사나이가 이 정신을 알 것인가.

(주: 석장은 돌같이 굳은 창자라는 뜻으로 굳은 의지를 뜻하는 것임)

梅隱 黃祐政

孤巖奇立俯龍塘 바위하나 우뚝 솟아서 용당을 굽어보니
龍去塘流巖獨蒼 용은 간데없고 물은 흘러 바위만이 홀로 푸르르네.
復有垂楊頻科楫 축 늘어진 수양버들 절하듯 드리우니
東風吹似起元章 동풍이 불어와 원 모습으로 일으킨다.

灘巽 林營喆

금강귀범(錦江歸帆)

금강은 금남면 대평리에 있으며 파협(巴峽) 고강에 오초 원범(袁帆)이다.

江亭楊柳綠依倚 강가 정자에 버들가지 푸르렀는데
數曲漁歌一帆歸 어부의 노래소리 몇곡조 들리더니 돛단배 하나 외로히

돌아오네

遺世飄如天上坐 속세를 떠나 표연히 하늘위에 앉으니
要津風雨不侵依 나루터 비바람이 옷자락을 못적시네

華石 金永采

日送孤帆錦浦歸 해 저무니 배한척 강포구에 돌아오는데
檣鳥時與渚飛丘鳥 때마침 까마귀하나 돛대위에 앉으니 물가에 갈매기
 놀래어 나른다

炯波十里滄茫外 물결 십리 아득한 강물 밖에
一曲漁歌美夕輝 어부가 한가닥 고운 석양에 빛나네

龍隱 朴炳琇

紅漸瘦時錄漸肥 붉은꽃이 시들으니 푸른 빛이 짙어져서
錦江春色正芳菲 금강의 봄기운에 방초가 푸르르네.
堪令畫手模鎮景 영을 받은 화공이 진경을 그리내
立立群帆帶月歸 돛을 단 배들이 달빛 안고 돌아온다.

동진어화(東津漁火)

동진은 금강의 상류에 있으며 푸른물이 양양하고 이끼 낀 바위가 도처에 있다.

茫瀟枯荻熱爲漁 갈대와 마른 풀로 햇불놓아 고기 잡으니

水底光明易看魚 물속까지 밝게 보여 고기잡기 용이하다.
 潛伏雖昭休捉鯉 그러나 잠복해서 있다 해도 잉어를 잡지 말아라
 此鱗最愛好傳書 이 잉어는 좋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모계 張世鎭

東進自古野人居 동진에는 자고로 야인이 살면서
 近水生涯太平漁 물가에서 일생을 고기잡아 꾸려간다.
 對火慇懃招伴語 불을 마주보며 은근히 속삭이는 말
 秋來風雨夜多魚 가을이 오면 비바람부는 밤에도 고기가 많이 잡힌다네.

唐雲 河川海

一帶長江十里餘 한줄기 긴강이 십리 넘어 흐르는데
 野人清趣癖於漁 야인의 맑은 취미 고기잡이 버릇일세.
 第看月落汀空野 다 떨어진 물가에는 밤이 이슬하너데
 炬火縱橫星火如 출렁이는 횃불빛이 달빛과도 같구나.

岐雲 張基恒

고려고성(高麗固城)

전의면 고등리에 있으며 하나의 옛 성터가 천고의 명승지로 남아 있다.

謀臣猛將作干城 신하와 장수들이 간성을 만드니
 五百年春誦泰平 5백년 고려왕조 태평을 누렸도다.

稚堞已墟人世變 성은 허물어지고 세상마저 변했는데
忍聽社宇月中聲 두견새 우는 소리 차마 듣기 애처롭다.

鶴山 林憲斌

一片荒涼古國城 황량하게 남아있는 옛 성터인데
高麗千載尙遺城 천년 고려사적 아직도 유명하다.
行人欲問前朝事 행인은 전조의 일을 묻고 싶어 하는데도
老石無言立水聲 이끼 낀 바위돌만이 물속에 서서 있네.

市隱 孟義變

高麗山上一孤城 고려산 꼭대기에 외로운 산성 하나
雉堞無痕猶有名 무너진 성터지만 이름만은 유명하네.
住跡千年多浩却 천년이 지나간 자취 호호 망망하지마는
浮雲流水百懷生 뜬 구름 흐르는 물에 감회가 새롭구나

松岩 許??

비암만종(碑岩晩鐘)

비암사는 전동면 다방리에 있다. 백제 및 신라시대의 고찰이며 연기와 전의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百尺碑巖數疊峰 백척의 드높은 비암산 봉우리가 첩첩인데
庵僧禮佛自鳴鐘 스님의 독경소리에 종소리도 은은하다.

鐘聲恐或媒塵路 종소리 행어나 물들세라
住得歸雲面面封

可汕 張在九

碑庵禮佛曉鳴鐘 비암사의 아침 예불 새벽종소리 울리는데,
聲徹靈區立立峰 소리는 절안에 번지고 산 봉우리에도 울려퍼지네.
更有村鷄隨後唱 그 위에 촌 닭이 뒤따라 소리치니
喚醒舜 跖^ㄴ 各相從 잠깨인 이사람 저사람이 서로 따라 일어나네.

(주: 舜跖이란 어진 순임금과 나쁜 도척이를 가리킨 말인데 이것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나타냄)

晦震 尹哲植

曉山寥寂古庵鐘 고요한 새벽산에 절의 종소리 울리는데
鼓山雲間劈萬峰 구름사이로 울리는 북소리 일만봉을 가르는가.
法界非從三覺理 세상에 불교의 삼각의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니리라
故教浮世破迷濃 옛 성현의 가르침이 미로에 빠지는 것을 구해 주느니라.

學海 林憲泰

우리 고향 연기의 선배님들이 고향 연기의 팔경(八景)에 대하여 읊은 시(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것이지만 연기군을 대표하여 팔경을 읊은 22인의 시인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히 반수인 11인의 시인

들이 동면의 출신들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松庵, 張奎煥, 澗松 張弘鎭, 友齊 張基定, 松隱 張達植, 友松 張應喆, 華石 金永采(老松里居住), 蘭契 張日煥, 幕齊 張世鎭, 岐雲 張基桓, 可汕 張在九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동면이 예문(藝文)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컨대 연기군의 예문은 동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동면에 한시집(漢詩集)으로 가선(可汕) 장재구(張在九)의 「가선집(可汕集)」이 있고, 송관(松觀) 장문섭(張文燮)의 「경농당시집(經農堂詩集)」 등이 있다. 그리고 송관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달관(達觀)과 단순화(單純化)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교감(交感) 즉 사랑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過大橋市 대교시를 지나면서

市煙凝翠午風微	市煙은 어려있고 낮바람 은은한데
來憩大橋溪上扉	한다리 시내위 싸리문에 와서 쉬네
儉歲高錢歸粟米	훈년에 중한 돈은 식량에 소비하고
幕春遊履趣芳菲	늦은봄 노는 발길 꽃다움을 찾는구나
慣知店犬稀驚怪	낯익은 가게개는 놀라지 아니하고

狎下沙禽覘忘機 물가에 나는 새는 한가히 엿보누나
穰往熙來修利在 오고가는 발걸음은 이욕이 따르지만
人情不以朝暮非 인정은 조석으로 변하지 아니한다.

錦南旅次餞春 금남여관에서 봄을 보냄

爲客寬懷賴有詩 길손의 너른 회포 시로써 달래보니
送春謀醉更難資 봄 보내며 술취하기 또다시 어렵구나
切於愛惜轉多悵 애석하고 간절하고 섭섭하기 그지 없네
强托別離勤問期 어렵게 이별하며 차기나 물어보자
鶻欲訴冤花已謝 두견새는 원통한 듯 꽃은 아니 떨어지고
鶯將得意柳頻窺 피꼬리는 흥겨웁게 버들을 찾는구나
如說今朝多少恨 오늘의 한을 다소나마 설명을 할랑이면
縱有蘇張莫措辭 소진장의 구변인들 아찌다 말할 수 있을손가

渡錦江 금강을 건너며

錦南烟艸碧涵天 금남의 푸른연기 하늘에
沙背??稜漲百川 모래배??稜漲百川
舞下水禽似相熟 춤추는 물새들도 낯익은 듯 반기는데
記曾劈雪托盤年 지난해 어름위에 배탄일 생각난다.

(시의 번역은 송관의 증손 장좌진이 읊은 것이다)

앞서 송관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달관이라 하고 단 순화라고 하였지만 그의 자연에는 반드시 산천초목과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익숙한 가개의 개(慣知店犬)가 등장하고 사람과 친숙한 물가에 나는 새(狎下沙禽)가 등장한다.

또한 원통함을 호소하는 두견새(鵑欲訴寬)가 등장하는 한편에서는 득의 양 양한 피꼬리(鶯將得意)도 등장한다. 그리고 시인이 금강을 건너니 낮익은 듯 반기며 춤추는 물새들(舞下水禽似相熟)도 등장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들과 의 깊은 교감과 사랑이 있다.

송관의 「경농당시집」에는 그의 10여살 년하인 종제 성래(聖來)의 「계룡산 유람시」가 함께 실리고 곁하여 「계룡산 유람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제 성래(聖來)에게 준 글」을 실었다.

……부분적으로 산수에 취하여 글을 지을 수는 있지만 어찌 전부 산수만을 배경으로 하여 글을 짓는다 할 수 있는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물체가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이 밝은 거울에는 어떠한 물체도 명확히 들어나지만 어디까지나 비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법이다. 비치지 못한다고 거울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다운 경개(景概)를 볼 줄 아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가슴에 간직한다면 굴원(屈原), 자장(子長), 상여(相如), 자미(子美)와 같은 시부가 끊임 없이 용솟음 칠 것이다.

지금 자네는 위에 적은 네분들의 유람을 본 받으려 하는가 또는 보통사람들의 유람은 본 받으려 하는가 부디 도량을 넓히고 큰 안목으로 만권의 책을

더 읽은 뒤에 다시 한번 찾아와 유람하기 바란다.

그러면 중형제간의 두분 시인의 차는 무엇일까? 「성래(聖來)는 나이 20여세 몇 권의 경서를 읽어 문맥을 체득하고 시짓는 솜씨 또한 불만하다」고 하듯이 시짓는 솜씨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겠지만 아직은 너무 젊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연과의 교감, 즉 사랑이 부족한 탓으로 읽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없는 점이 다를 것이다.

이것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읊은 두분의 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소상히 드러나겠지만 「갑사(岬寺)」의 시에서 <부처님만 어찌하여 길지를 독점하라 우리도 여기와서 장수를 빌어보세> 등 젊은 이의 실없는 술회는 있어도 마땅이 있어야 할 새가 없고, 개가 없고, 사람이 없고, 아이가 없고 그것들과의 교감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제에 대한 10여세 위의 중형의 간절한 권고가 있었던 것이지만 송관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달관과 자연에 대한 극도의 단순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더욱 깊고 순수한 교감, 즉 사랑이 후일 장욱진 화백(張旭鎭 畫伯)의 그림이 되고 배기덕(裴基德)의 시가 되고 장욱순(張旭淳)의 소설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산이 있고, 집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날아가는 새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화가에 의하여 극도로 단순화 되었다. 극도로 단순화 되었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산이 아닌게 아니라 산인 것이다. 그것은 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새가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새이며, 나무이며, 집이며 아이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극도로 단순화된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까치가 있고, 소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 태양은 태양으로 족하고, 나무는 나무로 족하고, 까치는 까치로 족하고, 소는 소로서 족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로 족한 것이다. 즉 그가 그리기를 좋아하는 까치와 나무와 집과 아이와 반달과 강아지와 동그라미와 네모는 정화(淨化)된 소년시절의 그의 꿈 그것이다.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술의 기이한 매력이 있다.

요컨대 송란이 시에서 그린 산과 나무와 새와 물과 강아지가 화백이 그림으로 그린 산과 나무와 새와 물과 강아지, 즉 자연에 통하는 것은 아닐까? 그분들과 자연 사이에는 깊고 순수한 교감, 즉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강아지와 개와 같이 놀 수 있는 어린이는 물론 자연에 포함된다느니 보다는 자연 그 자체이다. 여기서 배기덕의 시 세계로 들어가 보자.

냇가에서

키다리 포플러가
시냇물에 뛰어들어
붕어처럼 헤엄친다.

포플러 가지에서
매미는 한가한데
바람은
좀처럼 와주지 않는다.

매미소리가

물속에서 들려온다.

붕어의 울음으로

멤 멤 멤 멤

멤 멤 매애멤

여기에서는 키다리 포플러가 냇물에 뛰어들어 붕어처럼 헤엄치고 매미가 붕어의 울음으로 물속에서 울음운다. 따라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팽이

맑은 얼음판 위에서

팽이가 돈다.

찰삭 찰삭 종아리 맞고

잉잉 울다가

오뚝 선 채

울음을 그친다.

한낮이 다 되도록

매만 맞던 팽이

아무말 없이
입 꼭 다물고

철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하루종일 매맞은 팽이가 입을 꼭 다물고 집으로 돌아온다니 팽이에 입이 있을 까닭이 없으니 이 말 또한 말이면서 말이 아닌 것이다.

배기덕의 말이 아닌 말들을 장옥진 화백의 집이 아닌 집과 나무가 아닌 나무와 새가 아닌 새와 산이 아닌 산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결국 화백의 집이 아닌 집과 나무가 아닌 나무와 새가 아닌 새와 산이 아닌 산이 집이며, 나무이며, 새이며 산이듯이 배기덕의 키다리 포플러 아닌 키다리 포플러와 맴미 아닌 맴미와 팽이 아닌 팽이가 키다리 포플러이며 맴미이며 팽이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빠져들기 쉬운 관념적 속박으로부터 탈출하여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과 우화(寓話)의 세계, 즉 순진무구한 마력(魔力)이 충만한 제 2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일찍이 송관이 종제에게 준 글에서 「……부분적으로 산수에 취해서 글을 지을 수는 있지만 어찌 전부 산수만을 배경으로 하여 글을 짓는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산수를 그릴 때 산수만을 있는 대로 그려서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또 무엇이 있어야 글이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직접 송관의 시에서 얻을

수 있고, 장옥진 화백의 그림에서 얻을 수 있고, 배기덕의 시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 속에 스스로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자연의 일부로서 새와 강아지와 아이와 나무들에 대한 달관과 단순화 그리고 그런 것들과의 깊은 교감-사랑일 것이다.

같은 동면 태생의 장옥진 화백이 그렇고 배기덕 시인이 그러하고 탁월한 동화작가로서 장옥순 또한 때문지 않은 동심(童心)의 세계로 돌아가 아름다운 우화(寓話)를 가지고 인간에게 꿈과 환상을 회상시켜 주고 있다. 즉 어느 비평가가 장옥순의 소설에 대하여 「시적 환상과 암시적 상징성을 중시하면서도 아동심리의 미묘한 갈등 구조를 현실적 배경을 통하여 포착 묘사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듯이 그리고 「그의 작품은 현실에의 성실을 구현하려는 시적 환상과 향토적 경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듯이 장옥순의 특징 또한(ㄱ)시적환상(ㄴ)암시적 상징성 (ㄷ)향토적경향인 바에야 장옥순 또한 앞서 말한 바 송관과 장옥진 화백과 배기덕 시인과 같이 때문지 않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아름다운 우화를 가지고 인간에게 꿈과 환상을 회상시켜 주는 동면의 작가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동면의 예문(藝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낙천적인 논평 같지 않은 논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디로? 아지랑이 타는 들로

그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기회였던가 이대영이 배기덕의 동시를 보면서 〈배기덕선생 참 잘 써요!〉 하며 감탄하여 마지 않는 것이었다.

그럴 때 나는 〈그래요. 참 잘 써요〉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내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동면사람이니까요〉 라고 똥판지 같은 실언이 튕겨나왔으니 속으로 〈아! 빨싸〉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다.

이대영의 눈이 순간 무슨 그따위 유치한 말을 하느냐 쩡긋했지만 그 때 말을 이어서 〈동면사람〉에 대하여 설명한 계제가 아니어서 그만둔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놈의 실언에 대하여 두고 두고 마음에 걸려 개운치 못하니 내가 더 늙어서 죽기 전 배기덕의 동시집 「땡땡이」도 나온김에 축하를 겸하여 한마디 설명을 가해 보기로 하겠다.

타고나기를 처음부터 게으르게 타고난 탓으로 해놓은 것 없이 늙었다고 소설 쓰는 황순배 만날 때 마다 쿠사리 먹고 야단 맞지만 그런만치 나는 부지런히 글쓰는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내 고향 연기땅 남쪽으로부터 금남면 석교리의 강신용과 반곡리의 김동훈과 진영대, 남면 놀왕리의 이대영과 수산리의 임동천, 조치원 아홉거리의 이용재와 신흥동의 윤조병, 그리고 강영숙, 조치원 정거장마당의 장시종과 큰 네거리의 최광식 등으로 용하게도 연기군의 고을마다 연기군의 정기 받고 태어난 연기군의 재조들이지만 그들의 장르는 시가 아니면 소설 아니면 희곡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동면으로 말하면 노송리의 배기덕이 동시이다. 그리고 예양리의 장옥순은 동화다. 그 위에 동면은 화백을 둘도 아니고 꼭 한 분만 낳았는데 그 한 분의 화백이 천하가 다 아는 장옥진 화백이시며 장옥진 화백께서는 동화(童畵) 만을 그리셨다.

그러니까 동면으로 말하면 동시(童詩)와 동화(童話) 동화(童畵)가 아니면

상대를 아니한다. 왜 상대를 아니하느냐 하면 늙어서도 동심을 잃지 않으면 신선인데 동면이 신선의 고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동서양에서 동시가 시 중에서도 신선의 시이며(fairy song), 동화가 이야기 중에서도 신선의 이야기이며 (fairy tale), 동화가 그림 중에서도 신선의 그림 (fairy picture)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시하면 童詩대신 東詩로 쓰고 동화하면 童話대신 東話로 쓰고 동화하면 童畫대신 東畫로 쓸 날이 올는지 모르겠다. 東面の 詩가 童詩이며 東面の 이야기가 童話도 그렇지만 童畫의 元祖가 東面に 있다는 점만은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마당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놀고 있는 까치새끼, 그리고 같이 놀고 있는 새들, 길가에 서 있는 신비한 나무들, 그 속에서 역시 자유로이 커가는 마을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충실한 강아지가 따라다닌다.

낮에는 그 나무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 놀고 있지만 밤이 되면 그 나무 위에 반달이 걸릴 때도 있다.

이와같이 자연과의 깊은 동일화에서 얻어지는 예술은 크게 보아서 범신론적 태도라고 생각된다. 동면 사람들이 보는 모든 자연은 그만 치 생명이 충만한 진짜배기 자연이었다.

이와같은 내용 즉 생명이 충만한 진짜배기 자연을 읊은 童詩가 있고 童話가 있고 그 위에 장옥진 화백의 童畫까지 있는 특출한 동면의 〈동면사람〉이라는 뜻이었고 한편으로는 東面の 童面으로 童面の 상징으로 배기덕의 童顔이며 장옥진 화백의 童顔이라는 뜻이었으니 이쯤이면 해묵은 내 실언이 아니라 〈實言〉이었음을 이대영은 이해하여 주리라 믿는데 과연 어떨는지?

그리고 말이다. 내 失言아닌 實言이 더욱 충실한 진짜배기 實言이 되도록 배기덕의 가일층의 정진과 장옥순의 불같이 일어날 부활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모꼴의 정점으로 장옥진 화백은 이제 신선이 되어 멀리 아지랑이 타는 들로 떠났다. 저변의 두 점에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말이다.

(김재봉 「연기문학」 창간호 1992. 5.30)

동면의 山河

보은에서 문의를 거쳐 팔봉산까지 뺨어온 소백산맥의 갈래는 저산(猪山)의 뒤를 돌아서 동면에 들어서자 두가닥으로 갈려서 한 가닥은 짧게 뺨어 아미산을 놓고는 미호천의 기슭 밀구지에서 끝난다.

그리고 또 한가닥은 길게 뺨어서 높은정리와 느리울과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뒤를 돌아 내판굴을 거친다. 그리하여 삼성전기회사 뒤의 안장봉에서 두가닥으로 갈려 한가닥은 서북방으로 달려서 내판리와 용호리의 경계를 이루며 상판 뒤까지 왔다가 다시 좌우의 두 갈래는 갈려서 좌로 달린 가닥은 미호천가 문주리에서 끝이 나고, 우로 달린 가닥은 내판역 건너 다복동에서 끝이 난다.

또한 안장봉에서 남으로 뺨은 한 가닥은 출동산을 놓고 출동산에서 두가닥으로 갈린다. 한 가닥은 서쪽으로 달려 용호리 뒤에 노적산을 놓고 미호천 하류에서 끝이 나고, 또 한 가닥은 남으로 달려 황우산을 놓고는 금강에서 끝이 난다.

이와같이 동면의 산들은 백두산-소백산-죽령-이화령-속리산-팔봉산까지 뺨

어와 동면에서 미호천과 금강에 막혀 끝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동면의 산들은 멀리 백두산부터 소백산을 거쳐 하도 먼 거리를 꾸불 꾸불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부쳐 물을 돌리는 산룡(山龍)으로서 미호천 물을 멀리 공주쪽으로 돌리고 금강물을 멀리 유성쪽으로 돌릴 힘이 없어서 미호천가에서 머리를 안으로 돌리고 금강가에서 머리를 안으로 돌린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면의 삼산(三山)>으로서 아미산도 그렇고 노적산도 그렇고 황우산 또한 그렇고 밖으로 뺏어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고개 돌린 힘빠지고 맥빠진 산룡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삼산(三山)들은 차라리 백두산부터 여기까지 수천리의 먼길을 달릴대로 달리고 뺏을대로 뺏어왔으니 분수를 알고 여기서 돌아서 선량한 동면 사람들을 위하여 글자 그대로 배수(背水)의 진을 치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로 황우산은 분명히 명학리 쪽이 안(內)이며 강 쪽이 배후, 노적산은 용호리쪽이 안(內)이며 강쪽이 배후, 아미산 또한 노송리쪽이 안(內)이며 강쪽이 배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배기덕에게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애미산아

엄마의 포근한

치마폭처럼

온 마을 감싸주는

애미산아

너는

따스한 엄마의 품속

너는

다정한 사랑의 손길

아련한 옛애기 들려주었지

※ 애미산: 내가 살고 있는 마을(노송리의 노리미)의 뒷산 이름

이것은 아미산 아래 노리미 토박이 배기덕에 의한 아미산에 대한 시이지만 제목을 〈황우산아〉로 바꾸면 그대로 황우산 아래, 황우재 사람에 의한, 황우산에 대한 시가 되고, 제목을 〈노적산아〉로 바꾸기만 하면 그대로 노적산 아래 용호의 사람에 의한 노적산에 대한 시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동면의 산들은 높고 험해서 사람을 위압하는 산들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어머니 치마폭 같이 그리고 어머니의 품안 같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감싸주는 산들이다. 즉 높아봤자 기껏 낮익어 스스럼 없는 면장의 키만 치 높을 뿐 국회의원은 물론 군수의 키만치도 높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위압받아 주눅드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옛부터 연기에는 죽은 사대부(士大夫)는 들어오지만 산 사대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특히 동명에 정승 판서를 지낸 큰 사대부가 들어와

산 일이 없으니 그들의 위엄에 크게 놀리고 그들의 행학으로 크게 고생한 경험
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죽은 사대부가 들어와 묘를 쓰고 왕산만한
신도비를 세웠다 한들 개만도 못하다는 죽은 사대부가 산 사람을 어찌하랴!
이와같이 동면 사람들은 자연에 의하여 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타(他)에 의
하여 위압 받고 주눅든 적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낙천적이며
순량(純良)한 인간성을 정통적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
의 발로로서 장옥진화백의 그림이며 배기덕의 시이며 장옥진의 글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다.

〈주〉 장재구의 가선집(可선集)은 30년전까지만 해도 얻어볼 수 있었지만 그
동안에 인멸되어 이번에 얻어볼 수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송관(松觀) 장대섭(張大燮)에 대하여서는 인물편을 참조. 그의 10여세 년
하의 종제 성래(聖來)는 란계(蘭溪) 장태섭(張台燮)이다. 「장래에게 준 글(鷄
岳遊贈從弟聖來序)」은 시론(詩論)으로도 뛰어난 것으로 알지만 지면의 형편
상 전문을 실지 못 하였다. 성래 즉 후일의 란계(蘭溪)는 시보다도 학문과 서
도에 전념한 듯 하다. 아름다운 해서(楷書)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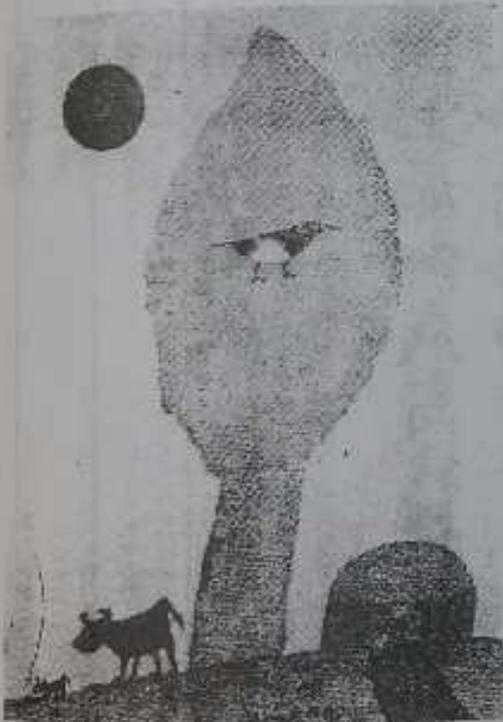
〈장욱진화백 그림〉



〈右圖・31×43センチ, 1969年作〉



〈九〇×六〇センチ, 一九七九年作〉



〈右圖・33.5×44.4センチ, 1966年作〉

經農堂詩集

嶠山館主人 鈔藏

過大橋市

市煙起翠午風微
來憇大橋溪上扉
儉歲高錢歸粟
未暮春遊屐趁芳菲
惜知店犬稀
驚怪狎下沙禽
覘
忘機穠注熙
來攸利在人情
不且暮朝非

錦南詠次錢春

為宕寬懷賴有詩
送春謀醉更難資
劫於愛惜轉多
張強託別離
勤問期能欲
訖究花已謝
鶯將得意柳
頻窺如說今朝
多少恨縱有
蕪張莫措辭

장옥진화백 연보

- 1917 충남 연기군 동면 송룡리(나븐말)출생.
- 1923-43 경성사범부속보통학교, 경성제2고보, 양정고보, 제국미술학교 수학
- 1945-60 국립중앙박물관 근무(1975-47)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1954-60)
- 1926-86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주최 전국소학생미전 일등상(1926), 조선일보 주최
중국학생미전 사장상 및 중등부 특선상(1938), 종군 작가상(1951), 백우회 이범
래씨상(1955). 중앙일보 제정 예술대상(1986) 수상
- 1948-80 신사실과, 2·9인전, 양가쥬망 등 동인전 출품
- 1964-86 반도화랑(1964), 공간화랑(1974, 1981), 현대화랑(1979), 연화랑(1983), 국제
화랑(1986), 두손화랑(1987)에서 개인전 개최
- 1957-89 한국현대미술전(샌프란시스코 1957:뉴욕 1958:동남아 1958:뉴저지 1989)
- 해외전 참가
- 1976-87 수상집 「강가의 아틀리에」(민음사 1976), 화집 「장옥진」(현대화랑 1979).
「장옥진관화집」(연화랑 1983), 「장옥진화집: 1963-87」(김영사 1987)등 출간
- 1990 경기도 용인군 마북리에서 12월 27일 선종

배기덕(裵基德)

- 1932년 연기군 동면 노소리(노리미) 출생
- 1947년 연동국민학교 졸업
- 1952년 대전사범학교 본과(4회)졸업. 조치원 대동, 명동, 교동과 동면의 연동, 연흥,
용호 국교에서 40년간 봉직
- 1990년 동양문학 시춘문예 동시부문 당선
- 1991년 백수문학 동인회 회장 피선
- 1992년 교직에서 명예퇴직,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1992년 동시집 「댕댕이」 간행.

장옥순(張旭淳)

1934년	연기군 동면 예양리(양골) 출생
1948년	연동국민학교 졸업
1954년	대전사범학교 졸업. 전의면 삼기국교. 대전 자양국교에서 교직원직. 이후 대한교련공제조합 새교실 출판사(70), 새한신문사(72) 기자와 편집국장, 능력개발사업부장 등 역임
1957. 4	「빨간 상자」 평화신문 신춘문에 동화에 당선
1958. 4	「과란 상자」 〈새벗〉
1959. 3	「송아지」 〈새벗〉
1959. 3	「들장미」 연합신문에 장편동화로 당선되므로 문단에 등단. 이후 60년대에 본격 동화작가로 많은 작품을 발표함.
1960. 10	「빨간상자」 〈백수문학 제 5집〉
1964. 7	「두마리 염소」 〈카톨릭 소년〉
1964. 8	「엄마소」 〈백수문학 제8집〉
1964.12	「음악콩쿠르」 〈새벗〉
1965.4	「찢어진 그림책」 〈새벗〉
1968.9	「달빛 쏟아지는 소리」 〈아동문학 제 17집〉
1969.1	「미운 동그라미」 〈햇불〉
1971.	「돼지꿈」 〈소년한국〉
1971.	「두 떼장이」 〈대한일보〉
1971.5	「달따는 소년들」 〈백수문학 제10집〉
1971.	「수무해전의 메아리」 〈소년조선〉
1972.	「전쟁놀이」 〈월간문학〉
1972. 12	「회전목마」 〈백수문학 제11집〉
1986. 8	「아기와보석」 〈백수문학 제20집〉

작품집(동화집)으로 『빨간 상자』 『송아지』 『음악 콩쿠르』 『두마리 염소』 『찢어진 그림책』 『달빛 쏟아지는 소리』 『미운 동그라미』 『돼지꿈』 『전쟁놀이』 『들장미』 등이 있다.

7. 한반도의 선사문화와 송룡리의 지석묘

한반도의 선사문화와 송룡리의 지석묘

5~6년전까지만 해도 서울(송룡리)에서 놀뢰(노송리)로 넘어가는 서울 고개마루에 훌륭한 지석묘(支石墓)가 2개 있었다. 그러나 길 옆에 있었던 것은 길을 넓히고 고개를 낮추면서 완전히 지표면에 들어나더니 결국 어떤 무식한 사람이 석재로 쓰고자 조각내어 실어가 없어졌으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지석기 밑에서 정교하게 검은 돌을 깎아 만든 화살촉(石鏃) 4개가 출토되어 지금 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 화살촉을 발견한 이는 당시 연동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송룡리에 살던 장거래군 이었다.

지금 지석묘는 서울 고개마루의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었던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2개의 지석묘로 남북으로 50m쯤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니 하나의 지석묘는 과부지석묘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연기군에서는 금남면과 남면의 금강면에 여러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남면에 있는 것은 모두가 금강의 흐름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식묘는 물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동면에 남은 하나의 지식묘가 그 모습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다음과 같이 남방의 지식묘와 아주 흡사한 점이 주목될 것이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김병모교수는 한반도의 지식묘의 기원은 남방에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지만 역시 동아시아의 지식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중국대륙에서는 황해바로 돌출한 산둥반도 끝에 있고 만주에서는 표동반도 끝에 있고 한반도에서는 웅진반도 끝에 있는 점으로 보아서 남방에서 바다로 해류를 따라 북으로 분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학자는 막연히 북방으로부터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한반도에서 자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남방에서 북으로 전파해 온 것이다.

이것은 지식묘라고 하듯이 무덤 즉, 묘인 것이다. 지하에 매장장치(埋藏裝置)를 하여 시신을 묻고 그 위를 큰 돌판으로 덮은 것이다. 부장물로는 붉으스름한 빛깔의 토기, 또는 돌도끼, 돌칼, 돌화살 같은 것을 묻었다.

지식묘에는 (ㄱ)남방식이라는 매장장치를 큰 판석으로 덮은 양식과 (ㄴ)북방식으로 매장장치를 큰 판석으로 덮은 위에 작은 돌을 받침대로 하여 그 위에 큰 판석을 올려 높은 양식이 있지만 남방식이나 북방식이나 분묘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술을 뒤고개에 지식묘의 유적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청동기시대인 2000여년전부터 동면 일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은

물을 끌어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초기 농경사회가 수도농업을 가진 농경사회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멀리 인류문화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거석문화(巨石文化)는 서쪽으로 전파하여 북구(北歐)에 미치고 동쪽으로 전파하여 남남주의 요동반도에 미치고 있지만 동쪽에서는 일찍이 이 문화에 수도농업의 문화가 결부되어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된 것 이외에 동아시아 일대에서 지석묘사회는 수도농업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석문화에 신화로서 난생신화(卵生神話)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난생신화는 알(卵)이나 알 같은 모습을 한 것으로부터 사람이 탄생하였다는 내용의 신화로서 가야의 김수로왕 탄생신화와 신라의 박혁거세왕의 탄생신화 그리고 석탈해 왕의 탄생신화가 이에 속한다.

이와같이 거석문화로서 지석묘의 의미는 크지만 거석문화로서 서울고개의 지적묘와 노리피마을 입구에 남근석(男根石)이 서 있으니 재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8. 한민족의 기본윤리와 동면의 정려

한민족의 기본윤리와 동면의 정려

나는 1972년 7월에 일본의 「조선학보」 제64집을 통하여 발표한 「위지한 전고」(魏志韓傳考)라는 논문의 결론으로 기본적인 한민족문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필자는 이 2~3년에 한민족문화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식자간에 남방설(南方說)과 북방설(北方說)로 나뉘어 상호간에 서로 부정하고 거부하며 논쟁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때 신화학(神話學)과 민족학(民族學)에서는 남방설(南方說)에 기울고, 언어학(言語學)과 고고학(考古學)에서는 북방설(北方說)에 기울고 있다. 그리고 역사학(歷史學)에서는 대체로써 북방설에 기울고 있다.

신문, 잡지 등 저널리즘으로부터 학술지에 걸쳐서 발표되는 이와같은 논설들을 각자 관심있는 특수한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남방설도 그렇고 북방설도 그렇고 주제로 하는 「한민족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확실히 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와같은 것으로부터 결론같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신화학과 언어학에는 각자 특수한 연구영역과 기층이 그 영역을 사전(史前)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에는 이와같은 기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고학과 신화학과 언어학에서 한민족의 기원문화를 생각하는 경우와 역사학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역사학은 년대(年代)에 한정되고 사료(史料)에 한정된다.

그러면 년대에 한정되고 사료에 한정되면서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한민족 문화의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상 『위지(魏志)』 한전의 검토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온 것이지만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민족문화의 더욱 근본적인 면을 보면 뛰어난 수도농업과 오크재배와 양잠과 면업과 능란한 우마(牛馬)의 사역(使役), 그리고 철(鐵)을 포함한 풍부한 토산물에 의하여 과거의 한민족사회가 지탱되고, 오늘날 또한 많은 면에서 이와같은 것들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들과 함께 「가취예속남녀유별(嫁娶禮俗男女有別)」하고 「기속행자개왕양로(其俗行者皆往讓路)」, 「법속특엄준(法俗特嚴峻)」, 「의복결청(衣服潔淸)」이라는 것들로 한민족자체 또한 한민족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징 즉 Identity이라는 것은 오늘날 또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로서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와같은 몇가지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와같은 것을 내용

으로 하여 성립한 것을 기본적인 한민족문화로 인정한다면 이제까지의 『위지』 한전의 검토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이와같은 것은 진한과 변한 그리고 마한 등 남부에 있었던 것이지 예(濊)와 맥(貊)의 북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4세기초부터의 부여, 고구려족의 본격적인 남하라는 것도 생각하여야 하고 또한 그들의 문화와 지배상층부의 출신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 그들의 문화가 후대의 한민족문화의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진한과 변한 그리고 마한 등 남방의 문화가 주류가 된 점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같은 중국의 옛날 역사적인 『한서(漢書)』 지리지에는 은(殷)이 쇠하매 기자(箕子)가 조선에 가서 그 인민에게 예의와 전잠(田蠶)과 직조(織造)를 가르쳐 주었더니 그 교화에 의하여 조선인 사회에 범금팔조(犯禁八條)라 하여 8개조항의 범금(犯禁)이 행하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일찌기 이병도박사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에 오지도 않았던 기자의 교화의 영향일 까닭이었고 범금팔조(犯俗八條)라는 것도 앞서 언급했던 한민족 사회의 「범속특엄준(犯俗特嚴峻)」에 대한 구체적 내용인 것이다. 왜냐하면 범금팔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남녀가 모두 그 집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만약 속죄를 원하는 자는 매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죄를 면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풍속에서는 큰 수치로 여겨서 혼인할 짝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마침내 서로 도둑질함이 없고 밤에 문을 닫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한다. 또 부인들은 정신(眞信)하여 음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범금팔조」의 「婦人眞信 不淫僻」 『위지』 「嫁娶禮俗男女有別」에 통하고 「범금팔조」의 「相殺以當時償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는 『위지』의 「法俗特嚴峻」에 통하는 것이며 『위지』의 「其俗行者 背往讓路」에 『산해경(山海經)』 「조선조(朝鮮條)」의 「互讓不爭」이 통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일찍부터 한민족문화는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지극히 보편적이며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첫째는 시집가고 장가는 예속에 남녀가 유별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고문화사회(高文化社會)적인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덕목(德目)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풍속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길을 양보한다는 것은 역시 고문화적인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덕목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길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길을 가다 소인(小人)은 물론 대인(大人)에게 길을 양보하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인이 소인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인과 소인이 없이 그때 그때 형편을 보아 서로 길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있는 높은 덕목으로 보아야하는 것이다. 같은 『위지』이지만 왜인전(倭人傳)에서는 소인이 길에서 대인을 만나면 소인은 무조건 길 옆의 풀 속으로 들어가 대인이 지나갈 때까지 허리와 고개를 굽히고 있어야한다고 전하였으니 이것은 물론 저문화사회(底文化社會)의 보편타당성 없는 습속인 것이다.

또한 한의 사회는 법속에 특히 엄준하다고 하였으니 그 사회가 고문화사회임이 틀림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엄준한 법속의 내용은 <물금팔조> (勿禁八條)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전의 한민족사회의 특징으로 의복이 청결하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2000년전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고 문화사회에 있어서 높은 덕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와같은 높은 덕목은 한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지니고 있었던 체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사회에서는 유교의 오륜(仁, 義, 禮, 知, 信의 덕목(德目)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서 실천하여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며, 불교의 핵심이 되는 여덟가지의 옳은 길 즉, 八正道(定見, 正思惟,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에 대하여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서 실천하여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예수교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으로 「십계명(十誡命)」에 대하여서도 쉽게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고문화(高文化)로써 유교, 불교, 예수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민족의 문화 자체가 보편타당성 있는 고문화였기 때문에 보편타당성 있는 고문화로서의 유교, 불교, 예수교를 훌륭하게 소화해 낼 수 있었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내용의 동이사회의 고문화가 공자(孔子)의 말이라 하여 논어(論語)에 전하는 동이사회의 높은 도(道)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즉, 동이족은 천성이 유순하여 북방, 서방, 남방 사람들과 달라서 그 사회에는 도가 행하여졌다. 공자가 중국에 도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슬퍼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동이족의 땅에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의 동이사회

의 높은 도의 실천으로서 앞서 검토한 『위지』 한전의 내용이며 「물금팔조」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산해경』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않는다(互讓不爭)」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으로 한민족의 특징 즉, Identity가 결정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동면의 정려

동면은 연기군에서 가장 작은 면이며 연기군은 전국적으로 가장 작은 군에 속한다. 그러면서 동면에는 국가에서 내린 정려와 함께 많은 열녀비 효자비가 있다. 동면은 면적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정려와 효자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려는 역사적으로 정표교화정책(旌表教化定策)의 결과 이 정책은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성계에 의하여 출발한 조선왕조에서는 불교에서 유교로 국가가 사상적으로 크게 전환할 때 그 지배윤리와 도덕규범이 모두 유교를 기본으로 규범화 하였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그것은 장려하기 위하여 정표정책이 왕명에 의하여 한층 더욱 활발하게 실시됨으로 유교적 윤리규범에 근거한 「효」「충」「절의」로 일관한 자가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아서 요역(搖役)을 면제받거나 관직을 받거나 승진(昇進)이 되거나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효」「충」「절의」의 윤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 전반에 이해시키고 침투시키기 위하여 『효행록(孝行

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그림을 붙인 책이 간행되어 교화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어 국왕을 정점으로한 가산제적(家産制的인 즉, 봉건제도적인 중앙집권국가의 지배윤리를 확립하여 규범화(規範化)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 종교적 신앙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윤리규범으로 까지 침투하여 그 효과가 대단히 컸으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왕도 없고, 봉건주의도 없고, 중앙집권국가도 없어졌다. 물론 『효행록』 『삼강행실도』도 강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표교화(旌表教化)』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로 남았을 뿐이니 이미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동면에 사는 우리로서는 특별히 동면에 많은 정령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오늘날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과거의 유물일 뿐일까? 우연적인 일일지는 몰라도 동면의 시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조치원을 떠나 북에서 미호천을 건너 동면땅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정령이 예양리(망구리)에 있는 「오부자충신문(五父子忠臣門)」이다. 따라서 「오부자충신문」은 동면의 북쪽 변방 제일신을 지키고 있는 셈이며,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부자충신문」에서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300미터 지점에 서있는 예양리(양골) 마을 어구에 서있는 경암장재학 선생의 의열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정령이 예양리(양골)에서 내(川)를 따라 올라가 3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노송리(마근터) 한양조씨의 「열녀문」이며,

예양리(양골)에서 국도를 따라 남으로 1km 떨어진 송용리(나분말)의 어귀 언덕위에 서있는 언양김씨 「열녀문」이다.

송용리(나분말)에서 철도를 건너 내판리(너더리)에 들어서면 상리 마을 앞에 「고부양세열녀문(姑婦兩世烈女門)」이 있다. 여기가 동면의 중심이다. 고부양세는 창녕조씨와 창녕성씨의 고부이다. 그리고 내판리 하리에는 김백열의 효자비가 있다.

또한 동쪽의 청주 남이면에서 동면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충신 <청절 한선생의 유허비>를 만난다. 청절(淸節)은 정미년의 호란에 백이종군하여 임금을 따라 강화로 피난 공을 세운 한필적(韓必迪)선생의 호이다. 그리고 이어 이괄의 난에 안현(鞍峴)에서 잘 싸워서 원종록훈(原從錄勳)에 오르고 병자호란에 두 아들과 함께 임금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수십명의 적을 무찌르고 장렬히 전사한 김언선(金彦信)과 장자 응추(應秋), 자자 응춘(應春)의 삼충(三忠)과 언신천 배씨와 응추처 박씨의 이열(二烈)의 분묘를 만날 수 있다.

응암리(높은정)에서 고개를 넘어 응암리(늘울)에 들어서면 열녀 광산 김씨의 정려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응암리(늘울)에서 다시 진동고개를 넘으면 동명의 복판 내판리(너더리)에서 앞서 알한 창녕손씨와 창녕성씨의 <고부양세정려>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면은 북쪽이 이렇듯이 동쪽 또한 변두리에 충신문 또는 충신들의 유적이 지키고 그 내부에 정려문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니 기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남쪽 금남면에서 합강나루에 의하여 금강을 건너 동면에 들어서면 첫째로 합강리에서 안향선생을 모신 합호서원을 만나며 합강리에서 뒷고개

를 넘어 용호리에 들으면 임양문의 효자문을 만난다. 그리고 용호리에서 고개를 넘어 내관으로 가면 동면의 중심부에 손씨와 성씨의 양세열려문을 만난다. 이때도 동면의 남쪽 변두리에 합호서원이 지키고 그 내부에 효자문이 있고 다시 그 안쪽에 열녀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하여 말하면 동면은 내외(內外)가 분명하고 남녀가 유별한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신들은 살신성인(殺身成仁)하여 변두리를 지키고 열녀들은 안에서 정신(貞臣)의 덕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정려문의 위치관계는 우연한 일이라고 하여야 하겠지만 동면의 우리로서는 우연 이상의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아무튼 동면의 북쪽 끝에 무(武)의 상징으로써 「五父子忠臣門」이 위치하고 남쪽 끝에 「文」의 상징으로써 안향선생을 모신 「合湖書院」이 위치하고 그 내부에 효자문과 다시 그 내부에 열녀문이 위치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연 이상의 우연으로써 동면의 우리에게 특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9. 근대 교육과 동면의 교육

근대교육과 동면의 교육발전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근대적인 새로운 학제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1895년부터 1905년까지의 사이에 골격의 대강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유교의 경전을 교육의 주요내용으로 하였던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탈피한 근대적인 신교육은 일찌기 1880년대부터 있었다.

그것은 1880년대에 개설되어 한국교육의 근대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에는 동문학(同文學)을 비롯하여 원산학사(元山學舍), 육영공원(育英公院)과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학교 등 미션계의 학교들이었다.

동문학(同文學)은 1883년에 독일인 뮐렌도르프(mollendorf)에 의하여 외아문(外衙門)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영어교육기관으로 통변학교 또는 영어학교라고 불렀다

육영공원(育英公院)은 구한국 정부가 미국인 교사 3명을 초빙하여 1886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국가교육기관으로 연소한 현직관리들과

15세부터 20세까지의 젊은 선비들을 입학시켜 영어와 함께 지리, 수학, 자연과학을 교육시켰다.

원산학사는 개항장인 원산에 거주한 유지들이 일본의 침략과 새롭게 전개되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혁과 관리들의 협력을 얻어 1883년에 원산에 설립한 한국고유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사립 교육기관이었다.

기독교위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188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내한하기 시작한 개신교의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배재학당(1885)을 비롯하여 이화학당(1886), 경신학교(1886), 전신학교(1886) 등 미선계 학교를 설립하여 명실 상부한 근대적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1880년대에 실시하기 시작한 근대적 신교육운동과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구한국정부는 1894년의 갑오경장을 계기로 우선 정부에 근대적 교육행정부로서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설립을 추진하고 소학교를 비롯하여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와 농상공학교, 광무학교, 법관양성소 등 근대적인 국가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성균관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1905년에 소위 을사조약의 체결에 따라 통감부를 설치한(1906)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학부로 하여금 1906년 8월에 보통학교령을 비롯하여 사범학교령, 고등학령, 외국어학교령을 제정하여 일본어 교수시간을 늘리고 교과내용도 자주적 애국심을 함양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친일적인 내용으로 개편하는 한편 일본인 교원을 한국인 학교에 배치하는 등 교육제도를 바꾸

었다.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1905년 이후 국권회복과 애국운동을 목적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에서 설립운영하는 애국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수많은 학교들을 통제하였다. 같은 해에 고등여학교령이 발표되어 한성여자고등학교가 창설되고 1909년에는 다시 각급학교 교육령을 개정하여 일본의 식민지주의 교육을 더 강화하였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조선교육령을 공포(1911)하여 한국민을 일본인화하는 교육을 강요하면서 한국민학교에서 한국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한국의 사립학교들을 통제하였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은 소위 융화정책을 표방하고 초·중등교육의 제도를 일본인의 초·중등학교와 교육년한을 같이하여 한국인에게 중등학교 졸업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학교 경우 6년제의 학교는 소수이고 4년제나 5년제의 보통학교가 많아서 실제로 차별대우를 하였으며 고등교육에서의 한국인 진학의 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개편에 의하여 일본의 대륙침략의 도구화를 위한 군국주의교육이 시작되고 한국어는 교과서에서 수의과목(隨意科目)이 되어 실제에 있어서 한국어는 한국교육에서 제거되어 버리고,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은 완전히 전시체제의 학제로 개편되어 당시의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은 전쟁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880년대부터 근대화를 지향한 근대학교가 발생하고 1890년대에는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도화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근대화

를 지향하는 교육이 추진되어 왔으나 1905년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부터 교육에서 한국어를 말살하고 일본어를 대신 보급시키어 한국인에게 저급한 교육과 실과 교육만을 시키고, 고급 정신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억제하였으며 한국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인화하려는 식민지교육이 1945년 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도구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한국민에게 초등교육을 어느 정도 확충하였으며 수는 적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문호를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방후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1970년대 이후에 와서 해방후에 교육받은 새 세대들이 주역을 담당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근세에 들어서 연기군에서는 어떻게 신교육이 이룩된 것일까 아래에서 살펴보기도 하겠다.

일제시대에 조선인을 교육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일본인 교육하는 학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또는 심상고등소학교라 명명하고 농업실습학교(農業實習學校)는 조선인만 수용하고 실과여학교(實科女學校)는 일본인이 본위이지만 조선인도 입학한다.

학교의 직원은 여러 학교를 통하여 교장판임(判任) 또는 주임(奏任)관 대우 > 1명을 두고 학급수를 의하여 훈도(訓導) 1명씩으로 단임교수케 하되 실수 및 시좌 직원은 교육(教諭)라 칭한다.

대동학교(大東學校) 전의면 읍내리에 있다가 폐지됨. 융희 3년(1909)

봄에 이익하(李瀼夏), 김경규(金敬圭), 정관식(鄭觀植) 3인의 노력과 당시의 전의군수 장인원(張寅源)의 후원 그리고 전의면내 유지들의 성원에 의하여 전의 향교의 명륜당(明倫堂)에 창립하였다가 1912년 11월에 전의공립보통학교(全義公立普通學校)로 변경되었다.

배달학교(倍達學校) 남면 연기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이 학교는 융희 2년(1908) 봄에 임동훈(林東勳), 이학준(李鶴俊), 한일동(韓日東), 장경순(張景淳) 4인이 수천금을 각출하여 기초를 닦고 지방유지들의 성원으로 연기군청내에 창립하였다가 1912년 5월에 연기공립보통학교로 변경하는 동시 연기객사로 이전하였다.

기성학교(期成學校) 동면 송룡리에 있었다가 폐지되었다. 백여년전 부터 결성장씨 문중에서 육영의숙(毓英義塾)을 설립하여 구한문을 가르치다가 1921년에 기성학교로 변경하여 신학문을 가르치다가 1925년 5월에 연동공립보통학교가 창립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치원공립농업실수학교(鳥致院公立實修女學校) 조치원리에 있다. 1927년 2월에 창립, 3학급이며 1년 경비는 9,500여원이다.

조치원공립보통학교 조치원리에 있다. 1915년 6월에 창립. 10학급으로 1년 경비 14,400여원이다.

조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조치원리에 있다. 1902년 8월에 창립. 7

학급이며 1년 경비는 15,000여원이다.

전의공립보통학교 전의면 읍내리에 있다. 1912년 11월에 창립되었으며 8학급으로 1년 경비 1100여만원이다.

전의 공립심상소학교 전의면 읍내리에 있다. 1911년 9월에 창립. 단학급으로 1년 경비 2,000여원.

연기공립보통학교 남면 연기리에 있다. 1912년 5월 창립. 6학급이며 1년 경비는 7,100여원이다.

금남공립보통학교 금남면 신촌리에 있다. 1924년 9월에 창립. 6학급, 1년 경비 7,200여원이다.

동면공립보통학교 동면 내판리에 있다. 1929년 5월에 창립. 3학급, 1년 경비 3,600여원이다.

해방후의 교육

교육행정의 제도와 변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은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어 정치적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한국의 교육이 전체주의적인 식민지교육에서 민주주의적인 자주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해방직후의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일제의 잔재를 버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르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우선 한글을 가르치고 국사에 중점을 두어 각 교과를 지도하면서 시급히 각급 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간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9월에 초등학교를 개교하여 10월에는 중등학교를 개교하였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해방후의 한국교육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계 대표 100여명을 망라한 교육심의회가 열렸고 그 후 100여회의 분과 위원회와 19회의 전체교육심의회를 거쳐 1946년 3월 7일의 20회째인 전체교육심의회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을 의결 하였다.

그 내용은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내세우고 초등학교 6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 3년, 대학 4년 등의 기간학제와 교과서의 검인정 제도, 한자 폐지 등의 중요한 골자였는데 이것이 문교당국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현재도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기군내의 학교현황은 이때의 학제개혁에 의하여 해방전의 4년제 조치원공립고등여학교가 6년제의 여자중학교로 변경되고, 조치원농업실수학교도 조치원농업중학교로 변경되었다.

또한 광복후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각 지역에 초등학교기관이 다수 건립되어 일제치하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1945년부터 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즉 1949년말 까지 신설된 학교는 조치원의 교동초등학교(1945), 서면의 연봉초등학교(1946, 8), 전의면의 삼기초등학교(1947. 9), 금남면의 영대국민학교(1949, 1), 동면의 연흥초등학교(1949,10) 그리고 전동면의 송성초등학교(1949, 10) 등이다. 이와같은 초등교육기관의 신설은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난 취학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때문이었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은 1950년과 1951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현재의 6-3-3-4제의 기간학제가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학제의 개편에 의하여 6년제 조치원여자중학교가 3년제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고, 6년제 조치원농업중학교가 3년제 중학교와 농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1951,8). 그리고 초·중등 교육기관의 신설이 1970년대초까지 계속되었다.

초등 교육기관으로 남면의 연세초등학교(1957, 4), 금남면의 금석초등학교(1959. 6), 서면의 와촌초등학교 (1970. 2), 그리고 동면의 용호국민학교(1971. 3)가 차례로 신설되었다.

이 무렵의 현저한 경향은 초등교육기관의 증설보다도 중학교의 신설을 지적할 수 있다. 중학교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9년제 의무교육의 세계적 추

세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2개 중학교(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 이외에 금남면의 금호중학교(1951.1), 전의면의 전의중학교(1954. 7), 조치원의 연기중학교(1960. 2), 동면의 연동중학교(1960. 10), 그리고 서면에 연서중학교(1972. 3)가 신설되어 거의 1면 1개 중학이 실현되었다. 또한 군내 유일의 사립 성남고등학교가 1966년 3월에 신설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외의 인구분산과 지방의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3월에 조치원읍 서창동에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가 들어서고, 1982년 10월에는 문리대학교 경상대학으로 개편하여 현재는 10개학과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면학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어서 홍익대학교도 서울에서 조치원으로 내려와 새롭게 캠퍼스를 개설하였다.

동면의 교육기관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연동초등학교〉

1. 연혁

학 교 명 칭: 연동초등학교

인가년월일: 1925년 5월 18일

위 치: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2번지

2. 교력

1925.3.31.	연동 공립 보통학교 설립인가
1925.5.18.	연동 공립 보통학교 개교(수업년간 4개년)
1928.4.1.	수업년간 6개년 연장함
1929.12.28.	교실 증축 1교실
1937.12.25.	교실 증축 2교실
1938.4. 1	연동 공립 심상 소학교라 개칭함
1941.4.	연동 공립 초등학교라 개칭함
1949.4. 1	연흥 국민학교 독립 분리(6학급)
1949.12.31.	연동 국민학교 개칭함
1959.11.30	교실 증축(5교실)
1966.9.24	교장 관사 신축(16평)
1971.3.1	용호 국민학교 독립 분리(6학급)
1972.11.20	콘크리트 교실 신축 2개 교실
1973.6.4	노후 교실 5개 교실 철거
1972.10.17	콘크리트 교실 신축 4개 교실(하층1,2층 3)
1974.5.18	창고 및 숙직실 개축
1974.10.31	노후교실 2개 교실 철거
1975.3.27	서쪽 변소 노후로 철거(1동)
1976.10.16	새마을 시범학교 연구 발표(군지정)
1976.12.22	새마을 우수학교 표창(교육감)
1976.12.31	아름다운 학교 표창(교육장)
1977.9.30	콘크리트 교실 2개 교실 증축(상하 각1개)
1977.10.20	체육교육 시범학교 연구 공개
1977.12.31	보건 환경 우수학교 표창(교육감)

1979.4.9	조각상 건립(2개)
1979.5.29	충효탑 건립
1979.6.11	동물상 건립(10종)
1979.7.18	2동 교사 도장공사
1979.9.19	무궁화 동산 우수상 수상(교육장)
1979.10.20	과학환경 우수학교 수상(교육감)
1979.11.8	자연과 운영 공개(군지정)
1980.9.30	도지정 생활지도 연구 공개
1981.3.10	연농 유치원 개원 (1학급)
1982.2.16	제 55회 졸업식 거행
1982.3.5	제 1학년 신입생 입학식 거행
1982.3.10	유치원 원아 입학식 거행(1학급)
1983.2.17	제 56회 졸업식 거행
1983.3.5	제 1학년 신입생 입학식 거행
1983.3.10	유치원 원아 입학식 거행(1학급)
1983.11.4	군 지정 유치원 시범 운영 보고회
1983.12.31	유치원 우수학교 표창(교육장)
1984.2.16	제 57회 졸업식 거행
1984.3.5	제 1학년 입학(91명)
1984.3.10	유치원 원아 입원(44명)
1984.9.3	현관 및 4개 교실 개축 제 2교문(남문)건립
1984.9.14	2동 4개 교실 철거
1984.12.11	본관 8개 교실 도장공사
1985.2.15	제 58회 졸업식 거행
1985.3.5	제 1학년 입학(62명)
1985.3.11	유치원 원아 입원(60명)
1985.5.18	어린이 놀이장 설치(412m ²)
1986.2.15	제 59회 졸업식 거행
1986.3.4	제 1학년 입학(70명)
1986.3.10	유치원 원아 입원(56명)
1987.2.12	유치원 졸업식(54명)
1987.2.17	제 60회 졸업식 거행(89명)
1987.3.4	제 1학년 입학(63명)
1987.3.9	유치원 원아 모집(55명)
1987.8.19	본관 2개 교실 증축
1988.11.10	국민정신 교육시범 운영 보고회(군지정)

1988.2.12 유치원 졸업식(56명) 7회 수료
 1988.2.16 제 61회 졸업식(69명)
 1988.3.4 제 1학년 입학(63명)
 1988.3.10 유치원 원아모집(43명)
 1989.2.14 유치원 졸업식(43명)
 1989.2.17 제 62회 졸업식(63명)
 1989.3.4 제 1학년 입학(49명)
 1989.3.8. 유치원 원아모집(44명)
 1989.8.1 본관8개 교실 알루미늄 2중창 설치(남쪽창)
 1989.8.10 운동장 시멘트 디딤판 설치 200M(김고성씨)
 1990.2.16 제 63회 졸업식(72명)
 1990.3.5 제 1학년 입학식(53명)
 1990.3.8 유치원 원아 입학식(44명)
 1990.12. 본관 8개 교실 알루미늄 2중창 설치(북쪽창)
 1990.12.20 과학 환경 심사 우수교 표창
 1991.2.20 제 64회 졸업(72명)
 1991.3.1 용호 국민학교가 본교 분교장으로 됨
 1991.3.1 제 1학년 입학식 (50명)
 1991.3.5 유치원 원아 입학식(37명)
 1991.3.9 경보장치 시설
 1992.1.10 제 11회 유치원 수료(50명)
 1992.2.14 제 65회 졸업(본교 59명, 분교 10) 계 69명
 1992.2.18 제 1학년 입학식(45명) 본교:37, 분교장:8
 1992.3.5 유치원 원아 입학식(60명) 본교:42, 분교장:18
 교무실 천정 보수 공사
 1992.3.7 학교체육 환경심사(도 교육청) 교육감 표창
 1992.5.6 국민학교 학력 검사(충남 연구원)
 1992.12.1 제 12회 유치원 수료(50명)
 1992.11.24 제66회 국민학교 졸업(68명)
 국민학교 11학급(본교 7, 분교장 4) 편성
 1993.2.12 유치원 2학급(본교 1, 분교장 1) 편성
 1993.2. 유치원 입학(본교:23, 분교장:13)
 1993.3.1.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군 교육청 93.3.1-94.2.28)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군청 93.3.1-94.2.28)
 1993.3.20 수세식 변소 48.6M 준공
 1993.5.24 도 교육청 종합 장학 협의(송호경 장학사)

10. 마을의 소지명(素地名)과 세거성씨

◇ 성 씨(호)

구 분 리 별	강 씨			경씨	고씨	곽 씨		구씨	권씨	김 씨						
	진주	신천	청주	제주	현풍	성곽	능성	안동	김해	경주	안동	예안	위성	연안	광산	
계	84	3	2	4	1	1	2	7	44	81	103	7	2	1	19	
내 판 리	9	1		2		1	1	1	15	22	81				3	
문 주 리	3							1	3		3		2			
용 호 리	50	2			1				3		1					
합 강 리	1									2	1	7				
명 학 리									6	5	6					
응 암 리	2							4	2	29	4				1	
노 송 리	2		2	1					3	9					11	
예 양 리								1	1	2	2				1	
송 용 리	17			1					11	12	5				3	

◇ 성 씨(호)

구 분 리 별	김 씨						나씨		남씨	노씨	문씨	민씨	박 씨			
	선산	한창	당악	언양	밀양	한영	나주	금성	여양	만경	남평	여흥	밀양	무안	반남	순천
계	1	1	1	6	1	1	1	1	4	5	2	2	36	15	11	8
내 판 리				6	1	1			1		1		8		5	5
문 주 리													2			
용 호 리		1	1					1								
합 강 리																
명 학 리									3		1		5			
응 암 리													6	15		
노 송 리													2			
예 양 리	1						1			5		2	9		4	3
송 용 리													4		2	

◇ 성 씨(호)

구 분 리 별	박씨		방씨	배씨		백씨	변씨	사씨		서씨		성씨	손씨		송씨	
	순흥	청주	온양	성산	성주	수원	초계	청주	거창	인천	달성	창녕	밀양	일직	은진	여산
계	1	1	1	45	1	7	2	22	1	2	2	13	2	1	4	1
내 판 리			1		1	1		22		1	1	10	1	1	1	
문 주 리																
용 호 리						1									1	
합 강 리															1	
명 학 리				2												
응 암 리				1						1	1	1			1	1
노 송 리				42			1									
예 양 리	1					4			1			2				
송 용 리		1				1	1						1			

◇ 성 씨(호)

구 분 리 별	송씨	신씨				삼씨	안씨		양씨				엄씨	오씨		우씨
	회덕	평산	아주	고령	거창	청송	순흥	죽산	남원	중화	제주	청주	영월	해주	보성	단양
계	1	3	6	3	2	1	60	1	6	1	3	1	1	1	32	2
내 판 리	1	1		2			3		1			1		1	6	
문 주 리		1					1		1							
용 호 리															7	
합 강 리							37								1	
명 학 리		1					6		2						2	
응 암 리							3		1						6	
노 송 리			1				6									2
예 양 리			1	1			4		1		3		1		3	
송 용 리			4		2	1		1		1					7	

◇ 성 씨(호)

구 분 리 별	원씨	유 씨			육씨	윤씨		이 씨								
	원주	문화	흥안	기계	옥천	파평	해평	전주	아산	경주	연안	덕수	광주	전의	진주	우봉
계	2	6	1	5	2	5	11	53	12	25	3	2	1	2	1	3
내 판 리	1	2		1		1		5		11	1			1		
문 주 리			1			1		5	8							
용 호 리				1		1			1							
합 강 리																
명 학 리		3		3	2	2		11	3	2						
응 암 리								13		9						
노 송 리		1						3								3
예 양 리							11	4		2		2		1		
송 용 리								12		1	2		1		1	

◇ 성 씨(호)

구 분 리 별	이씨			임씨			장씨			전씨			정씨			
	한산	고성	용인	부안	평택	풍산	결성	안동	홍덕	담양	천안	옥천	경주	동래	평상	연일
계	1	1	1	106	3	1	148	1	4	10	3	1	14	5	2	3
내 관 리		1	1	9	2		9			2	1		5	1	2	1
문 주 리				2			2									
용 호 리				56	1		26						1			
합 강 리				1			1						5			
명 학 리				16		1	3							1		
응 암 리				11			6			8	1			3		
노 송 리				2			41		4							1
예 양 리				3			17	1				1				
송 용 리	1			6			43				1		3			1

◇ 성 씨(호)

구 분 리 별	조씨					주씨	지씨	진씨	차씨	채씨	천씨	추씨	최씨			하씨
	인천	상영	양주	한양	풍양	신안	충주	영양	연안	인천	밀양	대구	경주	해주	진주	진주
계	1	1	8	1	11	1	1	8	4	34	1	1	25	1	1	1
내 판 리			1	1	1	1	1	2	1				16			
문 주 리			7													
용 호 리																
합 강 리	1								1	26			2			
명 학 리								3		3			2			
응 암 리					6											
노 송 리		1								4						
예 양 리					1			2		1	1	1	3			1
송 용 리					3			1	2				2	1	1	

◇ 성 씨(호)

구 분 리 별	하씨	한씨	홍씨	황씨													
	배주	청주	남양	장수	창원	회덕											
계	1	12	24	55	3	1											
내 판 리	1	2	7		2	1											
문 주 리			1														
용 호 리																	
합 강 리			2														
명 학 리			2	19													
응 암 리		8	3	5													
노 송 리			1														
예 양 리		1	3		1												
송 용 리		1	5	1													

〈노송리〉

노송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향토사료』 제1집에 노송리에 대하여 「옛날부터 老松이 많아서 이조시대에는 〈놀뢰〉로 부르기도 하였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老山〉이라 고쳐 부르기도 한 지역이다. 이조 말엽에는 연기군 동이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노산리, 상송리, 용동, 숨담리, 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老松리라하여 東面に 편입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앞서 인용하였던 「輿地圖書」(1557~1765)에 〈獐山里〉와 〈松山所里〉를 전하는데 〈獐山里〉가 〈노리뢰〉이며 〈노리미〉의 〈노(老)〉와 〈松山所里〉의 〈松〉를 합하여 〈老松里〉의 마을 이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리미

老松리의 으뜸부락으로 〈獐山里〉 즉 〈노리뢰〉에 틀림없는 것이다. 〈獐〉이 〈노루장〉이다. 『향토사료』 제1집에는 「〈마근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산〉 〈노루미〉 〈老山里〉라고도 부르는데 老山 앞에 있으며 마을 뒷산의 모양이 노루와 같다고 하여 〈노루미〉 〈당산〉이라 부른다 한다. 〈노루미〉가 변해서 〈노리미〉라 부른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아미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노리뢰〉이며 〈노리뢰〉는 산의 모양이 노루를 닮아서가 아니라 〈노루〉가 고대신앙에서 산신의 사자로서 영물(靈物)로 믿어진 만큼 산신이 있는 산이 노리뢰, 즉 〈鹿山〉이며 〈獐山〉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노루가 신령스

러운 역할을 한 이야기가 옛날이야기로 전하는 점으로도 이런 점에 대하여 추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노리미 즉 老山里마을의 뒷산인 아미산에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산신에게 매년 제사지내던 산제당이 있었으니 그래서 아미산의 옛이름이 <노리뫼>이며 <노리뫼>라는 산이름에서 <노리뫼>, 즉 <노리미>라는 마을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막은터

막은터의 마을은 노리미의 마을과 함께 동면을 대표하는 큰 마을의 하나인데 <마근터>에 대하여 『향토사료』 제1집에 다음과 같은 설명 있다.

老松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 앞에 못을 파고 소나무를 심어서 마을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한 신선의 마을이다. 지금은 결성장씨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馬씨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이라하여 <마근터> (馬垔)라 부른다 한다. 지금은 <송담>이라고도 부르는 마을이다.

<마근터>는 <마가터> (馬垔)에서 비롯된 마을 이름이 아니라 마을의 수구(水口)에 소나무를 막은 <막은터>라는 뜻의 마을 이름일 것이다.

본래 막은터, 노리미의 마을의 수구는 견해방으로 막힌 곳 없이 20~30리밖 서면의 오봉산과 전의면의 금이산까지 확 터져서 겨울의 찬 견해풍을 막을 도리가 없을 뿐 아니라 수구가 허해서 안에서 밖으로 새 나가는 손재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찬 견해풍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새 나가는 손재를 막기 위하여 수구에 소나무를 가꾸어 수구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수구를 막아 보호하기 위하여 가꾸었던 소나무는 오래전에 베어 없애 버렸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옛날의 「마근터」의 모습을 알아보려면 전의면 대곡리로 들어가 소위 〈민속마을〉을 보면 될 것이다. 대곡리 또한 노송리와 마찬가지로 전해방으로 2~30리앞의 풍세들에서 용양들까지 탁 터져서 겨울의 찬 견해풍을 막을 도리가 없는 곳이다. 지금도 대곡리에 들어서면 부락 어구의 수구쪽에 큰 나무들을 가꾸고 장승을 세워서 부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막은터〉의 마을의 전형이 대곡리에 남아 있으니 「百聞不如一見」이라니 실지로 보면 좋을 것이다.

움골

『향토사료』 제1집에 「老松里」에 있는 마을이다. 이조 초엽에 마을이 없던 이곳에 사람들이 옮겨와 움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움골〉 또는 〈움골〉(雄洞)이라 한다고 하였지만 애초에 이 마을은 〈움골〉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움골〉이라고 하지도 않고 〈우골〉이었을 것이다.

이 마을이 〈노리미〉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우골〉(上洞)이라고 하였을 것이며 〈우골〉이 오랜 세월동안에 〈웅골〉로 소리가 변하여 <雄洞>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고수골

옛날 고씨가 살던 집이 있다하여 고수골이라 하여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고 하지만 고수골은 <고수리신> 으로서 천신을 뒤흔 당집이 있는 마을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고 하였지만 <집터>란 <고수골>에 있었던 <고수리신>을 모신 당집의 터가 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가마골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샘이 있었는데 궁에서도 가마를 타고 와서 물을 먹었다고 궁가마을이라고 하였고 옷이 오른 사람들도 이 물로 목욕을 하면 씻은 듯이 낳았다고 하지만 <군가마골>은 노송리의 양반들을 위하여 가마를 맨 <가마군>들이 살던 마을은 아니었나 모르겠다.

피난골

군가마골 위쪽에 위치한 골이 넓고 깊은 곳으로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피난하였던 골이어서 피난골이라고 한다는 속설이 있다.

봉수골

봉이 집을 지은 형극이라하여 봉수골이라고 한다.

노송천(老松川)

발원지가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이며 총점은 미호천으로 4km에 달한

다. 이 내를 따라 골짜기가 형성되었는데 그 골짜기가 서북방으로 터져서 겨울에 춥고 마을들이 허하다하여 수구 쪽에 나무를 가꾸어 막았기 때문에 <마근터> 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

망정골

<망정골> 이라고 하여 옛날이 골짜기에 정자가 있어 <望亭谷> 이라고 하였다고 전하지만 이 골짜기에 <望亭> 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麻田> 이 있어서 <마정골> 이라 하였는데 <마전골> 이 후일에 <망정골> 로 소리가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장승백이

노송1구 앞 남쪽에 장승 2개가 서 있었지만 장승은 없어지고 지금은 <장승백이> 라는 골이름만 남아있다. 결국 <장승백이> 자리가 수구를 막은 <막은터> 자리이며 <막은터> 에는 잘 가꾼 큰 나무들과 함께 큰 길가에 장승이 박혀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수구를 나무들을 가꾸고 장승을 세워서 막은 예는 전의면 대곡리에서 지금도 볼 수 있다.

노송리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경주김씨

병자호란을 당하여 만호(萬戶)을 지낸 김언신(金彦信)과 두 아들 응추(應秋), 응춘(應春)의 3부자가 호종하여 싸움터에서 순절하여 원종공(原從公)에 입록(入錄)되었다. 언신의 처 성산배씨와 응추의 처 밀양박씨는 남편들이 전사한 후 시체가 쌓인중에서 남편들의 시체를 찾아서 업고 돌아와 장사지낸 후 남편들을 따라서 죽었다. 묘는 응암리의 고정 계좌이며 합편하였다. 지금 노송리의 노리미거주 경주김씨들은 그의 후손들로서 3부자의 전사 후 묘를 고정에 쓰고 가까운 노리미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광산김씨

노송리 마근터의 광산김씨는 신라왕자 흥광(興光)을 시조로 하여 시조의 23세손으로 문과에 올라 평양서윤(平壤庶尹)의 벼슬을 산 휘(諱) 광주(光籌)를 증시조로 하는데 증시조의 6대손으로 휘 종발(鍾發)이 서기 1700년대에 노리미로 낙향하였다. 노송리 망정동 선형에 「광산김씨 세손 록비」가 있다. 그러나 처음에 노리미로 낙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성산배씨

노리미의 선상배씨가 노리미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세종조를 거쳐서 세조조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연기지』의 인물편에 전하듯이 세조대로 생각된다. 즉 배유(裴裕)가 성주인으로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체

학에 올랐으나 성품이 충직하여 육신(六臣)들과 도의로 사귀었다. 그러나 세조가 대노하여 청주로 귀향 보냈다. 이로 인하여 자손들이 노송리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성주배씨로서 그 후 배경걸(裴敬傑)과 배홍덕(裴弘德)에 관하여 인물편을 참조할 것이다.

그러나 배경걸에 관한 기사 끝에 배경걸의 묘가 고정리의 묘좌이며 인하여 자손들이 노산, 즉 노리미에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하였으니 그것이 년대적으로 배유(裴裕)의 때인지 배경걸의 때인지 확실치 않은 것이다.

청주경씨(淸州慶氏)

시조 경진(慶珍)의 후손으로 노리미로 낙향하여 100여년이 지났다.

흥덕장씨(興德張氏)

시조 유(儒)의 후손으로 노리미로 낙향하여 이제까지 100여년이 지났다.

〈내판리〉

내판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내판리는 동면을 대표하는 가장 큰 마을이며 동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내판역〉, 〈내판우체국〉 등으로 여러 기관명에 〈내판〉이라고 붙었다.

내판을 〈너더리〉라고 하는데 〈너더리〉는 〈널다리〉로서 〈널(板)〉로 만든 〈다리(橋)〉의 뜻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너더리〉는 板橋理의 뜻인데 板橋理는 內板橋理, 外板橋理, 上板橋理가 있으며 3板橋理는 內板, 外板, 上板으로 약칭(略稱)된다. 그리하여 현재 연못골(蓮池洞)이 내판1리, 내판리의 하리가 내판2리, 내판상리가 내판3리, 외판이 내판4리, 상판이 내판5리로 내판리는 5구로 나누어졌다.

〈연못골〉은 외판리의 동쪽 철쭉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수백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고 많은 물이 나와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논에 물을 대어주는 수렁논으로 연꽃이 핀 〈연못뱀이〉가 있다. 연못골이라는 마을 이름이 〈연못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경부선이 부설되고 내판역이 설치될 무렵 예부터 성씨의 토지였던 〈연못뱀이〉와 장씨의 종토였던 내판역전의 땅과 교환하였다고 한다. 〈연못뱀이〉는 해마다 폐농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사답으로 제격이었기 때문에 장씨측은 이 논을 원하고 성씨측은 사업가로서 내판역전의 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교환한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연못뱀이〉는 수렁논으로 병답으로 취급되는 반면 내판역전의 땅은 금싸라기 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수청골

내판리와 명학리 사이의 산맥에 뚫은 경부선 철도의 굴을 <수청굴> 이라고 하는데 <수청굴> 에 있는 굴이기 때문에 <수청굴> 이라고 한다.

<수청굴> 은 옛부터 물이 혼한 수렁논으로 되어 이곳으로 생긴 물로 그 아래 수만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었다.

수청골의 수렁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고자 이곳을 매립하여 뚝을 쌓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가래장치 셋을 꽂아도 땅에 닿지 않는 수렁을 메우겠다니 결국 왜놈들이 실패하고 돌아갈 것」 이라고 하였다. 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청골은 물이 혼한 곳이기 때문에 수도농업(水稻農業)의 적지라서 내판리 일대를 대대로 부촌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청골 논 3마지기만 있으면 딸을 준다는 말이 옛부터 전하여지고 있을 정도이다.

새말

외판을 <새말> 이라고 한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너더리(內板橋理)에 대한 바깥너더리(外板橋理)이며 구촌(舊村)에 대한 신촌(新村)이다.

할박골

<가장골> 앞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중심에 조그만 내(川)가 있었는데 달이 이 내(川)를 따라서 뜨고 지므로 달이 밝은 곳이라 하여 <달박골> ,

즉 <달뽕골>이라 부른다는 해석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는데 달뽕골은 <달뽕골>이 아니라 <탈(假面)> - <탈박(假面)>, 즉 가면극의 광대가 살았기 때문에 <탈박골>의 마을이름이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가장골

내관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국민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다. 마을 뒷산을 허물 때 흙속에서 가재가 나왔다하여 <가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는 설명이 역시 『향토사료』 제1집에 있지만 <가장골>이 <달뽕골>과 같은 곳인 점으로 보아 <달뽕골>에 대한 <가장골>의 <가장>은 <假裝>일 것이다.

결국 <광대골>, <달뽕이골>의 뜻이 되기 때문에 현대어로 하면 <國樂藝術家村>의 뜻이 될 것이다.

황새미골

상관위의 동산이다. 옛말이 상관에 尹富者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300여 평 건평의 남향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70년전만해도 수백마리의 검은색 황새가 이 동산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尹富者가 망하고 동산의 노송도 베어가자 검은색 황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황새가 놀던 동산이라 하여 <황새뽕골>이라 부른다.

내판리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청주사씨(靑州史氏)

시조는 사요(史繇), 중국 산둥성 청주(靑州) 출신이다. 명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예부상서를 지냈지만 명옥진(明玉軫)의 발란에 가담하였다는 참소를 받아 공민왕21년에 고려로 망명하여 임야에서 숨어 살다가 누명이 벗겨져 명나라 홍무제의 조서로 지금의 경기도 과주에서 세거의 터를 잡았다.

12세손 홍위(洪煒)는 병자호란을 피하여 구즉(九則)의 금탄, 즉 매포의 세일로 낙향하여 살았다. 거기에서 2대를 살다가 14세손 응헌(應憲)이 살기 좋은 강변을 따라 내판으로 이주하여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약 420년 전이니 내판에 제일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씨족이라 할 수 있다. 해방전후에는 25여호가 살고 있었지만 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15호가 살고 있다.

창녕성씨(昌寧成氏)

시조는 성인보(成仁輔)로 고려조에서 중윤호장(中尹戶長)을 지냈다. 정조사(正朝使)로 송경에 갔다가 그곳에서 병사하자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지낸 아들 성송국(成松國)이 시신을 업고 창녕으로 돌아와 안장하였다고 전한다.

6세손 성석인(成石珽)의 후손은 연사조의 사회에 크게 몰랐하였지만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양정공(襄靖公) 성봉조(成奉祖)는 상록공의 아들로 세조와 동서간 이었다.

성석인은 경기도 과천에 낙향하여 살다가 셋째 아들 성급의 후계가 구즉

면 금탄리(세일)로 이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지금부터 약 210년전에 성덕좌(成德佐), 성덕희(成德希)의 형제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내판으로 이주하였다. 해방 전후에는 30여호가 세거하였으나 지금도 15여호만 남아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성인보의 21세손으로 내탄 안동김씨로 출간 열녀로서 정문을 받아 후세에 정절의 높은 뜻을 지리도록 하였다.

언양김씨(彦陽金氏)

시조는 김선(金鎭)으로 신라 경순왕의 일곱번째 아들이며 고려 태조 왕건의 외손이다. 그가 언양군(彦陽郡)에 봉해지면서 후손들이 언양을 관향으로 삼았으며 11세손 윤(倫)이 충청도로 낙향하였다. 17세손 세순(世珣)이 지금의 조치원 신흥리로 이거하고 18세손 덕우(德佑) 19세손 천만(天萬)은 전동면 심중리, 강내면 다락리에 산거하다 약 210여년 전 26세손 흥우(興宇)가 내판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내판에 6가구가 살고 있다.

남양홍씨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 통합에 공을 세워 개국일등공신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태사에 오르고 남양군에 봉한 홍은열(洪殷悅)을 시조로 한다.

그 중에서 문정공파(文正公派)는 15세손 홍윤강(洪允康)의 대에 청주에 터를 잡고 세거하여 17대손 홍태원(洪太元), 홍태윤(洪太允) 이래로 진도, 강진, 무안, 연기 등지에 산거하였다.

약 330년전 21세손 통정대부 언신(彦信)이 삼형제(우문, 무방, 우무)를 거느리고 내판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현재 강외면 서평리, 남면 연기리로 분포하여 살며 내판에는 6가구가 살고 있다.

안동김씨(按廉使公派)

내판리의 안동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 고려 고종 때의 명재상이며 명장으로 진도 완도의 삼별초를 토벌하고 이어서 일본을 정벌하여 크게 공을 세운 충령공 김방경(金方慶)을 중시조로 한다.

공의 둘째 아들 고려의 삼장군 혼(焮)이 충렬왕 17년에 연기 서면 정좌산에서 몽고족인 합단의 침략군을 섬멸하여 크게 공을 세웠으니 역사상 이름 높은 <연기대첩>의 핵심적 주역이었다.

그 후 고려 말에 방경공의 5대손인 사렴(士廉)은 벼슬이 안렴사에 이르고 호를 오은(梧隱)이라고 하였으나 이태조가 등극하자 두문불출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태조가 수차 높은 벼슬로 불렀으나 사양하고 청주의 오근으로 낙향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후일 우암 송선생이 그 청절을 백이숙제에 비기고 청주의 선배들이 청주 오창의 송천서원(松泉書院)의 주역으로 받들고 있다.

오은공의 6대손으로 함은 성균진사로 정암 조광조선생에 사사하였으니 선생이 기묘의 화을 당하자 인적이 뜸한 공주면한 지금의 봉기리로 낙향하여 생을 마쳤다.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맏이를 근조(謹祖)라 하고, 둘째는 구조(球祖)라 하고, 셋째를 기조(琦祖)라 하였다. 오늘날 맏이인 조조공의 자손이 둔대파로서 둔대의 안동김씨이며, 둘째 구조공의 자손이

내판파로서 내판의 안동김씨이며, 셋째 기조공의 자손들이 봉기파로서 봉기의 안동김씨이다.

안동김씨(翼元公派)

안동김씨의 翼元派의 비조(鼻祖)는 김사형(金士衡)이며 그는 김방경의 현손으로 안렴사 김사렴의 친 아우였다. 고려말 공양왕대에 삼사(三司)의 우사(右使)를 지냈다. 그러나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개국 1등공신으로 태종대에는 좌정승을 지내고 익원공(翼元公)의 시호를 받았다.

익원공 10세손으로 가선대부 김환(金桓)은 안동땅에서 인조반정에 연계된 후손으로 집안이 몰락하자 대전시 유성구 구직면 김학동(김학골)으로 이사하였다. 서당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면서 4대가 살았다. 김환의 현손 가선대부 김원(金員)이 너더리(上板)으로 이사하여 4형제를 두었는데 그 자손들이 내판에 집성촌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약 25호가 살고 있다. 김원은 1777년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묘는 강내면 당곡리에 있다.

〈명학리〉

명학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명학리에 연기의 太山이 있는데 太山書院이 있는가 하면 선비들의 상징인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학이 많이 서식하며 알을 낳는 지대라 하여 〈鳴鶴〉이라 불렀다 한다는 설명이 있고, 또한 명학은 3개 부락으로 되어 있으며 육송이 많아서 학이 많이 날았다. 육송에 둥지를 틀고 서식하며 많이 울었다고 하여 명학이라고도 하였다는 설명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용당(龍塘)

집동바위 아래에 있는 소(沼)를 〈용당〉, 즉 용못이라고 부른다. 금강물이 여기서 급하게 돌며 흘러 소가 생겼는데 소의 깊이가 수십길이 되어 용이 승천하는 소의 뜻으로 〈용당〉으로 불리어졌다. 지금은 모래가 점점 밀려들어서 소(沼)가 없어졌다.

집동바위

〈동당〉 위에 있는 바위이다. 큰 바위가 짚동처럼 생겼다하여 〈짚동바위〉, 즉 〈짚동바위〉라 한다.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사람들이 이 바위 위에 모여서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비가 잘 온다고 한다.

원모정(遠暮亭)

〈용당〉 위 〈짚등바위〉에 세워졌다가 없어진 정자이다. 옛날에는 많은 詩人墨客들이 모여서 글을 짓고 그 글을 현판에 새겨서 걸어놓기도 하였는데 지금부터 40여년 전에 헐어 없애버렸다. 이 정자는 부강에 사는 김학현이라는 부자가 세운 것인데 정자를 황우산의 명당인 와우형(臥牛形)의 머리 부분에 세웠기 때문에 가운데 기울어 망했다고 하지만 실은 강이 흐르는 방향과 산용이 뺀 방향이 상극적인 흉지에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다.

황우재(黃牛峙)

황우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황우산에 와우형(臥牛形)과 황우도강형의 명당이 있어서 만대향(萬代香), 화문지(火文地)의 풍수풀이를 하는 이가 있다. 황우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을을 황우재라고 한다지만 황우재는 원래황우산에 있는 산성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재〉는 원래 산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성황제(城隍祭)

황우재 고개마루에 성황당이 있어서 매년 성황제를 올렸다고 한다. 성황당의 구조는 돌로 쌓아올린 돌담에 부락 사람들이 자기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형겅이나 실을 매달아 놓는데 마을 전체의 슬픔이 있는 때에는 모두가 모여서 수시로 성황제를 올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성황제를 올렸다고

『향토사료』 제 1집에 전하고 있다.

용당주막

〈용당〉 부근에 있는 주막으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용당에서 잡히는 명산물, 잉어 먹기를 즐겼다고 하지만 주막이 없어지면서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용당〉 부근에 있는 주막이라하여 〈용당주막〉이라 부른다고 『향토사료』 제 1집에 전한다.

외태(外泰)

〈황우재〉 바깥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연기의 태산(泰山) 바깥쪽에 위치한다해서 外泰라 부르는데 장수 黃씨들이 살고 있다고 『향토사료』 제 1집에 설명이 있지만 〈外泰〉는 〈外岱〉이며 〈泰山〉은 〈台山〉과 함께 〈岱山〉의 부화일 것이다.

서당말

〈황우재〉의 맨 위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여기에 서당이 있어서 글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황우재를 흔들었다고 한다. 원래 서당자리가 명당이어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서당자리가 남아 있다.

거문들

〈명학〉의 남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태산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南村〉이라고 하며 또한 〈신촌〉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 근처의 흙들이 검고 비옥하기 때문에 〈거문들〉이라 한다.

명학리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연기지』에 의하면 병조참판의 증직을 받은 황첩(黃堞)이 장수인이며 방촌 황희의 현손인 대사헌 사효(事孝)의 자로서 묘는 문의와 연기의 경계인 탁석(啄石)의 곤좌에 있고 처음으로 태산에서 살았다(始居台山)라고 하였으니 명학리의 황우재에 장수황씨가 살기 시작한 연대는 방촌의 5대손의 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의와 연기의 경계(文燕之境)은 부강과 황우재의 경계로써 용당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황병태선생의 480년전의 12대조로서 황우재로 낙향한 분일 것이다. 자세한 것은 인물편의 황첩(黃堞)에 대하여 참조할 것이다. 즉 황첩은 음관으로 사직의 벼슬을 지내고 기묘(己卯)의 명현으로 병조참판의 증직을 받았다. 아들 윤정(允禎)은 승지의 벼슬을 살고, 증손 정협(廷協)은 참봉이며 효행으로서 『연기지』에 올랐다고 자세히 전하기 때문이다.

〈문주리〉

문주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문주리〉의 마을이름인 〈文舟里〉의 기원에 대하여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문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녕말〉, 〈골말〉, 〈堂山〉, 〈용머리〉 등을 문제삼아 보아서 거기에서 〈文舟里〉의 기원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향토사료』 제 1집에 「내판들의 모든 물이 이 지역 앞을 지나가고 이곳의 산이 문설주처럼 되어 있다해서 문주〉라 하였고, 美湖川이 마을 앞을 청소하게 흐름으로 마치 文官이 배를 타고 떠나듯 많이 배출된다 하여 文舟里라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때 文舟里로서 연기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와같은 설명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文舟里〉의 기원이 아닐 것이다. 『연기읍지』에는 〈文舟里〉대신 〈問舟里〉로 기록되었다.

〈문주리〉의 〈문주〉는 〈文殊〉또는 〈文殊菩薩〉등 불교적인 것에서 유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주리〉에 절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또한 〈문주리〉의 〈문주〉는 〈門柱〉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다. 동이면(東二面)의 문주리에서 동일면(東一面)의 용호리에 넘어가는 길이 소위 산주(山柱)사이에 통하였기 때문이다. 『향토사료』 제 1집의 문주리의 〈갈말〉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갈말

문주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옛날에는 갈대가 앞에 많아서 〈갈말〉이라

고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山柱〉라고도 부르는데 앞에 안산이 있고 뒤에 堂山이 있어 마치 산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다는 뜻에서 그리 부른다 한다. 이곳에 처음 仁川蔡씨들이 정착하였으나 지금은 牙山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미호천을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문주리 앞의 큰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주리의 좌우에 솟은 산들은 산주(山柱)라느니보다 문주(門柱)로 보였을 것이 좌우에 솟은 산과 산 사이에 마을이 있고, 산과 산 사이에 동이면 문주리에서 동일면을 용호리로 넘어가는 큰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문주(門柱)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門柱〉라는表記가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확실한 것은 후일에 기하고자 한다.

건녕

〈갈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선비들이 많이 모여산다하여 널리 알려졌던 마을로 한양에 가면 〈건녕굴〉하고 말하면 〈선비구만〉하고 대답할 정도로 선비들이 많이 모였던 마을이다. 〈갈이〉 건너에 있다해서 〈건녕굴〉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해서 지금은 〈건녕굴〉이라 부른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지만 〈건녕굴〉은 〈건너굴〉일 것이다. 그리고 선비들이 많이 모였던 마을이라는 점으로 보아 양주조씨가 살던 마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골말

『향토사료』 제1집에 「谷村」이라고도 부른다. <갈말>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깊은 골에 마을이 위치한다고 해서 <골말> <谷村> 이라 부른다」고 하듯이 골말은 谷村의 뜻이었을 것이다.

堂山

『향토사료』 제1집에 「갈말 뒤에 있는 산이다. 이곳에 山祭堂이 있다해서 堂山이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용머리 <갈말> 서쪽 강가에 있는 산부리를 <용머리>라 부른다. 산부리가 용의 머리 또는 누에의 머리처럼 생겼다하여 <용머리> 또는 <누에머리>라 부르는데 이곳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머리로서 마을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산부리로 믿는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 1집에 있다.

치마바위

<갈말> 뒤에 있는 堂山 중턱에 있는 바위를 치마바위라 부른다. 모양이 치마를 두른 형태인데 이곳에 와서 홀아비가 백일동안 바위위에 앉아있으면 홀아비를 면한다는 이야기를 『향토사료』 제 1집에 전하고 있다.

문주리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아산이씨(牙山李氏)

아산이씨의 중시조는 중종반정(中宗反正)의 공신으로 아성군(牙城君), 즉 아산군(牙山君)에 봉한 석반(碩礮)이며 처음 연기로 낙향한 이는 그의 손자로 영홍(溟鴻)이며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양성현감(陽城縣監)을 지냈다. 효종(孝宗) 을미년에 문주리의 뒷산에 관수정(觀水亭)을 세우고 위선(爲先)과 육영(育英)에 힘썼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관수정의 옛터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양주조씨(楊州趙氏)

『연기지』에 조진만(趙鎭萬)선생에 대하여 「양주인이며 호는 삼오(三梧), 문학과 덕행으로 경행에 알려졌으며 벼슬은 참판(參判)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문주리의 양주조씨는 학문과 덕행으로 동면을 대표하는 성씨의 하나일 뿐 아니라 경행에 널리 알려졌던 명문가였던 것이다.

〈송룡리〉

송룡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솔울(松山)

『향토사료』 제 1집에 「松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솔이 무성하다 하여 松龍이라 불렀다 한다. 옛날 여기에 이광정이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큰 부자로 1년에 소작료로 받는 쌀이 천석이 넘었고 하인이 남녀 30명이 넘었다 한다. 그 부자집 옆에 넓고 풀이 많아서 그 부자는 거기에서 소도 키웠는데 소를 키우는 곳이라 〈소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지만 〈솔울〉의 원뜻은 〈솔〉로 이루어진 〈울타리〉의 뜻일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늘〉로 된 〈울타리〉이기 때문에 〈늘울〉이며 〈새집(葦草)〉으로 된 〈울타리〉이기 때문에 〈새짚울〉, 즉 〈생지울〉이 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룡골

『향토사료』 제 1집에 〈도룡골〉에 대하여 「도룡골」이라 부른다 한다. 결성 장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룡골〉이 아니라 보통 〈도룡골〉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도룡골〉은 〈도랑골〉일 것이다. 〈도랑골〉의 〈랑〉이 〈도〉를 닮아서 〈룡〉으로 변한 것이다. 이 마을의 특색은 〈도룡〉과 강이 생긴 점이 아니라 도랑(小河川)의 흐름을 따라서 형성된 점이다.

〈松龍里〉는 〈솔울〉의 솔(松)과 〈도룡(룡)골〉의 룡(龍)으로 합성된 리명(里名)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븐마을

『향토사료』 제 1집에 나븐마을에 대하여 「〈도룡골〉 옆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오래된 石佛이 있어서 〈佛加洞〉이라고 불렀다 한다. 마을 지형이 꼭 나비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나비마을〉이라 부르다가 〈나븐마을〉이 되었다 한다. 〈羅洞〉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룡골〉이 〈도룡〉과는 관계없이 「도랑골」이듯이 〈나븐마을〉, 즉 〈나븐말〉 또한 〈나비〉와는 관계없이 〈넓은 말〉에서 소리가 변한 〈나븐 말〉이 아닐까? 경부선 철도의 뜻이 마을 앞으로 바싹 붙어서 쌓아져 마을이 형편없이 좁아졌지만 철도의 뜻이 쌓아지기 전에는 문주리앞까지 시원스럽게 펼쳐진 〈넓은 들〉 〈넓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羅洞〉의 〈羅〉는 〈나븐 말〉의 〈나〉음 표기일 것이다.

노승, 송룡, 예양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결성장씨

결성장씨로서 처음 낙향한 이는 장효충(張孝忠)으로 『연기지』의 인물편에 전하듯이 호는 노은(蘆隱)으로 고려 평장사 결성군 하(夏)의 7세손이며 성균관생원으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였다고 한다. 일찌기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등과 사귀었고 성종대에 유희인(兪好仁)을 보내어 불렀지만 끝내 응하지 아니하고 전동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전동에서 자손들이 2대를 난 후 동면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양리〉

예양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미꾸지

『향토시료』 제1집에 忠臣門이 있어 〈正門〉 시문 〈施門〉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山과山 사이에 위치하여 물이 좋기로 유명하여 인근 부락에 비해 미꾸라지가 유명하다. 그래서 〈미꾸리지〉 내 옆에 〈미꾸지〉의 미꾸라지하면 유명하다. 〈미꾸지〉 내 옆에 마을로 이곳에서 어진이 글많은 이를 길러냈다 한다. 〈양인〉, 즉 養人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엔 주로 밀양박 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五忠臣門」은 원래부터 미꾸지에 건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약 60여년 전에 서면 리에서 옮겨 세운 것이다. 그리고 〈미꾸지〉라는 마을이름은 미꾸라지와는 관계가 없고 〈밀곳이〉가 어원일 것이다. 〈밀〉은 아래의 뜻이며 〈곳이〉는 뽕족이 내민 곳이다. 청원군 남이면의 팔봉산 끝의 뽕족이 내민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밀곳이〉라는 지명일 것이다.

강 당(講堂)

예양리에 속한 마을이며 옛날에 서당이 있어서 지금도 강당이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여기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근처 약수터 부근에 사는 과부들이 옛날 남편과 살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슬픈 세월을 뼈아프게 생각하다하여 강당을 아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라고 『향토시료』 제1집

에 전하고 있지만 이야기 내용의 진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강당>이라는 마을이름 만큼은 옛날 이 마을에 있었던 <講堂>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양골(養洞)

일명 인동(仁洞)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빛이 하루종일 든다하여 <陽>자를 따 <陽洞>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양동은 일면 인동(仁洞)이라고하여 양인동(養仁洞)이라는 마을명이 있게 되었다.

산소골

약곡 북쪽에 위치한 산소의 마을로 마을 뒤에 해평윤씨의 장군묘가 있게 된 후 산소골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누꾸래, 수꾸래늪

들가운데 있는 누꾸래의 연못으로 일명 도깨비못이라고도 하였고 이 연못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처음 경부선 철도가 단선으로 부설될 때 이 연못 가운데 7개의 교각을 세워서 철교를 놓았기 때문에 일곱간 강다리라고 하다가 복선이 될 때 철교대신 뚝을 쌓아서 철도를 놓았기 때문에 못이 메워져 철로 양쪽으로 쪼개져 지금은 작은 연못만이 남아 있다. <수꾸래>는 <늪꾸래>일 것이다. 큰 홍수 때 강줄기가 여기로 나면서

큰 늪이 생겨 <늪구레> 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부선이 처음 부설될 때는 이 늪지대에 일곱간의 철교를 놓았다가 복선을 놓을 때는 철교대신 뚝을 쌓았기 때문에 뚝으로 늪구레의 대부분이 메워졌지만 철도 양편에 오늘날에도 비교적 큰 못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용호리〉

용호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용호리를 형성하는 마을은 상룡, 중룡, 낡은터, 부래미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부래미〉일 것이다.

용호리(龍湖理)라는 리명(里名)은 1914년의 행정개혁이래의 것이지만 그 전에는 용호리라는 리명은 없었고 지금의 용호리일대를 그저 용산(龍山)으로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상룡(上龍)하면 상룡산(上龍山), 중룡하면 중룡산(中龍山), 하룡하면 하룡산(下龍山)의 뜻으로 보면 될 것이며, 〈낡은터〉는 〈舊堡〉의 뜻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상룡, 중룡, 하룡과 다른 마을로 떨어져 출동산 밑에 위치한 〈부래미〉는 무슨 뜻일까? 단적으로 말해서 〈부래미〉는 〈미리뢰〉의 소리바꿈일 것이다. 《미리뢰-부리뢰-부래미》의 소리바꿈이며 이 경우 입술소리(唇音)인 ㅁ(m)음은 쉽게 같은 입술소리(唇音) ㅂ(b)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 〈미리뢰〉가 〈부래미〉에 대한 원어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리뢰〉의 〈미리〉가 〈龍〉에 대한 옛말이며 〈뢰〉는 〈山〉에 대한 옛말이었다.

이와같이 소위 〈용산〉 〈龍山〉은 〈부래미〉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상룡, 하룡쪽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리뢰〉, 즉 〈미리뢰〉라는 마을 이름으로 보아서 그럴 뿐 아니라 건해방(乾亥方)으로 20여리나 떨어져서 건해풍과 북풍을 막을 수 없는 상룡, 하룡쪽보다 먼저 남쪽으로

터진 부래미쪽에 먼저 부락이 형성되었으리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리피>가 출동산에 대한 명칭이지 노적산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원부래미>, 즉 <원미리피>의 부락은 지금의 부래미마을의 위치가 아니라 양지쪽인 그 건너 출동산 아래일 것이다. 거기에 지금도 공동우물터 등 취학의 자취가 남아 있는 것이다. 『향토사료』 제1집에는 용호리에 대하여 「마을들을 끼고 있는 산세가 호수속에 노는 형상이라 하며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용호리라고 하여 연기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고 하였지만 용호리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부락형성에 그리고 부락의 명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출동산

『향토사료』 제1집에는 출동산을 <出洞山>으로 표기하고 「<부암>앞에 있는 산이다. 장군영병출동형(將軍領兵出洞形)의 명당이 있는 산이라 한다. 앞으로 出洞山에선 큰 마을이 꼭 생길 것이며 이 마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며 마을이 생긴 산이라 해서 <出洞山>이라 부른다 한다」고 하였지만 『연기읍지』는 연기읍의 동쪽에 빼어난 산이라는 뜻으로 <出東山>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將軍이 領兵하고 <출동>하였다면 그 <출동>은 <出動>이지 어찌 <出洞>이겠는가? 將軍이 領兵하여 마을을 떠났다고 해서야 말이나 되겠는가? <장군영병출동형(將軍領兵出洞形)>이 아니라 장군영병출동형(將軍領兵出動形)>이다.

진고개

〈상룡〉에서 〈부래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진고개라고 하는데 물론 〈長峴〉의 뜻으로 〈진고개〉의 명칭이며 〈泥峴〉의 뜻으로 〈진고개〉일 것이다. 그러나 『향토사료』 제1집에는 「옛날에는 이 고개 안쪽에 마을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왜병과 싸우다가 패한 곳이라 하여 〈진고개〉라는 부르게 되었다 한다. 〈梨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진고개〉는 싸움에 진고개(負峴)가 아니라 진고개(長峴) 또는 진고개(泥峴)의 뜻일 것이다. 그리고 리현(梨峴)은 리현(泥峴)으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니현(泥峴)으로 써야할 것을 리현(梨峴)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치바위

〈다락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 중 〈치바위〉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미호천이 이 바위 앞으로 흘러서 강물이 이 바위를 치받고 흘러갔다고 한다. 강물이 바위를 치받는 바위라 하여 〈치바위〉라고 부른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바위〉앞으로 미호천이 흘러갔을 것 같지 않으니 〈치바위〉는 키(箕)같은 모양의 바위라는 뜻으로 치바위(箕巖)이지 미호천의 강물이 치받는 바위라하여 〈치바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동면에서는 구(箕)를 〈치〉라고 한다.

소정이

『향토사료』 제1집에 「〈백수봉〉 밑에 있는 마을을 〈소정이〉라고 부른다.

소나무 정자가 있다 해서 〈송정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이 마을에선 소를 끌고 논에 들어갔을 때에는 논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사람이 떼메고 나오거나 흙이 소를 죽이기까지 했다하여 〈소정이〉라고 부른다 한다. 부안임씨들이 많이 산다」고 하였지만 〈소정이〉라는 소지명(素地名)은 도처에 있는 것으로 내판에도 있다.

결국 이것은 〈소나무가 있는 정자〉 또는 〈소나무 정자나무〉를 말한 것은 아닐까? 〈소정이〉를 작은 샘물, 즉 〈小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봉재

「중룡(中龍) 뒤에 있는 산을 〈물봉재〉라 부른다. 이 재는 모양이 꼭 龍과 같다해서 〈미리재〉, 〈미리봉〉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금은 〈물봉재〉라 부른다 한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지만 중룡마을 뒤의 노적산에서 가장 높은 봉을 〈말봉재〉라고 하였을 것이다. 〈말봉〉은 〈머리봉〉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의 뜻이다. 이와같이 볼 때 노적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말봉재〉가 〈물봉재〉로 와전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락바위

노적산 서남쪽 중턱에 있는 바위를 다락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다락같이 생겼다하여 다락바위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비가 올 때 20여명이 비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다.

날근터

〈중룡〉마을 건너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폐허가 된 옛터에 마을이 새로 생긴 곳이다. 〈날근터〉에 처음 具氏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구대〉라고도 부른다. 한자로는 〈舊垆〉라도 쓰지만 옛날에는 具垆라 하던 것이 그리 변하여 쓴다 한다고 『향토사료』 제1집에 전하였지만 〈날근터〉는 〈냘은터〉로서 〈舊垆〉일 것이니 그 舊垆가 具垆였을 까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具垆라고 전한 것은 舊垆로 바꿔쓰고는 舊垆를 쫓아 〈냘은터〉라고 하였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노적산(露積山)

「〈上龍〉과 〈佛岩〉 뒤에 있는 산을 노적산이라 부른다. 산의 모양이 꼭 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하여 노적산이라 부른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고려 충렬왕 17년에 고려에 침입했다가 서면 정좌산에서 섬멸당한 합단과 노적의 부자중 아들 노적에 유래한 〈老的山〉이라는 설도 있다. 여기는 서면의 정좌산과도 가깝고 남면의 원수산성과도 아주 가깝다. 정좌산과 원수산성이 그 당시의 싸움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적산〉을 〈老的山〉에 비정하는 것이다.

佛岩

이 〈佛岩〉이 〈傳岩〉으로도 표기하는 〈부래미〉, 즉 〈미리뢰〉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 〈부래미〉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하였으니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나루

용호리의 서쪽에 있는 나무를 東津나루라고 한다. 연기 동쪽에 있는데 이조시대에는 동진원(東津院)을 두어서 행인의 편의를 도왔다고 한다. 미호천과 조천이 합하고 원하천이 합한 합강까지의 거리를 동진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의 강에서 밤에 많은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고기잡는 햇불의 광경이 <동진조화(東津釣火)> 로 <연기팔경> 의 하나로 꼽힌다. 동진나루의 동쪽 펼은 <東津坪> 으로 습지대이며 임진왜란 때 전락지로 알려져 있다. <동나루> 는 <東津나루> 에 대한 또하나의 속칭일 것이다.

송장골

임진왜란 때 이 주위에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이곳에 버려서 많은 사체가 쌓여 있었다고 하여 <송장골> 이라고 하였다고 하지만 옛날 <風葬> 을 하던 시대에 소위 <덕대골>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폐장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살과 물이 빠지고 뼈만 추려서 땅을 파고 묻던 장의 풍속이다.

돌마루

마루만한 바위가 있어 이 마루에서 쉬어간다고 하여 돌마루라고 한다고 한다.

용호리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부안임씨

부안임씨의 용호리의 세거에 대하여 『연기지』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임석분(林碩芬) 부안인이며 공조전서 난수의 8대손이며 통정대부로서 동면 용호리에 살기 시작하였으며 묘는 출동산 임좌(壬坐)이다 > 라고 하였다. 묘가 출동산 임좌라는 말은 전서공과 같은 산의 같은 좌향어에 묘가 있다는 말이다.

진주강씨

진주강씨의 용호리 세거는 「연기지」에 <강응기(姜應期) 진주인으로 공조 참판의 벼슬을 살았다. 묘는 현의 동쪽 노적산의 갑좌이며 처음으로 용산(龍山)에서 살았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강눌(姜訥)에 대하여 <진주인이며 은렬공 민섬의 후손으로 벼슬은 장예원판결사(掌禮院判決事)이며 묘는 동 일면 덕고개 해좌라고 하였다.

〈응암리〉

응암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응암리를 〈鷹岩里〉로 쓰는 이유는 〈매바위〉 마을의 뒷산에 매같이 생긴 바위가 있기 때문이며 〈응암리〉의 주부락은 이래서 매바위가 아닌가 한다. 즉 〈응암리〉는 1914년에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 때 여러 마을을 병합해서 된 것이다.

가마골

〈매바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을 〈가마골〉이라 부른다. 마을이 마치 가마의 치알처럼 西方의 야산으로 둘러싸고 있어 〈가마골〉이라 부른다 하며 또한 〈부동〉, 〈산수〉라고도 부른다고한 설명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지만 〈가마골〉이라는 부락이름은 〈가마봉〉이라는 산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마봉〉의 〈가마〉는 사람이 타고 가는 가마도 아니고 밭짓는 가마솔의 〈가마〉도 아니고 고대사회에서 신인 〈神人〉이며 무격(巫覡)을 의미한 〈가마〉였을 것이다. 일본어의 「カミ(神)」의 어원이 이것이다. 「가마봉」은 〈神山〉이라는 뜻이다.

성동

성동은 〈聖洞〉 또는 〈性洞〉으로 표기한다. 『향토사료』 제 1집에는 「〈가마

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聖洞> 이라 부른다. 전주이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해서 <聖洞> 으로 부른다 한다」 설명이 있지만 옛날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老谷> 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싶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늘울

『향토사료』 제1집에 「<성동>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老谷> 이라 부른다. 盧씨의 산소가 있다하여 <노산소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老木이 많이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老谷>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老谷> 이 <늘이울> 이라는 소지명의 <늘> , <늘이> 에 <老(늑)> 를 들이맞춘 것이다. 즉 <老谷> 이 <늘이울> 이라는 소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인 것이다.

따라서 盧씨의 산소가 있기 때문에 또는 老木이 많아서 <老谷> 이라 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민간 지명 속설인 것이다. 그리고 <늘울> 또는 <늘이울> 이라는 소지명의 뜻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늘판으로 울을 만든 마을」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높은정(高亭)

『향토사료』 제1집에 <메바위> 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高亭 또는 <높은 정> 이라 부른다 한다. 옛날에는 老木이 울창해서 老樹亭이라 하였다가 老木이 모두 없어지자 <高亭>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高亭〉은 〈높은 정자〉 또는 〈높은 정자나무〉라는 뜻의 소지명에 대한 표기일 것이다. 『연기읍지』에 충신 청절 한 적선생이 별자호란이 끝난 후 벼슬을 마다하고 「老樹亭」이 소지명인 「높은 정이」에 대한 재미있는 한자음 표기였을 것이다.

응암리의 세거성씨에 대하여

청주한씨

동쪽 청원군 남이면에서 동면으로 들어서면 첫째로 만나는 마을이 응암리의 고정, 즉 높은정이며 높은정에 들어서 첫째로 만나는 바가 「청절한선생 유허비(淸節韓先生遺墟碑)」이다.

비는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 서 있다. 한선생은 한필적(韓必迪)선생이며 청절(淸節)은 한선생의 호이다. 선생은 정묘의 재란에 백의의 몸으로 강화도로 임금을 따랐고 그 공적으로 나라에서 6품 벼슬을 내렸지만 도리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돌아와 동로팽정(東老彭亭), 즉 지금의 <높은정>에서 노년을 보냈다. 수직(壽職)으로 절충장군의 직함을 받았다. 그리고 숙종 때 청주현감을 지낸 한여익(韓汝益)의 묘와 함께 금남면의 금강 건너 부동산 밑에 있다.

또한 한성기(韓聖箕)는 음사(陰仕)로 공능참봉(恭陵參奉)을 지내고 서흥(瑞興縣監)을 지냈으며 묘는 고정에 있다고하듯이 높은정 마을에 처음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이는 이들 청주한씨로 생각된다.

요컨대 청주한씨 400년전 부터 세거하였는데 팔봉산하에 비봉귀수(飛鳳歸巢)의 명당이 있다하여 이곳 명당을 찾아 세거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13대를 이어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

응달샘

청주한씨 유허비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물가 양쪽 가장자리에 200년

이상 되는 향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마을에서 이 우물을 먹고 살았으며 이 우물을 먹으므로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장수물> 이라고 전하여졌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으로 향나무를 없애 버리고 이 우물도 먹지 않고 방치한 채 마을에서 우물을 쓰지 않고 옛날같이 위하기만 한다.

오장군묘(吳將軍墓)

응암리 산 51번지. 무안박씨 당진파보에 의하면 오장군묘가 있었는데 오래 방치하고 자손들이 오지 않아 도굴당하여 지금은 묘도 없어지고 거대한 석물들만 흩어져 있다.

절골

응암리 산 51번지 남쪽에 절골이 있는데 예전부터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고 하였다.

무당골

응암리 산 51번지 북쪽으로 무당들이 죽으면 이곳에 묘를 였다고 하여 무당골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경주김씨

응암리 가마골의 경주김씨는 가마골에 산소가 있는 송애(松崖)와 김경여 부자의 묘를 가마골에 모신 후 후손들이 묘하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안박씨(務安朴氏)

늘울의 마을에 처음에는 여씨(呂氏)가 발전하여 살다가 모두 떠나고 1550년대에 경주이씨가 거주하였고 1650년대부터 무안박씨가 세거하여 살고 있으며 기타 성씨가 살고 있다.

〈합강리〉

합강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가람뜰

합강리라고 하면 〈합강〉의 마을과 〈소지울〉의 마을, 〈갯절〉의 마을로 이루어졌지만 그중에서 〈합강〉의 마을이 시초적인 마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합강〉의 마을은 소지명 〈素地名〉으로 〈거름뜸〉 또는 〈거름말〉으로 불리웠다.

그러면 〈거름뜸〉 또는 〈거름말〉의 〈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강(江)을 의미하는 〈가람〉일 것이며 〈가람〉의 음운변화로써 〈거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람〉, 즉 중세 국어에서 〈ᄃᆞᆫ〉으로 적은 이 말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말중의 하나로 『월인천강지곡』에 〈즈믄 ᄃᆞᆫ에 ...〉라는 것이 있으며, 근세의 유명한 시조시인 이병기(李秉岐)의 아호 「嘉藍」이 〈ᄃᆞᆫ〉임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가람뜰〉 또는 〈가람말〉은 아름다움 마을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합강리의 마을 이름은 금강과 비호천의 두 강이 합치는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전에 〈가람뜸〉 또는 〈가람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이다.

한편 『향토사료』 제1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쇠줄

〈거름뜸〉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쇠줄〉이라 부른다. 〈소지울〉 〈소지〉라고도 부르는데 농사짓는데 필요한 소를 키우는데 으뜸인 마을이다. 해서 〈소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쇠줄〉, 〈소지울〉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또한 소지(沼池)가 있는데 연꽃이 만발한 소지였다 한다.

〈거름뜰〉이 〈가람뜸〉의 음운변화이듯이 〈소지울〉이라는 부락이름은 〈새짚울〉의 음운변화일 것이다. 즉 여기는 금강변으로 〈새풀〉이 우거진 곳이며 여기에 인가가 들어서면서 〈새짚〉으로 울을 만든 것이다. 거기에서 〈새짚울〉이라는 부락이름이 생긴 것이며 〈새짚울〉이 〈생지울〉, 〈소지울〉로 음운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컨대 〈늘〉로서 〈울〉을 한데서 〈늘울〉의 부락이름이 비롯되고 〈술〉로 〈울〉을 한데서 〈술울〉이라는 부락이름이 비롯되듯이 〈새짚〉으로 〈울〉을 한데서 〈새짚울〉이라는 부락이름이 비롯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새(葦)〉란 풀 이름이 〈소, 쇠(牛)〉의 뜻으로 바뀐 것으로 〈새내(鳥川)〉이라는 내 이름이 〈새내(鳥川)〉의 뜻으로 바뀐 경우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달말

〈거렁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말〉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리가 당시 향지 양지바르다하여 〈양달말〉이라 부른다 한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1집에 있지만 그것으로 족한 설명이 될 것이다.

젯절

〈모습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황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 골짜기 부근의 마을이라해서 없어진 절 부근에 마을이 있다해서 〈젓절〉이라 한다는 설명이 『향토사료』 제 1집에 있지만 〈젓절〉이라는 절은 황무재(外台, 內台) 마을에서 젓절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의 용당이 강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던 절(黃龍寺?) 이름에서 비롯된 〈재절〉이라는 마을이름일 것이다. 요컨대 지금도 젓마을의 큰 길가에 일부 남아있는 절터의 석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향토사료』 제 1집에 「〈거름뜰〉이라고 하여 「〈습江〉의 원마을이다. 합호서원이 있는 마을인데 옛부터 글 잘읽고 출세하는 문객이 배출한 지역이라 한다」고 하듯이 합강리의 원마을은 〈거름뜰〉 즉 〈가람뜰〉이며 〈가람뜰〉을 한문으로 쓰면 〈江村〉이 되고 〈습江村〉이 될 것이다.

ㄹ름 { 가람(홀소리 맞춤)
거름(닿소리 맞춤)

합강리의 3姓에 대하여

합강리의 〈가람뜸〉은 순흥안씨의 세거지이며 〈양지말〉은 예안김씨의 세거지이며 잣절은 인천채씨의 서거지이다.

이 3姓과 합강리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봉수골(鳳巢골)

〈보수골〉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봉〉이 깃든 곳이라는 뜻으로 봉새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합호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일 것이다. 그것은 다음 삽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서원이 있는 자리위 성영자리를 몸체로 하는 실한 좌청룡 우백호의 깃이 봉의 날개깃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합강리의 서원자리를 중심으로 그 뒤의 순흥안씨 선영자리로부터 강변까지가 소위 〈봉수골〉로 알려졌기 때문에 순흥안씨도 그렇고 예안김씨도 그렇고, 인천채씨도 그렇고 〈봉수골〉를 찾아서 정착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청주병사를 지낸 한양조씨들이 명당자리를 찾아서 구산하여 묘를 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萬山圖』라는 책을 보면 동면의 출동산으로부터 금강까지의 범위내에 소위 명당자리가 표시되었지만 그 명당자리는 황우재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강쪽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황우재쪽에 있다는 〈황우도강〉의 형국이 아니라 합강쪽의 〈봉수골〉의 형국일 것이다.

고배나루(告拜津)과 꽃벼루나루(花峴津)

합강리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배나루>가 있었고 <꽃벼루나루>의 두나루터가 있었다. 금남면으로 가는 길손은 금강의 고배나루(告拜津)와 남면과 공주방면으로가는 미호천 하류의 꽃벼루나루가 있어서 뱃사공이 조그만 나룻배를 저어서 건너주었다. 이것은 앞서 <渡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순흥안씨(順興安氏)

순흥안씨의 시조는 고려의 신종(神宗)대에 신호위(神號衛)상호군(上護軍)이었던 자미(子美)이며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이 고향이다.

한국 유학의 조종인 문성공 안유(安瑠)은 그의 4대손이며 그의 등과(登科)로 개성에서 5대를 살다가 태조 이성계의 건국시 그에 반대하여 개성의 승인문에서 순절한 부제학 조동(祖同)의 아들 인강(仁剛)이 지금의 천안군 병천면 도원리로 피난해서 4대를 살았다. 그러다 한성좌윤(漢城左尹) 윤희(允禧)가 합강에 처음 들어와 정착하였으니 약 400여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합강에 정착하게 된 자상한 연유는 알 수 없다.

8.15해방 이후에는 100여호가 집산부락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그 절반도 안된다. 후손들이 합호서원을 건립하였으며 마을 소로변에 「순흥안씨세장비(順興安氏世左碑)」가 있어서 합강이 순흥안씨들의 세거지임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채씨(仁川蔡氏)

인천채씨의 시조는 선무(先茂)이며 그의 12세손인 호조참의 승(昇)이 황해도에서 이곳 동면 문주리로 이사하였으니 수백년 전으로 추정된다. 문주리에서 5대를 살다가 그의 6대손 상(祥)이 합강의 용당으로 이주하여 근 400년을 살았다. 이주한 사연은 알 수 없고 현재 36호 남짓이 살고 있다.

선조중에서 사복사정(司僕司正) 관형(觀亨)과 그의 처 경주최씨에 관한 효자 효부의 행적문헌이 발견되어 후손들이 1968년에 마을어귀에 효자비를 건립하고 1993년에는 재실로서 금연사(錦燕祠)를 짓고 매년 이곳에서 조상의 얼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예안김씨(禮安金氏)

예안김씨의 시조는 고려 숙종원년 부터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에 정착하였다가 조선조 세종대에 이순지(李純之)와 함께 역학(易學)의 기본이 된 칠개법(七改法)을 만든 문절공(文節公) 담(淡)은 그의 10세손으로 안동부사와 경주부윤을 거쳐 이조판서를 살았다.

그후 만인(萬引)이 충청도로 이주하고 그의 아들 몽가(蒙哥)가 공주군 장기면 오공동에 살다가 몽가의 아들 좌부승지(左副承旨) 삼섭(三燮)이 합강에 처음으로 이주 하였으니 약 400년전으로 추정된다. 현재 합강 생지울에 10여호 안팎이 살고 있지만 시조의 분묘 관리 등 송조사상이 뚜렷하다.

남양홍씨(南陽洪氏)

남양홍씨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인 상중대광 태사로 전하는 은열(殷悅)이다. 홍건적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서울수복의 방략을 세웠으며 홍왕사의 금융난(金鏞亂)때 항거하다 살해되어 호종공신 일등에 정승이 추증된 언박(彦博)은 그의 13대손이며 합강의 남양홍씨들은 바로 그의 직계손들이다. 그후 5세를 더 지나서 18대손인 가선대부도사 신달(信達)이 그의 아들과 같이 지금의 동면 명학리 원당골에 이주하였으니 이것이 남양홍씨의 동면 정착의 처음이다. 정착의 이유에 대하여서는 뚜렷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정변이나 당장을 피해서 피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충의위(忠義衛) 윤상(潤祥)이 합강 부소골에 이사와 살기 시작하였다. 500년 전에는 홍씨의 집성촌이었지만 지금은 몇 개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년 시제에는 많은 후손들이 모여 와서 성대하게 지내고 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첨기한다.

지난 『연기읍지』에 합강리의 순흥안씨에 관하여 안세현(安世賢)이라는 이가 문과에 합격하여 참관을 지냈는데 묘가 합강리의 묘좌이다. 이로 인하여 자손들이 합강에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그후 『연기지』에도 그대로 따랐지만 안세현의 묘는 합강리에 있지 않고 현도에 있으며 그가 합강에 처음 이주한 것이 아니라 그후 몇 대 후에 합강으로 이주한 것이다.

또한 인천채씨에 대하여서도 <채종현(蔡宗賢)이 인천인으로 진천현감을 살았는데 그가 처음 연기에 시주하였다. 동쪽 죽목산 소지동(巢池洞)의 간좌에 묘가 있으며 아들 예조좌랑 번(蕃)의 묘가 노적산 유좌에 있다고 『연기읍지』에 전하고 『연기지』도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예안김씨에 관하여서도 <김영손(金永孫)>이 등제하여 좌랑의 벼슬을 살고 처음 연기로 이사하

였으며 묘는 합강의 묘골(墓谷)에 있으며 그의 아들 참봉 수면(守勉)의 묘는 소지동(巢池洞)의 술좌라고 『연기지』에 전하고 『연기지』에도 따르고 있다.

〈갈산리〉

갈산리의 소지명에 대하여

도끼바위

〈칠미〉 마을 남쪽 길가에 있는 바위를 〈도끼바위〉라 한다. 후미진 곳에 바위가 커서 도끼바위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이다.

봉무동(鳳舞洞)

하갈(下葛)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칩산의 봉우리를 강선대(降仙臺)라고 하는데 칩산에 신선이 내려와 설 때는 여기에서 봉(鳳)이 같이 춤을 춘다고 해서 봉무동이라 부르다가 현지만, 일선로는 〈불무바위〉가 있어서 〈불뭇골〉이라고 부른다는 점으로 보아서 〈불무〉(作風器, 送風器)로 상진되는 대장장이(冶匠)의 대장간이 있어서 그 대장간에서 유래된 마을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무간〉이라고 하면 〈대장간〉을 의미하였다.

송능천(宋櫟泉)산소

〈칠미〉 뒷산에 있는 산소로 영조 때의 학자 능천(櫟泉) 송명흠(宋明欽)의 무덤이다.

츨산

〈츨이〉의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츨뿌리가 유달리 커서 재목으로도 사용하였다 한다. 옛날에 이산에서 켜 츨뿌리로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에 있는 안심사의 대들보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치마바위

삼갈 뒤산에 있는 바위를 마치 치마를 두른 것 같아서 치마바위라고 한다.

먼터말

갈산리의 상갈과 하갈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청주고을에서 공주고을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묵어가던 자리라 하여 〈원터말〉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지금은 〈언터말〉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많은 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겠끔 좋은 건물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지고 지금도 땅을 파보면 불탄 재가 나온다고 한다. 〈언터말〉 즉 〈원터말〉은 〈新院〉이 있었던 옛터이다.

인물편(人物篇)

1. 독립운동 애국지사
2. 정 려
3. 신 도 비
4. 분 묘
5. 효 자
6. 충 신
7. 유 행
8. 문 학
9. 선 행
10. 문 과 외

1. 독립운동(獨立運動) 애국지사(愛國志士)

장재학(張在學)(1861~1920)

결성인. 자는 도삼(道三)이며 호는 지산(止山)으로 동면 예양리에서 태어나 강제(長齊) 전우(田愚)의 제자이다. 1910년 경술의 국치후 그는 그의 아우인 재규(在奎)와 함께 호적신고를 거절하고 신고를 하지않아 면서기가 대신 신고를 하자 그는 신고서를 찾아내어 찢어버렸다. 이에 격노한 일본 경찰이 그들 형제를 구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나는 대한제국의 유민이거늘 어찌 일본호적에 입적할 수 있겠느냐」고 힐책하므로 일본경찰은 아우인 재규는 석방하고 형인 재규는 경성재판소로 압송하여 1년간의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일본인이 주는 식사를 일체 거부하고 집을 떠날 때 가지고간 솔잎가루만 먹었고 일본인이 그의 머리를 깎으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목을 매어 죽으려 하므로 끝내 깎지 못하였다.

한번은 사기 그릇을 거만 불손한 일본인 옥리의 얼굴을 향하여 후리쳐 깨진 사기그릇의 조각을 삼켜 자결을 시도하였지만 옥의(獄醫)가 목에 걸린 파편을 꺼내어 소생시켰다. 그후 솔잎가루가 떨어지자 입을 다물고 먹지않아 억지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떠넣었다. 이 소문이 장안에 삼시

간에 퍼지자 장안인사들이 다투어 사식을 넣어 주었다.

이와같은 그가 감옥에서도 전연 규율을 지키지 않자 구실을 달아서 그들은 5개월간 형기를 연장시켰다. 1916년 겨울에 만기 출감한 그를 집으로 돌아보내지 않고 보안법을 구실로 하여 그들 형제를 전라남도 고흥군의 거금도와 완도군 소안도로 각각 3년간 유배시켰다. 유배생활이 끝나 1년간 형독(形毒)으로 고생하다가 1920년 한많은 일생을 마쳤다.

장재규(張在奎)

결성인. 지산 장재학의 아우이다. 한일합방이 된 후 호적신고를 거절하여 형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석방되고 나서도 일본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차, 자동차 조차 타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항일 정신으로 일관하였다. 그가 그의 형 재학이 수감되어 있는 경성형무소로 10여차례 면회를 갔으나 그 때마다 면회를 거절당하였다. 그는 크게 통곡하고 형에게 다음의 시를 지어 옥중의 형에게 부쳤다.

山何移易訂無用 不死遺民每抱羞
頭上會臨韓日月 皮中尙有魯春秋
丹心來辨秦延哭 白髮尙辭楚澤囚
兄弟徒然寒暖異 梅技南北恥相猶

1920년에 형이 죽자 그는 형의 묘 앞에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그는 그후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마지막에는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오래동안 단식투쟁을 감행하여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자 비로소 가족들에게 넘겨졌으니 그 때가 바로 8.15해방 10일전 이었다.

장기민(張基民)

결성인. 호는 송곡(松谷)으로 동면 송룡리에서 태어났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이었던 그는 동면 면사무소에 연기 군수가 찾아와 관내의 민심을 무마하려고 강연하는데 초청되어 갔다가 군수에게 <대한의 민족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이라고 반박하다가 가까스로 면장의 만류로 돌아왔다. 그후 3월 28일에 송룡리 주민 10여명과 함께 마를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고 앞장서 <대한 독립 만세> 를 절규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같이 주동한 장홍진(張弘鎭)과 함께 일제의 경찰에 체포되어 4월 7일에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간의 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였지만 형독으로 신음하다가 향년 24년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1995년 가을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愛族章)을 추서 받았다.

장홍진(張弘鎭)

결성인 동면 송룡리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장기민(張基民)과 더불어 3월 28일 면민의 횃불 시위를 주동하여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4

월 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1992년에 대통령 표창이 있었다.

김재황(金在璜)

안동인. 호는 향성(香星)으로 동면 내판상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향리 서당에서 한학과 서예를 익혔다. 연동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 특별히 민족주의 사학자로 고명하였던 황의돈선생의 애국애족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보성학교 5학년 졸업반 때 평소 조선 학생에 대하여 항상 편견을 가지고 하시한 일본인 교사 〈요시다〉를 3차에 걸쳐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축출했다.

1939년 4월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진학 학창동지로서 서영원(서재필박사의 종손), 김상흠(인촌 김성수선생의 차남으로 후일 국회의원), 윤주연, 이동원, 민영노, 이영춘이 민족사상으로 규합되어 매일같이 학교 후림(後林)에서 회합 망국의 서러움을 달래며 장차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비밀결사 조직을 가질 것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로 하였다.

1939년 12월 윤주연의 숙소였던 사직동의 도정궁에서 앞서 언급한 국내학생 대표들과 일본 유학생 백재호, 고재욱(후의 동아일보사장), 김용운이 회합하여 〈조선학생 동지회〉를 결성하고 5대 행동강령(김재황기초)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과 같이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조직 확대를 위하여 남한산성에서 회합하고, 냉천약수터에서 회합하고, 연전 후림에서 회합하고, 벽제관에서 회합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1941년 8월 <조선학생 동지회>의 함경남도책 이근감이 체포되므로 조직이 들어나 본인은 물론 서울, 북부대표, 동경 유학생 대표 전원이 함흥의 함경남도경 특고에 의하여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함흥감옥에서 미결로 1년 7개월동안 갖은 고문 악형을 당한 끝에 1943년 3월 함흥지방법원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언도를 받고 함흥감옥에서 복역(통산 3년) 1944년 8월 만기 출옥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출옥한 직후 1944년 9월에 연희전문학교 동문으로 민족사상이 투철한 문택용을 만나 그의 소개로 홍기철과 이만종을 만나 <구국동지회>를 조직하여 강령을 채택하고 지하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 광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을 확대하던 중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 대통령 표창이 있었고 1990년에 국가유공자 훈장 애족장을 주어 서훈하였다. 한국독립유공자연맹 부회장을 거쳐 현재 고문을 맡고 있다. 충남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사 충회(忠會)는 장남이며, 동면 농협상무 찬회(燦會)는 삼남이다.

배상철(裵相哲) (1895~1943)

성산인. 호는 춘강(春岡)으로 동면 노송리에서 태어났다. 간제(艮祭)전우(田愚)선생의 문하생이었던 그는 특히 역학(易學)에 능통하여 일본의 참패를 예언하였다고 한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인근 주민들에 앞장

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 상복차림으로 서울에 숨어 들어가 대동단(大同團) 주모자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과 뜻을 같이 하고 의친왕(義親王)과도 관계를 맺었다고 하며 한번은 의친왕이 그의 숙소에 찾아와 「春岡義巢」의 네 글자를 직접 써주었다고 한다.

그후 시효로 지명수배가 해제되자 일시 귀향하였다가 다시 상경 「춘강비결(春岡秘訣)」을 저작 발간하여 점을 치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면서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해방을 기다려 왔으나 8.15 해방을 2년 앞둔 1943년 8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장계순(張鷄淳)1922~

동면 송룡리에 한학자 우송(友松) 장응철(張應喆)의 맏아들로 태어나 연동공립보통학교와 공주공립농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1940년 여름에 동경 유학생들과 결탁하여 거국적인 민중봉기를 계획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1943년 2월 19일에 공주읍 산성동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동지 최동원, 이모, 주춘환 등과 일본 경찰에 넘겨져 동경 경시청을 거쳐 동경지방검찰청에 구치되었으나 잔약한 체질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구금 6개월만에 풀려났다고 한다.

2. 정려(旌閭)

오부자충신문(五父子忠臣門)

박천봉(朴天鵬)

밀양인. 27세에 무과에 뽑혀 참군(參軍)에 올랐다. 임진왜란을 당하며 조중봉(趙重峰)선생의 종사관으로 상당산성의 싸움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수십명의 적을 무찌르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의 네아들 원겸(元謙), 인겸(仁謙), 예겸(禮謙), 의겸(義謙)이 모두 지략이 뛰어나 병자호란을 당하여 청군을 맞아 용맹하게 싸우다 4형제가 모두 전사하였다. 5부자의 충절을 비할바 없으니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다.

언양김씨(彦陽金氏)

인조1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김씨는 83살이 된 시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김씨는 가족들을 동문에 나가 산에 피신하게 하고 자신을 서문으로 피신하여 예양리 앞강까지 쫓기다가 오랑캐를 크게 꾸짖고 투신하여 죽었다. 이것을

본 청나라의 장수가 의롭게 생각하여 시체를 묻고 표목을 세우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후에 쳐들어온 청의 군사들은 표목의 글씨를 보고 그 마을에는 침입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화를 면하였다고 한다. 후일 남편 장응현(張應軒)이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 난리가 끝난 후 인조 16년(1638)에 나라에서 정문 세울 것을 명하여 전조 17년(1793)에 창건하고 광무 8년(1904)에 중수하였다. 처음에 송룡리의 나븐말 어구 도로 옆에 세웠으나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 뒤 높은 대지에 옮겨 세웠다.

고부양세정례(姑婦兩世旌閭)

밀양손씨(密陽孫氏), 창녕성씨(昌寧成氏)

손씨는 김기철의 처로서 안동김씨 집안에 출가하여 임신 7개월만에 남편과 사별하였다. 손씨는 예를 다하여 죽은 남편을 섬기고 유복자를 길러서 자부로 창녕성씨를 보았지만 며느리 역시 20살이 채 안되어 남편과 사별하였다. 아직도 젊은 고부는 비통함이 말할 수 없었지만 정절과 몸가짐이 모두 곧고 부지런하여 주위 칭찬을 한몸에 받아 모범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고종 갑진년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을 내렸다.

이 정례는 동면 내판리 마을 앞에 세워진 2칸 정려로 조선조 후기의 정려 건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1979년에 보수되고 1956년에 담장과 앞문을 보수하였다. 정려기(旌閭記)를 동면 문주리 출신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겸 난학교수(南學教授) 양주(楊州) 조진만(趙鎭萬)이 짓고 동면 노송리 출신 포은후인(圃隱後人) 장태섭(張台燮)이 글씨

를 썼다.

광산김씨(光山金氏)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극진하여 무안(務安) 박기정(朴基鼎)에게 출가하였지만 혼례 3일만에 남편이 병을 얻어 눕게 되었다.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밤낮으로 간호하던 그녀는 허벅지살을 베어 먹이면서까지 정성을 다하였지만 끝내 남편이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3년간 정성으로 시묘하고난 다음 당진군에 사는 응현(應鉉)이라는 일가 아이를 데려다 양자를 삼아서 지성으로 키웠다.

이 사실이 마침 지방을 행차하던 도백에게 알려지게 되어 나라에 알렸다. 이에 고종 14년(1877)에 우의정 송근수가 글을 쓰고 도백 민영태가 계판(揭板)하여 1952년에 열려문을 세웠다. 이 정문은 동면 응암리에 있다.

임양문(林養文)

부안인. 자는 표(豹)이며 동면 용호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효성이 지극하였던 그는 부친이 중태에 빠지자 엄동설한에 산약을 캐어 연명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후 모친마저 병으로 눕게되자 지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부모 모두 세상을 떠났다. 묘 아래 움막을 짓고 시묘삼년(侍墓三年)을 치르니 조정에 알려져 고종 갑진년(1904)에 정려를 세웠다. 용호리의 상룡부락 어구 길가에 있다.

김백열(金百悅)

안동인. 자는 여행(汝行)이며 동면 내판리에서 태어났다. 5살의 어린 나이에 부친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지성으로 간호하던 중 하루는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곳감이 부친의 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주자 다음날 이를 구하여 드리니 차도가 있어 며칠만에 병이 나았다 한다.

이 소문이 세상에 알려지자 하늘에서 낸 효자라하여 고종 27년(1890)에 동몽교관(童蒙敎官) 조봉대부(朝奉大夫)의 벼슬과 정려를 내렸다 한다. 이 정려는 동면 내판리 하리에 있다.

3. 신도비(神道碑)

임간수(林蘭秀)

부안인. 고려말 공민왕 23년에 탐라를 치는 데 공을 세워 전서(典書)의 벼슬에 오르고 늙어서 공주 삼기(三岐)의 강호로 물러가 살며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을 독락정(獨樂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벼슬하지 않았다. 묘는 연기현(燕基縣)의 동쪽 부래미(拂坡尾)의 임좌이고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임간수(林蘭秀)

소재지: 동면 부래미 출동산 남쪽(부모 앞)

크 기: 비신 69×28×148cm(높이)

비좌 125×25×50cm(높이)

옥개 120×82×45cm(높이)

이 신도비는 승정(崇禎) 임술(1682)에 건립되었고 우암 송시열이 글을 짓고 박태유(朴泰維)가 글씨를 썼다.

김경여

경주인. 호는 송애(松崖)이다. 찬성의 증직을 받은 김광유(金光裕)의 아들이며 인조조 임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후에 충청도 감사를 지내고 이어 부제학에 올랐지만 사양하였다. 묘는 현의 동쪽 가마골에 있고 신도비는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

김경여 신도비

소재지: 동면 응암리 289

크 기: 비신 78×32×182cm(높이)

비좌 89×136×30cm(높이)

옥개 113×67×42cm(높이)

시 대: 숙종 원년(1675)건립, 최근에 재건함

송시열 찬, 민유중 서.

홍 보(洪寶)

풍산인(豊山). 인조조의 원훈(元勳)으로 좌찬성(左贊成)의 벼슬을 살았다. 영의정의 증직을 내리고 풍양부원군(豊壤府院君)에 봉하였다. 신도비는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오준(吳竣)이 글씨를 썼다.

홍보신도비

소재지: 동면 명학리

크 기: 비신 98×33 ×245cm(높이)

비좌 180×153×73cm(높이)

옥개 166×103×89cm(높이)

시 대: 인조 12년(1634)건립

김한헌 찬, 오 준 서, 여이징 전

4. 분 묘(墳墓)

임란수(林蘭秀)

〈신도비〉에서 설명함

김광유(金光裕)

경주인(慶州人). 참의(參議)의 벼슬을 지낸 만취당(晩翠堂) 김위(金偉)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문예에 뛰어난 어른 같았고 문경공(文敬公)김집(金集)과 깊이 사귀었다. 21세에 사마과(司馬科)에 급제하였지만 관직을 마다하고 사양하였다. 26세에 죽었으며 찬성(贊成)의 증직을 받았다. 영조 조 병오년에 정려를 내리고 묘는 연기현의 동쪽 가마골에 있다.

김경여

〈신도비〉에서 설명함

흥 보

〈신도비〉에서 설명함

김영견(金永堅)

고려의 공조전서 학당(學堂) 김성목(金成牧)의 후손이다. 군수 대성(大成)의 3자로 사헌부감찰을 지냈다. 묘는 동면 문주리 동진 상록(上麓) 자좌이다.

장 전(張詮)

결성인. 호는 독락(獨樂)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살았다. 묘는 동면 독산(獨山)에 있으며 간좌이다.

장 훈(張訓)

결성인. 호는 노초(老樵) 집의(執義)이다. 효충(孝忠)의 손으로 동훈대부 헌능(獻陵) 직장(直長)을 살았다. 묘는 동면 노곡(老谷)에 있으며 계좌이다.

임석분(林碩芬)

부안인. 공조전서란수의 8대손으로 통정대부이다. 동면 용호리에 살기

시작하였으며 묘는 출동산 임좌이다.

장응헌(張應軒)

경성인. 호는 송헌(松軒) 직장(直長) 훈(訓)의 증손이다. 효행으로 호좌좌랑의 증직을 받았다. 묘는 동면의 상관 유좌이며 다섯 아들이 모두 문장이 뛰어났다.

장응생(張應生)

경성인. 상위사(翔衛司) 사어(司御)인 한필(漢弼)의 현손이다. 효행으로 승훈랑(承訓郎) 공조좌랑의 증직을 받았다. 묘는 동면의 강촌(講村) 뒤에 있으며 좌좌이다.

이명홍(李溟鴻)

아신인. 관은 한림으로 양성현감을 지냈다. 동진에 관수정(觀水亭)을 짓고 소요하며 생을 마쳤다. 묘는 동면의 정자동에 있으며 갑좌이다.(참고: 묘는 정확하게 지금 서면 쌍전리와 월하리 사이의 정자동에 있다.

강일재(姜一載)

진주인. 호는 야은(野隱)으로 병부상서 은렬공 민섬(民贍)의 후로 공조

참판 면재의 현손이다. 관은 예조참판에 이르고 글로써 세상에 떨쳤다. 묘는 용산촌에서 좌로 강을 건너 불랑골의 정좌이다.

강위재(姜渭載)

진주인. 호는 기암(岐庵) 병부상서은열공의 후로 관은 공조참판에 이르고 문장과 바른 선행으로 추앙을 받았다. 묘는 용산촌의 서쪽 곤좌이다.

강수주(姜洙周)

진주인. 호는 초야옹(草野翁)이다. 은열공의 후로 예조참판 야은(野隱)의 5대손이다. 관은 통정대부 행 용양뒤부호군에 이르고 사서육경에 통달하였다. 묘는 용호의 락대봉(樂台峰)이래 병좌이다.

강태만(姜泰萬)

진주인. 은열공후공조참판 면재의 11대손이다. 향교에 출입하여 नी이 선비들과 사귀며 지극한 효성으로 원근에 칭송을 받았다. 묘는 용안의 괴음동(槐陰洞) 경좌이다. 연기향교의 강학기(講學記)에 장의로서 이름을 전한다.

김유복(金有復)

안동인. 충렬공 방경(方慶)의 후로 오은(梧隱) 사렴(士廉)의 15대손이

다. 호는 하포(霞浦) 영조조에 충훈부 충의위로 묘는 내판 위골 곤좌.

장겸제(張謙濟)

결성인. 초은(樵隱) 석(錫)의 3자이다. 고종 을해에 호군(護軍)의 증직을 받았다. 묘는 동면의 마산(馬山) 자좌이다.

장원상(張元相)

결성인. 성품이 순실(淳實)하고 근검하였다. 지성으로 선대를 받드니 인근에서 효성을 칭송하였다. 묘는 동면의 아미산 서록의 간좌이며 인환(寅煥)은 그의 아들이다.

장한보(張漢輔)

결성인. 호는 동고(東臯)로 청계공 하(夏)의 16대손이다. 효행이 특이하여 향당에서 칭송하였다. 묘는 동면의 고소동(古巢洞) 묘자이며 동환(東煥)은 아들이다.

임노선(林老善)

부안인. 지호(智浩)의 증손으로 중추원의관의 벼슬을 살았다. 온하한 천성을 타고나 근검하며 치가에 힘썼다. 묘는 출동산에 있으며 묘좌이다.

5. 효자(孝子)

황정협(黃廷協)

장수인. 방촌 황희의 6대 손이며 대사헌 황사효(黃事孝)의 현손이다. 친병을 당하여 얼음 속에서 잉어를 잡고 꿩을 잡아 드렸다. 효에 감동된 바도에서 알리어 영능참봉(英陵參奉)의 벼슬을 내리고 후에 이조참의의 증직을 내렸다.

한여익(韓汝益)

청주인. 자는 상하(相廈)이며 숙종 때 효로 천거되어 청산현감을 지냈다. 묘는 명학리의 용당에서 강건너 부용산 청절공 묘소하에 있다.

박선일(朴善一)

무안인. 호는 안팔제(按八齊)로 우암과 동춘에게 수학하였다. 친상을 당하여 시묘하는데 흰색의 제비가 날아와 집을 지었는데 새끼 또한 흰색이었다. 사람들이 효에 감동된 소치라 하여 누차 나라에 알리었다.

채관형(菜觀亨)

인천인(仁川人). 어려서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기었다. 친병을 당하여 눈 속에 달팽이를 얻고, 얼음 속에서 잉어를 얻는 기적이 있어 효로서 누차 포상이 있었다. 그의 처 경주최씨(慶州崔氏)는 효부로 칭송을 받았다.

경주최씨(慶州崔氏)

채관형의 처이다. 시모의 병환을 당하여 시모의 머리가 엉키어 빗질을 못하자 최씨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자기머리에 이를 옮기게 하여 잡았다. 병이 중해지자 7일밤을 하늘에 빌고 연일 대소변을 맛보아 네번을 소생하게 하였다. 그 효성이 도에 알려져 포상을 내렸다.

황재복(黃再復)

장수인. 방촌 황희의 후손이며 이조참의의 증직을 받은 황정협(黃正協)의 6세손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상을 당하여 예를 다하여 장사지내고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라 향리에서 칭찬하였다. 삼강록(三綱錄)에 착한 일이 실렸다.

장진영(張振榮)

결성인. 고려태사 포은의 후손으로 지성으로 아버이를 섬겼다. 호조좌랑

의 증직을 받았다.

황 직(黃稷)

장수인. 황재복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지성으로 아버이를 섬기며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아침 저녁 안부드리는 일을 소홀이 하지 않았다. 부친이 병에 걸리자 대변을 맛보며 손가락을 가르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이 때 의원이 병자에게 붕어가 좋다고 하였지만 때가 마침 겨울인지라 얻을 수 없는데 한 마리의 까마귀가 문앞에 선 느릅나무 밑에 붕어 한 마리를 떨어뜨렸다. 손으로 그것을 잡아 병자에게 드리니 효력이 있었다. 사림(士林)들이 도에 알리어 포상을 받았다.

강필복(姜必復)

진주인 . 강은렬의 후손이며 양촌 강유정의 현손이다. 효로써 향시에 올랐다.

임양조(林養祚)

부안인. 통정 임석분의 현손이다. 그의 아우 양문과 함께 서루 격려하며 글을 읽히고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기고 살아서 힘껏 효도하고 죽어서도 아쉬운 점이 없었다. 이웃에서 모두 칭찬하였다.

장용상(張龍相)

결성인. 판윤 장전의 10세손이다. 좌승지의 증직을 받고 지극히 효성스러운 천성으로 모친 나이 칠순에 반신불수로 기거가 어렵자 좌우로 부축하며 여러 가지 약을 구해다 드리기 10년을 하루같이 하였고 이부자리와 대소변을 치우며 매일 빨고 닦았다. 그의 처도 남편과 같이 효성스러워서 유림의 상장을 받았다.

임양문(林養文)

부안인. 효자 양조(養祚)의 아우이다. 형의 효향하는 방법을 따라 지극한 효도에 이르러 고종조 갑진년에 정려를 내렸다. 정려비를 비서원승(秘書院丞) 유인철(柳寅喆)이 지었다.

장덕한(張惠煥)

결성인. 호는 송석(松石)이며 준상(駿相)의 아들이다. 어려서 연재(淵齋) 송병준과 동문수학하여 경례문답(經禮問答)이 있다. 가세가 청빈하여 효로 아버이를 섬기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드리고 상을 당하여 3개월간 머리에 빗질을 얹으며 3년간 옷지를 얹었다. 그리고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복을 벗지 않았다. 수치 효로서 향시에 오르고 고종 갑진년에 통정(通政)의 증직을 받았다. 유고가 있고 송의섭이 지은 행장이 있다.

장태정(張台鼎)

결성인. 호는 성암(誠庵)이며 주보 장문익의 8대손으로 부친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고 모친을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며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황석원(黃碩源)

장수인. 익성군 황의의 후손으로 이조참의 황정협(黃正協)의 8대손이다. 가난한 살림에 아버이를 섬기며 고기잡고 나무하며 부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리고 친병이 위급해지자 목욕하고 하늘에 빌며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자르고 7일을 먹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날 살게하고 친상을 당함에 예를 다하여 장사지냈다.

향단의 선비들이 누차 도에 알리어 포상을 받고 지산(志山) 김복한이 지은 행장이 있고 운재(雲齋) 최영조가 묘비를 지었다.

6. 충 신(忠臣)

박천봉(朴天鵬)

밀양인. 27세에 무과에 뽑혀 참군(參軍)에 올랐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조중봉(趙重峰)선생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상당산성(上黨山城)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수십명의 적을 무찌르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의 네아들 원겸(元謙), 인겸(仁謙), 예겸(禮謙)이 모두 지략이 뛰어나 병자호란을 당하여 청군을 맞아 용맹히 싸우다 4형제가 모두 전사하였다. 5부자의 충절을 비할 바 없으니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다.

한필적(韓必迪)

청주인(淸州人). 호는 청절(淸節)이다. 정묘년의 대란을 당하여 백의로서 강화도로 임금을 따랐다. 그리하여 6품의 벼슬을 내렸지만 도리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돌아와 연기현의 동쪽 노팽정(老彭亭)에서 노년을 보냈다. 수직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의 직함을 내렸다. 증손 문순공(文純)

公) 남당(南塘) 원진(元震)이 유사(遺事)를 적고 문순공(文純公) 수함(遂庵) 권상하(權尙夏)가 시첩의 발문을 적었다. 묘는 명학리의 용당에서 강 건너 부용산 아래 건좌이다.

배 유(裵裕)

성주인. 중륜(中倫)의 손이다. 세종조의 무과에 올라가 관이 직제학에 이르렀으나 성품이 충직하여 6신과 더불어 도의로서 교분을 맺으며 6신이 화를 입자 글을 올려 따졌다. 세조가 크게 노하여 청주로 귀향보내니 청주에서 죽었다. 이로 인하여 자손들이 연기현의 노송리에서 살게 되었다.

배경걸(裵敬傑)

성주인. 판서 중륜의 후손이다. 무용을 겸하여 임진왜란에 중봉 조헌선생의 종사관으로 청주에서 많은 적병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배홍덕(裵弘德)

성주인. 경걸의 손이다. 무용이 뛰어나 26세에 무과에 올라 사과를 제수 받았다. 갑자년 이괄의 난에 장만(張晩)을 따라 안현(鞍峴)에서 싸워 반란군의 많은 목을 베었다. 진무일등공(振武一等功)으로 기록되어 록권(錄券)을 받았다. 선전관(宣傳官)으로 북도의 우후를 거쳐서 사천현감(泗川縣監)을 역임하였다. 공명정대한 정치를 하다가 임지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 경

성(慶星)은 성품이 강개하여 남한산성의 치욕을 부끄럽게 여기며 과거를 폐하고 두문불출 독서에 힘썼다. 만년에 창능령(昌陵令)을 제수 받았다. 죽은 후 장령(掌令)의 증직이 있었다.

강유정(姜惟精)

진주인. 호는 양충(陽忠)이다. 은렬공의 후손으로 공조참판 면제(勉齊)의 손이다. 인조 때 병자의 란에 백의종군하여 창의 순절하였다.

임 흥(林興)

부안인. 금오위(金吾衛)을 역임하였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니 명사(明史)에 기록되어 전한다. 젊어서 야은(冶隱) 길재 선생에게 배우고 장성하여 동산의 기로에 채미가(採薇歌)을 읊었다. 기호사(岐湖社)에 배향하였다. 흥무 을묘 9월 9일생이며 정통 을미 2월 19일에 죽으니 현의 동쪽 부래미의 계좌에 예장(禮葬)하였다.

황 첩(黃堞)

장수인(長水人). 팽촌의 현손인 대사헌 사효(事孝)의 아들이다. 음사(陰仕)로 사직(司直)의 벼슬을 살고, 기묘의 명현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 병조참판(兵曹參判)의 증직을 받았다. 묘는 연기의 경계인 탁석(啄石)의 곧

좌이다. 대산(台山)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김언신(金彦信)

경주인(慶州人). 무과에 올라 만호로서 이괄의 난에 학성군의 종사관으로 안현(鞍峴)에서 힘껏 싸워서 원종수훈에 올랐다. 병자호란에 장자 응추와 차차 응춘(應春)과 함께 3인이 남한산성에 들어가 싸워 수십명의 적병을 무찌르고 기진하여 전사하니 적군도 감탄하여 진 밖에 의사비를 세워서 칭송하였다. 전쟁이 끝난후 나라에서 증직을 내렸다. 「연기지」 「연기읍지」에 빠진 것을 「삼강록」에 의하여 새로 신지만 「삼강록」에는 삼충이렬(三忠二烈)을 들었다. 삼충은 김언신과 응추, 응춘의 3부자 이지만 이렬은 언신 처인 배씨와 응추 처인 박씨이다. 그 고부는 3부자가 전사한 후 싸움터로 찾아가 시신을 찾아서 돌아와 예를 갖추어 장사지냈다.

강응기(姜應期)

진주인(晉州人). 공조참판을 지냈다. 묘는 현의 동쪽 노적산(露積山)의 갑좌이며 용산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한성기(韓聖箕)

청주인. 음사(陰仕)로 공능참봉(恭陵參奉)과 서흥현감(瑞興縣監)을 지냈다. 묘는 현의 동쪽 고정에 있다.

양진번(楊震蕃)

중화인(中和人). 무과로 고창현감을 살고 상주영장(尙州營將)을 제수 받았다. 묘는 동일면 신원(新院)의 축좌이며 자손들이 원곡(元谷)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정륜(鄭崙)

동래인. 홍문관 직제학 겸 대사성 공(坤)의 7세손 좌랑 응창(應昌)의 손자이다. 학문으로 이름이 높고 참봉을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묘는 연기와 문의 경계인 독산에 있으며 해좌이다. 자손들이 외대산리(外台山里)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7. 유 행(儒行)

장효충(張孝忠)

결성인. 고려 평장사(平章事) 결성군 하(夏)의 6세손. 성균생원으로 사험부 집의의 벼슬을 살았다. 김종직, 김령필, 정여창과 벗으로 사귀었으나 무오년에 이들이 화를 입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났다. 중종조에 유호인(兪好仁)을 보내어 예로서 불렀지만 뜻을 돌이키지 않았고 늙어서는 전동으로 물러났다.

배덕형(裵德衡)

성주인. 호는 성암. 판서 배중윤의 후손으로 배홍덕의 5대손이다. 지예가 뛰어나 일찍 경전을 이해하여 노촌 임상덕선생에게 성리에 대하여 익히고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11세 때 모친의 병환을 관호하며 약달이는 성의를 마침 밤손님이 보고 감탄하여 도리어 약값을 두고 갔다는 일화가 있다.

친상을 당하여 달에 두번 성묘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끗이 묘역을

쓸었다. 향시에 급제하고 후에 교관의 증직을 받았다. 유집 2권이 있다.

임인호(林仁浩)

부안인. 호자 양문의 아들이다. 성담 송선생의 문인이며 가법을 계승하여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여 선생이 대우당이라는 호를 지어 격려해 주었다.

임성호(林性曉)

부안인. 호자 양문(養文)의 현손으로 간재(艮齋) 전선생의 문인이다. 호는 가현(可軒)으로 공종조에 수하여 통정의 벼슬을 받았다.

항 복

장수인. 호는 태은(台隱)이며 양정공(良靖公) 사효의 11대손이다. 재주가 뛰어나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심재(心齋) 송황기 선생에게 수학하고 금곡(錦谷) 송래희 선생과 도의로서 사귀었다.

장기락(張基洛)

결성인. 호는 임제(臨濟)이며 덕환의 아들이다. 신묵재(愼默齋) 이진옥 선생의 문인이며 재주가 뛰어나고 엄격한 가정교육을 충실히 받았다. 학문

이 뛰어나고 실천에 힘쓰며 효행을 근천(根天)하여 시종 변하지 않았다.
곤궁하였지만 늙도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충계 송의섭, 송암 최종화, 봉역
류인호와 도의로 교분을 맺으며 많은 후학을 가르쳤다. 『연기지』의 발문을
지었다.

8. 문 학(文學)

임성주(任聖周)

풍천인(豊川人). 호는 록문(鹿門)이며 군자감정(軍資監正)의 벼슬을 살았다. 성리학의 연구가 높고 밝아서 세상에서 우리러 보았다. 판돈년부사 이민보(李敏輔)가 유지(幽誌)를 찬하였으며 문집 13권이 있고 아울러 감흥시주(感興詩註)와 집람소학본주고증(集覽小學本註考證) 및 주서답의보가 세상에서 읽혀지고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묘는 현의 동쪽 황우산 아래 거문들 경좌이다.

박정완(朴廷玩)

죽산인. 지평(持平)을 지냈다. 묘는 현의 동쪽 합강의 경좌이다.

강 놀(姜訥)

진주인. 은열공(殷烈公) 강민섬(姜民贍)의 후손으로 장예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를 지냈다. 묘는 현의 동쪽 내판 덕고개의 해좌이다.

홍윤상(洪潤祥)

당성인(唐城人). 문정공(文正公) 홍언박(洪彦博)의 후손이다. 조선 태종조의 좌명공신(佐命功臣) 강양공(康襄公) 홍서(洪恕)의 7대 손으로 선조조에 현의 동쪽 합강의 봉소동(鳳巢洞)에 살기 시작하였다. 묘는 봉소산 우록(右麓) 유좌이다.

채종현(蔡宗賢)

인천인. 세조조에 진잠현감을 지냈다. 처음으로 본현에서 살았으며, 묘는 현의 동쪽 죽목산(竹木山) 소지동(巢池洞) 간좌이다. 아들인 예조좌랑 채번(蔡蕃)의 묘는 노적산(露積山)의 유좌이다.

김영손(金永孫)

예안인. 등제하여 좌랑(佐郎)을 지냈다. 처음으로 본현에서 살았으며 묘는 현의 동쪽 합강 묘곡(墓谷)의 손좌이다. 아들 참봉 김수면(金守勉)의 묘는 동면 합강의 소지동(巢池洞)의 술좌이다.

배경걸(裵敬傑)

성산인. 자는 호(豪)이다. 음관(蔭官)으로 참봉이며 청산현감 배달신(裵達臣)의 손자, 직제학(直提學) 배유(裵裕)의 5대손이다. 묘는 현의 동쪽

동이면 고정의 묘좌이다. 자손이 노산(老山)에 살기 시작하였다.

장성팔(張星飢)

결성인. 호는 만성당(晩醒堂)으로 봉옹(鳳翁) 원주(元胄)의 현손이며 통덕랑이었다. 정치하고 미려한 문장으로 이름을 세상에 떨쳤다.

강필윤(姜必潤)

진주인. 호는 기사(岐史)이며 병부상서 은렬공의 후손으로 예조참판 일재의 손자이다. 문행으로 유명하며 사람들이 모두 그의 재덕을 칭송하였다.

장태제(張泰濟)

결성인. 호는 소은(素隱)으로 장언곤의 손자이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쓰며 사리에 밝았다.

장태섭(張台燮)

결성인. 호는 란파(蘭坡)이며 전(銓)의 11대 손이다. 천성이 단아하고 총명이 과인하며 일찍이 중국의 한중과 낙양을 여행하고, 늙어서는 삼강오륜을 강론하였다. 시부에 능하고, 특히 글씨를 잘 쓰며 내판리 양세고부정

려기(兩世姑婦旌閭記)의 글씨를 썼다.

장일상(張一相)

결성인. 호는 강누현이다. 총명이 과인하고 사부(詞賦)에 능하였다. 손자 기봉 또한 글을 잘 하였다.

장인상(張麟相)

결성인 . 호는 만취헌(晩翠軒)이며 소은(素隱)태제의 아들이다. 높은 기개에 문장은 웅건하였다. 누차 향시에 급제하고 천거되었다.

장익상(張翊相)

결성인. 장인상의 아우이다. 잠잠고 정직하며 지성으로 선조를 섬기고 문묘에 공이 있었다. 아들 경환은 부(賦)에 능하고 전서를 잘 썼다.

장준상(張駿相)

결성인. 호는 지재(知齋)이며 태제의 아들이다. 가난하지만 뜻이 돈독하여 경서 읽기를 힘쓰고 효성과 우애는 하늘에 뿌리박은 바 필법은 단아하여 관찰사 심의면의 천거로 높은 덕망이 나라에 알려졌다. 유고가 있다.

임승복(林承福)

부안인. 호는 석당(石塘)이며 지호의 현손이다. 시문에 능하여 사람의 추앙을 받았다.

장도상(張道相)

결성인. 호는 미초(媚樵)이며 천복(天福)의 9세 손이다. 스스로 문사(文詞)를 즐겼다.

안상호(安尙鎬)

순흥인. 문성공 유의 후손으로 병조참판 종신(從信)의 19세 손이다. 천성과 모습이 온화하고 멋이 있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일가를 이루었다. 영리를 돌보지 않고 교육에 힘을 써서 이룩한 바가 크니 향당에서 칭송하였다.

강태일(姜泰一)

진주인. 호는 회산(悔山)이며 강은렬의 후손으로 공조참판 면재의 11세 손이다. 관은 참봉이며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각고 노력하였으며, 행하는 바가 돈독 검소하며 경서에 통달하여 향당에서 모두가 스승의 공을 칭송하였다.

장예환(張藝煥)

결성인. 호는 사미(沙媚)이며 도상(道相)의 아들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기며 문학에 종사하였다.

장기남(張基南)

결성인. 호는 취헌(醉軒)이며 인환의 아들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뜻이 돈독 고매하였다.

김재혁(金在赫)

광산인. 호는 국당(菊當)이며 광산부원군 김국광의 후손으로 문학과 행실이 향당의 모범이 되었다.

장기찬(張基瓚)

결성인. 호는 영재(英齋)이며 성암 태정의 손자이다. 천성이 아름답고 학문을 좋아하며 깊이 알아 향당이 우러러 보았다.

배상구(裵相龜)

성산인. 호는 미과(媚坡)이며 현감 달신의 후손이다. 외모가 단정하고 시부(詩賦)에 정통하였다.

황 헌(黃據)

장수인. 호는 국은(菊隱)이며 방촌 희의 후손이다. 천성이 단아하고 문장이 뛰어나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장학진(張學鎭)

결성인. 호는 둔촌(屯村)이며 영재 기찬의 아들이다. 재주가 있어서 문장이 참신하며, 만년에는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많은 제자가 있었고 유고가 있다.

황익현(黃益顯)

장수인. 호는 국헌(菊軒)이며 효자 직삼(稷三)의 아들이다. 일찌기 가업에 공을 이르고, 만년에 경학에 힘써 종신 대학 장구를 송독하였다.

황 섭(黃燮)

장수인. 호는 담산(淡山)이며 품성이 단정하고 문장은 청아하니 향당이 칭송하였다.

9. 선 행(善行)

장기원(張基源)

결성인. 호는 심재(心齋)이며 호군(護軍) 후경(後慶)의 7대 손이다. 효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선비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임승록(林承錄)

부안인. 호는 석천(石泉)이며 승복의 아우이다. 가정의 효행과 우애를 이어받아 그의 백형이 죽은 후 종사(宗事)를 돌보며 고아가 된 조카를 맡아서 키웠다.

장인환(張日煥)

결성인. 호는 란계(蘭溪)이며 성환(星煥)의 아우이다. 천성이 온화하고 정직하여 표리가 없었다. 일찌기 문예를 섭렵하고 의학에 정통하였다. 평생 제가(齊家)에 뜻을 두고 힘썼다.

장기영(張基永)

결성인. 호는 응설(凝髙)이며 기락(基洛)의 아우이다. 묵신재(默愼齋) 이진옥(李鎭玉)에게 수학하였다. 관후한 성품으로 효행과 우애가 겸하여 지극하며 사람을 대하는 데 겸손하였다.

임덕철(林憲喆)

부안인. 공조전서 관수의 후손으로 초명은 흥철(興喆)이다. 성품이 온량하고 품행이 단정 공손하며 집에 서당을 설치하여 자질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학덕 높은 분을 좇아 경전과 사서를 답론하고 손님으로 기숙하는 이를 수일식을 두고 대접하여 조금도 어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서 성덕(成德)의 군자라 칭송하였다.

10. 문 과(文科)

안세현(安世賢)

순흥인으로 참판을 지냈다.

배 유(裵裕)

성주인으로 직제학을 지냈다.

조진만(趙鎭萬)

양주인으로 호는 삼오(三梧)이며 문학과 덕행으로 경향에 이름을 떨쳤다. 참판을 지냈다.

11. 사 마(司馬)

장이환(張履煥)

경성인. 호는 양곡(暘谷)이다. 호군 겸제(謙濟)의 손으로 고종 경진년에 증광진사(增廣進士)에 올랐다.

장이상(張彝相)

결성인. 관운 전(詮)의 10세 손이다. 고종 임오년에 증광성균진사(增廣成均進士)에 올랐다. 유인 한양 조씨는 우규(禹圭)의 딸이며 열행(烈行)으로 고종조에 정문을 내렸다.

장기홍(張基鴻)

결성인. 호는 추파(秋波)이다. 일상(一相)의 손이며 고종의 무자년에 성균진사에 올랐다.

장철상(張喆相)

결성인. 호는 미과(媚坡)이며, 응헌(應軒)의 7세손이다. 고종 임오년에 성균진사에 올랐다.

장기만(張基萬)

결성인. 호는 창년(蒼年)이다. 사과(司果) 문섭(文燮)의 아들이며 고종 조 신묘년에 증광성균진사에 올랐다.

12. 음 사(蔭仕)

황 첩(黃 堞) 장수인. 사직(사직)

황정협(黃廷協) 장수인. 참봉

한여익(韓汝益) 청주인. 현감

강응기(姜應期) 진주인. 참판

한성기(韓聖箕) 청주인. 현감

안봉수(安鳳壽) 순흥인. 참봉

강 늘(姜 訥) 진주인, 판결사

안국향(安國鄉) 순흥인. 참봉

채종현(蔡宗賢)

인천인. 현감

배경걸(裵敬傑)

성산인. 참봉

장한필(張漢弼)

결성인. 통훈대부로 익위사 사어(翊衛司 司禦)의 벼슬을 살며 문학으로 일생을 마쳤다.

장천복(張天福)

결성인. 호는 연곡(連谷)이며 익위사 사어(翊衛司 司禦) 한필(漢弼)의 손자이다. 명종 때에 통훈대부로 기자능참봉(箕子陵參奉)의 벼슬을 살았다.

장후경(張後慶)

결성인. 학수이며, 주부(主簿) 문익의 증손이다. 소시 때부터 영걸의 재능과 기백이 있어 선비들이 추천하여 벼슬이 용양위보호군에 이르렀다.

장준섭(張俊燮)

결성인. 호는 죽재(竹齋)이며 좌승지 용상(龍相)의 아들이다. 고종 무술년에 통사랑(通仕郎)으로 의금부도사의 벼슬을 살았다. 품성이 단아하며 글이 뛰어났다.

장문섭(張文燮)

결성인. 호는 송관(松觀), 경농당(經農堂), 미산관주인(嵎山館主人)이라고 하였다. 진사 이상(彝相)의 아들이며, 진사 기만(基萬)의 부친이다. 고종 을축년에 선략장군 용약위부사과의 벼슬을 살았다. 시와 문장에 한가지로 뛰어나 과장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다. 유저로 「경농당시집(經農堂詩集)」을 전하고 있다.

장구환(張龜煥)

경성인. 호는 죽산(竹山)이며, 진사 철상(喆相)의 아들이다. 고종 계사년에 통사랑(通仕郎)으로 친군남영문안(親軍南營文案)의 벼슬을 살았다. 천성이 순후하고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장설상(張說相)

결성인. 호는 미은(峴隱)이며, 응헌(應軒)의 7세손이다. 고종 갑오년에 진남영사마(鎭南營司馬)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의 벼슬을 살았다. 지성

으로 효도와 우애에 돈독하였다.

장기호(張基鎬)

결성인 호는 소송(少松)으로 덕환(德煥)의 이들이며 기락(基洛)의 형이다. 인자하고 몸가짐이 단정하며 활달한 성품이었다. 고종 정미년에 통사랑(通仕郎)으로 기자능창봉(基子陵參奉)의 벼슬을 살았다.

장석환(張奭煥)

결성인. 호는 당파(棠坡)이며 원규(元奎)의 7세손으로 유능참봉(裕陵參奉)의 벼슬을 살았다. 굳고 곧은 성품으로 재산을 털어서 궁한 사람들을 도왔다. 승지 김영한(金寧漢)의 묘표의 글을 지었다.

장용환(張龍煥)

결성인. 호는 금석(錦石)이며 진사 철상(喆相)의 조카이다. 고종조에 정능참봉의 벼슬을 살았다. 성품은 독실하고 풍모는 청아하여 진성으로 어버이를 받드니 향리에서 칭송하였다.

13. 무 과(武科)

박천봉(朴天鵬)

밀양인. 참군(參軍)

장린환(張麟煥)

결성인. 고종 계미년에 무과로서 부사과에 올랐다. 청빈하며 스스로 호매한 기상을 지켜 꺾이지 않았다.

장기칠(張箕七)

결성인 봉옹(鳳翁)의 7대 손으로 몸이 크고 건장하며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과에 합격하여 북도참군(北道參軍)과 부호군(副護軍)의 벼슬을 살았다.

日(碑)

연기현 현감

이태진(李泰鎭) 선정비(善政碑)

소재지: 동면 송룡리 2구 현감 이태진의 선정비

건립년대: 미 상

관리자: 주민

동이면 면장

최용식 송덕비

위치: 동면 예양리

건립: 1912년 7월

비문:

一面之長 持心兼平

萬口咸頌 處事公清

村落賴安 期會薄書

人民無鬧 難兄難弟

장기항 송덕비

위치: 동면 내관리

건립: 1932년 정월

비문:

好善種德 無間物我

天性渾厚 有光前後

獎學公益 爰勒斯名

賑粟擔稅 求傳來世

면장 배도환 송덕비

위치: 동면 내관리

건립: 1933년 2월

비문:

躬行正直 勒勞奉公

性廉慈仁 便宜導民

普教制產 十年團結

救災恤貧 功德維新

장공 기항선생 교육공로비

송암 장기황 선생께서는 교육을 위하시는 높으신 뜻으로 연동학교를 처음 세울 때부터 많은 사재를 아낌없이 회사하신 혜은으로 오늘날 천여명의 연동 어린 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은 모두 장선생님의 하늘같은 은덕이오라 여기에 비를 세워 선생의 위훈을 높이 받들어 길이 깊이 모시는 것입니다.

단기 四千二百九十년 五月 五日

연기교육구 교육위원회

翠石 申相大先生 師恩碑

언제나 잔잔한 微笑가 안으로 스며 흐르는 그 모습에서 高邁하신 教育者 香嗅를 느끼게하는 우리의 스승 翠石 申相大先生

先生은 一九〇七年 忠淸南道 公州郡 牛城面 道川里에서 태어나시어 享年 七十三歲로 서울에서 他界하실 때까지 오로지 이나라 내일의 일꾼들을 기르시기에 한 平生을 바치셨다.

正直을 家訓으로 標榜하심은 淸廉潔白하신 先生의 性품을 나타내심이요, 오직 바르고 곧은 心性の 陶冶가 先生의 教育指標임을 우리는 배웠다.

先生은 이고장 先驅이시며 수많은 어린 새싹들이 先生의 錫판 밑에서 자라 지금은 國家의 棟梁이 되어 국내외에 綺羅星같이 퍼져 크게 活躍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先生의 恩德이 아니랴!

先生이 四十八年이란 긴 歲月을 京鄕의 敎壇에서 계실동안 燕東國民學校에서는 平教師 時節과 校長으로 在任한 其間이 합하여 十餘星霜이었으니 燕東學校의 發展은 勿論이요 이 고장의 發展에도 크나큰 功을 이룩하셨다.

길고 긴 敎壇生活을 떠나실 때에는 나라에서도 先生의 敎育功勞를 높이 讚揚하여 「國民勳章 冬柏章」까지 드렸다.

오늘 燕東國民學校의 感懷깊은 六十回 生日을 맞아 그동안 이 배움터에 가장 빛나는 功績을 쌓으신 翠石先生이 그림다.

눈을 들어 살피면 지금도 저 골목에서 微笑 지으시며 多情이 걸어오시는 先生의 모습이 생생하여 바로 이 터에 恩師碑를 세워 그 公德을 永世不忘 기리고저 하는 것이다.

一九八五年 五月 十八日

門下生 一同建立

門下生 張民(旭淳)지음

門下生 金在鴻 씀

연동중학교 창립기념비

내일을 빛낼 무한한 가능 위에 알찬 보람을 거두기 위하여 아름다운 터전을 마련한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동중학교가 六千평의 대지 위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이 고장의 수없이 많은 후배들을 알뜰하고 훌륭하게 기를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이 분들의 뜨거운 정성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고장과는 애뜻한 정이 가슴깊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그 정이 가슴 속에 멈춰만있지 않고, 이 고장의 내일을 위한 의지의 승화로 꽃피워졌습니다.

여기 먼 훗날까지 이분들의 가룩하고 따스한 정의 강물이 쉬지않고 흐르

도록 하기 위하여 보잘것은 없으나 작은 돌 비석하나를 세우고 우리의 가슴에 충만한 감사의 정을 새겨 둡니다.

서기 一九七〇년 十一月 六日

연동중학교 창립기성회장 김재봉 외 임원일동

동면장 김직수 외 직원일동

장옥순 지음

釀出金 五十七萬員

釀出者 金濟源國會議員 外 五十八名

龍隱林公 憲文 教育功勞碑

인생의 삶이 의롭고 슬기로우며 이루어진 자취가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면 그 공적은 오래도록 추모될 것이다.

용은 임헌문선생께서는 남달리 육영사업에 열과 성을 가지고 용호국민학교 기성회장에 추대되어 일생의 집념으로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정성으로 一九七一年 三월에 배움터 터전이 준공을 보게 되었다. 오늘날 고장의 어린 새싹들이 알뜰하고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은 선생의 높은 덕택이라고 하겠다. 여기 먼 훗날까지 위훈을 높이 받들고자 작은 비석을 세우고 가슴에 벽찬 감사의 정을 새겨둡니다.

서기 一九七八년 四月 日

용호국민학교 학부형일동

전 설(傳說)

영고개

동면 내판리에서 문주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영고개라
라 부른다.

조선시대 선조 때 고개 아래 들판에 금슬 좋은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논과 밭을 갈며 사는 순박한 농부로서 그들은 남이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았다. 남편이 논에 나가면, 그 아내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공부를 시켜서 과거에 급제시키는 것이 소원이
였다.

그들이 결혼한 지 한 달이 못되어 그의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으나 곧 유
산되고 말았다.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아내가 아이를 갖고서도 심하게 일
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집에서 꼼짝말고 집안일이나 보살피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적어도 아들 형제 정도 낳아서 벼슬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몰래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
가 남편에게 들켜서 혼이 나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화를 내기는 커녕 빙그
레 웃으면서 남편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애교를 떨었다. 그들의 두터운 정
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우리 나라는 외침을 당하게 되었
다. 왜적이 쳐들어오자 남편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적을 무찌르기 위해 군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충청도 새재의 싸움을 시발
로 평양에서의 싸움, 행주산성의 싸움에서 많은 공훈을 세웠으나 양평 싸
움에서 적의 진중으로 뛰어 들어가 분투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남
편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왔을 때는 여름철이었다. 그녀는 슬퍼서 영
영 울다가 뱃속에 태기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용기를 가
지려 애썼다. 그리고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녀는 은근히 복수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루는 마을 아낙네들과 왜구를 무찌를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왜구들이 마을에 가까이 와서 진을 치게 되었다. 마을 아낙네들은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싸워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남자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고 노인과 아녀자와 아이들만 남아 있는 지금 아낙네끼리만 싸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모두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만은 피난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

왜구들만이 득실거리는 들판에서 건너다보이게 그녀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밭으로 나갔다. 멀리서 여인을 발견한 왜구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녀를 왜장앞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했다. 얼굴이 곱고 모습이 깨끗한 그녀를 보고 왜장은 침을 흘렸다. 왜장은 그녀를 데리고 한낮에 천막안으로 들어가려했다. 그때 그녀는 “지금은 사람들도 많고 한낮이니 피하고 오늘밤 저 고개 아래 바위에서 동침하도록 하자”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그러자 왜장은 좋아서 의미있는 웃음을 웃더니 승낙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왜인을 확실히 유인하기 위해 강변에 가서 목욕도 했다. 왜장은 목욕을 하는 그녀에게 “어째서 옷을 벗지 않고 목욕을 하느냐”고 꺾꺾거리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여인이 살결을 보일 수 있느냐” 말하여 왜장으로 하여금 미치도록 유혹했다. 그날 저녁 어둠이 밀려오자 왜장은 덮쳤을 때, 그녀는 감추어 두었던 은장도로 왜장의 뒷통수를 힘껏 내리쳤다. 왜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죽어 나자빠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왜장의 시체를 끌고 내려와서 땅을 파고 묻었다. 그렇게 첫 번째 왜장을 무찌른 그녀는 이런 방법으로 여덟명의 왜장을 유인해서 모두 죽였다.

여덟명의 왜장을 죽여 없애고 또 밭으로 나갔다가 그날도 왜장 앞에 끌려갔다. 그녀는 똑같은 방법으로 왜장이 덮쳤을 때, 은장도를 빼들고 손을 번쩍 들었다가 왜장에게 팔목을 잡히고 말았다. 왜장은 동료 장수가 소식

없이 하나 둘 없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긴 나머지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고 동태를 살폈던 것이다. 왜장에게 손목을 잡힌 그녀는 틈을 보아 자결하려 했다. 그러나 왜장은 그녀를 잔인하게 희롱하고서 칼로 내려 쳐서 죽였다. 왜장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녀는 침을 뱉으며 저항을 하였으나 여자의 힘으로 당할 수 없어 그만 선혈을 흘리며 죽어갔다.

그녀가 왜장 여덟명을 죽이고 아홉명째 죽이려고 유인했다가 왜장에게 칼을 맞고 죽은 이 고개엔, 그녀가 죽은 후부터 밤이 되면 영영우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그녀의 혼령이 우는 울음소리라 말했으며, 왜장은 더 많이 죽여 남편의 복수를 소원껏 해야 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대한 한의 울음소리라 했다.

약사골

동면 노송리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고려 때 이야기라 전한다. 나라에서 과거라는 관원 등용에 따른 시험제도가 생기자 선비들이 글을 배우기 위하여 서당으로 몰려 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동면 노송리 강당이라고 부르는 마을에 서당이 생기고 많은 서생들이 글 공부를 하러 다녔다. 그리고 서당 위쪽으로 지금 약사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노송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곳에 약수터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약수터엔 언제부터인지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남편 생각이 날 때 소복한 차림으로 약사골 약수터 물을 마시면 마음이 진정되고 수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모여 들었었다. 서당에 선 개경의 김노인을 서당 선생으로 모셔오면서부터 서생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개경에서도 이름난 학자였으므로 그에게 글을 배우면 과거에 급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름길이 되는 선생이었다.

서당에 많은 서생이 모여들면서부터 약사골 약수터에는 많은 과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참으로 우연의 일치였다. 약수터로 올라가려면 서당앞을 지나야 했다. 서생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도 소복한 여인들이 약수터로 가기 위해 서당앞을 지날 때는 멈춰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김노인은 마음에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오르기 전에 여자 먼저 탐내게 되어 신세를 망치는 법이라고 서생들에게 누누히 훈계를 하였지만, 눈앞에 놓인 잇밥이 빠르다고 서생들의 소복한 여인을 바라보는 습관은 영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김노인은 서당 들레에 높다랗게 담을 쌓았다. 서당에 담이 쌓여지자 이번에는 약수터로 올라가는 과부들이 약수터를 찾을 때는 꼭 말을 타고 올라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생들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도 말방울 소리가 들리면 구실을 대고 담 밖으로 나가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할 수 없이 말방울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그 사이를 틈타서 서생들은 우루루 담 밖으로 나와서 여인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소복한 여인이 역시 말을 타고 약수터로 올라가는데 참 어여쁜 과부였다. 서생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모두가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를 못했다. 그때 약삭 빠르기로 소문난 박천석이란 사람은 그 여인을 바라보곤 글을 읽으면서도 그 여인을 품에 안을 궁리만 했다. 약수터의 여인들은 대개의 경우 저녁 때가 되면 산을 내려 갔다. 서당에서도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 서당 아래 집으로 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그 날은 이상하게도 약수터에 오른 그 여인은 산에서 내려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약수터 곁에 있는 집에다 밥을 부탁하고 하루 저녁을 묵어가기로 했다. 서당에서는 박천석이 오늘 약수터에 오른 그 여인을 생각하며 글을 읽다보니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는 어둠이 밀려오자 등잔불에 불을 켜고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궁리하고 있었다. 좀처럼 좋은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밤이 이슬해지자 더욱 큰 소리로 글을 읽었다. 그의 글 읽는 소리는 산아래까지 들렸으며 약수터까지도 들려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약수터에 나와 머리를 감고 약수를 마신 다음 잠을 청하기 위해 이불속에 들어갔던 그 여인은 갑자기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처음 글 읽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진 그녀는 숨을 죽이며 한참 동안 듣다가 별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와서 유심히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이 글 읽는 소리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신발을 신고 서당쪽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 자기도 모르게 서당 담안으로 들어서자 방문에 비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글을 읽고 있는 그림자는 틀림없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한손으로 치마깃을 잡고 또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루에 올라서서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기려는데 마루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자신이 밟는 그 밭자국 소리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자 더욱 소리는 요란하게 들렸다. 방안에서 글을 읽다가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박천석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는 그 여인을 발견하자 가까이 가서 덩석 안고는 서당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켰다. 그때까지도 여인은 그 서생은 남편으로만 생각했다. 여인은 서생이 안아주는대로 고분고분 따랐으며 오히려 그녀는 남편을 만난 기쁨에서 서생의 손길을 제지하지 않았다.

한참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박천석이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켰을 때 여인은 자세히 박천석을 바라보고는 자기 남편이 아님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끈도 매지 못한 채 방을 뛰쳐 나와 약수터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달리면서 처음은 눈물을 흘렸지만 약수터에 올라와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무서운 눈초리로 약수터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엔 죽은 남편의 여러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방에 들어와서 은장도를 꺼내들고 약수터로 나왔다. 그리고 수절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은장도를 젓가슴에 꽂고 자결하고 말았다.

그녀가 약수터에서 자결하던 날부터 약수터에선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서생들이 다니던 서당엔 빈대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당은 불질러졌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약수터엔 목에 꽃땀기를 두른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밤이 되면 서당 자리까지 한 번씩 돌고는 약수터에 와서 웅크리고 살았다 하는데, 이곳 초동들은 그 구렁이가 박천석에게 정절을 뺏기고 죽은 그 여인의 변신이라고 했었다.

서당이 없어지자 다시 그곳은 폐허지로 변했으며 약수터 자리는 약수가 나오지 않아 그 후부터는 약수터 자리도 ‘약삭골’을 ‘약색골’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재백이 바위

동면 내판리 소톨 뒷산에 재백이 바위가 있는데 그 전설은 이러하다.

옛날, 소톨 동네에 장서방이 살았었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로 전전공공하는 그였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지라 가히 장사라 일컬을만 하였다.

씨름판이 열리는 데만 가면 으레 황소는 장서방이 끌고 왔다. 그러나 머리가 우둔한 편이라 남에게 얹혀만 살았지 나이 25세가 되도록 자기는 땅한 마지기 마련하지 못했다. 소톨 동네에서 가까운 노리미 동네에는 배참봉이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연화가 이목이 수려한데다가 마음씨까지 곱고 얹전하여, 인근 마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 대소 동네에서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해 명절날 노리미 동네에서는 씨름이 한참 무르익었다. 노리미 장사와 장서방이 서로 붙어서 싸우는데 워낙 힘이 센 장서방은 몇 번 돌리다가 단숨에 넘어뜨렸다. 이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배참봉의 딸이 장서방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애태우던 그녀가 소문을 듣고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던 장서방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였으나 그들 사이의 깊어가는 정은 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산중턱에 있는 큰 바위에 걸터 앉아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연화가 매일 밤 집을 나서는 것을 이상히 여긴 하인 돌쇠가 하루는 연화의 뒤를 밟았다. 평소에 연화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돌쇠인지라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하고 시기하여 방해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깊은 정은 어쩔수가 없음을 알게 되자 그만 배참봉에게 고해 바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배참봉은 크게 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딸을 불러들여 사실을 물어 꾸짖고 타일렀다. 그러나 연화는 변함이 없었다. 소문이 날까 두려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끄끖 앓던 배참봉은 한가지 계

책을 세웠다.

장서방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을 떼어놓자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하루는 장서방이 배참봉에게 불리어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기를 하여 배참봉이 이기면 연화를 단념하고, 장서방이 이기면 사위를 삼켰다면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산중턱의 바위를 자기 집에 옮기라 하였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옮기면 장서방이 이기고, 못 옮기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장서방은 약속은 하였지만 그 바위에 다다라서 보니 들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신의 도움인지 그 바위가 번쩍 들렸다. 그렇지만 힘이 점점 빠지고 걸음이 느려져 고개에 이르렀을 때에 해는 서산에 기울어졌다. 장서방은 맥이 풀려 힘이 쑥 빠져 깊어지고 오던 돌에 치어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연화는 밤새도록 사랑하는 이를 누르고 있는 돌에 엎드려 울어보았지만 한번 간 그는 돌아올 줄 몰랐다. 이리하여 밤새도록 울던 연화도 죽고 말았다. 이처럼 슬픈 두 사람의 전설을 간직한 이 바위를 가리켜 사람들이 고개에다 바위를 쳐박았다고 ‘재백이(잿박이)’라 부르고 있다.

내판의 수양버들

동면 내판리에 있는 내판역에 들리면 역 개찰구에서 흙으로 나가는 문턱에 큰 수양버들 한 그루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와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의 무차별 약탈을 당하면서도 깨끗하게 살아온 내판 땅에 이 수양버들을 놓고 의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병자호란 때의 이야기다. 여자라면 죽는 줄도 모른다는 중국의 오랑캐들이 이 땅을 짓밟을 때 일이다. 머리를 따내리고 병거지를 쓴 오랑캐들은 큰 길을 따라 오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자 먼저 사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다. 먼저 사내를 죽이는 것은 첫째가 반항하여 올라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그들이 데리고 있는 아내가 그들에겐 욕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고장에 들어서서 청나라 군사들은 먼저 사내들을 죽이기 위해 집집마다 총뿌리를 들이댔지만 사내들은 하나도 없었다. 우선 여기에 겁을 먹은 장수는 산봉에 진을 치고 다음에는 아낙들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도 피난간 사람없이 집집마다 아낙들은 집에 있었다. 그 아낙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끌어왔지만 아낙들은 한결같이 태연했다.

오랑캐들의 장수는 끌어온 아낙들을 바라보면서 제법 위엄있게 호통을 치는 것이 가소로와 끌려온 아낙들이 크게 한바탕 웃어대자 그 장수는 노발대발하여 병졸이 끌어다 주는 색시를 끌고 자기 군영으로 먼저 들어갔다. 장수가 색시를 끌고 들어가자 병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들을 데리고 호젓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인들을 겁탈하려고 할 때 여인들은 미리 준비하였던 은장도로 그들을 하나씩 찌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군영은 수라장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여인들의 비명과 죽어가는 오랑캐들의 비명이 뒤범벅이 되어 들려왔다. 오랑캐의 장수는 그런 것은 아랑곳이 없다는 듯이 자기 앞에 한 여인을 앉혀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무리 보아도 잘 생긴 그 여인에게 훌쩍 반한 그는 슬그머니 여인의 옷

깃을 잡아다니기 시작했다. 여인이 생글생글 웃으므로 더욱 호탕해진 장수가 여인을 끌어 안고 잠자리 가까이 왔을 때는 모든 불이 켜져 있을 때였다.

그때였다. 사방을 지키던 오랑캐의 첩병들이 호적을 불기 시작했다. 멀리서 아우성소리가 들렸고 가까이에선 사람들이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오랑캐의 장수는 허겁지겁 문을 열고 나가다가 되돌아와 여인을 기둥에 밧줄로 뽁뽁 묶어 놓았다. 싸움이 있더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의병들의 내습이었다. 어디에서 기병했다가 쳐들어 오는 것인지, 논이며 밭고랑을 기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의병들은 이곳에 몰려와서 닥치는 대로 오랑캐들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그것 뿐이라! 여기에 끌려온 여인들이 모두 은장도와 부엌칼을 들고 오랑캐들에게 덤벼들었다. 수라장이었다. 그들은 아침 동이 트기까지 싸웠다. 그래서 그곳은 오랑캐와 의병의 시체로 곳곳이 피바다를 이루었고 여기저기 군막은 재만 남아 있었다. 다행히도 장수 군막에 묶여 있었던 여인은 의병의 도움으로 풀려났지만 자기 남편이 이 싸움에서 전사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이 싸움이 끝난 뒤 내판에는 과부들로 집집마다 곡성뿐이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자결한 그 여인의 시체를 지금의 내판역 구내에 묻었다. 그랬더니 그 무덤 옆에서 버드나무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머리를 푼 여인처럼 축 늘어져서 안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내판에 과부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이 때에 근거를 둔 말이며 과부가 동심일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곳이 내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버드나무도 수 년 전에 베어서 없어졌다 한다.

성황당의 아기무덤

동면 용호리 성황당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에 청주를 드나드는 소금 장수들은 금강변에 있었던 부강 나루터에서 소금을 푸는 목선의 신세를 많이 졌었다. 그래서 소금 장수들은 나루터에서 목선 오기만 기다렸고 목선이 도착하면 배에서 푸는 소금을 지고 두메산골로 떠났다. 부강 나루에서 고금이 남으면 다시 작은 낙배 같은 목선에 싣고, 용호리 나루터까지 소금배가 들어 왔었다. 여기서 소금을 받은 소금 장수들은 그 소금을 지게에 지고 용호리의 성황당까지 올라와서 한번 쉬었다가 사방으로 흩어져 떠났는데, 이 이야기는 그 무렵의 이야기다.

청주 땅 산골에 살다가 아내가 가출하는 바람에 그 아내를 찾기 위해 소금 장사를 시작한 사근이라는 사람이 다섯 살 난 아들을 앞세우고 용호리 나루터에서 소금을 받아지고 팔러 다녔다. 아내는 한양 드나들던 삼장사 따라 훌쩍 도망갔지만, 그는 아내를 꼭 찾아 집에 데리고 와서 다리라도 한쪽 병신을 만들어 놓고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원이었다.

그는 아들을 앞세우고 이번에는 공주 유구쪽을 뒤지기로 했다. 다섯살난 아들은 그런대로 총명했다. 지갯밭에서 그가 늘어 뜨린 지갯줄을 잡고 잘도 따라 다녔다. 사근이는 유구장처에 들러 주막을 기웃거리며 아내의 모습을 그려 보이며 수소문을 해봤다. 그런데 장터 주막집의 주모가 아내와 비슷한 여인이 소도독놈처럼 생긴 사내와 청주를 거쳐 충주로 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주모의 말을 들은 그는 이제 아내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막을 나와서 소금 가마니를 지고 장터에 나가서 소금을 모두 판 다음, 청주쪽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공주를 지나 동촌쪽으로 구부러졌을 때부터 아들이 앓기 시작했다. 아들의 얼굴은 열에 달아서 발갱게 타올랐으며, 입술이 마르는지 물만 찾는 것이다. 그가 아들을 지게에 엮고 용호리까지 왔을 때는 해가 기운 밤이었다. 열이 펄펄 끓던 아들

은 밤새 신음하다가 아침에 싸늘하게 죽어갔다. 나루터 움막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그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가 언제 오느냐고 묻곤 하던 아들이 숨을 거두자 그는 분노에 타올랐으며 아내를 꼬셔서 데리고 도망간 그 놈을 잡기만 하면 돌로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길로 청주쪽으로 향했다. 그는 청주를 거쳐 충주까지 수소문하면서 계속하여 걸었다. 충주 주막에서 소문으로 아내가 그 새서방과 다시 청주쪽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청주로 소금을 팔며 돌아오고 있었다. 자연 장사를 하다보면 마을에도 들러야 하고 시일이 오래 걸렸다. 지금의 증평쯤에서 소금을 모두 팔아 치우고서, 빈지계를 지고 청주 성문을 들어서다가 아내하고 딱 마주쳤다. 그는 도망가려는 아내를 지게 작대기로 힘껏 후려치고는 그 삼장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아내는 별별떨면서 다리 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가리키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뛰었다. 그가 다리밑에 이르자 한쪽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그놈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돌을 번쩍 들었다. 뒤따라온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돌을 누워있는 새서방 얼굴에 전통으로 내려 치고, 비명소리를 들으며 강쪽으로 올라선 사근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서 못가겠다는 아내를 재촉해서 용호리 성황당 고개에 도착한 그는, 아내에게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절을 하라고 소리쳤다. 누구 무덤인지 알고나 절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묻는 아내를 발로 걷어 차며 그건 알아 무엇하겠느냐고 했다. 아내가 어떨떨하게 절을 두 번 하고 일어나서 다시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는 비수를 꺼내어 아내를 찔러 죽이고, 자기도 그 칼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가 가출함으로써 비극이 싹텄던 사근네 집은 이렇게해서 비극으로 끝났다. 그들의 시체는 소금장수들이 의논 끝에, 사근이는 아들의 무덤이 보이는 위쪽으로 묻었으나 아내의 시체는 그녀의 행실이 나쁘다하여 용호

리 강물에 돌로 묶어 던져 버렸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 위를 소금장수들이 돌로 덮었다.

그후 소금 장수들은 용호리 나무에서 소금을 받아 지게에 지고 여기까지 와서 숨을 돌릴 때는, 언제나 돌을 주워 그 아기의 무덤에 던졌다. 이 습관은 십년이 지나고 백년이 지나도 계속되어 그 후부터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도 돌을 그 무덤에 던져야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기의 무덤은 돌로 수북히 쌓였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무덤에 쌓인 돌무덤을 보고 성황당이라고 불렀으며, 소원을 빌기 위해 때로는 성황제도 지내게 되었다 한다.

사찰(寺刹)

황용사(黃龍寺)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226번지

주지: 황법인(黃法印, 38), 속명: 황종주(黃宗周)

종파: 태고종

조치원에서 미처천을 건너 남쪽으로 동면에 들어 국정교과서를 지나 부강 못미처 서쪽으로 명학리 황우산 중턱에 있으며 1935년 현명(속명: 황작현 84년 73세 작고)스님이 창건했다.

창건당시 꿈에 소가 소나무에 매어있는 것이 선명하여 그곳을 찾아 여러 군데를 가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다가 이곳에 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동네 사람들에게 이곳 지명을 물으니 “와우터”라 하여 사찰을 건립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초막으로 대웅전과 요사체를 지었다가 1987년도 현 대웅전을 지으면서 전 대웅전을 관음전이라 했다.

현 주지스님은 창건주의 막내아들로서 스님 되기를 거부했지만 부친이 4남 1녀중 막내였고 스님 역시 4남 1녀중 막내인데 결국 부친의 뒤를 이어 사찰을 운영하게 됐다.

예전에 어느 지관이 지도를 하나 들고와서 왔다갔다 지형을 살피어서 창건주가 그를 만나 연유를 물으니 그는 이 근방에 명당이 있는데 그 지역을 찾지 못하겠다며 창건주에게 지도를 주면서 찾아보라 하고 떠났다.

어느날 현 주지가 사찰내의 나무 밑에 있는 돌을 파내니 처음에는 머리가 조그맣게 보이던 바위가 전체의 형체를 드러내니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었다.

서울에 있는 풍수지리학회가 찾아가 사찰 주변에 대하여 설명하니 “만산도”(전국의 명당 수록책)를 보여주면서 틀림없는 명당이라 하였다.

1991년도에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스리랑카에서 모셔왔다.

사찰뒤의 산을 황우산(黃牛山)이라 하는데 황희 선생의 자손이 낙향하여 400여년 가까이 대를 이어왔고 마을을 황우제라 부른다. 현재에도 황(黃)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황룡사라 지은 것은 마을에서 황(黃)자와 금강을 “용댕이”라 부르는데 “용”(龍)자를 써서 지었다고 한다.

현 사찰의 대웅전 가운데에 예전부터 우물이 있었는데 가뭄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우물을 모두 먹었다. 대웅전을 지으면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대웅전 좌측으로 빼내었다.

도솔사(兜率寺)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노송리 2구 212번지

법사: 송운(松雲), **속명:** 김천수(34세)

종파: 선학원 조계종

조치원에서 미호천 다리를 건너 동면 예양리 마을 어구에서 도솔사 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다.

도솔사는 1962년 5월에 이대덕화(李大德和) 보살이 창건했다.

창건 동기는 이곳에서 산 하나 넘어 동면 예양리에서 거주하는데 꿈에 현 장소가 보이고 소나무 두 그루에 학이 앉아 있었다.

다음날 이 곳에 와보니 꿈에 본 것과 똑같았다. 그러나 소나무 한 그루는 동네 사람이 베었고 또하나의 소나무를 베려하기에 보살님이 말려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베인 소나무 자리에는 잣나무를 심어냈다.

이곳을 풍수가들이 말하기를 호랑이가 앉아있는 형국이며 현 법당이 호랑이 입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창건주의 별명이 호랑이라 불렸으며 사찰 뒤의 산을 “아미산(阿彌山)”이라 하는데 아미산은 중국에 사찰이 가장 많은 산으로 불교의 성산이라 불리우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또한 “절골”이라 불리우며 예전에 큰 사찰이 있었다 한다. 일정때 경부 선철도 건설 공사중 마애석불이 출토됐는데 현재 지방 문화재 자료 제 43호로 지정되어 송용리에 모셔져 있다.

창건주가 77년 5월에 중간 법당을 건립했고, 78년에 범종, 79년에 사리탑, 83년도에 탑법당을 건립했다. 탑법당은 벽돌로 지어진 5층 탑이며 탑 내부에 대웅전을 만들어 인도 고유양식으로 지었다. 92년도에 미륵 부처님을 모셨으며 하단 8각기단에 연화가 2단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지구가 탁세(흐린세상)에서 정토(맑은세상)로 변해야 된다는 뜻을 지닌 형상이며

기울어진 지구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반듯하게 세운 것이다.

현 법사님은 1987년도에 중국 불광사에서 불도를 닦고 돌아와 모친 따라 이곳에 왔다고 한다. 1992년 10월 (76세)에 창건주 이대덕화 보살님이 타계 하면서 아들인 김천수 법사가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화봉사(花奉寺)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3구 355번지

보살: 김 분 예(67)

종파: 태고종

연기군 동면과 충북 부용면 경계인 백천교를 건너 동쪽으로 약 1km 가면 정미소가 있다. 정미소 북쪽으로 두갈래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오르면 화봉사(花奉寺)중턱에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화봉사(花奉寺)는 100여년 전에 충북 산수리에 사는 전씨(현 63세)의 할아버지가 창건하였다. 창건주가 열반하시고 이어 며느리가 사찰을 운영하다 현 보살님께서서 인수했는데 1964년도이다.

현 보살님은 천안 광덕사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다가 어느날 꿈에 묘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맞추는 꿈을 꾸고 보는 이들이 실성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혼자 중얼거렸는데神通하게 잘 맞추었다.

후에 보살들의 수선으로 개비정(도깨비 들러 읽는 정)을 하는데 법사 셋이 와서 굿을 시작했다. 굿을 하는 도중 김분예 보살이 들고 있던 신장대로 굿하는 법사를 때리고 굿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 신장대를 들고 산에 올랐는데 온몸에 감전이 된 것처럼 전율을 느끼면서 정식 보살이 됐다.

보살님이 이곳에 와보니 사찰이 초라하여 정비하는데 사찰 입구에 세워놓은 미륵님이 나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창건주가 손수 깎은 미륵불이라 하고 박정희 대통령시 무허가 사찰 철거시에 철거당했는데 다시 현 위치에 묘사체를 짓고 부처님을 모셨다.

1987년 홍수로 집이 무너져 다시 증축한 것이 현 상태이다.

청봉사(靑蜂寺)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 2구 242번지

주지: 정 후 영(鄭厚英) 법명: 청강(靑降, 33)

종파 : 삼논종

명학 2구의 마을내에 사찰이 있다. 청봉사는 1970년 9월에 정정화(鄭丁和, 55세, 법명: 묘연심)보살이 창건했다.

정정화 보살은 강내면 태성리에 살다 20세에 이곳으로 시집 왔으며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느날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곳을 하여도 낳지 않았다. 그러다 교회에 나가면서 몸이 좋아졌는데 살기가 급급하여 광주리에 생선, 과일, 떡 등을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다. 그러다 남편이 또 갑자기 원인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됐고 남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계룡산 신안사 위에 “금용암”에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되는날 새벽에 갑자기 말문이 열려 보살이 되었다.

그때 일주일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배우지 않은 불경이 술술 나왔으며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다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야단을 쳤다. 그때 시어머니께 야단을 맞고 갑자기 병어리가 되었다. 다시 광주리 장사를 다녔다. 장사를 떠나면 말문이 열려 짐을 치곤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결국 암자를 짓고 손님을 받았다.

그후 남편은 타계하고 시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시어 12년간을 정성스럽게 수청하여 효부상을 받기도 했다. 보살은 2남3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현 주지스님과 보살님의 둘째 딸과 혼인을 올려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 주지스님은 1976년 10월 3일에 인천 청룡사에서 수계를 받았으며 1982년도에 이곳에 왔다. 몸이 아파서 대학 시험을 쳐놓고 이곳에 와 백일기도를 하여 낳았다. 그후 보살님의 딸과 인연이 되어 1984년도에 식을 올렸으며 사찰은 “황우산” 아래에 위치한다.

용운사(龍雲寺)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 2구 산 8-4번지

보살: 이 정 희(82)

조치원에서 중봉리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난 포장된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우측으로 명학리가 나온다. 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금강이 보이고 강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면 산중턱에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1959년도에 이정희 보살이 창건했는데 창건당시 큰 동네에 살다 신이 내려 절을 지으려고 주위를 둘러 보는데 “딴박골”이라 불리우는 곳에 큰 바위가 두개있어 좋은 터로 여기고 지으려 했으니 산주인이 종산이라면서 만류하여 현재 위치에 터를 잡았는데 보살님 꿈에 “범이 세마리가 나타나 꼬리를 치더니 한마리는 남아있고 두마리는 산으로 사라졌다.”

이곳에 절을 지을 때 산림 보호가 심하여 나무를 때면 잡아간다하여 왕겨를 구해뒀다. 보살님의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으며 사찰 주변을 “황우” “큰골”이라 하여 앞산을 “질마산”이라 한다.

보살이 옥도 잘하고 큰소리를 잘내어 “옥쟁이” “소리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월성사(月晟寺)

주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 21-1번지

주지: 혜운(慧雲) **속명:** 이종원(56)

종파: 태고종

조치원에서 중봉리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판을 지나 연기와 충북 부강과의 경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건너 동쪽으로 포장 도로를 따라가다 비포장 도로로 올라가면 갈산리가 나온다. 갈산리 마을에서 남쪽으로 산길을 오르면 산중턱에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월상사는 1943년에 강월상(법명:月松)스님이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 사찰에서 산 정상으로 “화장암”이란 암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곳에 머무르다 암자 생활이 맞지않아 현 사찰터에다 움막을 짓고 불도를 닦았다.

움막을 짓고 기도를 하는데 목탁소리에 마을 사람이 감동하여 모여 들어 시주를 하였고 약 48여년간 움막생활을 했다.

그러다 신도가 늘어 사찰을 짓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산정상에 있던 “화장암”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철거당해 없어졌다. 사찰내에 “용궁”이라 위하는 우물이 있는데 물이 좋아서 비누칠을 하지 않아도 때가 잘 가시며 세수를 하면 피부가 매끄럽다.

또한 사찰 주변에 “도룡동”, “옛장수(곤충)”, “가재”가 많이 살고 있고 예전부터 동네사람이 우물 앞에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고 자식이 없는이는 아이를 갖게 해주는 신비한 우물로 전해온다.

사찰 주변에 두 곳의 절터가 있는데 하나는 현 사찰 주변에 “가사절”이라 불리우는 곳으로서 옛 기와편이 나온다. 또한 사찰 밑에있는 갈산 마을을 “취미”라 부르는데 현 김형식씨(동면 갈산 4372번지, 전화 864-7288) 집터가 예전에 큰 절이 있었는데 절 이름이 “구룡산”이라 전해진다.

현재 김형식씨 트랙에 절에서 쓰던 큰 돌이 여러개 박혀있고 집 옆에는 고목이 있다.

사찰이 있는 산을 “복두산(福壽山)” 이라 하는데 “성재” 라고도 부르며 백제 시대에 성터로 전해온다. 마을 이름이 예전에는 “츨미” 라고 하였고 그것은 예전에 어느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 지형이 부처님이 계실 것 같은 형상이라 츨녕쿨을 따라 가보니 대들보로 쓸만한 츨녕쿨이 있어서 베어 사찰을 건립했는데 팔봉산 밑에 안심사가 그 사찰이라 한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독안산성” 이 있으며 백제시대 성으로서 백제와 신라의 경계지역이다. 마을 넘어를 “노고봉” 이라 하고 독안산성 가기전에 토성이 있으며 “구리동” (송시열 동서지간인 유씨가 자리 잡았다는 곳) “구레울” “동국” “북바위” “치마바위” “깃대봉” “깃돌(칼가는 곳)” “투구봉” “작살” “역마바위” 천식자리(연병장-군대 훈련 시키던 곳) 이란 지명이 사찰 주위에 전해오며 동네 어른들의 구전에 의하면 북바위에서 북을 치고 역마바위에서 말을 바꿔탔다는 말이 있다.

창건주는 한지로 꽃이라든지 불교에서 쓰는 접어서 만드는 기술이 보통이 넘으며 안타까운 것은 전수자가 없다한다. 또한 바라춤도 잘추고 창건전으로부터 소장하던 오래된 탕화가 사찰내에 소장되어 있고 괘불이 소장되어 있다.

현 주지 스님은 93년 1월 10일 치악산에서 기도하다 조치원 보성당에 들러 사찰 이야기가 나와 이곳에 기거하게 됐다.

跋 文

『내 고향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지(地誌)로서 〈연기군 동면지〉를 엮어 보았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조금있는 능력조차 충분히 발휘할 여유가 없었다. 다만 5~6년 전에 옛날의 『연기지』 『연기읍지』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강행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동면의 선배님들과 후배들 그리고 벗들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비롯된 사업이었으니 성과 또한 그만한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한 점 또한 있는 듯 하니 내내 섭섭함을 금할 길 없다.

처음 내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3~4인의 공동집필자가 있을 줄 알았지만 끝내 그와같은 공동집필자를 만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서 집필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무엇보다 늙고 쇠약한 내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끝에 붙일 발문을 초하게 되었으니 감개 또한 무량한 바가 없을 수 없다.

물론 이 한 권의 조그만 책으로 수천년을 이어온 내 고향의 과거의 역사를 충분히 밝히고 그 문화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자부할 생각은 없지만 어찌 첫 숫자로 배부를 수 있을까만 미진한 것은 후일을 기하고 우선 내가 낳아 80평생을 살아온 동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현재로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범위에 한정하여 대체로 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적극적인 격려와 협력을 베풀어주신 송진빈 전 동면장과 김학현 현 동면장께 감사드리며 김직수, 이재만, 안순근, 김석교,

임광수, 김창호, 장좌진, 장래열, 채규석 등 면지발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장영 조치원문화원장과 성문경 사무국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발문의 끝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로 부기하고자 한다.

(1) 동면에 신학문을 전한 고 장성희선생의 일대기는 중요한 역사사실이 되지만 사료 제출이 늦어서 본문에 넣지 못하였으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2) <8.15 해방이후의 동면> 편에서 동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자료적인 것을 산만하게 늘어놓았을 뿐이니 섭섭한 일이지만 모든 것이 눈부시게 진행되는 역사적 변화 과정인만큼 우선은 어찌할 도리없는 일이라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다.

1996년 12월 20일

동면지발간위원회 위원장

梧下 金 在 鵬

편 집



〈편집위원회〉



〈현지조사〉

동 면 지

서기 1996년 12월 1일 인쇄

서기 1996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장 영**(조치원문화원장)

편집인 **김 재 봉**(추진위원장)

발행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조치원문화원

☎(0415)865-2411

인쇄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17-7

고려문화사

☎(0415)865-0892
